

향해 신속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이러한 이론과 그 것으로 계몽된 도움과 계획된 조직제도의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고의로 방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정치권력의 형태 아래서의 행동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현실의 복합체는 러시아 혁명의 발전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부터 한 페이지, 또한 페이지나의 저술을 받침 해주는 술한 실제 사례 — 수천 가지 가운데 선택한 — 가 될 것이다.

이제는 앞에서 이야기 한다른 논쟁점 — 제헌의회 — 에 대해 살펴보자.

혁명을 계속해 사회 혁명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아나키스트는 제헌의회의 소집의 어려운 유용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부르주아적이며 번잡하고 쓸모 없는 기관으로서 성격상 “사회투쟁의 바깥에” 있으며 위험한 타협의 수단에 의해 혁명을 정지시키고, 가능하다면 억압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제헌의회의 무용함을, 만일 그들이 진정 사회 혁명을 시작하고자 원한다면, 제헌의회를 딛고 넘어서 당장 사회적, 경제적 조직을 그에 대처해야 함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볼셰비키는 닳고 닳은 정치가였기에 솔직히 제헌의회를 포기하는 것을 망설였다 (앞서 본 것 같이 그것의 소집은 권력 장악이 전의 그들의 프로그램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며뭇 거림의 배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편, 볼셰비키는 권력의 주인이 되고자 할 속셈이었으나 혁명을 현재 단계에 “중단” 되는데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 예컨대 회의는 만약 볼셰비키가 다수를 점하거나 혹은 대의원이 그들의 지도와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볼셰비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대중이 회의에 대한 의논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대중에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볼셰비키는 권력 장악이 전의 공식을 철회하여 반역죄!라고 외치며 대중을 방해하려는 적에 대해 트럼프 카드를 내미는 모험을 감행 하리 만큼 스스로가 강력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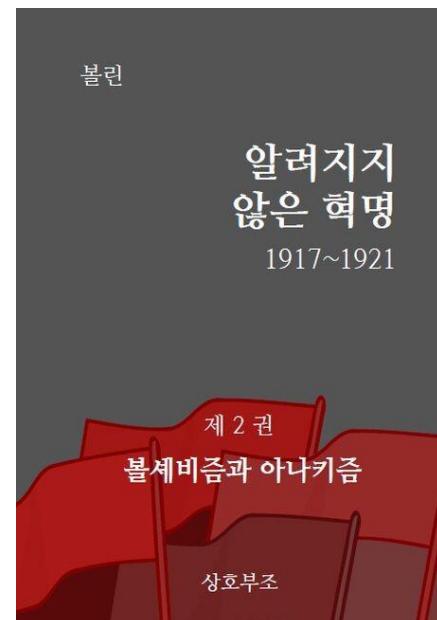
왜냐하면 대중은 전혀 억압되거나 복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의 정신은 전진적이고 그들의 감정은 매우 돌변하기 쉬웠으며, 케렌스키 정부의 예시가 아직 기억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제헌의회의 소집을 진행시키되, 한편으로 선거를 세세한 부분까지 감시하여 결과가 확실하게 볼셰비키 체제의 우세로 나타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가 만약 볼셰비키에게 친화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유순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략을 사용해 정부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회의가 볼셰비키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당의지도자는 대중의 반대 운동을 지켜보다가 기회를 엿봐 회의를 해산시키고자 했다. 확실히 승부

## 알려지지 않은 혁명 1917~1921

### 제 2 권: 볼셰비즘과 아나키즘

볼린



1947

# 차례

제 1 장. 혁명의두가지이론	4
제 1 부. 사회혁명에대한두가지반대이론	5
제 2 부. 볼셰비키이론의원인과결과	11
제 2 장. 10 월혁명에관하여	31
제 1 부. 10 월이전의볼셰비키와아나키스트	32
제 2 부. 10 월혁명에서아나키스트의입장	38
제 3 부. 기타불일치점들	39
제 4 부. 몇가지회상	42
제 3 장. 10 월이후	47
제 1 부. 권력을쥔볼셰비키 — 볼셰비키와아나키스트의차이	48
제 2 부. 치명적인내리막길	58
제 3 부. 아나키스트조직들	72
제 4 부. 러시아혁명에서의알려지지않은아나키스트출판물	74
제 5 부. 몇가지개인적인경험들	89

## 제 3 부. 기타불일치점들

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를분리하는커다란이론의차이에그치지않고 양자간에는또한세부사항의차이가존재했다. 가장커다란두가지대립적 불일치점은“노동자의생산관리”라는문제와제헌의회의문제였다.

볼셰비기는노동자의문제를처리하는데에이른바 노동자의생산관리 — 즉노동자를개인기업의경영에참여시킴 — 를책정함으로써문제를 해결하려는방향으로움직일준비를했다.

아나키스트는만약이“관리”라는두글자가사문死文에그치지않는다면, 그리고만약노동자의조직이유효한관리를행할수있다면, 아나키스트도또한모든생산을보증할수있으리라고이의를제기했다. 그런경우, 사적생산은신속히, 그러나점차, 배제되고집산적생산으로바뀔수있다. 그렇기에아나키스트는“생산관리”라는그런막연하고애매한슬로건을 거부했다. 그들은 집산적생산조직에의한사적산업의몰수 — 점진적인, 그러나즉각적인 — 를제창했다.

이점에있어서러시아혁명의과정에서아나키스트는“극히사소한적 극적사상을이론화하지도못하고”순전히“파괴”와“비판”的방법에만전념했다고비꼬는것은절대옳지않다고강조하고싶다 — 나는이점을힘주어단언해둔다. 왜냐하면아무것도모르면서그저맹신하고있는사람들에게이그릇된주장이현재상당히널리퍼져있기때문이다. 또한아나키스트는“스스로도사상을소유하고있지않아서그들스스로의개념적용에대한 명확한이론을충분하게발표하지도못했다”는평가역시거짓말이다. 당시러시아의아나키스트신문「골로스트루다」, 「아나키 Anarchy」, 「나밧 Nabat」등을주의깊게읽어본다면노동자조직의역할과기능, 그리고농민과공동으로노동자조직으로하여금파괴된자본주의적·국가주의적기구에대처하게하는행동의방법에대해서도명확하고합리적인해설이풍부하게제재되고있었다는것을발견하게될것이다.

아나키스트가러시아혁명때가지지못했던것은명확하고엄밀한이론이아니라, 앞서말한것과같이처음부터이러한이론을현실화할수있는 제도였다. 그리고그와같은제도의창설과기능에대해, 자신들의계획수행을위해반대한것은볼셰비키였다.

명확하고정확한아나키스트이론은공식화되고있었다. 대중은그것을이해하고혁명가, 지식인, 전문가의도움을얻어언제라도참된목적을

## 제 2 부. 10 월혁명에서아나키스트의입장

같은날,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프로파간다연맹》은 「골로스트루다」에 정치권력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상황을 두개의 간결한 단락으로 요약했다.

“1. 우리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볼셰비키당이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정세 추이의 필요에 의해 제시한 그것과는 완전히다른 의미이다. 우리는 정치 활동으로써, 다시 말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혁명이 확대된다는 전망을 믿지 않으며, 우리는 정치 적 목표를 위한 당의 통제 하에 있는 어떠한 활동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회 혁명의 시작에 대해서나 또 그것에 이어지는 발전에 대해서나 다같이 전혀 다른 길을 지향한다고 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현재의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만일 대중에 의해 기획된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아나키스트로서 가장 위대한, 가능한 모든 에너지로 그것에 함께 할 것이다. 설혹 대중이 우리의 경로나 호소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운동의 패배를 예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혁명적 대중과의 접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대중의 운동의 방향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미, 사상, 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한 운동에 항상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여긴다.”

제 4 장. 탄압	99
제 1 부. 준비	100
제 2 부. 실행	102
제 3 부. 무제한의 분노	104
제 4 부. 레프초르니와 파냐바론 의사례	109
제 5 부. 르페브르, 베르게아그리고 르페티 의사례	111
제 6 부. 개인적인 경험	113
제 7 부. 최종 합의	119
제 8 부. 진화 작업	121
제 9 부. 대표단의 기만	124
제 10 부. 볼셰비키식 “정의”	128
제 5 장. 볼셰비키 국가	133
제 1 부. 볼셰비키 국가의 본질	134
제 2 부. 노동자들의 상황	138
제 3 부. 농민들의 상황	145
제 4 부. 공무원들의 상황	152
제 5 부. 정치 구조	155
제 6 부. 전체적 상황	159
제 7 부. 성과들	162
제 8 부. 반 혁명	184

# 제 1 장. 혁명의두가지이론

다면 — 그렇게하면혁명의이새로운단계는최후의단계가되지는않을것이다.

「골로스트루다」는“이새로운권력”이사회주의건설을시작하려하지도, 이해하려하지도않을것이며대중의긴급한기본적수요나이익을만족시키려하지도않을것이라는것을조금도의심하지않는다고말했다. 그리고또대중이신속히그들의새로운우상에의미몽에서깨어나이새로운신들을부인한후에별개의해결로방향을바꿀것임에틀림없다는데이심을풀지않았다. 그로부터얼마동안사이를두고, 시기는분명치않으나반드시싸움이다시불타오를것이다. 이것은러시아혁명의제 3 의최후의단계— 실질적인대혁명의단계 — 의시작이될것이다.

기자는계속해말한다.

“이것은한편으로대중의창조적정신의생동하는노력과다른한편으로는자기를격렬히방위하려고하는중앙집권의정신을가진사회민주주의권력사이의투쟁이될것이다. 다시말하면, 직접자기스스로행동해정말새로운인간생활을완전히독립한형태로건설하기위해토지및생산·운송·분배의모든수단을손에넣으려하는한편의노동자및농민의조직과다른편의마르크스주의정치권력사이의투쟁, 즉권력형태와아나키스트형태사이의투쟁, 장기간에걸쳐서로앞서고자싸워온두가지이론, 마르크스주의이론과아나키스트이론의논쟁이다.”

나아가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기자는이렇게끝맺는다. **아나키스트이론** — 대중의자유롭고자연스러운자주적조직의이론 — **의완전하고확실한승리만이**대혁명의진정한승리를이루는것이라고.

그들은정치적과정을통한사회혁명의달성가능성을믿지않는다고선언했다. 그들은새로운모든건설사업과광대하고변화무쌍하며복잡한시국의문제가정상頂上, 즉중앙의권력장악에의한정치활동에의해서는성취될수없다고믿었다. “살아있는사람들을보게될것이다!”라고그들은예언했다.

괴적인작업을성취할것인가? 반란을일으킨사람들의창조적정신을위해 위대한사회건설의기반을완전히준비할수있을것인가? 소비에트의승리는 — 만약달성된다면 — 그리고이를따르는‘권력의조직’은노동의승리, 노동자의조직된힘의승리를의미하며, 진정한사회주의건설의시작을의미하는가?

이승리와이새로운‘권력’이혁명스스로발견한교착상태에서벗어나 혁명을이끄는데성공할수있는가? 그들은혁명, 대중, 모두를위한새롭고창조적인지평을열수있는가? 그들은혁명이건설적인작업으로향하는 진정한진로를지적하며, 그시대의모든불타는질문에대한효과적인해결책을지적할수있는가?”

아나키즘적조합주의기관지는정복자들이 권력이라는단어와 권력의조직에대해그들이어떻게생각하고해석했는지가문제라고주장했다. 그것은또한그승리이후권력을쥐고있는분자들에의해승리가어떻게이용되었는가하는데에도달려있을것이다.

「골로스트루다」의기자들은볼셰비키가정당하고공정하게사태를다루는방식에불가결한몇가지상황을노골적으로적고있다. 예컨대어떤요인이존재하고있다면이새로운위기가최후의위기가되고, 이새로운위기가새로운시대의시작을의미할수있었을것이라고그들은단언했다. 이들 의요인은다섯가지예시로표현되었다.

“만일‘권력’이라는말에의해국내의모든창조적인사업이나조직화의 활동에무장할대중에의해지지받은 노동자와농민의조직의손에쥐어진다는것이라고주장하기를사람들이바란다면.

만일‘권력’이라는말에의해활동을수행하고이목적을위해연합하는 — 이리하여혁명을평화로운경제적평등의, 정말자유롭고새로운세계로이끌어가는새로운경제적·사회적건설이시작되는것이지만 — 이러한조직화의완전한권리를의미한다면.

만일‘모든권력을소비에트로’라는말이정치권력의로비에앉는것을 의미하지않는다면.

만일권력을갈망하고있는정당이… 승리후에해산하고, 마침내노동자의자유로운자치정부에유효하게넘어간다면.

만일‘모든권력을소비에트로’라는것이현실적으로새로운정당의국가적권력이되지않는다면.”

그런데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는이렇게생각한다. 만약“권력”이실제로볼셰비키당의권위적, 정치적로비, 그주요한관료의정치중앙(당과국가의중앙권력)에의해지도되는로비를의미한다면, 또만약“소비에트에의한권력장악”이현실적으로새로운정당에의한권력탈취를의미하고, 정당의힘을구사해위로부터, 그“중앙”에의해, 나라의경제사회생활을재건하고, 이렇게해서현시점의복잡한여러문제를해결하려고시도한

## 제 1 부. 사회혁명에대한두가지반대이론

이책에서우리가해야할주요한일은러시아혁명에관하여알려져있지 않은, 또는거의알려져있지않은것을될수있는대로조사하고명확히하는 데있다.

먼저서유럽에서는, 무시되지는않는다고할지라도단지피상적으로 밖에고려되지않은하나의사실을강조하고싶다. 그것은 1917년 10월 에이혁명이전혀새로운양상 — 사회대혁명의양상 — 을취했다는것이다. 이리하여혁명은이전에없던전혀특별한길로진행되었다.

그에잇따라혁명에필연적인발전이한결같이새로운독자적성격을보여주게되었다. 우리의기술記述은 10월반란에대한기존의역사와는전혀상이한것이될것이다. 그일반적표현도, 거론하는요인도, 용어까지도 달리서지금까지보지못한다른국면을제시할것이다.

별로잘알려져있지도않고, 많은독자에게의외로들릴또하나의사실을말하고자한다. 1917년의혁명에이르기까지서로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위기와실패가잇단동안에볼셰비즘만이사회혁명을어떻게성취할것인가에대한유일한이론은아니었다. 정치적, 권위적, 국가주의적, 중앙집권적성격에있어서볼셰비즘과비슷한《사회주의혁명당》좌파의노선이라든지또는몇개의다른그비슷한작은정파에대해서는말하지않더라도, 또하나의근본원리도마찬가지로완전무결한사회혁명을목표로혁명적그룹또는노동대중속에이룩되어나가고있었는데, 이것이바로아나키즘이었다.

아나키즘의영향력은맨처음에는극히미약했으나사건이대규모로확대됨에따라증대해갔다. 1918년말까지아나키스트의영향력은어떠한 비판적세력도, 반대도반박도허락하지않는볼셰비키가상당히불안을느낄만큼강력해졌다. 1919년말에서 1921년말까지볼셰비키는이아나키즘의발전에대하여가혹한싸움을계속할수밖에없었다. 그것은대충헤아려보아도반혁명에대한싸움과같은정도로오래계속된격렬한싸움이었다.

이점에서, 역시잘알려져있지않은또다른사실을언급해두겠다. 권력을잡은볼셰비키는사상면에서나실제면에서의경험에바탕을두지않고

서, 또한 솔직하고 정직한 싸움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서, 반혁명군에게 사용한 것과 똑같은 억압적 방법, 즉 폭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아나키스트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Anarcho-Syndicalist 의사상과 운동에도 전해왔다. 그것은 아나키스트 조직의 본부를 폭력으로 폐쇄하고 아나키스트의 활동과 프로파간다를 모두 금지하는데서 비롯했다. 아나키스트의 소리를 대중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고 아나키스트의 계획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이 세력을 얻게 된 때, 볼셰비키는 재빨리 한 층 더 폭력적인 방법, 즉 투옥, 체포, 사형이라는 수단에 호소했다. 그 이후 이들의 두 정파 — 한편은 권력을 잡고 있고 다른 편은 권력에 대항하는 — 사이에 균형을 잊은 싸움이 확대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내전으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전쟁 상태가 2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볼셰비키는 아나키즘을 박멸하고 아나키즘에 고무된 대중의 운동을 일소하기 위해 전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회 혁명에 있어서의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충돌, 그것은 동시에 볼셰비키 권력과 노동 대중의 운동 사이의 충돌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1919년에서 1921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외를 빼놓고 극우에서 극좌까지의 모든 작가는 — 자유의지주의적 문헌은 예외지만 — 이 사실을 묵과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밝혀서 사소한 일에 걸쳐서 멀히 제출하여 독자주의를 그곳에 쏠리게 할 의무가 있다.

이 일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이 생긴다.

1. 10월 혁명 전에 볼셰비키가 인민 투표의 압도적 다수를 획득했는 데도 아나키스트 사상이 갑자기 눈부신 발전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2. 볼셰비키와의 관계에 있어 아나키스트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엄밀히 말해서 또, 볼셰비키가 아나키스트 의사상 운동에 대하여 싸움 — 폭력적 싸움 — 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데는 볼셰비즘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순위 운방법이 될 것이다.

행동에 관해 두 개의 상반하는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두 개의 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제각각의 가치를 평가하고, 두 진영 사이의 전쟁 상태의 원인을 캐고, 마침내는 1917년 10월 혁명에서의 볼셰비키의 권력 탈취 후의 혁명의 고동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이론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보자.

볼셰비키 사상은 부르주아 국가가 무너진 터전에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세우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아나키스트 사상은 정치적 국가나 정부, 또는 어떠한 종류의 독재 체제에도 의존하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를 변혁하려고 해왔고 지금

분히 강했기 때문에, 볼셰비키는 그점을 고려해 얼마간 정부에 그들의 자리 를 제공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소비에트의 문제에 입각해 10월 혁명 전 볼셰비키의 입장과 아나키스트의 입장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볼셰비키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모든 권리”를 요구하고 있던 소비에트의 봉기를 통해 혁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고,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행동을 지지하는 군대의 봉기 (당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지도 하에서의 모든 과정)을 통해 혁명을 달성하기를 기대했다. 노동 대중은 이 행동을 적극 지지할 의무가 있었다. 볼셰비키는 그들의 견해와 “전술”에 완벽하게 일치 단결해 혁명의 일반적인 구호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를 시작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이 구호를 의심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그 공식이 볼셰비키 당의 실제 계획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분석에서 볼셰비키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힘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중앙 위원회와 궁극적으로지도자 련을 위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트로츠키의 도움을 받아, 권력 장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말은 아나키스트에 따르면 사실상 빙공식에 불과하고, 나중에 어떤 종류의 내용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공식이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들은 “권력”이 정말로 소비에트에 속해야 한다면 그 것은 볼셰비키 당에 속할 수 없으며, 볼셰비키가 상상한 것처럼 권력이 볼셰비키 당에 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아나키스트들은 소비에트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특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식을 유보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의심스럽고, 비논리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매우 제한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서가 아니면 실제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권력 — 진짜 권력 —은 소비에트에 속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실제로는 당의 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공식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 주제와 관련된 논평과 의구심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에 의해 주간지 「골로스 트루다 Golos Truda」에 게재된 <이것이다인가? Is This the End?><sup>1</sup>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표출되었는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향하게 하는 공식, 오히려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는 공식의 궁극적인 실현이 끝인가? 이것이 다인가? 이 행위가 혁명의 파

<sup>1</sup> 페트로그라드, 1917년 10월 20일.

**즉각적인 평화에 대한 요구에 의각각의 해석도 눈에 띠게 달랐다.**

아나키스트들에게 그 구호는 지배자, 정치인, 그리고 장군들에 대한 무장한 대중들 스스로의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아나키스트에 따르면, 그 대중들은 전선을 떠나고 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며, 자본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어리석음을 거부하고 파렴치한 학살자에 대한 혐오감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나키스트는 이러한 솔직하고 종합적이며 결정적인 행위는 다른 나라의 병사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은 분석에서 전쟁의 종식까지, 아마도 세계 혁명으로의 변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러시아의 광대함을 이용하여 적을 끌어들여 그들을 기지로부터 차단하고, 그 군세를 붕괴시키고, 적군 병사들을 싸움 바깥으로 이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그러한 직접적인 행동을 두려워 했다.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은 정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평화, 즉 독일 장군들과 “전권대사”들과의 논의 하여 결실을 맺기를 원했다.

농민에게 토지를! 노동자에게 공장을! 이 말을 통해 아나키스트는 누군가의 소유권 없이 땅을 (누구도 착취하지 않고) 경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협회나 조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장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이해했다. 작업, 광산, 기계 등도 역시 모든 노동자의 생산적 협회와 조합에 위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과 세부 사항은 이러한 협회나 조합의 자유로운 운동의에 의해 규정될 것이었다.

그러나 볼셰비키에게 이 같은 슬로건은 이 모든 요소의 **국유화**를 의미했다. 그들에게 토지, 작업장, 공장, 광산, 기계 및 운송 수단은 **국가의 소유물**이고 국가가 노동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모든 구호를 직관적으로 자유의지 주의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나키즘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많은 대중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볼셰비키만이 과감히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원칙을 선포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볼셰비키당은 매일 같이 거리에서도 시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유일한 당**이라느니, 일단 권력을 잡는 날이면 사회 혁명을 달성할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당이라느니 선전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노동자, 농민 여러분! 볼셰비키당은 당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모릅니다. 노동자, 농민 여러분! 볼셰비키당은 당신 스스로의 정당입니다. 이것은 진정 당신의 유일한 정당입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볼셰비키 프로파간다의 이돌림 노래는 마침내 강박 관념이 되었다. 작은 아나키스트 그룹보다는 훨씬 강력했던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 조차 볼셰비키와 경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는 충

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요컨대 혁명을 성취하여 최후의 자본주의 정부가 전복 한 후에 정치적, 국가적 수단을 쓰지 않고서 **노동자 자신의 공동 조직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볼셰비키 사상은 정부와 그 대리인의 도움, “중앙”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라 국가의 생활을 조직하는 특정한 정치권력을 상상했다.

아나키스트 가품은 사상은 정치적, 국가적 조직을 완전히 포기하고자 하고 있었다. 즉 경제, 사회, 산업, 기타의 기관 (조합, 공동 조합, 각종 단체 등)의 직접 연합적인 연맹과 합작을 이용하고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이를 행한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에서 주위로 명령을 내리는 중앙 집권적, 정치적, 국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와 참다운 이익에 바탕을 두어 주위에서 중앙으로 명령을 내리는 경제적, 기술적인 중앙 집권이다. 그 중앙 집권은 지배도 명령도 없이 구체적 필요에 따라 논리적,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아나키스트는 “파괴의” 방법밖에 모르며, 특히 “좌파”들에게 긴급한 임무가 맡겨질 때, 아무런 적극적인 건설적 사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따위의 비난이 얼마나 더 무니 없는 — 혹은 편견에 가득 찬 — 것인지를 명심해 두어야 만한다. 가장 왼쪽에 있는 모든 정당과 아나키스트 사이의 논쟁은 언제나 부르주아 국가 파괴 후에 성취해야 할 적극적·건설적 작업에 대해서였다 (그 문제만은 누구에게나 일치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국가주의적으로 할 것인가. 중앙 집권적으로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할 것인가. 연합적으로 할 것인가. 비정치적으로 할 것인가. 순전히 사회적으로 할 것인가. 각정파 간 논쟁의 테마는 언제나 나이와 같은 것이다. 이는 곧 미래의 건설이라는 것이 언제나 아나키스트의 마음 속에서 잠시도 떠난 일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당파의 논제인 정치적, 중앙 집권적, **과도기적** 정부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반대하고 있다. 급속히 곧바로 경제적 연합 공동체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모든 정당은 수세기의 시대와 과거의 제도로부터 이어받은 사회 구조 위에서 서토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표본이 건설적 사상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나키스트는 새로운 건설에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믿고 그러한 방법을 추진했다. 그들의 이론이 옳든 그れ든 간에 아나키스트는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항상 미래의 건설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정당들의 테제, 정치적, 중앙 집중적, “과도기적” 국가에 대해 반대했다. 대신 그들은 점진적인, 그러나 즉각적인 경제 및 연방 공동체로의 이행을 이야기했다. 정당들은 수세기 동안 과거의 정권이 남긴 사회 구조에 대한 찬동을 바탕으로 그것이 건설적인 사상과 양립할 수 있는 척했다. 아나키스트는 처음부터 새로운 건설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러한

방법을 추천했다. 그들의 테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더라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엄밀히 건설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다.

자유의지주의에는 조직론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잘못 — 또는 고의로 부정하게 — 쓰이기 일쑤다. 이보다 진실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말은 없다. 조직이냐 반조직이냐가 아니라 두 가지 전혀 다른 조직론이 문제인 것이다.

모든 혁명은 어쨌든 자연발생적으로, 다소 혼란한 무질서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물론 자유의지주의자들도 만약 혁명이 그 초기 단계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실패하리라는 것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기동력에 계속 해골 바로 조직론이, 다른 모든 인간 활동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 가제가 된다. 어떤 방법과 기반으로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정파는 중앙의지도 그룹 — “엘리트 그룹” — 이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이끌어 집단 전체에 그의사를 강제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룹의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대중에게 명령하고, 강제와 폭력으로 준법을 강요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제거하기 조차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반대자인 아나키스트는 그와 같은 사상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류 발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결국 무익할 뿐 더러 성취해야 할 사업에 대해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나키스트는 사회의 조직화는 당연히 성취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조직은 그 밑바닥으로부터 자주로 이사회적으로 확실히 세워져야만 한다. 조직론은 나아가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강제하려고 하는 중앙으로부터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정 반대로 사회의 모든 구석 구석으로부터 생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은, 모든 개개의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게 구성된 중앙부를 완전히 대등한 것으로 다룬다.

물론 조직하는 사람, 즉 조직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엘리트 — 이 개중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환경 아래서나 쓸모가 있는 모든 인간이 자유로 공동의 사업에 **지휘자**로서 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자**로서 참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본보기를 특별히 만들고, 그룹을 만들거나 협동하거나 양심과 자주성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지배하거나 복종시키거나 압박하거나 하지 않고 온갖 능력과 재능을 제공한다. 그러한 개인이 **참다운 조직가**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풍부한 발전성을 지닌 충실히 참된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조직은 무리가 없고 인간적이면서 실제로 급진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억압과 착취라는 구시대 사회의 것을 모방하고, 따라서 그 두 목표

전쟁을 포기하라! 즉각적인 평화를!

그리고 특히

농민에게 토지를!

노동자에게 공장을!

노동대중들은 그들의 진정한 열망을 완벽하게 표현한 이들한 구호들을 재빨리 손에 쥐었다.

노동대중은 그들이 진정 갈망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표현한 이들의 구호에 곧바로 매혹되었다. 아나키스트의 입과 펜으로 표현된 이들의 구호는 성실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원칙에 충실하고 그러한 원칙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셰비키에게 있어서는 이동 일한 구호가 아나키스트의 그것과는 애당초 다른 이론적 해결을 의미했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사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볼셰비키에게 있어 그 것은 고작 구호에 불과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사회혁명은 아나키스트에게 **진정한 사회적 행위**, 즉 모든 정치적, 국가주의적 조직과 모든 구舊 사회제도 — 정부나 관료 — 의 바깥에서 행해지는 변혁을 의미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전능한 국가, 전능한 정부, 독재 권력을 가진 국가의 도움으로 혁명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아나키스트는 만약 혁명이 국가, 정부, 정치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혁명이 아니라 단지 정치 혁명 — 물론 사회적 요소를 약간 포함한 정치 혁명 —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정부, “그들의” 국가의 권력과 조직화의 달성을 “공산주의자”들은 사회혁명이라는 이름의 철자를 도둑질해 붙였다.

아나키스트에게 사회혁명은 **국가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고,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조직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의미했다.

볼셰비키에게 있어 사회혁명은 이와 반대로 부르주아 국가가 폐지된 후 **국가의 부활**을 의미했다. 즉,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했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를 통해 사회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볼셰비키는 국가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이렇게 쉽게 드러나듯이 근본적인 것이었다.

[나는 10월 혁명 당시 페트로그라드의 벽에 있는 커다란 포스터를 기억하는데, 그것은 트로츠키 (Lev Davidovich Trotsky)의 **권력의 조직**에 관한 강연을 발표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전형적이고 치명적인 오류”라고 동지들에게 말했다. “사회혁명의 문제에서는 권력의 조직이 아니라 혁명의 조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제 1 부. 10 월이전의 볼셰비키와 아나키스트

여기서 우리는 10 월 혁명 전의 볼셰비키와 아나키스트들 각각의 입장 을 몇 가지 사건에 소급해서 재검토하겠다.

혁명 직전, 볼셰비키의 위치는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레닌의 이데올로기와 그의 당의 입장이 1900년 이후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상기해 두어야 하겠다. 러시아 노동 대중이 일단 봉기하기 시작하자 거침 없이 발전해서 부르주아적 해결책으로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 — 부르주아지가 하나의 계급으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는 특히 — 을 안 레닌과 그의 당은 대중을 지도하기 위해, 대중의 선수를 쳐지 배할 계책으로,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혁명 적 프로그램을 공식화했다. 그들은 이제 엄밀히 사회주의적 혁명에 직면했다. 그들은 아나키스트의 슬로건인 자유의 지주의 적 혁명상 — 물론 근본적 한계점에 대해서는 외로하고 — 권력 탈취, 그리고 국가라는 문제에 마주쳤다.

레닌의 저서들, 특히 1914년 이후의 저서들을 읽었을 때, 나는 국가와 권력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사상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이 완전히 평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해, 인정, 예측의 이정체성은 이미 혁명의 진정한 원인에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다. 펜 끝에서 나입에서 나 행동에서 나 볼셰비키의 이 같은 모든 위대한 사상에는 진정한 생명도 미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저작이나 언행은 매혹적이고 좌파적이기는 했으나, 볼셰비키의 그 후의 행동이 그들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리라는 이유에서 그것은 중대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는 아나키스트 운동의 약세로 인해 대중들이 맹목적으로 볼셰비키를 따를 것이고, 반면에 볼셰비키는 필연적으로 대중을 속여 악행으로 오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들의 공표된 원칙을 왜곡하고 왜곡할 것이었으니 말이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볼셰비키당은 대중들의 정신을 축진하고 그들의 동정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나키스트들이 특히나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구호를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함께 출범시켰다.

사회 혁명 만세!

예 적응하는 다른 “조직”은 무균하고 불안정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의 어떠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저 구시대가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니 말이다.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에 속하며 모든 점에서 완고하므로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적 제도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순전히 새로운 기교와 새로운 기반과 새로운 폭력과 새로운 억압과 착취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 불가피하게 혁명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 그러한 조직이 사회 혁명의 원동력으로서 아무 것도 산출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과도기적 사회”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장차 성장해 가려고 하는 것의 씨앗이 적어도 몇 가지를 당연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권위적, 국가주의적 사회는 멀망한 사회 질서의 잔존 물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의 지주의 적이론에 따르면, 각종 계층, 조직, 공장 위원회, 협동 조합 등을 통해, 현실의 필요를 바탕으로 도처에서 혁명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 대중이다. 자유롭고 양심적인 그들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에 의해 온 땅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 “엘리트”에 관한 자유의 지주의자의 생각은, 그 역할이 노동 대중을 계몽하고 가르치고 필요 한 조언을 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도권을 잡도록 촉구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그들을 지원하는데 있다 — 하지만 정부와 같이 그들에게 명령하지는 않는다.

자유의 지주의자는 혁명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몇 백만이나 되는 남녀가 그들의 필요와 이익, 힘, 능력, 재능, 취미, 전문 지식과 이해력을 거기 집중하고 조화하고 자유롭게 양심적으로 협동하고 연합하는 작업에서 비로소 산출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유의 지주의자가 보기에도 그들의 경제적·기술적 사회 조직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에 의해, 또한 “엘리트”的 도움을 얻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자유롭게 조직된 군대의 보호 아래 노동 대중은 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고, 해야 할 모든 일을 신속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볼셰비키 이론은 이것의 정반대였다. 볼셰비키 이론에서 그것은 엘리트 — 그들의 엘리트 — 들에 의한 것으로, 즉 “노동자 정부”를 구성하고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회적 변화를 수행하고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대중은 이 엘리트 (엘리트들이 대중을 도와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믿음의 반대)를 충실히 맹목적이며 기계적으로 그들의 계획, 결정, 명령, 그리고 “규칙”을 수행함으로써 도와야 한다. 그리고 군대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으로 “엘리트”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두사상의 근본적 차이다. 이는 1917년 러시아의 대변동기에 있어 사회혁명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이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볼셰비키는 아나키스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하물며 그들의 이론이 대중에게 전파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인 반박할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진리를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재빨리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사칭해서, 아나키즘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자 폭력을 써서 자유의 지주의 운동에도 전해 이를 배격했다 — 이는 모든 지배자, 착취자,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1917년 10월에 두 가지 사상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점점 심각해져 어 떠한 타협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후 4년간 이충돌은 볼셰비키군대로 하여 금경계를 계울리 할 수 없게 했고, 혁명의 변동 중에 점점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마침내 러시아에서의 자유의 지주의 운동은 1921년 말에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마 이 사실과 그것이 가르쳐 준 교훈 때문에, 아나키즘 운동은 모든 정치적 박해에 의해 조심스럽게 압살되어 온 것이다.

## 제 2 장. 10 월 혁명에 관하여

1. 완전한해방으로스스로를직접이끌어가는 대중의참된혁명의길. 이길이취해졌더라면, 혁명의크나큰열광과결정적인결과가분명히“세계를뒤흔들고”있었을것이다. 아마도모든반동이그순간부터불가능했을것이다. 그리고사회운동간의온갖분쟁은기성사실의힘에의해예방되고제지되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러시아혁명에의해촉진된발효는아마도동일한결정적인결과를낳았을것이다.

2. 아직완수되지않은혁명의길. 이길을취했을경우, 역사는단지같은길의연장으로서전세계에번져나가는반동, 파탄(전쟁), 현존사회의전적인파괴로후퇴했다가마침내는대중자신에의한혁명이다시시작되어실제로그들의해방을수행하게될것이다.

원칙적으로이두가지길이가능했다. 그런데현존한모든요인은두번째길로의가능성을크게만들었다. 사실 1917년의혁명이걸어간것은두번째길이었다.

그러나첫번째길은다음에올혁명이취해야할길이다.

그리고지금, 우리의철학적삽입구는이것으로일단매듭짓고이같은문제의모든것을포함한여러사건으로돌아가겠다.

## 제 2 부. 볼셰비키이론의원인과결과

의히알려진것과같이, 1917년의러시아혁명에서승리를얻은것은정치주의적, 정부적, 국가적, 중앙집권주의의이론이었다.

이점에서, 그해그곳에서일어난사건을다루기전에밝혀둘필요가있는두가지예비적인문제가제기된다.

러시아혁명에서볼셰비즘이아나키즘에이긴근본적인이유는무엇이었는가. 그승리는어떻게평가되어야하는가.

이두그룹사이에있는숱한차이와아나키스트의조직이빈약했다는것만으로는아나키스트의실패를충분히설명할수없다. 발전과정에서그들의수는늘어나고있었으며, 조직도진보하고있었다. 폭력적탄압역시그것만으로는충분한이유가되지못한다. 아나키스트사상이제때대중을설득할수있었다면, 아나키즘운동에대하여함부로폭력은사용되지못했을것이다.

더욱이앞으로보게될패배의원인은아나키스트사상이나자유의지주의자들의태도에도책임을돌릴수없다. 그것은통제할수없는요인의복잡성에서기인하는불가피한것이었다.

그렇기에우리는아나키즘을격퇴한본질적원인을발견하기위해노력하도록하자. 그것들은많은요소에서이루어지고있다. 그것들을중요한순서대로열거해정확한가치를판단하고자한다.

### 1. 지식층및 대중의일반적정신상태

러시아에국한되는것은아니지만, 국가와정부는대중에게, 어느시대에나존재하는불가결의당연한역사적요소라고여겨지고있다. 국민은국가와정부가건전한기관을정말대표하고있는지어떤지따져물어보는일이없었다.<sup>1</sup> 그러한문제에는전혀생각이미치지도못했다. 혹은, 가령누

<sup>1</sup> 혼동을피하기위해몇가지정의를내리겠다. 나는국가 State라는용어를현재적이고구체적인의미로사용한다. 오랜역사적진화의끝에서습득한의미, 모든사람들이완벽하고균일하게받아들인의미다. 마침내, 정확히전체논란의대상이되는의미이다. 여기서국가는”기계적으로”중앙집권화되거나복잡한법률과강압적제도들에의해지원받는정치정부에의해지시되는, 응집된정치유기체를의미한다. 어떤부르주아, 사회주의, 그리고공산주의작가들과비평가들은국가는용어를광활하고일반적인의미로사용하며, 대규모로

군가가 그 문제를 공개해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은 처음부터, 때로는 마지막까지,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2. 국가주의에 대한 편견은 수천년에 걸친 발전과 개혁의 결과로 '제 2 의천성'처럼 마치 타고난 것처럼 되어버렸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문헌도 포함해서 아나키스트 문헌은 두세 가지 비밀 팜플릿이나 소책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거의 출판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경향은 한층 현저했던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진보적 청년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국가주의 형태의 사회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문헌을 읽고 있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와 반마르크스주의는 상호간에 또는 제각각의 동료 내에서 **국가는 여전히 전근대 사회의 명백한 기초**라는 논제를 토론했다.

조직된 모든 사회가 국가를 대표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로부터 어떤 새로운 사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수적으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 성과 없이 한 단어를 토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개념을 위해, 그들은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고, 반국가주의, 자유주의, 아나키즘의 이름으로 싸운다. 더욱이, 그들은 무의식적이든 고의적이든 국가와 사회라는 두 가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미래의 사회, 즉 진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그들은 (작가들과 비평가들) 이단하고 제한된 형태의 사회를 지정하는 용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에도 미래선한 사회를 "국가"라고 부른다면, 이는 논란의 대상인 그 용어와는 완전히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유지하는 것은 — 이미래 사회는 현재 국가라고 불리는 것과 양립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저자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용어의 두 가지 정의만을 인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국가 (그들이 사회와 혼동하는 것) 나자유로운 무질서한 집회, 그리고 개인과 개인집단 사이의 혼란스러운 투쟁들 중 하나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들은 세 번째 가능성을 생략하는데, 그것은 국가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도 아니고 개인의 무작위적인 집합도 아닌, 모든 종류의 협회와 연합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결합,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결합에 기반을 둔 사회이다. 그러므로, 한 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반통계학이 존재한다. 비합리적이고 결과적으로 쉽게 공격받는 한 가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상한제"에 근거한다고 한다. 누가 그런 부조리를 주창했는가. 논쟁을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발명품이 아닐까?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것인지,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조직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협회의 협동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나키즘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반국가주의의 후자의 이름에서이다. 정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가 나와야 한다. "조직, 관리, 지시, 기타 등을 하는 사람은 결코 배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대한 사회적 콤플렉스, 즉 "국가"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분이 좋든 싫든 간에 "정부"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단지 단어들에 대한 논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여기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정치국가의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정부는 별개의 것이다. 행정가, 조직가, 애니메이터, 또는 기술, 전문가 또는 기타 디렉터들의 조직, 협회, 연방 등의 조정된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니 말장난은 하지 말자. 정확하고 명확해지자. 대의 민주제에 기반한 정부가 기도하는 정치적 국가가 진실로 미래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가? 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거의 아나키스트다. 정치적 국가 등이 진정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서 이행 기적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아나키스트다.

관적 요소를 극복한 일련의 주관적 요인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있을 법하지도 않았던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1917년에 러시아의 동지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아나키즘이 이 혁명에서 볼 세비즘을 분쇄하는데는 '기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기적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해야 만하는 것이다."

이 말에 의해 나는 예기치 않은, 있을 법하지도 않은 주관적 요인의 역할만으로 볼 세비즘의 압도적인 객관적 중압을 밀어젖힐 수 있으리라고 말한 것이다. 주관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만일 일으켰으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 그 것은 **두 번 발생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첫 번째는 1921년 3월의 크론슈타트 반란이고, 두 번째는 1919~1921년에 걸친 우크라이나에서의 새로운 권력과 아나키스트 대중 사이에 행해진 냉엄한 전투과정이었다.

이처럼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의 객관적 불가피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다. 어떤 순간에도 순전히 인간적인 주관적 요인들이 개입하여 그러한 추상화들을 재정립 할 수 있다.

아나키스트의 신념은 볼 세비키의 사상에 못지 않게 견고하게 "과학적"으로 구축되어 존재하고 있다 (볼 세비키 사상도 혁명의 전후에는 반대파로부터 유토피아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장차 도래할 혁명의 과정에서 그 운명은 모든 종류의 객관적 및 주관적 요인의 극도로 복잡한 상호 작용에 달려 있다. 그리고 특히 주관적 요인은 다양하고 변화하기 쉽고 예측하기 어렵고 견 잡을 수 없는 것이다 — 그것은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결코 아님 하나의 행위이다.

이 점에 대한 끝 맷음으로 나는 파괴의 불충분이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서 볼 세비즘이 아나키즘에 승리한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을 거듭 말해둔다. 그것이 사실이고, 각종 다른 요인의 작용도 그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지 못했기에, 여기에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주관적 요인이 볼 세비즘의 승리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확실히,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라는 사악한 정치적 키메라를 사전에 신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나키즘 원칙의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고,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혁명이 시작될 때이 불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나키즘의 피할 수 없는 쇠락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각종 요인의 복잡한 작용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결말은 원인도 결과도은 폐해 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정치적, 권위주의적 사상, 국가주의적 사상은 혁명이 진행되는 중에 파괴되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아나키즘의 실천을 위한 자유로운 여지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1917년의 혁명은 그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가? 술한사상가가이문제를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여태껏알수가없다.

우리가완전히아는것만을말하자면, 주관적요인은인간의여러일들에중요한지위를차지한다 — 특히주관적요인들이어떤형태로건밀접한경우, 그것들은객관적요인의분명히“필연적”인결과를극복할수도있다는것이다.

널리알려진두드러진예를하나들어보겠다.

1914-1918년까지의전쟁에서독일은객관적으로프랑스를격파하도록되어있었다. 사실개전후 1개월남짓무렵, 독일군은프랑스의성벽아래밀어닥치고있었다. 싸움은번번이프랑스의패배였다. 프랑스가정복될뻔한것은 **거의필연이었다** (가령그렇게되었더라면사후에과학적방식으로이는 **역사적·객관적필연이었다**고말하기는용이했을것이다). 그런데이때일련의순전히주관적인도식이튀어나왔다. 그것들은서로연결해객관적요인의결과를분쇄하였다.

독일제국군의지휘를맡았던폰클루크 (Alexander von Kluck) 장군은그의군대의압도적우세를믿고승리에도취해있었으므로우익방면을충분히방어하는데에게을렸다 — 이것이첫번째순수한주관적요인이었다 (다른장군이있더라면, 혹은폰클루크라하더라도다른때였더라면좌익방면을방어하고있었을지도모른다).

파리의지휘관갈리에니 (Joseph Gallieni) 장군은폰클루크의이과실을보고, 조프르 (Joseph Jacques Césaire Joffre) 대원수에게, 사용할수있는모든세력, 즉그유명한파리수비대로방어되지않고있는측면에총공격을가할것을제안했다. 이것이두번째주관적상황이었다 — 왜냐하면그러한결정을내려그처럼책임이무거운위험을무릅쓰기에는갈리에니라하더라도다른때였더라면 — 그와같이판단하고결정하지않았을지도모르기때문이다.

조프르는갈리에니의계획을승인하고공격명령을내렸다. 이것이세번째주관적사실이었다 — 왜냐하면그제안을승인하는데는조프르의훌륭한의지와그외도덕적자질이필요했기때문이다. 설혹다른대원수가교만하고자신의권한을지키는데에만급급했던다면, 갈리에니에게이렇게대답했을지도모른다. “자네는파리의지휘관이다. 그러니자네자신의일에나몰두하면된다. 자네가맡은지역이외에대해서간섭하지말게.”

마지막으로, 갈리에니와조프르사이의의논은언제나프랑스측에일어난일에대해정보를샅샅이정보를파악하고있던독일의최고사령부로부터가로채이지않았다는이상한사실도프랑스를승리로이끌고전쟁의결정적인결과가된주관적요인들의사슬에추가되어야한다.

프랑스인은이승리를객관적으로있을수없는것으로보고있었기때문에그것을“마른의기적 the miracle of the Marne”이라고불렀다. 그러나그것은기적이아니었다. 그것은단지보통과는조금다른사례이자객

그때문에러시아의젊은세대는국가형태를취하지않은사회주의란미처상상하지도못했다. 가끔어쩌다두세가지예외도있었으나아나키즘은1917년의사건이일어나기까지그들에게알려지지않은채로있었다. 러시아의출판계뿐만아니라러시아의교육자도모두 — 어느시대나 — 국가주의적성격을띠고있었다.

3. 볼셰비키를포함한사회주의정파들이혁명초기에행동할준비가되어있는대규모무장단체 간부들을마음대로처리할수있었던것은위에서제시한이유때문이었다.

온전한사회주의정당당원들은이미그당시상당한수를헤아렸고, 멘셰비키와《사회주의혁명당》우파가성공한원인의하나가되었다. 볼셰비키의조직은당시그대부분이국외에있었다. 그러나이들의당원은벌써귀국하여곧장일을착수했다.

대규모로또한조직적인통제가취해진방식으로, 혁명초기부터러시아에서활동하고있던사회주의세력및볼셰비키세력과비교해아나키스트는영향을미치고있었다는하지만그수가불과몇사람되지않았다.

하지만인원수의문제만이아니었다. 아나키스트는정치적수단과목적을거부했으니당연히권력탈취를목표로인위적으로통제된정당을수립하지않았다. 그들은인원을선전과사회적활동을위해몇개의그룹으로나누었고, 나중에는자유로운규율을가진협회나연합조직을만들었다. 이와같은조직과행동방식은일시적이긴하지만그들을모든정당과의관계에서불리한입장에서개 만들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그들은좌절하거나하지않았다. 왜냐하면그들은대중이 — 사실의힘에의해, 또설득과교육계몽과선전에의해 — 그들사상의진가를이해하게되고, 그진가가실현될날을위해활동을계속했기때문이다.

내가외국에서러시아로돌아와 1917년 7월초에페트로그라드에도착했을때, 집회와학습모임을알리는볼셰비키의게시물이수도와교외의모든지역, 공회당, 그밖에사람들이모이는곳에더지더지나붙어있는것에놀란일이있었다. 나는아나키스트의게시물은단하나도보지못했다. 나는또볼셰비키당이페트로그라드와그밖에서널리일간지를내고, 그것이거의가는곳곳마다 — 특히공장이나관청이나군대에서 — 중요하고유력한중핵을만들고있다는것을알았다.

동시에나는수도에단하나의아나키스트신문도, 구두로라도이루어지는어떤아나키즘선전도없음을알고몹시실망했다. 겨우두세가지의극히초보적인아나키스트그룹이있기는했다. 그리고크론슈타트 Kronstadt에는약간영향력이있는소수의아나키스트가있었다. 하지만이들의‘조직’은아직거의알려지지않은사상을선전하기위해서도, 정력적인볼셰비키의활동과프로파간다에대항하기위해서도, 유효한선정을수행할만한힘을갖지못했다. 대혁명의 5개월간단하나의아나키스트신문도, 아나키스트의연설도러시아의수도에서는볼수없었다. 볼셰비

**키의거의끝을모를활동앞에서이꼴이었던것이다!** 이것이내가본그대로의기록이다.

여러가지곤란을극복하고간신히 8 월이되고서야대부분의동지로구성된작은《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연맹 Anarcho-Syndicalist Union》이페트로그라드에서「노동자의목소리 Golos Truda」라는주간지를내는데성공했다. 그러나구두로이루어지는선전에관해서는,그것을할수있는동지가페트로그라드에서너명정도밖에는없었다. 모스크바쪽이조금은나았다. 꽤큰연합조직에서벌써「아나키 Anarchy」라는아나키스트일간지가나오고있었다. 지방에서는아나키스트세력과선전은거론할것이못되었다.

이렇게빈약하고불리한상황이었는데도아나키스트가순식간에 — 거의모든곳에 — 상당한영향력을가지게되고, 볼셰비키로하여금무력으로아나키스트정벌에나서지않을수없게했다 — 몇몇지방에서는상당한기간에걸쳐서 — 는것은놀랄만한일이다. **아나키스트사상의이빠르고자발적인성공은매우중요한것이다.**

내가페트로그라드에도착해, 몇사람의동지가입장을물었을때, 나는이렇게말했다. “우리의지연은회복할길이없다. 흡사시속 150 킬로미터의속도로우리보다 100 킬로미터나앞서가고있는볼셰비키의기차를걸어서앞질러야만하는궁지에몰려있다. 우리는따라붙어야만할뿐아니라전속력으로매달리고기어올라그속에뛰어들어볼셰비키와격투끝에그들을끌어내리고기차를빼앗고, 더욱어려운일이기는하겠지만, 그것을대중의손에넘겨주고대중이그것을조종해나갈수있도록도와주어야만한다. 성공하기위해서는기적이필요하다. 우리의의무는그기적을믿고현실을위해일하는데있다.”

나는한가지를더덧붙이고싶은데, 그러한“기적”은혁명시기에적어도두번일어났다 — 첫번째는 1921 년 3 월의크론슈타트반란때였고두번째는《마흐노우슈치나 (Makhnovshchyna, махновщина)》라고불리는우크라이나에서의대중의전진운동이었다. 이두가지성과는,태만한또는편견에사로잡힌작가의책에서는묵살되고왜곡되어온발전운동이었다. 그것들은대체로일반에알려지지않았다.

4. 이제부터인용할혁명중의어떤사건은우리에게다음과같은것을보여준다. 그것은불리한상황과아나키스트조직의적은인원수에도불구하고, 가령러시아의대중이 혁명의아주초기에과거의경험이있는, 시험된, 대중자신의의지로행동해그사상을현실화하는데대비한계급조직을장악하고있었다고한다면, 아나키즘은뚜렷한죽적을나타낼수있었거나혹은승리를거두었을지도모른다. 그러나현실은전혀정반대였다. 노동자의조직은혁명과정에야비로소생겨났던것이다.

확실히그들은급속하게수적으로도대규모로발전했다. 전국토가순식간에조합, 공장위원회, 소비에트등의광대한그물로뒤덮였다. 하지만

(b) 노동대중이노예노동에서자유노동으로옮겨가기위해서는혁명당초부터완전히자유로, 자주적으로혁명을스스로의손으로추진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조건아래비로소그들은역사에의해현재요구되고있는임무 — 해방된노동을바탕으로한사회의건설 — 에구체적으로곧장착수할수있는것이다.

대중스스로에의해행해지지않는모든현대의혁명은역사적으로제시되고있는결과를가져오지못할것이다. 그러므로그러한혁명은급진적이지도않고“정당하지도않고”타락하고참된길을벗어나마침내는길을잃고말것이다. 노동대중은새로운주인또는지도자에이끌려다시한번모든주도권과본질적으로자유로운책임있는활동에서격리되어, 지난날처럼고답적인태도로나오는이런저런“장장”이나“지도자”에게순종하도록강제되어, 예전그대로의“복종”의습관으로되돌아가얌전히길들여진“부정형不定形의양의무리”가될것이다. 그래서참된혁명은좀처럼달성되지않을것이다.

#### 7. 물론다음과같은반론이제기될지도모르겠다.

“어떤점에대해서는당신이옳다고가정하자. 당신의의견으로는예비적파괴가불충분했다고하지만, 아나키즘의의미에서의 전면적혁명은객관적으로불가능했다는것은여전히진실이다. 때문에, 현실상발생한일은적어도역사적으로필연적이었던것이다. 아나키즘은유토피아적인꿈에불과했다. 그공상적이상주의 utopianism 가모든혁명을위기에빠뜨렸다고할수있겠다. 볼셰비기는이사실을알고서그때문에행동했던것이다. 이것이볼셰비키의정당성이다.”

독자는내가언제나반드시“거의필연적”이라는말을쓰고있다는것을떠올렸을것이다. 나는신중하게“거의”라는말을사용하고있다. 내표현방식에있어이말은특별한중요성을지니고있다.

원칙적으로일반적인객관적요인이다른모든것보다중요하다는것은당연하다. 표면적으로는우리는예비적파괴의부족 — 그리고정치적원리의잔존 — 이객관적으로볼셰비즘의권력획득을유도한것이라고본다. 그런데인간의세계에있어서“요인”的문제는매우미묘한문제다. 객관적요인이절대적은아니지만, 어느정도까지그것을지배하고, 주관적요인이중요한역할을연출한다.

이역할이란정확히무엇을뜻하며또어느정도까지그것은중요성을지니는것일까? 우리는알수없다. 인간의과학의초보단계에서는우리가두가지역할을엄밀히구분할수없다. 게다가이두가지요인은무한히변동하는것이기에그구분은한층더어려운일이다. (이문제는주체성의문제이다.) 어떤방식으로, 또한어느점까지, “결정성”은인간의“자유의지”에영향을미치는가? 반대로, 어떤의미에서, 또한어느정도로“자유의지”는존재하는가? 그리고어떻게해서그것은“결정성”的지배를벗어나는것인

혁명을계속시키거나혁명을최종적으로성공시키거나하는데대해전혀  
불필요하다는말이된다.

2. 하나의중요한사실 — 상세히는나중에언급하겠지만 — 에의해  
이명제는한결확실한것이될것이다. 혁명의과정에있어서, 많은러시아  
인이 그들의오류를인식했다. (정치주의가사라지기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을바로잡고자했고, 자신들스스로행동하려했고, 권력을잡은당당  
의자신만만하고무력한지도를배제하려고했다. 그런데볼셰비키는참다  
운혁명가라면당연히그래야했을것임에도불구하고이를반기지않고, 그  
들을격려하지않았으며, 그목적에따라돕지않고, 유례없는기만과폭력  
과온갖군사적테러행위로대중의그러한경향에반대했다. 혁명적대중은  
자신들의잘못을발견하자자신들스스로행동하기를원했고, 또한그렇게  
할능력이있다고느꼈다. 볼셰비키는그와같은그들의정신을무력으로박  
살냈다.

3. 때문에, 볼셰비키가“혁명을최대한으로추진하지”않았음은당연  
하다. 모든힘과기회를이용해권력을탈취하자마자, 그들은오히려혁명  
을억압했다. 이어서그들은자본가의재산을빼앗고, 혁명을지키기위한  
인민의무서운싸움뒤에, 혁명을그들자신에게유리한것으로만들고, 자  
본주의의대중착취를다른형태로변환하는데성공했다. (사람들이자유  
로운조건아래노동하고있지않은곳이면어디서든, 이체제는비록형태는  
다를지라도반드시자본주의적이다.)

4. 이렇게하여그것은 1917년의러시아혁명에서의자유사상에대한  
볼셰비즘의승리를어떤식으로정당화하느냐하는문제가아니라그역사  
적설명에불과하다는것은명료하다.

5. 따라서볼셰비즘의진정한“역사적의미”는순수하게부정적인것이  
다. 그것은경험에서도출된또하나의교훈이고, 해서는안될혁명의교훈  
을노동대중에게제시하고있다. 1917년의러시아정세아래에서는그와  
같은교훈은거의필연적이기는하지만, 결코피할수없는것은아니었다.  
볼셰비키가다른방식으로행동하고있었다고한들(이론적으로그것은볼  
가능은아니었다), 그것을피할수있었을것이다. 그러므로그들에게는자  
만할권리도, 구세주인척쁨낼권리도없다.

6. 이교훈은또그밖의주요사항을강조하고있다.

(a) 인류의역사적발전은진보를계속함으로써모든속박에서, 모든압  
박에서, 또한인간에의한인간의온갖착취에서풀려나는자유가요구되는  
단계에도달했다.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마저도자유로운노동, 그러한 노동은지금부터가능할뿐만  
아니라역사적필연이되고있다. 이거대한사회적대변혁의“거점”(이에대  
해서는수십년을통해우리는비극적격동을경험해오고있다) 이바로혁명  
이다. 진정으로급진적이고“정당하기”위해서는당연히그혁명은인간노  
동이실제로전면적으로해방될그러한체제로나아가야만한다.

이들의조직은준비도예비적활동도없이, 경험도없이, 뚜렷한이데올로  
기도없이, 독자적인자주성도없이시작되었다. 그것들은역사적전통도  
지니고있지않았고, 능력도없으며, 분담된임무와참된사명에대한의식  
도결여되어있었다. 아나키즘은그들에게알려지지않았다. 이와같은조  
건아래처음부터그들은정당의손에고삐가잡히게끔운명지어져있었던  
것이다. 그리고그후볼셰비키는약한아나키스트세력이대중을계몽한다  
고해봤자얼마나할수있겠느냐고대수롭지않게보고있었다.

그러한자유의지주의적그룹은겨우사상의송신기에불과했다. 그들  
의사상이현실세계에채용되기위해서는“수신기”가필요했다. 이러한사  
상전파를“수신”하고실현할수있는노동자의조직이필요했던것이다. 가  
령그러한조직이존재하고있었다고한다면, 통신을전문으로하는아나키  
스트가그것에가담해계몽적원조와조언과모범을안내해주고있었을것  
이다. 하지만러시아에서는이러한“수신기”는없었고, 혁명의소용돌이  
속에서발생한조직은필요한속도로이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 몇개나되  
는“송신기”를정력적으로활용해널리송신하기는했지만, 아나키즘은수  
신되지않고“허공에헛되이”울려퍼졌을뿐이다.

이와같은상황속에서아나키즘이발자취를분명히남기고승리하기위  
해서는볼셰비키가존재하지않고볼셰비키당원들이아나키스트로서행  
동하는것이필요했을것이다 — 혹은볼셰비키국가에의해흡수되고복종  
당하기전에그러한사상을받아들여그것을실행할수있는노동자조직을  
가질수있을만큼충분한시간을혁명이아나키스트와노동자에게허락하  
는것이필요했다. 이후자의가능성이없는동안에, 노동자가아나키즘에  
익숙해져서볼셰비키에의해파악되는데반대하고혁명을아나키즘의방  
향으로돌리려하기에앞서볼셰비키는노동자조직을흡수해버리고아나  
키스트의진로를봉쇄했다.

혁명의시초부터아나키즘을받아들여실행해나갈만한사회적준비를  
갖춘“수신기”즉노동자조직이존재하지않았다는것(그리고다음으로는  
그와같은“수신장치”를만들만한시간적여유가없었다는것) — 이부재가  
1917년의러시아혁명에서아나키즘이실패한주원인중하나라고나는생  
각한다.

5. 잠깐살펴보고자하는또하나의요인은객관적성격의것이기는하나  
간과할수없는중요성을갖고있으며앞서말한것에추가되는것이다. 그것  
은바로앞에서기술한사정을더욱악화시켜혁명에완전히치명적이게만  
들었던것이다.

대중의후진성의영향을없애고, 잊어버린시간을회복하고, 공백  
을메우기위한간단하고신속한방법이있었다. 그것은기존의케렌스키  
(Kerensky) 정부가붕괴한후언론과조직활동의자유가혁명에의해확실  
히달성되었기에자유의지주의선전과운동을위한자유로운활동분야를  
만들어두는일이었다.

노동자조직의부재, 자유의지주의에대한광범위한선전의부재, 혁명전아나키즘에대한지식의부재를고려한다면어째서대중이그들의운명을정당이나권위에맡겨과거혁명의근본적인오류를되풀이했는지를이해할수있다. 이러한상태아래서는 **기준의것들은객관적으로변동하기 어렵다**. 그러나거기서파생된발전경로는전혀불가피하지않았다.

설명해보도록하자.

앞으로의과정과해결해야할문제에관한혁명적사상이자유로교환될수있는환경이있고나서비로소 **참된혁명은비야하고발전해목적을달성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자유가혁명에있어필수불가결이라는것은숨을쉬는데공기가반드시필요한것과마찬가지다.<sup>2</sup> 그러므로이것이무엇보다도일당독재, 즉언론, 출판, 조직활동등의모든자유의억압을필연적으로수반하는독재야말로 — 권력의자리에앉은당을제외한모든혁명적정파에대해서도 — 어째서참된혁명에대해 **치명적인것인지에대한이유**다.

사회적인문제에있어그누구도완전한진실을소유하고있다거나자기기만에서벗어나있다고말할수있는사람은없다. 그런사람이있다면 — 그들이사회주의자라자칭하거나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그밖의어떤이라고자칭하건간에 — 일단권력을잡으면이진실을가린그늘아래서다른사상들을힘으로파괴하고반드시일종의 **사회적종교재판**을행하게되는것이다. 모든종교재판과마찬가지로, 그들은모든진실과정의와진보, 생활과인간, 그리고혁명의숨통을조르고만다. 혁명이론의자유로운교환, 각양각색의집합적사상만이자연도태의법칙에따라우리를오류에빠지지않도록지켜주고길을잃지않도록이끌어준다. 이것을인정하지않는사람은사회주의자나집산주의자또는공산주의자인척하더라도단지 **나쁜개인주의자**에불과하다.

이러한진실들은오늘날너무도분명하고자연스러워 — **명백하다고표현해도좋다** — 새삼스럽게이런이야기를주장해야만한다는것은정말불편한일이다. 이러한것을이해하지않으려한다면그것은소경이거나병어리이거나또는배신자일수밖에없다. 그런데레닌과그의추종자는의심의여지없이진심으로이를부인하고있다. 인간의정신은이처럼쉽사리오류에빠지고만다. 맹목적으로지도자에게추종하고마는무리도, 그들의잘못을깨닫는것이너무도늦었던것이다. 그러는동안종교재판은전속력으로기능해“첩보부”와강압적군사력을갖추어버렸다. 그리고대중은거기에익숙해지거나다시한번상황을바꿀힘이없어“복종하고”말았다. 혁

<sup>2</sup> 어떤사람들은사상의자유가혁명에위협하다고가장한다. 그러나군대가혁명가들과함께있고(그렇지않으면혁명이일어날수없다) 국민스스로가그들을통제하는순간부터, 어떤의견이어떤위험성을지닐수있을까? 그러고나서, 만약노동자자신이혁명을지키고있다면, 그들은진정한어떤위험으로부터도스스로를방어하는방법을“계엄군”보다더잘알게될것이다.

여기서“철학적”문제가제기된다.

다음과같은추론이상당히그럴싸해보인다.

“만일정말로예비적파괴의부족이대중의혁명수행을방해했다고한다면, 이요인이실제로모든것을짓밟고소탕하여모든것을설명할것이다. 이런경우, 권력을잡아될수있는한혁명을멀리연기해두고반동의길을저지할권리가불세비키에게있지않을까. 불세비키의행동은그방법과그결과를두고말해역사적으로정당화되는것이아닐까.”

이에대해나는대답하겠다.

우선문제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근본적으로노동계급은혁명을속행하여, 혁명에의해힘을이루고, 혁명가의원조에의한그들의계급조직을구사하여새로운사회를자기들의힘으로건설할만한능력이없는것일까.

**문제는바로거기에있다.**

대답이아니오라면, 그혁명이참된혁명이라고주장할수는없다하더라도, 그리고대중이그들만으로행동할힘을갖고있는경우라면불세비키의절차는정당하다고주장할수가없다하겠으나, 어째서일부인사가불세비키를정당화하려고애쓰는지<sup>6</sup> 이해할수있다. 그러나만약답이예라면, 설령상황이나대중의일시적오류가어떠한것이라할지라도, “정상참작의여지없이”, 최종적으로불세비키에대해유죄가선고될것이다.

파괴가충분히행해지지않았다는데이때에서는, 특히그때문에, 정치사상의악덕이잔존했다는것을말하고싶다. 이정치사상이진작부터거세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 1917년 2월승리한대중은, 그꼬리표가무엇이든간에모든사칭하는자들을제거해버리지않고, 혁명을스스로의수중에넣지않고, 새로운한당의주인의손에혁명의운명을맡겨버렸다. 이렇게하여이전까지의혁명의근본적과오를되풀이했다. 하지만이잘못된행동은 **대중의능력유무**와는관계가없는일이다.

1. 이잘못에대해이득을본사람이아무도없었다는데대해잠시생각해보자. 대중에게는혁명을최종목적 — 유효한완전한해방에도달하게할능력이있었을까. 이문제에대해서는무조건 예라고답하겠다. 뿐만아니라나는혁명을거기까지끌고갈수있는것은노동대중뿐이라고까지말하고싶다. 이사실에대한반박의여지가없는증명을이책속에서발견해주기바란다. 만약이단언이옳다고한다면, **정치적요인은반동을물리치거나**

<sup>6</sup> 독자들이보게되겠지만, 나는이경우에불세비키가정당했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그들이자유롭고완전한혁명을성취하기위해대중을점진적으로준비시키기위해그들이다른어떤행동방식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나는그들이다른방법을찾을수있었을것이라는의견을강조한다. 그러나나는그질문의그측면에별로관심이없다. 대중의무능에대한논제가완전히거짓이라는것을고려한다면, 그리고이작품에서제시된사실들이그것을풍부하게증명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면, 나는나에게단순히존재하지않았던상황을상상할이유가없다.

또한, 그와같은 유효한 해방투쟁이 시작되면, 역사도 필연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취할 것이다.

혁명이 결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 중요한 순으로 —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1. 여러 나라에 걸친 막대한 대중 — 피치 못 할 필요로 인해 몰아세워진 수백만의 사람들 — 이그들의 자유의지로 혁명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2. 이사실 덕분에 훨씬 진보적인 분자, 혁명가와 노동계급의 두 부분 등 이정치적 성격의 강압적인 조치에 호소하지 않는 것.

3. 이두 가지 이유로, 세찬 시세의 흐름에 의해, 수백만 명의 열정에 의해, 이거대한 운동의 최초의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방대한 “종립적인” 대중은 기성사실을 그들의 자유의지로 인정하고 참된 혁명편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이, 참된 해방을 목표로 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힘에 의해 쇠퇴하고, 직업을 빼앗기고, 균일화되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 진 모든 사회적 상황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활동적 참여와 의지적이며 철저하고 긴밀한 협동이 요구된다.

그런데이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피할 수 없는 한점으로 당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물의 힘이 그들의 일상 생활의 세속적 관습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의 생활, 즉 기성 사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이 — 현존 사회의 경제 사회제도, 정치, 의식, 습관, 편견 등 — 전복된다.

진정한 혁명, 참된 해방의 시기가 성숙했을 때, 역사는 이와 같은 순서를 취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을 짜르는 것은 이 점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파괴가 그다지 충분히 단행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리하여 정치적 사상은 파괴되지 않고 볼셰비키 권력을 허락하고, 그들의 독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밖의 그릇된 원리나 편견도 마찬가지로 잔존했다.

1917년의 혁명에 선행한 파괴는 전쟁을 정지시키고 권력과 자본주의의 형태를 온전하게 하는 정도에는 죽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이르기까지 파괴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릇된 근대 사회사상 (국가, 권력, 정부 등) 을 버리게 하고 전혀 새로운 기초에서 서행동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모든 옛 형태 그대로 자본주의와 권력을 영구히 존속시켰다.

이어 중간한 파괴가 볼셰비키로 하여금 러시아 혁명을 왜곡시켜 참된 혁명에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up>5</sup>

<sup>5</sup> 이 모든 생각들은 앞서 언급한 내 연구에서 더 완전하게 다루어졌다. : 『choses vécues』.

명은 부패하고 궤도를 벗어나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레닌은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동지들에게 말했다. “나는 몸이 성치도 못하거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치고 싶을 뿐이다.” 그는 정말 사태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일까.

일단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당이 자유의지주의자들에게 언론과 조직의 자유를 장려는 고사하고 (이는 무리한 요구였을 것이다) 허락하기만이라도 했더라면 지역은 급속히 회복되고 공백은 메워졌을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듯이 사실들은 반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볼셰비키가 아나키즘에 대해 맞서야 했던 길고 어려운 투쟁은, 아나키스트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나키스트가 언론과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나키스트가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든다.

하지만 자유의지주의 운동이 초기에 성공한 사실, 아나키스트 활동이 모든 정당과 모든 권력을 무용한 것으로 보는 생각을 낳아 볼셰비키당이 추방되는 사태를 불러오리라는 이유에서 볼셰비키당은 그러한 자유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나키스트의 선전을 용인하는 것은 그것은 볼셰비키에게 자살과 맞먹는 것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볼셰비키는 모든 힘을 다해 자유의지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다음에는 금지하고, 그리고 마침내 야만적인 폭력으로 탄압했던 것이다.

노동대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자주 주장된다. 이이론은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공산주의자는 필연적으로 “사악한 공상주의자 아나키스트”를 억압하기 위한 “객관적” 정체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무능력하니 “아나키스트 혁명”은 혁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이론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대중에게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보자. 대중이 실제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물론 당연히도 움도 받으면서) 단 하나의 예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이 그들의 부적절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번도 시도된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비록 단순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 논리가 옳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은 비록 어떤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대중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와 기만에 기인하는 인민 착취와 권력에 종지부를 찍게 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료하다. 그것이 또한 마침내는 노동대중이 역사적으로 혁명, 진실된 혁명을 통해 그들의 행동의 자유를 쟁취하도록 이끌어질 것이다 — 왜냐하면 지배자 (그들은 언제나 지배자인 동시에 착취자이거나 또는 착취계급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는 설사 어떤 꼬리표를 붙였든 시간에 결코 자유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대중은 오늘날까지 언제나 그 운명을 당이나 정부나 지도자에게 맡겨왔다는 사실 — 모든 지배자와 적극적 착취자는 대중을 정복하는데서

이익을얻어왔다는사실 — 은여기서분석할필요가없는, 대중의능력·무능력과도전혀관계가없는몇가지상황에서설명할수있다. 이사실로말하면, 대중의경신輕信과기술과자신의힘에대한인식부족을보여주는것이지그들의무능력, 즉힘의결여를보여주는것은결코아니다.

“대중의무능력”. 과거, 현재, 미래의모든착취자와지배자에대해, 특히현대에있어서사람들을열심히노예화하려고하는자 — 나치즘, 볼셰비즘, 파시즘, 코뮤니즘등, 그표상이야어쨌든간에 — 에대하여그것은얼마나안성맞춤인도구일까. “대중의무능력”. 모든정파의반동가들은“공산주의자”와완전히일치하는한점이있으니, 이한점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다가올혁명후에, 현재의“유능한”올바른지도자는, 다만필요한경우에노동자를도와줄뿐으로노동대중에게자유로운행동을허락한다면대중이정치적보호자없이는행동할“능력이없는지”어떤지당장알게될것이다. 그렇게됐을때, 혁명은파시즘과의그칠줄모르는전쟁을수반한1917년의혁명과는다른결과를이끌어낼것이확실하다.

그런데현재의지도자들은결코그와같은실험을하려고하지않으리라는것은묻지않아도알수있다. 그렇기에대중은다시금특별한임무를수행하여야만한다. 즉주의를게을리하지않고때에대비하여모든“아십가”를배제하고일을노동자자신의손에탈환하여아무것에도의존하지않고자립해그것을치러내야할의무말이다. 이번이야말로그임무가완수될것을바라보자.

이로써독자는대중의경신輕信을분쇄하고, 대중에게그들자신의힘을인식시키고, 자신감을가지게하려고한아나키스트사상의선전이어째서어느시대에나어느나라에서나위험하기짝이없는것으로다루어져왔는지그이유를이해하게되었을것이다. 모든반동적인정부에의해예외적으로신속하게, 그리고엄격하게아나키스트사상의선전은탄압되었고그중심인물은추방되었다.

러시아에서는이야만적억압이아나키즘의확대 — 당시상황아래서는이미매우어렵게되어있었다 — 를혁명이닥쳐왔을때까지거의불가능하게했다. 혁명이일어남과동시에아나키스트는어느정도의활동의자유를얻었다. 하지만1917년2월에서10월까지의임시정부기간에아나키스트운동은아직많은일을해내지못했음은앞서말한것과같다. 볼셰비키는어땠는가하면그들도예외는아니었다. 그들이권력을잡자마자구사할수있는온갖수단을사용해아나키스트탄압에나섰다. 중상, 모략, 합정, 금지, 수사, 폭행, 집회장파괴, 암살 — 무슨짓이든해치웠다. 그리고그들의권력이충분히견고해졌다고느꼈을때, 그들은아나키스트에대해 전면적이고단호한억압을개시했다. 이는1918년4월에시작되어현재도끝나지않고있다. 그런데도볼셰비키에의한“용맹의위업”은일일이러시아바깥에까지거의알려지지않고있음을독자는알아차렸을것이다.

그런데그러한방법은익명으로, 훨씬신중하고온건하고조용한자유의지주의적운동과는본질적으로전혀이질적이다. 이사실은아나키스트운동을일시적으로약화시켰다. 아나키스트는대중을지도하는것을거부하고, 대중의의식을일깨우기위하여일하고대중의자유로운직접행동에의존했으니선동을부인하고, 그늘에서활동하고, 권위를덮어씌우지않고, 미래를위해준비해야만했다.

러시아에서의상황은이와같은것이었다.

여기서는잠시구체적사실을떠나‘철학적’영역으로짧게들어가보고싶다.

아나키즘의기본원리는간단하다. 노동대중을“지배하고”혹은“지도하기”위해대중위에, 또는바깥에군림하는정당이나정치적, 사상적그룹은설령진지하게노동대중의해방을염원한다할지라도결코성공하지못한다. 참된해방은당사자인노동자스스로의, 그리고정당이나사상적조직의깃발아래서가아니라구체적활동과자치에기초한노동자스스로의계급적조직(산업노동조합, 공장위원회, 협동조합등)으로편성된, 그리고대중위에서지않고그한복판에서일하는전문기술, 방위, 그밖의분야에서활동하는혁명가에의한, 지배가아닌원조를받아, 직접적이고대규모인독자적활동에의해비로소성취된다.

정치적, 지배적인길을통해대중을해방으로“이끌어가려고”하는모든정치적·사상적그룹은그릇된길로나아가실패를피하지못하고새로운경제적·사회적특권제도를설치함으로써, 또한대중을해방으로이끌어가기위해혁명을원조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국면아래노동자의억압과착취의제도 — 그렇기에자본주의의새로운변형 — 를발생시키는결과가되고있다.

이논리는필연적으로다른하나의논리로이어진다. 아나키스트사상과진정한해방의혁명은아나키스트만으로는결코성취하지못한다. 당사자인광범위한대중의손으로비로소성취되는것이다 — 아나키스트또는일반혁명가들은그때그때의상황속에서대중을계몽하고조력하는것에의해서만환영된다. 만약아나키스트가대중을“지도”함으로써사회혁명이완수된다고주장한다면, 그러한주장은볼셰비키의그것과마찬가지로, 동일한이유에서환상이될것이다.

그뿐만이아니다. 확대성 — 보편성이라고해도좋다 — 과임무의성격이란관점에서보면, 노동계급만으로참된혁명을만족스러운결과로이끌어갈수는없다. 가령노동계급이자기혼자만행동하고다른분자들에대해독재적으로, 자기의사대로강제로복종시키려고자만한다면, 마찬가지로실패에부닥칠것이다. 아나키스트의원리와정반대되는것을믿는다는것은사회현상이나인간이나사물의성격에대해올바른이해를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수했다. 이때부터 이것은 그들이 취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의 포위”나 외국 프롤레타리아의 무반응이나 세계의 반동 세력을 핑계로 혁명의 실패와 착오를 설명하려 하는 것을 보면 기묘한 느낌이 든다. 외국 노동자의 미약함과 반동의 증대는 공산주의자 자신이 혁명 노선으로 삼아온 그릇된 노선에서 당연히 귀결된 것이고, 이를 외면하는데서 그들 자신이 반동으로의, 파시즘으로의, 전쟁으로의 길을 준비해온 것이다.

이것이 볼셰비키 혁명의 비극적 사실이다. 세계의 노동자를 위한 혁명의 교훈은 이러한 것이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여태껏 확립되지도, 심지어 알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비례해, 또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장차 도래할 혁명의 운명에 대해 속지 말자! 장차 도래할 혁명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어가는 순수한 사회주의적 혁명의 길 (그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 인가, 아니면 다시금 필연적으로 새로운 반동과 새로운 운전쟁과 모든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국가주의적, 권위적 길인가.

인류의 발전은 그칠 줄 모른다. 그것은 어떠한 장애도 뚫고 나가고, 넘어서고, 돌아나가면서 뚜렷이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오늘 날 자본주의적, 권위적, 정치적 사회가 인류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깐 사회는 지금 무슨 방법으로든지 소멸 시켜야만 한다. 만약 이번에도 다시 대중이 현사회를 현실적으로 변화 시킬 방법을 모른다면, 혁명의 순간에 속절없이 새로운 반동과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중이 이해하고 그 이해에 비롯해 행동할 때까지 모든 파괴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인류의 발전에 이외의 자취를 비춰주는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요인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럼에도 러시아 혁명의 비극 속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연출한 요소에 대해 언급하겠다. “선전”, 혹은 데마고기 demagogic에 대하여 논해야겠다. 모든 정당과 마찬가지로 볼셰비키당 (오늘날의 “공산당”)은 그런 수단을 사용했고, 악용했다. 대중을 억압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볼셰비키는 과장하고 선동하고 허세를 이용했다. 그리고 볼셰비키는 대중이 볼셰비키를 우러러보고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꼭대기에 스스로를 옮겨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세력을 얻었던 것이다.

<sup>4</sup> 이와 관련해 저자의 러시아 혁명에 관한 첫 번째 간단한 연구인 『Choses Vécues』를 참조하라. 「La Revue Anarchiste」, 세바스티앙 포레 (Sébastien Faure), (Paris?), 1922-24.

이리하여 아나키스트 활동이 그런대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대략 반년에 불과했다. 자유의 지주의 운동이 조직화되고 확대되고 성장하여 약점과 오류를 고칠 만큼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랬기에 대중에게다가 그들을 알릴 만큼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닫힌 통” 안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껍질을 깨지 못한 채 알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아나키스트의 실패의 두 번째로 주요한 원인은 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가운데서 첫째로 중요한 것 — 혁명에 대해 — 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볼셰비키는 아나키즘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일소했다. 상황과 대중을 파악한 좋은 조건을 이용해 그들은 아나키즘과 그것을 지원하는 운동을 잔인하게 억압했다. 그들은 아나키즘에게 존재를 허락하지 않고, 대중으로부터 점점 격리시키려 했다. 나중에 그들은, 아나키즘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실패했다, 즉 대중이 아나키즘의 “반프롤레타리아주의”를 이해하고 반발한 것이라고 정치적이 이유에서 교활하게도 주장했던 것이다. 외국에서는, 속임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모두, 볼셰비키의 그 말대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아나키즘은 볼셰비즘에 반하여 진행도상의 혁명을 조금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객관적으로는 그 자신이 “반혁명”임을 폭로하고 있으므로 사정 없이 분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 아나키스트에게서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 그리고 대중에게서 — 최후의 기회와, 다름 아닌 실제 적수단과 성공의 현실적 가능성을 탈취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유의 지주의 운동을 절멸시키고 대중의 자유로운 운동을 파괴하는데 있어서 볼셰비키는 사실상 혁명을 멈추게 하고 숨죽여 버렸던 것이다.

대중이 참된 해방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대신 당연한 결과로 관료적, 착취적, “신자본주의적” 인지 배적 국가주의가 바뀌어 놓였으니 진정한 혁명은 어쩔 수 없이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달성되지 못한 모든 혁명, 요컨대 순수하고 완전한 노동자 해방을 가져오지 못한 혁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후퇴하게끔 운명지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다시금 이를 확증하고 있다. 하지만 잘듣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혁명을 믿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혁명의 실패 원인을 찾으면서 모든 혁명에 절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 유감스럽게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 은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복잡한 사회에서 몸을 피하여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회 전체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개인간의 진보와 그들 자신의 참된 행복에 대해 술한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데는 생각

이미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초라하고 고립된 처지를 지키려고 악간 힘을 쓰고 있다. 그들은 “안식”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만이 구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근본적으로 차각이자 환상이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한 것이다. 요컨대 일하는 인간이 인간에 의한 온갖 착취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누구도 참된 진보, 참된 개인의 번영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수천년 간 주로 세가지 조건이 인간의 자유로운 노동, 즉 “우애”와 번영을 방해해 왔다. 그것은

(1) 생산기술의 상태 — 인간은 현재 자신이 주인인 광대한 자연력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다.

(2) 여기서 파생하는 경제상태 — 인간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의 부족과 거기서 일어나는 “교환경제”, 화폐, 이윤, 요컨대 공업 생산물의 결핍에 기인하는<sup>3</sup> 생산과 분배의 자본주의 제도.

(3) 정신적 요인, 이것은 먼저 두 가지 조건에서 부수적으로 따라나온다.— 대중의 태만, 잔인성, 복종, 굴종.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에 앞서 말한 처음 두 가지 조건은 크게 변화했다. 기술적으로, 경제상 자유로운 노동은 이제 가능할 뿐더러 정상적 생활과 인간의 발전에 대해 불가결한 것이 되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권위적 제도는 벌써 어느 쪽도 보증할 수 없다. 그것은 전쟁을 야기할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사기士氣만은 이 가능성에 알맞은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다수는 수천년간의 복종과 굴종이 습성이 되어 그들 앞에 열려 있는 진실의 길을 보려 하지 않고, 역사가 그들에게 강요해 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복종”하고 “굴종”해, 그들은 현대의 상황 아래서는 그들의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이 승리를 장식하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복종하고 굴종하여, 전쟁이나 무의미한 파괴 활동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사물의 힘, 즉 전쟁, 모든 것의 부패, 되풀이 되는 혁명의 유산流產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살아갈 모든 가능성은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면, 그들의 눈은 차차 진실을 향해 열리고 그에너지의 전력을 참된 인간의 자유로운 건설적·박애적 활동에 기울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혁명과 반동이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리라는 것을 덧붙여 두어야 하겠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그에 잇따른 반동은 여러 국가에 울려 퍼져 중요한 운동의 기동력이 되었다. 가령 러시아 혁명이 계속해서 더욱 전진해 위대한 해방의 혁명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외국 사람들도 얼마 가지 않아 같은 방향을 향해 따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 혁명은 인류의 참된 길을 비춰주는 강력한 횃불이 되었을 것이다.

<sup>3</sup> 현대 경제 진화의 문제를 조사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특히 자크 듀빈 (Jacques Duboin)의 작품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의 현실은 전혀 그와는 반대로 일그러지고 정체하고 후퇴 할대로 후퇴하여 세계의 반동의 목적에 알맞게 기여했다. 반동들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반동 측의 거물들은 혁명가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나다). 환상과 신화와 슬로건과 와해와 휴지조각만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의 생활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반동과 그 광범위한 파생물, 즉 파시즘, 새로운 전쟁, 경제적, 사회적 파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세가운데서 레닌의 근본적인 — 그리고 유명한 — 오류는 기묘하고 암시적인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이 급속히다른 나라로 번져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혁명은 “온 세상에 타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참된 혁명이라면, 전 세계를 타오르게 했을 것이다. 다만 그의 혁명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레닌은 그것을 몰랐다. 그의 잘못은 그 점이었다. 그의 국가주의적이론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승리”에 취한 그는 그것이 길을 그르친 실패한 혁명이고, 불모가 되려하고 있으며, 그 “불이꺼져” 버렸으니 아무것에도 “불을 붙일” 수 없으며, 그것이 위대한 이데올로기의 기운을 그쳐버렸으니 위대한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확대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깨닫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눈이 먼 그가, 이 혁명은 정체하고 후퇴하고 타락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두 세 가지 봉기가 일어난 뒤 반동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실을 볼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더욱이 그는 두 번째 잘못을 범했다. 그는 러시아 혁명의 최후의 운명은 다른 나라에의 혁명의 확대에 걸려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바로 그 정반대가 옳았다. 즉 혁명의 결과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애매하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외국의 노동 대중은 주저하고 혼란을 엿보고자 상한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보와 그 밖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겉잡을 수 없는 모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사 위원들이나 파견 위원은 한 가지도 정확한 데이터를 잡지 못했다. 한동안 러시아 혁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서가 보였다. 유럽의 대중은 세상에 영합했고 굳이 조사하려 하지도, 신뢰하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그 운동은 의심을 품은 채였다. 그리고 일치와 분열이 생겼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반동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알맞았다. 반동은 착실히 준비하고 조직하고 행동했다.

레닌의 후계자들은 명백한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아마도 참된 운동을 이해하는 일 없이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의 확대에 대해 조건이 별로 좋지 않고, 그것에 반대하는 방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이 반동은 그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혁명에 대해서도 위협하기는 하지만, 세계에 강요할 수는 없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신들린 사람들처럼 앞으로의 불가피한 미래 전쟁의 준비에 착

이는 볼셰비즘에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노동대중에 대립하는 전선이 연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장벽이며, 정치투쟁의 불가피한 법칙의 결과임을 의미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기자는 계속했다) 당신이 항의할 것이고, 당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모든 장소에서 완전한 독립을 위해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주 좋다. 그러나 당신의 활동이 “독단적”이라거나 “아나키스럽다”고 불릴 것에 대비하라. “사회주의” 권위의 모든 힘을 가지고 이구실로 당신을 공격해오는 “권좌에 앉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혁명에 염증을 내고 당신에게 분노와 증오만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에 만족하고 있는 계급 (새 정부로부터 무엇인가 주어진 계급)으로부터의 반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차리즘에 대한 투쟁에서 당신은 거의 전국민을 같은 편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케렌스키에 대한 투쟁에서 당신은 벌써 더 윽고립되어 있었다.

만일 지금 새로운 권력이 스스로를 공고히하기를 내버려두고 (그리고 만약 사건들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일단 그것이 강력해진 후 이 권력과 싸워야 한다면, 당신은 그보다 한 줌 일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위험한 광신자”로, “사기꾼”으로 가차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무덤 앞에 비석조 차두지 않을 것이다.

볼셰비키에 의한 정부 장악 전야, 「골로스트루다」는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From Impasse to Impasse><sup>8</sup>라는 제목으로 상황을 다루었다. 거기서 혁명을 옮바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은 중앙 정치권력의 강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권력은 혁명에 있어 위험하다”라고 사설은 시작했다. “어떠한 권력도 혁명을 진정한 목표로 이끌 수 없다. 정치적 계략의 의미로 어디서도 승리의 신전이 약속된 문을 열열쇠를 발견할 수 없다.”

대중들이 즉시, 모든 곳에서 당외부에서 그들의 계급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원조하라 (아나키즘 적조합주의자 언론은 그렇게 독자들에게 권고했다). 이러한 조직은 권위주의 적소비에트가 아니라 접촉과 협동의 매개체이다. 그와 같은 조직을 대표하는 소비에트의 손으로 먼저 지구 地區적으로, 다음은 지역적으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도록 원조하라. 이들 조직을 유일한 중요한 목적으로 — 생산, 교환, 통신, 유통 등을 점차적으로 인수하는 목적으로 향하게 하라. 이처럼 즉시 새 기반 위에 국가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조직화를 개시하라. 그렇게 하면 일종의 “노동자의 독재”는 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 민도조금씩 그것을 하는 법을 배워갈 것이다….

는 약간 위험했다. 하지만 광대하고 깊은 인기와 회의 가지난 권위의 결여, 게다가 회의가 볼셰비즘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태협해 오리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위험을 받아들였다. 연달아 일어난 사태는 볼셰비키당이 오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권력을 장악하면 곧바로 제헌의회를 소집한다는 볼셰비키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단순히 선동적인 공식에 불과했다. 그들의 게임에서 그 것은 한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카드였다. 만약 회의가 그들의 권력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면, 그들의 지위는 당장, 특히 국내외에 걸쳐 공고하게 굳혀질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무리 없이 회의를 없앨 수 있을 만큼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sup>8</sup> 1917년 11월 6/19일, 「골로스트루다」 제 15 호

## 제 4 부. 몇 가지 회상

물론 많은 대중은 서로 이어 한다른 해석의 미묘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이상이 함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해하하는 것은 — 그들이 우리의 사상에 다소나마 접한 뒤에도 — 불가능이었다. 전 세계의 노동자가 운데 서도 러시아의 노동자는 유별나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익숙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키아벨리즘도, 볼셰비키의 해석의 위험성도 인식할 수 없었다.

나는 가능한 한 말로 써나글로 써나 대중이 볼셰비키 당권력을 공고하게 확립시켜주는 것은 참된 혁명에 대해 몹시 위험하다는 것을 도시 노동자들에게 경고하고자 애썼던, 그 절망적 노력을 회상한다.

나의 설득은 헛수고였다. 대중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기 일쑤였다. “동지, 우리는 당신의 말뜻을 잘 이해하고 있소. 하물며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불신 할 정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경계하고, 맹신하지 않고, 신중하게 불신을 유지해야 한다는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볼셰비키는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소. 그들은 우리와 함께 똑바로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친구요. 그리고 그들은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손쉽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소.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거부해야 합니까? 그들이 권력을 쟁취하도록 돋고, 그리고 어쩌는지 봅시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사회 혁명의 목표는 결코 정치권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심을 품고 있는 청중을 향해 나는 볼셰비키 권력이 일단 조직되고 무장을 갖춘다면, 분명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무능력해지고, 노동자에게 분명히 더욱 위험한 것이 되고, 이전 것보다 훨씬 타도하기 어려운 것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거듭 말했다. 그런 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틀에 박은 듯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동지, 차리즘 Tsarism 을 전복한 것은 바로 우리 대중이었소.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한 것도 우리였소. 그리고 케렌스키를 전복시키고 자준비하는 것도 우리요. 그러니 만약 당신 말이 옳다면, 그리고 볼셰비키가 우리를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그랬듯 볼셰비키도 전복시킬 것이오. 그때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범인 아나키스트와 함께 전진하겠소.”

만들었으며, 이 건설적인 임무에 일정한 질서와 높은 의식을 부여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만일 처음부터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의 청중에게 모든 진지한 혁명가들과 사회주의 언론 전체가 그 일에 그들의 힘,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시켰다면 혁명의 과정은 달랐을 것이다 — 하지만 명확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권력이 시작되는 곳에서 혁명은 끝난다고 같은 기관지의 다른 기사는 지적했다.<sup>7</sup> “권력의 조직화”가 시작되면 “혁명의 조직화”는 끝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 왜냐하면 “혁명적 권력”이라는 표현은 “따뜻한 얼음” 혹은 “차 가운 불”과 마찬가지로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혁명이 “권력의 조직화”라는 처방에 따라 정치적인 길을 확고히 취한다면, (그 기사는 계속 말하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반란한 사람들의 최초의 혁명적 승리 (같은 정치적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심각한 희생을 치른 승리) 가 확실한 사실이 되자 마자 우리의 “제 2의 혁명”은 멈출 것이다. 도처에서 즉시 행해지는 대중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혁명적 활동 대신에 — 이승리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활동 — 우리는 중앙 권력을 둘러싼 역겨운 “거래”와 결국에는 새로운 중앙 “권력” — 모든 러시아의 새로운 “정부”의 — 터무니 없는 “활동” 까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소비에트나 다른 지방 조직은 물론 중앙 소비에트나 정부에 종속될 것이다. 그것들은 실제로는 중앙에 자리 잡은 볼셰비키 당지도부의 권력 기관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새로운 경제적 사회 생활을 건설하는 자유로운 도시와 지방의 자연스럽고 자립적인 연합 대신 우리는 규정하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국가 중앙”과 “확고한 혁명적 권력”을 보게 될 것이다.

「골로스트루다」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는 성취되어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공언했다 — 두 가지가 유사한 것이라면, 권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활발한 국가 권력이 있는 곳에는 “지역 자치”에 관한 항목은 그 이전에도, 그 당시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공허한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대변인들로부터 그들이 만일 새로운 권력으로부터 사회 혁명이나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폐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진정한 해방을 기대한다면 몹시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받았다. 왜냐하면 그 권력도 그 밖의 어떠한 것도 노동 대중에게 유리한 것을 주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뒤, 볼셰비키가 마침내 러시아 인민을 타락시키고 배반함으로써 끝나리라는 것을 증명할 몇 가지 사실들이 제시되었다.

<sup>7</sup> 〈새로운 권력 The New Power〉, 「골로스트루다」 1917년 11월 4/17 일자

그렇지않으면대중은혁명과정에서새로운삶의건설을위한조직들을 창설하지못할것이다. 그러면혁명은조만간소멸될것이다. 왜냐하면이 같은조직들만이혁명을완전한승리로이끌수있기때문이다.

10 월쿠데타가일어난바로그때의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프로파간다연맹》의태도는앞장에서충분히설명되었다. 아나키스트는조건을표명하고그혁명에공격적으로참여했다는것 — 그조건가운데분명히표기되어있는이유와목적을지니고 (크론슈타트나모스크바에서처럼) 대중이행동에옮긴곳이라면어디서나 — 을잠시떠올려보자.

10 월혁명이후존립이어려웠던몇달동안, 그리고볼셰비키정부<sup>5</sup>에 의해점차제한되었음에도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연맹》은날마다아나키즘적조합주의활동과사건의전진에종사했다. 3 개월간매일간행된 「골로스트루다」는노동자들에게새로운권력의온갖실수와비행을설명하는 **동시에자신들의사상을발전시키고그관점에따라적용할방법을제시했다.**

일련의기사<sup>6</sup>에서아나키즘적조합주의조직은 **대중에대한독재의정치적방법**을즉각포기하고노동자인민에게조직과행동의자유를허용할 필요성을강력히주장했다.

1. 혁명의시작부터 — 3 월부터 — 노동대중은노동자의조직, 즉계급조직을당과상관없이모든곳에설립하고, 이들의조직을협동시켜달성해야만할유일한참된목적, 즉노동, 그리고나아가국가의경제생활에불가결한모든요소를수용하는것에집중했어야했다.

2. 교육을받고의식적인경험이있는사람들, 지식인들, 전문가들은 혁명의첫날부터정치적투쟁이나구호가아니라, “**권력의조직화**”가아니라**혁명의조직화에몰두했어야했다**. 이런사람들은대중이그들조직의발전과완성을돕고경제와사회모두에걸친혁명의준비를위한경고와에너지, 활동을도왔어야만했다. 당시누구도이일로그들을방해하지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골로스트루다」는농민과병사가이집단적의무에완전히 합의하고있었고 — 진정한혁명은올바른경로에의해빠르게진행되었을 것이라고주장했다. 기자들은처음부터대중스스로가자발적인조직망을

<sup>5</sup> 이몇달간정부가어떻게행동했는지에대한생각을건네기위해우리는정부의관행중 일부를인용해보기로하자. 전류를손에넣고있던그들은거의매일오전 3 시경연맹의인쇄소에공급되던회선을끊었다. 전류는 5 시나 6 시경돌아왔다 (혹은전혀돌아오지않았다). 따라서이신문은모든고용된사람들이이일을하고있을시간인 9 시나 10 시가되어서야겨우 출판되어누구도그것을살수없었다. 또신문판매원들은거짓구설로탄압받고, 쫓기고, 때로는체포당했다. 우체국에서는「골로스트루다」의 50 페센트가고의로“분실”되었다. 요컨대, 볼셰비키당국의방해행위에끊임없이저항할필요가있었다.

<sup>6</sup> 「골로스트루다」의기사들은다음과같다. <그리고그후?And Afterward?>, 1917년 10 월 27 일, <2 차혁명 The Second Revolution>, 11 월 3/16 일, <선언과 생활 The Declaration and Life>, 11 월 4/17 일.

나는여러가지이유로볼셰비키국가를전복시키는것은훨씬더어려울 것이라고지적했지만헛수고였다. 노동자들은내말을믿으려하지도, 믿을수도없어했다.

그러나이런일은정치적수단에길들여져있는나라에서는조금도놀랄 만한일이아니었다. 다소나마정치적수단을혐오하고있는나라 (프랑스 같은)에서도노동대중이나지식인까지도혁명을바라면서도, 설령극좌 정당이라할지라도정당의권력이나명칭따위를가릴것없이, 국가의건설이혁명의사멸을초래하리라는것을지금껏이해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하물며정치적경험이전혀없는러시아와같은나라에서어떻게이것이 이해되기를바라겠는가.

1917년 10 월승리를거두고페트로그라드에서크론슈타트로귀향한 전함의혁명적수병들은얼마뒤전단적專斷的권력을가진인민위원회의 의설립에서야기될위험에대해토의하기시작했다. 특히일부는이정치적 최고법원 sanhedrin 은언젠가 10 월혁명의원칙을배반할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그들은그안이한승리에도 취된나머지무기를휘두르며이렇게선언했다. “그런경우, 대포가겨울궁전을차지하는방법을알고있으니, 스몰니 Smolny 를차지할방법도알고있다.”(페트로그라드의전前스몰니연구소는승리후볼셰비키정부의 첫번째소재지였다.)

우리가알고있듯, 정치적, 국가적, 정부적사상에대해 1917년러시아에서는아직불신이없었다. 뿐만아니라아직어느나라에서도불신을품지않았다. 대중이어디서나마침내그사상의오류와공허와위험을잘알게되려면, 프로파간다에의한계몽과더불어시간과역사적경험이확실하게 필요하다.

저유명한 10 월 25 일밤에나는페트로그라드거리에있었다. 어둡고 고요했다. 멀리서몇발의라이플총성이들렸다. 갑자기장갑차가맹렬한 속도로내옆을지나갔다. 장갑차안에서손이하나나오더니전단뭉치를하나던졌고, 그것은여기저기흩어졌다. 나는허리를굽혀한장을집어들었다. 그것은“노동자와농민”에게보내는, 케렌스키정부의몰락을고하고 레닌을필두로하는신체제의“인민위원회”를기록한신정부에의한성명이었다.

슬픔, 분노, 혐오, 그러나그와함께짓궂은일종의만족섞인복잡한감정이나를사로잡았다. “이어리석은자들 (그들이단순히선동적인사기꾼이아니라면. 나는이렇게생각했다) 은이렇게해서그들이사회혁명을수행하고있다고상상하고있겠지. 아, 그렇다면이내보게되겠지… 그리고 대중도좋은교훈을배우게될거야!”

그때도대체누가불과 3 년 4 개월뒤인 1921년 2 월 5 일에서 28 일 까지의영광스러운날에페트로그라드노동자들이새로운“공산당”정부에반기를들것이라고예견할수있었겠는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 약간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 하나 있다. 그것은 1917년 10월 일반정세 아래서는 러시아 아나키스트가 정당, 데마고기 demagogic, 권력에 대한 부정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볼셰비키처럼” 행동했어야 했다, 즉 일종의 정당을 형성하고 임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들은 “대중을 이끌어” 볼셰비키를 타도하고, “그럼으로써 아나키즘을 조직화 할”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추론이 근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하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런 임시적인 상황으로 아나키스트가 승리 (매우의 심스럽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아나키즘의 근본 원리를 “잠시” 포기한 대가로 얻은 그 승리는 결코 아나키즘 원리의 승리로 이끌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태에 떠밀려 권력을 장악한 아나키스트들 —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 은 그저 볼셰비키의 변종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최근 스페인에서 의사태, 내각에 임명된 자신을 공허한 “정치”의 공간에 내던져 참된 아나키스트 행동을 무위로 돌린 어느 스페인 아나키스트의 입장은 나의 의견해를 한결 더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일 그러한 방법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면, 또 권력으로써 권력에 맞설 수 있다면, 아나키즘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나키스트”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정치나 권력의 방법에 의해 자유의지 주의적 사회 질서에도 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진지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권력과 “강제된 대중”으로 권력을 타도하고자 한다면 그는 공산주의자이거나 사회주의자이거나 혹은 당신이 부르고 싶은 그 무엇일 수도 있지만, 아나키스트는 아니다. 권력, 권위, 국가 (그리고 “강제된 대중”의) 도움으로 권력, 권위, 국가를 타도할 수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 바로 분명히 아나키스트인 것이다. 그러한 수단에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 비록 “임시적”이든 아주 선한 의도를 지녔든 — 누군가는 아나키스트이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아나키즘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볼셰비키 원칙에 동조한다.

권력을 가지고 대중을 강제하려는 생각은, 인간이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아나키즘과는 정반대이다.

이와 관련해 나는 1919년 또는 1920년 모스크바에서 사회 혁명당의 좌파 활동가였던 유명한 동지 마리아스피리도노바 (Maria Alexandrovna Spiridonova) 와의 대화를 기억한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차르의 가장 사나운 총독 중 한 사람을 암살했다. 그녀는 고문을 견뎌내고, 간신히 교수형을 면하여 오랫동안 투옥되었다. 1917년 2월 혁명 때 석방된 그녀는 좌파 사회 혁명당에 합류해 그 기둥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존경받는 혁명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는 동안 볼셰비키당은 점점 더 쿠데타를 향해 방향을 잡았다. 볼셰비키당은 대중의 혁명적 정신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기를 — 다시 말해 권력을 장악하기를 — 희망했다.

아나키즘 적조합주의자신문의 기자들은 그 방향을 비판하며 제 3호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 더 언급했다. 그들은 하나의 논리적이고 선명하며 단순한 해결책이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는데, 이는 자연스레 생겨났고 단호하고 대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논리에 의해 제안된 마지막 단어를 결정하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력”이라는 단어 대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들 — 노동자와 농민 — 의 통일된 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혁명적 군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누군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돋지 말고, 토지와 다른 노동의 요소들을 직접 그들 자신의 손에 주고, 모든 곳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기자들은 소박한 “토착민들”이나 “겁쟁이들”이 새로운 상황을 평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을 계속했다. 부르주아지 — 군대도 자본도 가지지 못하게 된 — 는 당연히 권력이 없는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단결한 노동자 조직들은 공동의 합의로 생산, 운송, 통신, 상품의 교환과 분배에 의해 견고히 발을 내딛을 것이다 — 모든 것을 새로운 기반 위에, 실제의 필요에 따라, 협동과 필수 불가결한 중앙 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 그때에야 비로소 — 혁명은 승리할 것이다.

게다가 「골로스트루다」는 계속해서 투쟁은 권력 장악을 위한 정당간 싸움의 성격을 띠고, 노동 대중은 이 싸움에 끌려가 정치적 집착으로 분열되므로 혁명의 승리나 정말 심각한 사회 재건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삶의 위기에 쫓겨 대중은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낼 것이며, 그해결의 요소는 이미 시국의 객관적 조건과 모든 현재 상황에 의해 뿐만 아니라 내려온 희망을 표명했다.

기자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우리가 예언자가 될 의도가 없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단지 어떤 가능성,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떠한 경향을 예측할 뿐이다. 그러나 발전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혁명은 진정 사회 대혁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문제의 해결책 — 우리가 방금 간략히 서술한 것과 같은 — 은 미래의 혁명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월 혁명 전날, 「골로스트루다」 의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이 그과정을 따라나가면 대중은 — 모든 종류의 시험, 불행, 공포 뒤에 오류와 지연과 충돌과 회복과 새로운 후퇴, 혹은 내란이나 일시적인 독재도 넘어선 뒤에 — 마침내 그들의 창조력을 그들의 자주적 조직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모든 곳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그들의 의식을 끌어 옮리게 될 것이다. 그때야 말로 혁명의 안전과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운일인가. 오늘우리의힘은이곳에점점집결하고있다. 그리고우리는우리자신의땅 — 지금이자유의땅에서즉시이일을수행하는것을우리의첫 번째의무, 우리의가장신성한의무로여긴다. 우리는노동대중을위한새 지평을열어야하고, 그들이추구하는것에도움을주어야만한다.

「골로스트루다」는당시혁명이일시적으로난국에빠져든반면, 러시아의대중은서투른명상에빠진듯잠들어있는것을보았다. 그리고이명상 이쓸모없게되지않기위한행동이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휴식은새로운 혁명의물결이더욱준비가갖추어진뒤달성해야할목표를보다확실하게 인식한대중, 수행해야할과업, 나아가야할과정을발견할수있게하는방식으로취해져야만한다. 인간에게가능한모든것은닥쳐올물결이아무런 결과없이시작점에서소멸되지않도록해야한다.

“이제부터”기자는단언했다. “우리는이난국에서벗어날수있는수단 을지적할것이다 — 모든정기간행물이예외없이그수단에대해서는한마디도언급하지않고있다.”

두번째호에서<sup>3</sup>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기관지는시기적절한질문을 던졌다.

“우리는중대한시기에살고있다. 혁명의규모는 — 지금은천천히, 경련을일으키며 — 움직이고있다. 한동안이운동을계속하다가멈추게될 것이다. 러시아의노동자는아직혁명의규모가동요하고있는동안적절한 기회를잡아그들의지반에새로운사상, 새로운조직의원칙, 새로운사회 적기초를투입할방법을알수있을것인가. 혁명의운명과결과의대부분 — 전부는아닐지라도 — 은여기에달려있다.”

지방의대중이지닌유효한행동능력에의신뢰는「골로스트루다」제3호<sup>4</sup>의〈시국문제 Questions of the Hour〉라는제목의사설에서표 명되었다.

우리는러시아의노동자, 농민, 병사, 혁명가들에호소한다. 무엇보 다도혁명을계속하라. 그대들스스로를견고히조직하고새로운조직, 즉 코뮌, 노동조합, 위원회, 소비에트를통합하라. 확고함과인내를지니고 어디서나항상한층더광범위하게, 한층더효과적으로지방의경제활동에 계속해참여하라. 모든자재와노동에없어서는안될도구들을당신의, 당신조직의손에넣기를계속하라. 사적기업을계속해없애도록하라.

혁명을계속하라! 작금의모든불타오르는문제들의해결책을마주하기를주저하지말라. 해결책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조직을어디에나창설하라. 농민이여, 토지를회수해그대들의위원회손에맡겨라. 노동자여, 광산과갱도를, 기업과모든건조물과작업과공장과작업장과기계를그대 들스스로의사회적조직손에 — 모든곳에서즉시 — 넣도록하라.

<sup>3</sup> 1917년 8월 18일자 「골로스트루다」

<sup>4</sup> 1917년 8월 25일자

토론중에마리아스피리도노바는나에게사회혁명당좌파는매우한정 된형태의권력, 즉아주미약하고인간적인, 그리고특히임시적인최소한 의권력을믿는다고말했다. “정말아주최소한의것입니다. 될수있는한빨 리약화하고, 무너뜨리고, 소멸시킬것입니다!”

“속아서는안됩니다!”나는그녀에게조언했다. “권력은결코굴리면부 서지는모래덩어리가아닙니다. 오히려굴리면크기가커지는눈덩이입니다. 일단권력을잡으면당신도다른사람들과마찬가지로행동하게될겁니다.”

그리고아나키스트들역시마찬가지라고덧붙여두어도좋다.

같은맥락에서, 나는또다른충격적인사건을기억한다.

1919년, 나는우크라이나에서활동하고있었다. 그무렵러시아대중 들은이미볼셰비즘에대해몹시환멸감을느끼고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아나키스트선전(볼셰비키가아직완전히그것을억압하지는못한곳)은활발한성공을거두기시작했다.

어느날밤, 연대를대표하는몇명의붉은군대병사들이우리들하르키우 Kharkov 그룹에와서이렇게말했다. “이곳수비대의몇몇부대는볼셰비키에지쳤습니다. 그들은아나키스트에공감하고행동할준비가되었습니다. 지난밤그들은우크라이나의볼셰비키정부의구성원들을쉽사리체포하고아나키스트정부를선언할수있었는데, 그편이훨씬더낫습니다. 아무도반대하지않을것입니다. 볼셰비키의권력에모두싫증이난것입니다. 그러나우리는아나키스트정당이우리와동의하고우리의행동에그이름으로행동할권한을부여하고, 현정부를체포하고, 우리의도움을받아 권력을장악하기를요청합니다. 우리는전적으로아나키스트정당의뜻대로움직일것입니다.”

물론오해하고있는것이분명했다. “아나키스트정당”이라는용어만 으로도그것이증명되었다. 이훌륭한병사들은아나키즘이진정무엇을의 미하는지전혀몰랐다. 그들은피상적으로아나키즘을이야기하는것을들었거나혹은어떤집회에참석했을지도모른다.

그러나거기에사실이있었다. 두가지해법이우리에게가능했다. 이오 해를이용해볼셰비키정부를체포하여우크라이나에서의“권력을장악” 하는것, 혹은병사들에게그들의오해를설명하고아나키즘의본질적성격에대한이해를제공하고모험을그만두도록하는것.

우리는당연히두번째방법을선택했다. 그리고두시간에걸쳐나는연 대의대표자들에게우리의견해를밝혔다.

“만약,”나는그들에게말했다. “러시아의광대한대중이새로운혁명에 궐기하여깨끗이정부를포기하고새로운기반으로그들의삶을조직하기 위해그것을다른정부로대체할필요가없다는것을이해한다면, 그것은진정한혁명이될것이고, 모든아나키스트는대중과함께행진할것입니다. 그러나만일우리 — 일군의사람들 — 이볼셰비키정부를체포해스스로

를그자리에두면본질은변하지않습니다. 그런다음같은매우비슷한제도를사용해나간다면우리는볼셰비키보다더잘할수있는것이하나도없을겁니다!”

마침내병사들은내설명을이해하고진정한혁명과아나키즘을위해앞으로일하겠다고맹세했다.

당시우리가“권력을장악”하지않았다고해서아직도우리를비난하는아나키스트가있으리라는것 — 그것도한두사람이아닌 — 은생각할수있는일이다. 그들에의하면우리는전진해서볼셰비키정부를체포하고그자리를차지했어야했다. 그들은우리가권력의도움을받아우리의사상을실현할좋은기회를잃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그것은우리의원칙에어긋나는일이다.

혁명이진행되는동안나는몇번이나청중들에게말했는지모른다. “당신을위해서, 당신대신에, 당신위에서누군가무언가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는것을결코잊지마십시오. ‘가장좋은’정부도파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만일언젠가나볼린이정치와권위주의의유혹에빠져내각직책을수락하고‘인민위원’이나‘장관’, 또는이와유사한것이되는일이있다면, 동지들은2주뒤내가진실과진정한대의, 진정한혁명을배신했다고생각하고, 안심하고나를총살해도좋습니다.”

다. 그발행부수는온갖장애물에도불구하고지방에서조차계속증가했다.

기존의조건아래서연맹의주된일은자신을알리기위해서, 또노동대중의주의를다른사회적조류에대한사상과태도로끌어들이기위해선전을강화하는것이었다. 이작업은주로정기간행물, 구두선전으로이루어져있었는데수단이부족해매우한정되어있었다.

이조직의아주짧은수명은세가지기간으로구분할수있다. 1. 10 월혁명이전, 2. 이제 2 혁명기간, 3. 그이후.

첫번째시기에연맹은일제히당시의정부(케렌스키정부)와정치혁명의위험(모든것이한점에수렴되는것처럼보였다)에반대해조합주의와자유의지주의적기반을지닌새로운사회의조직을위해싸웠다. 「골로스트루다」의각호에는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가장차다가올혁명의건설적인임무를구상하는방식에대한명료하고확실한기사들이실려있었다. 예를들어공장위원회의역할에관한일련의기사가있었는데, 소비에트의과업및농업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나, 그리고다른편으로새로운생산조직및교환에관한기사등이었다.

몇가지기사가운데 — 그리고특히논설가운데 — 신문은진정한해방혁명이무엇이어야하는지를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의입장에서노동자들에게구체적인방식으로설명했다.

따라서창간호<sup>2</sup>의〈혁명의막다른골목 The impasses of the Revolution〉이라는제목의사설에서「골로스트루다」는그반란의발전을검토해 1917년 8월에통과한위기를분석한후, 이전까지의사회주의적저작자들과는전혀유사하지않은방식으로미래의혁명적활동을구상했다고선언했다. 「골로스트루다」는볼셰비키나멘셰비키, 혹은사회혁명당좌파나사회혁명당우파와같은다양한정당및파벌의“계획”이나“전술”에강하게반대한다고말했다.

(기자는선언했다.) 만일우리가혁명의첫날과몇주동안, 즉자유로운출발점, 그웅장한전개와열정적이고무한한열망에대해더일찍목소리를높였더라면, 우리는그첫순간부터사회주의정당이지금껏예상해오던것과는전혀다른방법과행동을제안하고방어했을것이다. 우리는볼셰비키, 멘셰비키, 사회혁명당좌파, 사회혁명당우파등모든정당과파벌의“계획”과“전술”에강력히반대한다. 우리는혁명을위한다른목표를지적했을것이다. 그리고우리는힘써일하고있는대중들에게다른과업을제안했을것이다.

외국에서의우리의오랜작업은사회혁명과그과정에대한완전히다른일련의사상의선전에바쳐졌다. 아아, 우리의사상이경찰의장벽에가로막혀타국으로부터단절된러시아에침투하지못했음은얼마나유감스러

<sup>2</sup> 1917년 8월 11일.

## 제 4 부. 러시아혁명에서의알려지 지않은아나키스트출판물

우리는앞서《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프로파간다연맹》의기관지「골로스트루다」의사설을인용해볼셰비키에의한권력장악과브레스트-리토프스크평화협정및제헌의회에대한그조직의태도를제시했다.

이에더해다른인용문을첨가하는것이볼셰비키와아나키스트간의여러불일치지점의상세한내용을독자들에게보여주고, 혁명의문제에관한아나키스트의입장과마지막으로두사상의정신을명확히하는데에적절할것이다.

혁명기간동안러시아의아나키스트출판물은러시아바깥에는실질적으로알려지지않았기에<sup>1</sup> 이인용문중몇가지는많은독자에게독특한발견을제공할것이다.

「골로스트루다」는혁명이발발한지 5 개월반뒤인 1917 년 8 월 11 일에처음창간되었는데, 이는벌써돌이킬수없는지연이었다. 그럼에도동지들은정력적으로일에착수했다. 그과업은험난했는데, 볼셰비키당이이미대다수노동대중을획득했기때문이었다. 볼셰비키의활동과영향력에비해프로파간다연맹과그들의새주간지는거의무의미할정도였다. 그일은천천히그리고어려움과함께진행되었다. 페트로그라드의공장에는그일을하기위한여지가거의없었다. 그곳의모든사람은볼셰비키당을따르고있으며그들의신문을읽고그들의해석만을보았다. 아무도전혀알려지지않은조직이나낯선곳에서논의되고있는“별난”사상에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

그러나《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연맹》은재빨리어느정도영향력을획득했다. 곧그소리가들리기시작했다. 그들의모임은빠르게페트로그라드와그근교 — 즉크론슈타트나오부코프 Oboukhov, 콜핀 Kolpin 등에서상당히강력한단체를만드는데성공했다. 주간지도성공적이었

## 제 3 장. 10 월이후

<sup>1</sup> 프랑스어로쓰인볼린의글은“러시아바깥에는전혀알려지지않았기에”라고쓰여있다. 이전혀라는말은러시아아나키스트출판물중일부가지하로밀사들에의해밀반입되어미국의러시아망명자들에게전달되었기에사실상위와같이바뀌었다. 특히그러한인쇄물들은뉴욕에설립된러시아노동자노동조합본부로향했다.-영역자주

# 제 1 부. 권력을쥔 볼셰비키 — 볼셰비키와 아나키스트의 차이

사회혁명에 대한 두 가지 사상 — 국가적 중앙집권주의와 아나키스트 연합주의 사상 — 의 투쟁은 1917년 러시아에서 불평등한 것이었다. 국가주의적 개념이 승리하고, 볼셰비키 정부는 빙왕좌를 손에 넣었다. 레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와 그의 당은 전쟁을 종결시키고 혁명의 모든 문제에 직면해 그것을 진정한 사회혁명의 과정으로 이끌어 갈임무를 맡게 되었다.

승리한 정치적 사상은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 볼 것이다.

새로운 볼셰비키 정권은 사실지식인, 즉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의 정부였다. 그들은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공언하고, 그들을 사회주의로 이끄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노동 대중에게 받아들여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명령과 법률에 의해 모든 것 위에 군림해 정치를 행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그 정권과 그 수장인 레닌은 노동자 대중의 의지에 충실한 심부름꾼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 앞에서 그들의 결정이나 성명이나 활동을 밝힐 듯한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볼셰비키의 맨 첫 정책, 특히 유명한 것으로는 농민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법령(10월 26일)과 즉각적인 평화를 위한 첫 번째 공식 단계(10월 28일 법령)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비에트의 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더욱이 레닌은 이 법률이 대중에게 나 혁명적인 집단에게나 모두 만족스럽게 받아들여 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기존 상태를 승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바로그 레닌은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전에 1918년 1월에 열리는 제헌 회의 의해 산을 정당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월 혁명의 이 행동은 자세히 설명할 가치가 있다.

독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나키스트들은 그들의 모든 사회적·혁명적 개념에 따라 의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다음은 「골로스트루다」(페트로그라드 아나키스트 프로파간다 연맹의 공식 기관지)의 1917년 11월 18일(신력新曆 12월 1일) 자 제 19호에서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발전 시킨 문장이다.

직독재를 강요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밧』은 각처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비권위주의 적형태의 사회구조를 위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선언했으며, 그 실질적 구성요소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지테이션 및 극도로 정력적인 프로파간다로 중요 한 역할을 한 『나밧』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유의 지주의 사상이 확산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들의 주요한 기관지는 「나밧」이었다. 그것은 단결된 아나키스트 운동을 만들고 (이론상 일종의 아나키스트 “통합 synthesis”에 기반을 두고), 러시아의 모든 아나키스트 세력을 특정 경향과 관계 없이 전반적 조직으로 집결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리고 『나밧』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의 모든 아나키스트 그룹을 결속하고 또 대다수 러시아의 일부 단체를 병합해 범파시아 아나키스트 연맹도 창립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나밧』은 중앙의 탄광지대에서도 활동을 전개하여 혁명적 파르티잔과 농민, 도시 노동자들의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운동의 중핵인 『마흐노우슈치나』와 도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모든 체제의 반동에 대항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헤트만 hetman 스코로파즈키(Pavlo Skoropadsky)<sup>2</sup>에 맞서고, 페틀류라(Petlura), 데니킨, 그리고 리예프(Grigoriev)에 맞서서. 이러한 전투에서 그들은 가장 우수한 투사들을 거의 모두 잃게 되었다.

『나밧』은 당연히 “공산주의” 권력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는 상황 아래서 정부의 지령에 의해 거듭되는 공격에 저항할 수 있었다. 볼셰비키 당국에 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숙청은 1920년 말에 이루어졌으며, 그 투사 중 몇몇은 형식상의 재판 조차 없이 총살되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그리고 다소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이들 세 조직을 제외하고, 그밖에 덜 중요한 조직들이 존재했다. 1917년과 1918년에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나키스트 단체, 운동, 조류가 생겨났는데, 일반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들이긴 했으나 도처에서 꽤 활발히 행동했다 — 이들 중 일부는 독립적으로, 다른 일부는 위에서 인용한 세 조직 중 어느 곳과 협력하고 있었다.

원칙과 전술의 일부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운동은 근본적인 점에서 동의하고 있고, 힘과 기회가 있는 한 혁명과 아나키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며 노동 대중 가운데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 조직 — 반권위주의와 연방주의의 씨앗을 뿐였다.

그리고 결국 이들 모두는 같은 운명, 즉 “소비에트” 권위에 의한 잔인한 탄압에 마주쳤다.

<sup>2</sup> 지난 수 세기 동안 헤트만은 우크라이나 선출직 지도자의 직함이었다. 독일군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스코로파즈키는 이 칭호를 전용했다.

## 제 3 부. 아나키스트 조직들

혁명에서 아나키스트의 참여는 전투 활동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조건으로 비非권위적 사회의 즉각적이고 진보적인 건설에 대한 그들의 사상을 노동 대중사 이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자유의지 주의적 조직들을 창설하고, 그들의 원칙을 완전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실천에 옮기고, 기관지와 문건을 출판하고 유포했다.

당시 가장 활동적이었던 아나키스트 조직 몇 가지를 언급해보겠다.

1. 『골로스트루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라는 의미를 지닌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의 프로파간다 연맹이다. 그것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사상을 노동자들 사이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활동은 처음에는 1917년 여름부터 1918년 봄에 걸쳐 수행되었고, 이후 얼마 동안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골로스트루다」라는 그 기관지는 주간지로 시작해 그 후 일간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또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출판사를 설립했다.

권력을 잡자마자 볼셰비키는 모든 방면에서 이 활동 전반, 특히 출판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8~1919년에 걸쳐 “공산주의” 정부는 프로파간다 연맹을 완전히 해산시키고 곧이어 출판 사도 폐쇄했다. 모든 구성원이 투옥되거나 추방되었다.

2. 『모스크바 아나키스트 그룹 연맹』 The Federation of Anarchist Groups of Moscow — 이것은 비교적 큰 조직으로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에 모스크바와 그근방에서 집중적인 선전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Anarcho-Communism 성향의 일간지 「아나키」를 간행했으며,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주의 적 출판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1918년 4월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퇴출되었으나 그 운동의 일부는 1921년까지 존속했는데, 그 때 연방의 마지막 흔적마저 “청산” 되었고 최후의 무장 세력들은 “억압” 되었다.

3.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 조직총연맹 나밧』 The Nabat Confederation of Anarchist Organizations of the Ukraine<sup>1</sup> — 이 중요 한 조직은 1918년 말 우크라이나에서 창설되었으며, 이 때 볼셰비키는 아

“노동자, 농민, 병사, 수병 및 모든 육체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제헌 의회 선거 중입니다. 이것은 곧 소집되어 개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정당 — 볼셰비키를 포함해서 — 은 혁명의 궁극적인 운명을 이 중 앙기관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닥쳐올 두 가지 위험에 대비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볼셰비키가 제헌 의회에서 강력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또는 소수가 될 경우).

이 경우 의회는 쓸모 없고 잡다한 사회적 부르주아 정치제도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의 “국가 회의”, 페트로그라드의 “민주 회의”, “공화국 임시 위원회” 등과 같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허한 내용 없는 토론과 분쟁으로 뒤얽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을 후퇴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과장하고 싶지 않은 것은 오직, 이런 경우 대중이 무기를 손에 들고 혁명을 구할 방법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올바른 길로 밀고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중이 이러한 새로운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중은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왜 터무니 없는 기관을 수립해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와 돈을 낭비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의 혁명은 다시 한 번 멈출 것입니다!) “혁명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결말”에서 모면하게 하기 위해 “이어리석고 쓸모 없는 기관”과 나중에 싸우기 위해 또 다시 더 많은 힘과 피를 희생하는 것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 힘과 노력은 혁명, 인민, 전국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노동 대중을 마을이나 도시나 또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아래로부터** 직접 조직하고, 그 결과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코뮌과 자유로운 마을과 도시의 단체에 연합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역의 연합으로 이어질 이 모든 일은 정치적 또는 어떤 당의 회원들의 기반 위에 행해질 것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힘과 노력은 사업들에 원자재와 연료의 공급을 신속하고 정력적으로 조직화하고 통신 수단을 개선하고 전혀 새로운 교환과 일 반 경제를 조직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동의 잔당, 특히 중앙당에 대단한 위협을 주는 칼레딘 (Aleksei Maximovich Kaledin)의 운동에 대해 즉시 맞서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볼셰비키가 제헌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이 경우 그들은 손쉽게 “반대 세력”을 압도하고 무난히 소탕해 국가와 전체 상황의 확고한 공식 주인 — “인민의 다수”에게 공공연히 승인된 — 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볼셰비키가 제헌 의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sup>1</sup> 나밧은 러시아어로 “경보 Tocsin” 혹은 “경종 Alarm”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그들이필요로하고있는것 — 의회가그들의권력을공고히 통합하고“합법화”하는일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위험은첫번째위험보다훨씬더중대하고심각한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일단그들의권력이견고해지고“합법화”되면, 볼세비키 — 사회민주주의, 즉중앙집권적, 권위적활동가 — 는정부의독재적방법으로국가와국민의생활을중앙에서강제적으로재정비할것입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의그들의지위는온러시아에당의의지를지시하고전국에명령할것입니다. 여러분의소비에트와그외다른지역조직들은조금씩중앙정부의의지를집행하는기관이될것입니다. 노동대중의건강하고건설적인작업대신, 아래로부터의자유로운연합대신, 우리는위로부터행동하여그앞을가로막는것이면무엇이든지강철같은손으로깨끗이쓸어내는권위주의적이고국가주의적인기구의설치를보게될것입니다. 소비에트와다른조직은그뜻에복종하고따라야만할것입니다. 그것은“규율”이라고불릴것입니다. 중앙권력에동의하지않고그에복종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들에게는너무나나쁜일입니다! 대중의“보편적인허가”로인해그힘은강화되고그들이복종하도록강요할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동지들!

신중히보고기억하십시오.

볼세비키의성공이확실해지면확실해질수록, 또그들의입장이견고해질수록그들의행동은권위주의적인측면을더많이취하게될것이며, 그들의정치적권력의강화와방어는더욱분명해질것입니다. 그들은소비에트와다른지역조직에점점더절대적명령을내리기시작할것입니다. 그들은그들에게저항할경우무력을사용하는것을망설이지않고자신들의정책을상부에서시행해나갈것입니다.

그들의성공이확정되면될수록볼세비키의행동은더욱안정되고확실해질것이기때문에더많은위험이존재할것입니다. 새로운성공이거듭될때마다그들은머리를더돌릴것입니다. 레닌의정당이새로이일들을성취하는날마다혁명에대한위기는불어날것입니다.

더욱이여러분은이것을별써볼수있습니다.

새로운권위의최근명령과계획들을주의깊게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이미볼세비키지도자들이강제적중앙의수단에의해정치적이고권위주의적인방법으로사람들의삶을재배치하려는경향을뚜렷이볼수있습니다. 이미그들이국가에공식적인명령을내리는것을볼수있습니다. 여러분은이미그지도자들이“모든권력을소비에트로”라는구호를이해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모든권력을소비에트로”는소비에트와다른지역조직이단순한집행기관으로서복종해야만하는페트로그라드의중앙권력을의미합니다.

헤아릴수없이많은크고작은파르티잔부대가아나키스트에의해편성되거나지휘되고 [마흐노 (Nestor Ivanovich Makhno) 의파르티잔부대의중요성에대해서는말할것도없고모크로소프 (Mokrusov), 체르니악 (Tcherniak), 마리아니키포로바 (Maria Nikiforova) 등] 그들의전열에많은아나키스트가포함되어 1918년에서 1920년까지쉬지않고반동세력에맞서남부에서싸웠다. 그리고고립된아나키스트는모든전장에서전투원으로서노동자·농민의반란자들틈에끼어전사했다.

여기저기서아나키스트의힘이빠르게성장했다. 그러나아나키즘은이무서운전쟁에서가장강력한부대를많이잃었다. 혁명의최종적인승리에강하게기여한이승고한희생은당시간신히형성되기시작한러시아에서의아나키즘을실질적으로약화시켰다. 게다가불행히도아나키스트군은반혁명군에대한다양한전선에종군했으나이외의지역들은반혁명군에의해탈취되고있었다. 그러는동안아나키스트의활동과선전은현저히고통을받게되었다.

특히 1919년, 데니킨 (Anton Ivanovich Denikin) 장군이이끄는반혁명군이, 그리고이후브란겔 (Pyotr Nikolayevich Wrangel) 장군이이끄는반혁명군이아나키스트의전열을지금껏이상으로침공해왔다. 왜냐하면“백군”의패배에주로공헌한것은아나키스트들이었기때문이다. 백군은북부에있는적군赤軍에게는싸움을걸지않고, 그주력을《마흐노우슈치나》라불리는파르티잔군, 즉반란농민에의한남부의우크라이나에싸움을걸어왔던것이다. 《마흐노우슈치나》에는자유의지주의적사상이강하게뿌리내려있었고아나키스트인네스토르마흐노 (Nestor Ivanovich Makhno) 에의해인솔되고있었다. 그리고혁명가조직으로서는남부의자유의지주의조직만이데니킨과브란겔에대항해《마흐노우슈치나》대열에서싸운유일한이들이었다.

아래는이에대한통렬한세부사항이다. 남부에서일시적으로행동의자유를얻은아나키스트가영웅적으로혁명을방어하고목숨을바쳤지만, 사실그행동덕분에구원받은“소비에트”정부는나라의다른지역에서는자유의지주의운동을맹렬하게억압하고있었다. 그리고독자가앞으로보게될것처럼, 남부의위기가사라지자마자그지역의아나키스트들에게도억압이떨어졌다.

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는동부러시아와시베리아에서알렉산드르콜차크 (Alexander Vasilyevich Kolchak) 제독과의전투에대해서도큰역할을했는데, 그곳에서그들은많은투사와동조자들을잃었다.

많은수의자유의지주의자를포함한파르티잔부대는도처에서정규적군赤軍보다훨씬많은일을했으며, 도처에서아나키스트는사회혁명의기본원칙인진정한해방을목표로전진하는노동자의독립과행동의자유를방어했다.

할만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소수였다는 것, 결집이 매우 늦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대중 자신에 대한 조합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교육이 부재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나키스트나 대중 모두에게 이려한 지연을 극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페트로그라드에서는 크론슈타트의 수병이 재차 10 월의 결정적 전투를 위해 수도로 달려와 특히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다. 그들 중에는 수많은 아나키스트가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10 월의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가 드빈치 Dvintsi(드빈스크 연대 the Dvinsk regiment)에게 떨어졌다. 케렌스키 휘하에서 이연대 전체는 1917년 6 월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선의 공세에 참가하기를 거부해 투옥되었다. 크렘린에서, “메트로폴”에서, 그리고 모스크바의 다른 지역이나 훨씬 위험한 현장에서 “백군”(그 당시 카데트 Kadets라고 불리고 있었다)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활약했던 것은 드빈치였다. 카데트가 원군을 얻어 공세를 재개했을 때, 열흘간의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언제나 드빈치였다. 드빈치는 모두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불렀으며, 그라초프 (Gratchov) 와 페도토프 (Fedotov)라는 예부터 아나키스트인 두 사람의 지휘 아래 행동했다.

『모스크바 아나키스트 그룹 연맹 The Anarchist Federation of Moscow』은 드빈스크 연대 일부와 함께 케렌스키 정부 군에 맞서 싸우기 위한 행군에 앞장섰다. 프레스니아 Presnia, 소콜니키 Sokolniki, 자모스크보레치아 Zamoskvorechchia, 모스크바 등지의 노동자는 선봉인 아나키스트 그룹들과 함께 전투에 돌입했다. 프레스니아의 노동자는 매우 용감한 투사이자 아나키스트 노동자인 니키타 니키타(Nikitin)을 전투 중에 잃었다. 그는 언제나 반드시 최전방에 있었는데 시가전에서 전투가 끝날 무렵 치명상을 입었다. 그 외 수십 명의 아나키스트 노동자도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공동묘지에 묻혔다.

10 월 혁명 이후 아나키스트는 새로운 “공산당” 권력과 사상 및 방법 상 결별하기는 했으나 한결 같은 인내와 협신으로 혁명의 대의에 계속 봉사했다. 우리는 그들만이 의회의 원칙을 거부했고, 또 그들이 예견한 것처럼 의회가 혁명의 장애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해산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후 그들은 반복되는 반동의 공격에 맞서 그들의 적들 조차 인정하는 정력과 극기심으로 모든 전장에서 싸웠다. 라브르 G. 코닐로프 (Lavr Georgiyevich Kornilov) 장군에 대항한 페트로그라드의 방어전에서 (1917년 8월), 남부의 칼레딘 장군에 맞선 전투에서 (1918년), 그밖의 장소들에서 아나키스트는 뛰어난 역할을 했다.

볼셰비키지도자들이 여전히 대중에게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고 대중이 그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성공이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여전히 대중의 태도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기정사실화되고 대중이 열정적이며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 농민, 병사동지들!

이 위험에서 결코 시야를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로운 권리의 폭력과 명예, 새로운 주인, 즉 중앙 집권화된 국가와 새로운 사기꾼들, 즉 정당의 수장들에 대항하여 당신의 조직과 운동의 진정한 혁명과 진정한 자유를 방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볼셰비키의 성공이 그들을 사기꾼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성공을 무덤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감옥으로부터 혁명을 구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만이 자유로운 지역 조직과 그 연합을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새로운 삶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볼셰비키는 여러분에게 종종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분석으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실행하면 더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지들, 모든 새로운 주인들은 대중의 동정과 신뢰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달콤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케렌스키도 꿀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쓰디쓴 심증은 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과 연설이 아니라 제스처와 행동을 관찰하고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일 사이의 작은 모순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말을 믿지 마십시오, 동지들. 오직 행동만을 신뢰하십시오!

제헌의회도, 당이나 지도자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과 혁명만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여러분만이 — 즉 여러분 지역의 대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뭉쳐 올려진 조직, 당이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 그리고 지역의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연합 — 새로운 삶의 건설자이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헌의회도, 중앙 정부도, 당이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골로스트루다」 의다음호 [1917년 12월 2일 (신력 15일) 자제 21호]의 “제헌의회에 대신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나키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아나키스트가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의에 비추어 솔직히 해롭다는 점에서 제헌의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제헌의회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

게하도록이끄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제헌의회를 반대하는 것은 변덕이나 고집, 모순의 정신 때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것에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반대에도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회 혁명의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 부터의 권위적·정치적 중앙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경제적 조직의 도움으로 아래로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새로운 생활을 조직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헌의회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완전히다른 “구성원” 기관 —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통합된 노동자 조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헌의회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제헌의회를 위협하기 위해 이다른 조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세비키는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직접적 계급 조직 (소비에트 등)을 인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적절하고 무익한 조직인 제헌의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이중성이 모순적이고, 해롭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볼세비키가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정치”와 “경제”, “권위”, “계급”的 문제를 뒤섞어 혼동하고 있는 사실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죽어버린 편견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데 물 속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기간 동안 권력의 조직화를 주요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순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권력의 조직화”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혁명의 조직화”로 대체할 것입니다.

“권력의 조직화”는 논리적으로 제헌의회로 이어집니다. “혁명의 조직화”는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다른 건축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는 의회를 위한 방은 없을 것이며, 엄밀히 말해 의회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헌의회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볼세비키는 의회 소집을 제안했지만, 볼세비키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 당시 정세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 의회를 지배하거나 해산 시켜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1918년 1월 그 집회가 소집되었다. 집권한 3개월간 볼세비키당은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제헌의회는 반대 볼세비키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진전은 아나키스트의 예상을 확실히 확인해주었다. “만약 노동자들이” 그들이 말했다. “정치적 희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조용히 경제적, 사회적 건설 사업을 추구한다면 대다수 인민은 마침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불필요한 걱정을 등에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집회가 전혀 무익하고 그 “회의”는 읊울하고 전반적으로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누구나 사실 그 기관이 허약하고 허황될 것

원으로 이동해 대중에게 정치적 해결책의 위험성을 경고한 유일한 원칙이었다.

당시 아나키스트 세력은 민주주의 정당들에 비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아나키즘은 여기저기서 “민주주의”的 함정에 향의하는 노동자, 지식인의 작은 그룹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뿐이었다. 사실 그들의 소리는 헛되며 떠파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몇몇 사람의 지지자와 운동이 그들 주위에서 성장해갔다.

1917년의 혁명은 처음에는 흥수처럼 성장하고 확산되었다. 한계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절대주의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은 “역사적 행동의 영역, 그 문을 열었다.”

정당들은 그들의 입지를 굳혀 자신을 혁명 운동에 순응시키고자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노동자들은 확실히 그들의 적에 반대해 전진하고 “의도”를 품은 각종 정당을 차례로 내버려 두고 지나갔다. 볼세비키 — 가장 철저히 조직된 당이고 권력에 가장 열성적·결정적 욕망을 품은 — 도현실과 대중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들의 슬로건을 몇 번이고 거듭해변경해야만 했다 (“제헌의회 만세!” 그리고 “노동자의 생산 관리 만세!”라는 그들의 첫 번째 슬로건을 상기해보라).

1905년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는 1917년에도 사회 혁명의 진실하고 완전한 단 하나의 옹호자였다. 그들은 한정된 인원과 경제적 약점, 조직 의미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지켜나갔다.

1917년 여름 동안 아나키스트는 말과 행동으로 농민 운동을 지지했다. 아나키스트는 또한 10월 봉기보다 훨씬 이전에 노동자가 각처에서 공장의 경영을 수용해 자율성과 노동자의 집산화를 기초로 조직화를 시도했을 때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아나키스트는 7월 3, 4, 5일, 크론슈타트와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와 수병 운동의 전열에서 싸웠다. 페트로그라드에서는 노동자와 혁명가의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 인쇄소를 수용함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그해 여름, 볼세비키가 부르주아지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더 대담한 태도를 취했을 때, 아나키스트는 이에 동의하고 레닌 및 다른 볼세비키를 “독일 정부의 앞잡이”라고 부르는 부르주아 사회주의 정부의 거짓말과 맞서싸우는 것이 그들의 혁명적의무라고 생각했다.

아나키스트는 또 한 케렌스키 연합 정부 (제 4 차임 시내각)에 대항해 1917년 10월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등지에서 선봉에서 싸웠다. 다른 권력의 이름 아래서 가 아니라 오로지 진정한 새 기반을 건설할 권리 를 대중에게 쟁취하게 하려는 명목 아래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독자가 알고 있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상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아나키스트는 이를 바른 목적을 위해 최후까지, 더구나 홀로 싸웠던 것이다.

만일 이 점에 관해 그들을 비난할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 간의 합의에도 달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대중 간 자유 조직의 기반을 만족

엇이며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연구는 그 진정한 역할, 활동 그리고 볼셰비즘의 시스템에 관해 필수 불가결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질문에 답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심각한 현재 및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뒤떨어지고 극도로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종류의 장애물과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대상이 되었던 포괄적이고 견딜 수 없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스트는 여기저기서, 특히 1917년 10월 이후 활기차고 깊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들의 사상은 특정 지역에서 신속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들에게 가해진 무거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했다.

혁명 과정에서 아나키스트의 활동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첫째 그것은 현저한 효과를 올렸다. 대중의 눈에 다소 신용을 잃은 볼셰비키주의자의 이론과 행동에 대해 **새로운 사회 혁명사상을 대치시킨 것은 오직 그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는 그 사상을 힘으로 미치는대로 선전하고, 방어하고, 비인간적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심 없고 숭고한 헌신으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나키스트는 적의 압도적 우세인 수와 광란적인 선동과 부정행위, 그리고 유례 없는 폭력에 의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최초의 성공에도, 또는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 데에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통합된 용기와 자기 희생 덕분에, 또 “내각”이나 여러 관료 가운데서 기아니라 대중의 한복판에서 끊임 없이 나타나 활동한 덕분에, 또 끝으로는 당장의 심스럽게 되어버린 볼셰비키의 행위를 보는 직면해 그들의 사상의 놀라운 활력 덕분에 아나키스트는 친구와 지지자를 발견했다 — 이들이 행동할 수 있었던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볼셰비키가 이 성공이 그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나키스트의 활동과 프로파간다에 즉각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하지 않았다면, 혁명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건의 출발이 늦은 것, 이 거대한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서면으로 선전을 수행할 수 있는 투사의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 대중의 준비 부족,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박해와 상당수의 인적 손실 — 이러한 모든 사정이 아나키스트의 사업 확장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볼셰비키 정권에 의한 억압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사실들을 살펴보자.

러시아에서 아나키스트는 언제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민의 해방을 목표로 한 사회 혁명 사상을 대중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1905년의 혁명은 아나키스트를 제외하고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혹은 “차리즘을 타도하자!”, “민주 공화국 만세!”와 같은 슬로건 아래 행진했다. 볼셰비즘도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아나키즘은 그 당시 문제의 근

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는 그 존재에 종지부를 찍기를 주저했다.

볼셰비키는 드디어 제헌의회를 해산하기 위해 아나키스트의 거의 우연한 개입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다.

운명은 내가 아나톨 젤레즈니아코프 (Anatol Jelezniakov)라고 이름붙인 크론슈타트 출신의 아나키스트가 707명의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토리드 Tauride 궁전의 수비대 지휘관으로 볼셰비키 당국에 의해 임명되기를 결정했다.<sup>1</sup>

각정당의 지도자들은 밤을 새워 연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하던 수비대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몇 시간의 토의 끝에 의회의 다수에게 볼셰비키의 강령은 거부되었다. 그런 다음 볼셰비키와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당원들은 우파 의원들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남기고 퇴장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른 연설이 새벽까지 계속되어 졌다. 마침내 그 부대의 대장이었던 젤레즈니아코프는 회장으로 들어가 연단에 올랐다. 수비대장은 우파의 지도자이자 《사회주의 혁명당》의 지도자인 빅토르 체르노프 (Victor Tchernov)를 향해 말했다. “부디 폐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하들이 지쳐 있습니다!”

의장은 격분해 성을 내며 항의했다.

“수비대가 지쳐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젤레즈니아코프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모두의 사당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잡담은 이제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떠들어 대지 않았습니까. 나가주시오!”

의회는 그 말에 따랐다.

이튿날 아침, 의원들이 다시 낮에 모일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볼셰비키는 이 사건을 이용했다. 그들은 토리드 궁의 제헌의회 의사당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병사들은 소총과 기관총 및 야포 두문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날이 끝나기 전 의회를 해산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sup>1</sup> 다른 많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볼셰비키는 오랫동안 젤레즈니아코프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언론에서 그가 볼셰비키가 되었었거나 혹은 형상 볼셰비키였다 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난처했으리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젤레즈니아코프가 사망했을 때 (그는 중앙 러시아에서 “백군”과의 전투 중 친명상을 입었다) 볼셰비키는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Izvestia」 에서 그가 죽어가는 병상에서 볼셰비즘에 동의했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그들은 그가 시종일관 볼셰비키였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나나 다른 동지들이나 젤레즈니아코프를 직접 알고 있었다. 그가 페트로그라드를 떠나 전선으로 갈 때, 나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아나키스트로서 볼셰비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아나키스트이고, 아나키스트로서 싸우고, 내게 어떤 운명이 닥쳐도 나는 아나키스트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필요한 경우, 볼셰비키의 거짓말을 뒤엎어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나는 여기서 그의 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후에 레닌 정부는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앞에서 이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볼셰비키에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정부의  
지가 “피지배자”, 즉 인민의 의지와 충돌하게 된 그 날까지.

그 뒤에 독일의 새로운 공세에 직면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10 월 혁명 이후 러시아 국경을 따라 작전을 펼치던 독일군은 한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었다. 명령을 보류하고 사태를 기다려 정세로부터 가능한 가장 큰 이득을 얻기 위해 꾀를 부리고 있었다.

1918년 2월, 독일인들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해 혁명적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볼셰비키 정부가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러시아 군대는 싸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했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 해결책은 동시에 혁명의 첫 번째 문제 —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할 것이었다.

두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있었다.

1. 전선을 포기하는 것. 독일군이 광대한 반란 지역으로 진군하게끔 하여, 러시아의 오지로 끌어들여 고립시키고, 보급을 끊고, 계릴라전을 벌여 사기를 꺾고 해체해 사회 혁명을 지키는 것 — 이는 1812년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었고, 러시아와 같이 광대한 토지에서는 언제나 가능했던 전술이다.

2. 독일군 사령부와 협상에 돌입하는 것. 그들에게 평화 협정을 제안하고 교섭해 어려운 조건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와 최대주의자 Maximalist, 아나키스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노동자 조직이 협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사회 혁명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 그 결과로 독일 등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견해였다. 요컨대 이과정 — 참으로 인상적인 직접 행동 — 이 기존 조건 아래서,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혁명을 방어하는 유일한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골로스트루다」<sup>2</sup>는 <혁명정신 The Revolutionary Spirit>이라 는 사설에서 독일의 맹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우리는 혁명의 결정적 전환점에 있다. 그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위기이다. 닥쳐오고 있는 그 시간은 인상적으로 분명하고 더없이 비극적이다. 마침내 상황은 분명하다. 문제는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 몇 시간 안에 우리는 정부가 독일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모든 미래와 세계 사태의 과정은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다.

<sup>2</sup> 1918년 2월 24일 제 27호

불구하고, 그리고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 반세기 동안 “수행된” 잊을 수 없는 파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걸핏하면 그들은 아나키즘을 조롱하려 들었다. 그들은 아나키즘이란 “모든 사회와 모든 조직을 포기하고”,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무지한 대중들에게 믿게 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가? 또 그들은 오늘 날까지 시험되어온 모든 비非아나키즘제도 현실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을 눈앞에 보면 서도 아나키가 무질서와 동의의 어라고 말하지 않는가?

아나키즘에 대한 정책은 너무 완전무결해서 그것을 포섭하기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 가 불가능하며, 또 아나키즘이 온갖 “정치적” 활동을 배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나키즘에 대한 정책을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즉 아나키즘이 출현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제기되는 불신과 공포와 일반적인 적대 — 또는 적어도 냉담과 무시와 뿐만 아니라 —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나키즘을 오랫동안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서히 사건과 선전에 힘입어 여론은 아나키즘과 아나키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속임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방대한 대중이 아나키즘을 이해하고 박해 받고 있는 사상에 대한 흥미가 점차 늘어나,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감에 따라 “사기꾼들”(“교수형 집행인”이라고 써도 좋다)<sup>1</sup>에 대해 적대할 날도 머지 않았을 것이다.

(스페인 내전 중 언론이 공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백과 진실은 벌써다 소잘 알려져 있는 그밖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유익한 효과를 내어 아나키즘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움직이게 되었다.)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나키스트에 대한 볼셰비키 정부의 태도는 사기, 중상모략, 억압이라는 점에 있어 과거의 어떠한, 또한 현재의 어떠한 정부의 그것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아나키즘이 혁명 중에 연출한 역할과 러시아에서 마주한 운명은, 통례적으로 억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역할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간 조금씩 쌓여온 의외의 새로운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여러 사건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에도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현상들을 예측하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독자들은 여기서 푸로 되는 사실을 이해할 권리 — 심지어 의무 — 이기 조차 한 — 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 혁명에서 아나키스트의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역할과 운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아나키스트가 제시하고 방어한 “이것과 다른 혁명사상”的 숙명은 무

<sup>1</sup> 프랑스어로 사기꾼 *bourreurs* 과 교수형 집행인 *bourreaux*. 블린의 매우드 문동 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이다. -영역자주

그이상의정당에의해평등하게분담된다면모든것이최선으로이루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 사물의성격상, 이는명백한오류였다.

볼셰비즘이파탄한이유를이해하고그에대해싸우기로결정한노동대중의활동적인분자들은이를잘알고있었다. 그들은극히한정된방법으로밖에《사회주의혁명당》좌파를지지하지않았다. 그들의저항은빠르게격파되었고, 러시아에어떠한반향도불러일으키지못했다.

그러나아나키스트의저항은당장무서운탄압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훨씬광범위한지역으로확대되었다. 색다른혁명사상의실현을목표로도처에서사건의과정에서중요한지위를획득했으며, 이투쟁과변화는모든독자에게주목할만한가치가있을것이다.

한편으로는볼셰비키에의해의도적으로왜곡되고, 나중에는억압되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중요한사건에서빠져있는이서사시가(흥미를느끼고있는사람들을제외하고) 널리일반적으로는물론다소나마러시아혁명을연구하고있는사람들에게마저도알려지지않은채남아있다는것을덧붙여두어야하겠다. 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것은그들의조사연구나자료바깥에남아있다. 인류역사가운데아나키즘처럼왜곡되고중상모략을받아온사상은없다고봐도될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아나키즘에관심조차없다. 그들은모든정부에의해“공공의제 1 의적”이라고간주되어왔으나, 도처에서유별나게악의에찬방식으로소개되고있는“아나키스트”를특히공격한다. 가장좋은경우에도그들은“원래미친”, “반쯤미친”미치광이라고비난받는다. 또더자주“도적”, “범죄자”, 지각없는테러리스트, 무차별폭탄투척자로묘사된다. 확실히아나키스트중에는테러리스트가있었고지금도있지만, 다른정치, 사회조직혹은그러한경향의추종자중에도테러리스트가있는것과다를바가없다. 그러나대중이아나키즘에흥미를느끼고그것을이해하도록용인한다는것은너무나유혹적이고위험하다고보는데서, 엄밀히말해모든나라의각종의견을달리하는모든정부가아나키스트테러리스트에의한아나키즘자체의이름을더럽히는폭력행위에서이득을보고있다. 그리고그들은이들테러리스트의얼굴에진흙칠을할뿐만아니라그들의수단이어떠한것이든모든투쟁을함께더럽히고있는것이다.

아나키스트사상가나이론가는가장자주“공상가”, “무책임한몽상가”, “추상적철학자”, “몰상식한사람”등으로취급되는데, 아나키즘이“추종자”들에의해해석되는것은위험하다고취급된다. 또“신비주의자”라고불리는경우도있는데, 이경우그사상은아름답지만현실의생활혹은살아있는사람과전혀상관이없다고이야기된다(부르주아측에서는자본주의체제가안정적이고“현실적”인것이며, 사회주의측에서는권위주의적사회주의사상이공상적인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 부르주아지에의해수백년간쌓이고쌓인무어라해석할수조차없는무질서와사회적불행에도

독일이제안한조건은명백하며유보가없다.

여러정당의몇몇저명한당원및정부의생각들은이미알려져있다. 그러나어디에서도통일된의견이없다. 볼셰비키가운데도의견이불일치한다. 사회혁명당좌파당원가운데도의견이불일치한다. 인민위원회에서도,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와그집행부에서도의견이불일치한다. 대중사이에서도, 작업장에서도, 공장에서도, 병영내에서도의견이불일치한다. 그리고지방의의견은아직알려져있지않다.

(앞서언급했듯《사회주의혁명당》좌파의의견과페트로그라드노동대중의의견은독일과의평화협정조인에적대적인것으로밝혀졌다.)

독일의최후통첩시간제한은 48 시간이었다. 이런조건아래에서는원하든원하지않든, 문제는정부의테두리안에서만논의되어조급한결론이나와야할것이다. 그리고그것이가장끔찍한일이다….

우리의의견에대해서는독자들이이미알고있을것이다. 우리는처음부터“평화협정”에반대했다. 오늘우리는협정에서명하는것을반대한다. 우리는당장강력한파르티잔저항조직을필요로하고있다. 우리는평화를요구하는정부의전보를철회해야한다고생각한다. 도전을받아들여혁명의운명은전세계노동자의손에단호히직접놓여야한다.

레닌은평화협정서명을주장하고있다. 그리고우리의정보가정확한다면, 대다수가결국그를따를것이다. 평화협정은체결될것이다.

이혁명이궁극적으로반드시승리하리라는깊은확신만이우리가이불의의사태를지나치게비극적으로받아들이지않게끔한다. 그러나평화협정을체결하는방법은 혁명에큰타격을입히고, 혁명을약화하고타락시켜오랜시간에걸쳐혁명을왜곡할것이라고우리는절대적으로확신한다.

우리는특히 <혁명적공론에대하여 On Revolutionary Phrases><sup>3</sup>라는기사에서레닌의주장을잘알수있다. 그러나그주장은우리를납득시키지못한다.

「골로스트루다」는레닌의견해를상세히비판하고반대의견을제시했다. 그들은평화를받아들이는것은혁명을느슨하게만들고오랜기간에걸쳐혁명을미약하게하고, 민혈貧血에걸리게하고, 무색하게만들것이라고주장했다. 그와같은평화를받아들이면혁명은뒤틀려무릎을꿇고, 날개를잘리고, 기어다니게될것이라고말이다. 정기간행물은다음과같이끝맺고있다. “혁명적정신, 투쟁에대한위대한열정, 세계해방에의빛나는사상의웅대한도약을빼앗길것이다. 그리고세상의빛은꺼지게될것이다.”

처음에볼셰비키당중앙위원회의대다수는첫번째해결책에찬성했다. 그러나레닌은이대답한결정을두려워했다. 다른독재자들처럼그도공식명령이나흑막의음모에의해간부나정치인에의해이끌리지않는다

<sup>3</sup> 「프라브다 Pravda」 제 31 호.

면대중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독일이 제시한 평화 협정을 거부할 경우 혁명에 대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는 “일시정지” 해정 규준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혁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레닌은 대중과 동지들의 의견에 감히 반대를 무릅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동지들을 위협하며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실행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동지들은 결국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잊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양보했다. 대중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짓밟혔다. 1918년 3월 3일,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sup>4</sup>

이렇게 하여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자” 가처음으로 노동 대중을 제치고 승리했다. 볼셰비키 권력은 처음으로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대중이 아닌 그들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는데 성공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 협정 Treaty of Brest-Litovsk은 볼셰비키 정부에 의해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워졌다. 사람들은 완전히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처리를 도맡았다. 정부는 문제를 촉발하고 억지로 사태들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것은 대중의 저항을 무너뜨렸다. 정부는 대중을 진압하고 복종시켜서 그들을 강제로 수동성에 빠뜨릴 수 있었다.

덧붙여서, 나는 이 열광적인 시기에 유명한 볼셰비키니콜라이 부하린 (Nikolai Ivanovich Bukharin) 이후에 악명 높은 모스크바 숙청 재판 과정에서 처형된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전에 뉴욕에서 그와 친분을 쌓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러시아에서 서로 만난 적은 없었다. (당시 볼셰비키 정부 청사였던) 페트로그라드의 스몰니 연구소 건물의 복도를 급히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한 쪽 구석에서 부하린이 볼셰비키 무리 가운데 한 몸짓으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리로 갔다.

그는 대뜸, 그리고 감정에 가득 차 평화 협정 문제에 대한 레닌의 태도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이점에 관해서는 사회 혁명당 좌파나 아나키스트, 일반 대중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레닌이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자신의 의지와 잘못을 모두에게 강요하며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해당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선언했다. 부하린에 의하면 레닌의 잘못은 혁명에 치명적이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레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이 혼자라고 하

소유자이고,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의 모든 생활의 유일한지도자 이자 조직자이자 선동가였다.

1억 5천만의 “주민들”은 점차 단순히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 정부와 그 무수한 대변자의 도피 할 수 없는 노예로 변해갔다. “노동자들이 여, 당신들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소비에트에서 비롯해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적, 사회적 기타 조직은 정부가 경영하는 한갓 행정 기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국가적 착취 협동 조합”을 형성했다. 그것은 완전히 “중앙 행정 협의회” (정부)에 종속되어 정부의 대리인 (관리와 비밀 경찰)에 의해 밀접하게 감시되어 표면적 독립 조차 박탈된 기관이었다.

12년 전에 완성된 이 진화의 진정하고 상세한 역사 — 전 세계를 통틀어 독특한 경이적인 역사 — 는 그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이 될 만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몇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독자 여러분은 이미 불가피하게 반대 운동을 자극하여 볼셰비키의 방식으로 혁명을 내다보지 않고 혁명을 방어하고 혁명이 급속히 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좌파들에 의해 혁명의 질식과 그에 따른 비참한 필연적 결과가 가지 적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줄기찬 운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와 아나키스트 사이에서 성장했다.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의 반란은 적인 정치적, 국가주의 적당에 대한 반란이었다. 공산당과의 차이점 및 볼셰비키 혁명의 비참한 결과로 나온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의 환멸은 마침내 그들을 볼셰비키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사회 혁명당 좌파는 잠시 동안 레닌의 당과 협력했으나 정부에서 탈퇴하도록 강요 받으며 점차 반정부에의 폭력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반대 볼셰비키 선전과 봉기 시도, 테러가 행해졌다.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는 레온체프스키 Leontievsy 가정에서 벌어진 유명한 암살 사건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장군 아이히호른 (Hermann Emil Gottfried von Eichhorn) 과 모스크바에서 독일 대사 미르바흐 (Wilhelm von Mirbach) 의 암살 — 볼셰비키 정부와 독일 정부의 거래에 반대하는 두 가지 폭력적인 시위 — 을 조직했다. 그 후 그들은 몇몇 지방의 봉기를 선동했으나 이내 빠르게 진압되었다. 그 투쟁에서 그들은 가장 좋은 세력 일부를 희생했다.

그들의 지도자 마리아스파리도노바, B. 캄코프 (Boris Davidovich Kamkov), A. A. 카렐린 (Apollon Andreevich Kareljin) 등은 몇몇 익명의 무장 세력과 함께 이러한 사건에서 매우 용감히 행동했다. 그러나 설혹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결국 볼셰비키당의 행동과 완전히 동일했을 것이다. 동일한 정치 체제가 피할 수 없이 같은 결과를 낳았을 테니 말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는 공산당의 헤게모니와 독점에 반대해 일어섰다. 그들은 권력이 단일한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대신들 또는

<sup>4</sup> 협정은 러시아로부터 “약 18 개 지방과 같은 크기의 영토”를 빼앗아갔다.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에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독점하고 주도권과 사실과 행동의 책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서,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이 불일치를 조장한다. 이 불일치는 항상 지배자에게 유리한데, 그들은 당장 자산의 권위를 온갖 방법으로 강요한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주도권이 필연적으로 이들 지배자 쪽으로 옮겨지는데, 그들은 조금씩 피지 배자의 주인이 되어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무능과 부적합함과 자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이권력을 고수하게 된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을 혁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고 있다. “레닌(또는 스탈린)은 히틀러처럼 항상 옳다.” … “노동자들이여, 당신들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우리가 더 잘 명령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슬로건의 마지막 부분은 “노동자의 당”의 “온화한 지도자”의 입으로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여 조금씩 지배자는 국가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간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반으로 하는 특권 계급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고, 모든 반대와 모든 모순, 독립적 자주성에 맞서 철저히 스스로를 방어한다. 모든 것을 독점하고 국가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장악한다. 그리고 달리 행동할 방법이 없기에 그들은 억압하고, 복종시키고, 노예로 만들고, 착취한다. 그들은 모든 저항을 억압한다. 그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박해하고 추방한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비방한다.

진실을 얹누르기 위해 그들은 야만적으로 된다. 그들은 감옥과 유형지를 가득 채운다. 그들은 고문하고, 살해하고, 처형하고, 암살한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에서 정확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다.

일단 권력을 튼튼히 정착 시킨 후 절대군주인 볼셰비키는 자신의 관료, 군대, 경찰을 편성하고, 돈을 만들고, “노동자”라는 이름의 국가를 새로 건설하고 혁명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자신 의 손에 거머쥐었다. 서서히 — 선동적 선전과 강제와 억압의 힘들을 증대시키기까지 — 정부는 언론과 사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독점했다.

경지耕地, 모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국가 — 그러니까 정부 — 였다. 국가는 진짜 주가 되었다. 농민은 집단적으로 점차, 처음에는 국가의 농민이 되고 나중에는 앞으로 보게 되듯이 정말 농노가 되어버렸다. 작업장이나 공장, 광산 — 요컨대 생산, 수송, 교환의 모든 수단 — 을 몰수한 것은 정부였고, 마침내는 정부가 국가의 신문이나 그밖의 사상을 전파하는 다른 모든 기관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버렸다. 출판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인쇄된 것은 모두 — 명함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생산되거나 혹은 적어도 엄중히 통제된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 — 그러니까 볼셰비키 정부 — 는 마침내 러시아 영토 내의 모든 것의 정말 유일한 저장소이고,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사물의

더라도 당신은 레닌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가지고, 발표하고 선전하고 옹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것이 무얼 뜻하는지 모를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세요. 레닌과 싸운다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당에서 추방당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규율, 무장한 동지들에 대한 반란을 뜻합니다. 나는 당 안에 분열을 촉진 시켜나와 함께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을 끌어내 레닌과 싸우기 위한 또 다른 당을 만들의무가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의 지도자가 되어 레닌과 볼셰비키 당에 전쟁을 선언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리더의 자질이 없습니다. 설령 자질이 있대도, 아니, 아니, 나는 못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몹시 흥분해 손을 머리에 얹고 거의 울상이 되었다.

나는 급한 일이 있었고, 이 이상의 논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껴져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났다. 우리가 알고 있듯, 그는 나중에 레닌의 이론에 따랐다. 물론 겉으로 그런 것 뿐이었지만.

이것이 새 정부와 통치당하는 인민 간 첫 번째 심각한 차이점이었다. 그 것은 스스로 부여한 권력의 이점으로 인해 해결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기였다. 그리고 첫 번째 이기는 했으나 가장 곤란한 것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일은 “저절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일단 노동 대중의 의지를 면죄부로 유린하자, 일단 행정의 주도권을 잡자, 새로운 권력은 말하자면 혁명을 둘러싼 올가미였다. 나중에는 올가미를 조이고, 그로 인해 대중을 강요하고, 마침내 그것이 습관화되게 하여 모든 주도권을 쥐고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게 하고, 혁명 전체를 독재 편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만이었다.

사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모든 정부가 취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국가주의적, 중앙집권적, 정치적 정부를 유지하는 모든 혁명이 걸어갈 길은 그러한 것이다.

이길은 경사져 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든 그 경사면에 있으면 저절로 미끄러진다. 아무 것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처음에는 지배자도 피지 배자도 무슨 일도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전자는 (그가 진실하다는 가정에 한해서) 스스로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후자는 거기 매혹되어 단단히 쥐어 잡하고, 지배당하고, 따라간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그룹, 특히 피지 배자가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되돌아가는 것도,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너무 나 깊게 이 치명적인 경사에 말려 들어버린 것이다 (낙하하는 가속이 너무 큰 것이다). 그리하여 피지 배자 가지 배자에게 항의하며 이 위험한 비탈을 다시 기어 오르려 해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버린 것이다.

## 제 2 부. 치명적인내리막길

이후러시아혁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볼셰비즘의 진정한 역할을 이해하고, 인류 역사에서 다시금 웅장하게 승리한 대중의 반란을 한탄할 만한 실패로 바꾼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행히도 아직 충분히 널리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오해는 진정한 이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을 방해하고 있다.

### 여기 첫 번째 사실이 있다.

명백하고 확실하게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모순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는 — 그리고 결정적 승리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었던 — 진정한 혁명과,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와 국가주의의 이론 및 실천이 그것이다. 국가 사회주의 권력의 본질 (만일 그것이 승리한다고 하면) 과 진정한 사회 혁명 과정의 본질 사이에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진정한 사회 혁명의 본질은 모든 노예 노동에서 해방된 노동 대중의 광대하고 자유로운 창조적 운동을 인정과 성취에 있다. 그것은 해방된 노동, 자연스러운 조정과 근본적인 평등을 바탕으로 한 건설 과정의 긍정과 확장이다.

근본적으로, 참된 사회 혁명은 참된 인류 발전의 시작, 즉 모든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의 방대하고 명백한 주도권을 기반으로 한 인류 대중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승이다. 혁명의 이본질은 혁명적인 민족의 해본질적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소정 확하게 이해되고 공식화되었다.

이 사회 혁명의 정의 (반박할 수 없는 정의)에서 “자동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대중에 대한 **권위주의적 방향** (독재 혹은 그 외)의 개념 — 순전히 옛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착취의 세계 속하는 개념 — 이 아니라, 그것들의 진화를 가져오기 위한 협력의 그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한 모든 혁명적 사상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교류의 필요성, 나아가 마침내는 거짓 없는 진리에 대한, 즉 대중과 혁명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필요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국가 사회주의와 위임된 권력의 기초는 이러한 사회 혁명의 원칙을 명백한 태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상의 주요한 특색 (권위, 권리, 국가, 독재)은 미래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부르주아적과 거의 일부이다. 혁명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념, 혁명적 과정을 제한하고 “종결” 시키는 사상, 그것을 가로막고 돌처럼 굳게 만드는 경향, 그리

상 권력에 기생해 관계하기를 원하는 반동적, 부르주아적 분자의 원조와 지원으로 자신을 보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은 발밑에서 땅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점점 대중과 멀어져 혁명과의 마지막 유대도 끊어버리고 크고 작은 독재자, 추종자, 아첨꾼, 출세주의자, 기생충들로 이루어진 특권 계급을 만들었으나 새로 운 세력을 거부하고 파괴한 뒤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긍정적인 어떠한 일도 해낼 만한 힘이 없기에 자신을 공고히 해 반혁명 세력과 교섭해야만 하는 것이다. 권력이 점점, 그리고 더 자주 기꺼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반혁명 세력과의 교제다. 권력은 그들과 함께 후퇴한다. 그 이외에 자신의 명맥을 확보 할 길은 없는 것이다. 대중의 우정을 잃은 권력은 새로이 공감해 줄 이들을 얻고자 한다. 권력은 언젠가는 새로 공감해 주는 이들을 배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반혁명적, 반사회적 활동에 더욱 빠져들고 만다.

혁명은 더욱 더 정력적으로 권력을 공격한다. 그리고 권력은 더욱 격렬한 분노와 함께 자신이 생각해 낸 무기와 권력이 만들어 낸 노력의 도움으로 혁명에 맞선다. 혁명은 이내 이 불균형의 투쟁에서 완전히 패배한다. 그것은 죽음과 붕괴의 지점에 있다. 고뇌는 시체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 경사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심연이 있다. 혁명은 그 날을 맞이하고 말았다. 반동이 승리한 것이다 — 무시무시하게 과장된, 오만하고 야만스러운 짐승과 같다.

이와 같은 사실과 그 설득력 없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 아무 것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어째서 바로 모든 맹목적인 이들, “레닌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와 같은 유의 모든 사람이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즘의 파탄 — 그들이 부득이하게 인정하고 있는 파탄 — 을 그럴듯하게 설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유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서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자 한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려고 있다. 정부, 권력의 승리,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 국가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 어리석고 진부하며, 죄 많은 모순이자, 역겹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이 시체를 부활시켜 권력은 다시금 노동 대중을 이구역 질나는 게임에 끌어 넣을 것이다. 그것은 폐허와 부패가운데 성장하는 또 다른 히틀러를 탄생시킬 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빛은 세상에서 꺼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상황의 여러 요소를 간추려 보자.

“혁명” 정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가세워진다. 당연히 그것은 자력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권력을 잡고자 한다. 그것은 지배권이다 (그 이외에 무슨 목적을 바라겠는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최초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정부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대 혁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러한거짓방어는위로부터자연스럽게조직되는데, 이미“증명된” 낡아빠진정치적및군사적방법, 즉정부에의한인민의절대적통제, 맹목적으로훈련된정규군의편제, 전문적인경찰조직과광신적인전문기구의 창설, 언론, 출판, 집회그리고특히행동의억압, 압박과공포체제의개시 등의도움으로행해졌다.

전적으로복종하는세력을손에넣는데는개인을훈련하고잔인하게만드는것이요구된다. 온갖사건이발생하고있는비정상상태아래에서는이러한절차들이모두급속하게폭력과전제주의적양상을띤다. 혁명의붕괴는빠르게이어진다.

8. 파산한“혁명적권력”은필연적으로“우파”의적들뿐만아니라좌파의적들, 발목을뻗진정한혁명사상을지지하는사람들, 그것을위해싸우고방어에나서는사람들까지도맞서게된다. 이들은진정한혁명의이익을위해권력을공격한다.

그러나권력은지배와권위와특권의독을맛보고, 자신이“프롤레타리아트”의이름으로행동할수있는유일의정당한혁명세력이라고착각하고세계를설득하려하며, 자신이혁명에대해“의무”와“책임”을지고있다고믿으며, 피하지못할그릇된생각에서혁명의운명을자신의운명과혼동하고, 자기행동의모든가식적인변명과정당화를발견하고, 자신의패배도소멸도인정할수없으며인정하려고하지도않는다. 반대로잘못을느끼고위협을받고있다고믿을수록권력은자신을방어하기위해격렬하게나아간다. 권력은어떠한희생을치르더라도그상황의주인으로남고자한다. 권력은지금도, 그리고언제나“사태를바로잡기”를바라기조차한다.

권력은어떻게해서라도, 요컨대자신을존속시켜야한다는것을완벽하게인식하고있기에더이상적을구별하지않는다. 그것은더이상자신의적과혁명의적을구별하지않는다. 점점자기보존의단순한본능에이끌려더이상물러설수없이맹목과무분별의도를강화해모든방면에서좌파도우파도공격하기시작한다. 권력은자신과함께하지않는모든이들을구별없이공격한다. 자신의운명에겁을낸권력은미래의가장좋은세력을파괴한다. 그것은다시한번필연적으로일어선혁명운동을억압한다. 그것은사회혁명의깃발을다시들려고했다는죄목으로혁명가와단순한노동자를집단으로억압한다.

따라서근본적으로무능하며단지공포때문에강력하게이같은행동으로나오는권력은제손을감추어기만하고, 거짓말하고비방을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권력은노골적으로혁명을파괴하지는않고적어도자신에대한외국의신망을손상하지않도록해두는편이좋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9. 하지만혁명을분쇄하는동안그것에의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 또한허공에매달린상태로총검과위태로운무력에지탱되어있는것도불가능하다. 따라서혁명을목졸라죽일때권력은점점더확실히, 견고히, 편의

고특히 (노동대중에게적절하고자주적인운동과행동을위한모든가능성을허용하는대신) 다시국가의극소수새주인의손에모든미래의진화를집중시키고자하는경향 — 이러한모든것은제한된척도의낡은전통, 진정한혁명과는아무런공통점도지니지않는낡아빠진모델에있다.

일단이모델이적용되면혁명의진정한원칙은치명적으로버림받는다. 그런다음필연적으로다른새이름아래노동대중의착취와그모든결과가되살아난다.

따라서의심의여지없이혁명적대중이진정한해방을향해나아가는, 새로운형태의사회생활을창조하는것을향한전진은바로이국가권력의원칙과양립할수없다. 그리고권위주의적원칙과혁명적원칙은완전히정반대에놓여있고상호배타적이라는것, 또한혁명의원칙은본질적으로미래를향하고있는반면권위주의적원칙은그뿌리가과거에묶여있어반동적이게되는것이분명하다.

권위주의적사회주의혁명과(진정한) 사회혁명은두가지상반된절차를따른다. 결과적으로한쪽은정복해야하고, 다른한쪽은멸절되어야만한다. 홍수를수반해과거의뿌리를결정적으로파괴하는광대하고자유로운, 창조적인진정한혁명이권위주의적원칙을무너트리고승리를거두거나혹은권위주의적원칙이승리하거나의한쪽이다. 권위주의적원칙이승리하면과거의뿌리가진정한혁명을“교살絞殺”함으로써진정한혁명은결코달성되지않을것이다.

사회주의권력과사회혁명은서로모순적인요소다. 그것들을화해시키는것은불가능하고, 하물며연합시키기는더욱불가능하다. 한쪽의승리는어느쪽의승리든종합적인논리적귀결로서다른한쪽을위험에처하게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국가사회주의에영감을받아그운명을감정적이거나혹은과도기적으로맡긴다고하더라도그혁명은반드시실패한다. 그것은심연으로곧장치닫는그릇된길을, 점점더가팔라지는급경사의길을출발하는것이다.

**두번째사실** — 이라기보다오히려사실의논리적합주 — 은첫번째사실을완성하고더욱구체적으로만든다.

1. 모든정치권력은불가피하게그것을행사하는사람들에게특권을부여한다. 따라서그것은처음부터평등주의의원칙을위반하고사회혁명의핵심 — 사회혁명의원칙에의해크게영감을받은 — 을공격한다.

2. 모든정치권력은설령그것이부르주아에의존하고있지않더라도필연적으로다른특권의원천이된다. 권력은혁명을이어받아그것을지배하고, 억압하고, 스스로를유지하고자하는모든권위에대해불가결한 관료적이고강압적인장치를만들어내도록강요되고, 지휘하고명령하지않을수없다 — 한마디로“지배”하지않을수없다. 권력은지배하고착취하고자하는온갖종류의요소들을재빨리자신의주위에끌어들여조직화한다.

따라서 권력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점차 경제적으로 **새로운 특권계급제도를 형성한다**. 즉지도자, 관료, 군인, 경찰 등 — 이들은 그 새로운 특권계급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해 “원칙”이나 “정의正義”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특권계급을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도처에 불평등의 씨앗을 뿌려온 모든 사회 기구를 감염시키는데, 그 결과 사회 기구는 그러한 감염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르주아적 원칙으로 복귀하는데 호의를 가지게 된다.

3. 모든 권력은 사회 생활의 고삐를 휘어 잡아 손에 쥐고 자 한다. 그것은 대중을 수동적 경향으로 밀어붙이고, 모든 주도적인 정신은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는 권력의 존재 자체에 의해 억압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휘어 잡은 “공산주의” 권력은 이 점에 있어서 진정 합정이었다. 자신의 “권위”로 부풀어 올라거짓 “책임감”에 충만해 (마음 속 깊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부여했다) 있고 모든 독립적 활동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권력의 눈에는 자율적 주도권은 무엇이든 즉시의 심스럽고 위협적으로 보이기에 그러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저지하고자 한다. 공산주의 권력은 운전대를 손에 쥐고 싶어하고, 나아가 훌로그 것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주도권은 공산주의 권력에게 자신의 영토와 특권에 대한 침략으로 보인다. 그러한 독립적인 활동을 이 권력은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무시되고, 거부되고, 짓밟히고, 혹은 가증스럽고 무자비한 “논리”와 고집으로 신중하게 감시되고 통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속에 잠재된 방대하고 신선한 창조력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것은 사상의 분야만큼이나 행동 분야에도 적용된다. 사상 분야에서 “공산주의” 권력은 절대적인 편협함으로 도처에서 구별되었는데, 이는 신성하신 종교 재판 정도나 되어야 비교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 권력도 진실과 안전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어떠한 반대도, 또 자신과 다른 어떠한 개념이나 사고 방식도 승인하거나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어떤 정치권력도 혁명의 거대한 건설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거대한 임무를 이어 받아 그것을 수행하는 척했던 “공산주의” 권력은 이 점에서 특히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실 그것의 허위는 수백만 인간의 무한히다양하고 방대한 활동을 전부 “지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럴 수 있는 위치에서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독하고, 정리하고, 조직하고, 지도 할 수 있어야만, 즉 생활의 모든 면을 감시해야만 했다. 그것은 무수한 필요, 관심사, 활동, 상황, 결합에 대한 문제다 — 그렇기에 온갖 종류의 문제 가지 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내나 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권력은 어떤 것도 감시하거나 정리하거나 “지도”하거나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보다 먼저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경제 생활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데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빠르게 붕괴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길을 잊고 붕괴한 제도의 폐허와 새로 선보인 제도의 무력함 사이에서 무질서하게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러시아의 “공산주의” 권력의 무력함은 얼마 가지 않아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이는 산업 활동의 중단, 농업의 파멸, 국내 경제 각종 분야 사이의 전제적 결합의 파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균형의 파괴를 의미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우선 농민과 관련된 제약적 정책이 생겨났다. 농민은 만사를 제쳐놓고 도시들을 먹여 살리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농민들의 소극적 저항에 의해 빈곤이 전국을 휩쓸어 효과가 없었다. 노동, 생산, 운송 및 교환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5. 국내 경제 생활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권력은 최종적으로 제약과 폭력, 테러를 대리인으로 삼았다. 권력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것들에 의지해갔다. 하지만 국내는 기근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궁핍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6. 건강한 경제 생활을 확립하지 못하는 권력의 명백한 무력함과 혁명의 명백한 무효, 이상태에서 야기되는 수백만 개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날이 갈수록 억압과 강제를 증가시키는 폭력 —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여 혁명에 적대적이게 하고, 따라서 반혁명적 사상과 운동을 재발하도록 만든 본질적인 요인들이다. 이러한 상태는 매우 많은 중립적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 — 지금까지 분명한 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럭저럭 혁명에 호의적이었던 이들 — 이 혁명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은 자신들 편에 선 이들의 신뢰까지도 죽여버렸다.

7. 이와 같은 상황은 혁명의 전진을 우회 시킬 뿐만 아니라 혁명을 방어하는 일마저 위태롭게 한다.

활동적인 사회 조직 (노동 조합, 협동 조합, 협회, 연합 등) 을 활발하고, 살아있고, 건강하게 조율하고 반동의 위험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에 맞서 자신의 경제적 발전을 확보하게 하는 대신 세양적인 국가주의자의 행위가 개시된 한두 달 뒤에 다시 금소수의 출세주의자와 모험주의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미 망가뜨려 불모로 만들어 놓은 혁명을 “정당화” 할 수도 확실히 강화 할 수도 없다. 이제 그들은 점점 증대해가는 적에 대해 자기 자신 (및 파르티잔) 을 방어해야만 한다. 적의 출현과 발전해 나가는 활동은 첫째로그들 자신의 실패에 기인한다. 따라서 점차 스스로를 견고히 해 나가는 사회 혁명을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방어하지 않고 이처럼 패배한 권력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자기 자신의 삶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하려고 몸부림치는 당혹스러운 광경을 다시 한 번 목격한다.

현재 차르시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는 자유의 지주의 운동, 언론, 선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아나키즘은 불법화되었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마지막 사람까지 몰살당하거나 고립되거나 추방되었다. 아직 몇몇 사람들이 이곳 저곳의 감옥이나 유형지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재앙을 초래해 극소수만이 살아 있다.

살해를 모면한 소수의 러시아 아나키스트는 고국에서 추방되고 망명해 서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들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자유의 지주의 사상에 대한 의식적인 파르티잔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다.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희생자들에게 보낼 자금을 모으고 탄압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 『러시아의 투옥 및 추방 아나키스트 지원 위원회 The Committee to Aid Imprisoned and Exiled Anarchists in Russia』는 아직 살아남은 소수의 희생자들과의 연락이 불가능해 진판계로 모든 활동을 그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 혁명 다음 날 일어난 러시아의 자유의 지주의 운동 박멸 서사는 말그대로 끝나버렸다. 이제 그것은 역사로, 이지면들을 채울 뿐이다.

이유례 없는 탄압의 국면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은, 그동안 박멸에 고통 받던 진짜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볼셰비키 의사기에 대항해 일어선 수백 수천의 순진한 노동자 — 공업 노동자, 농민, 지식인 — 가 마찬가지로 전멸되었고, 혁명적인 사상은 물론, 모든 자유 사상과 그 활동까지도 발생기의 “사회주의”의 땅에서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행동 방식은 「골로스트루다」의 <혁명의 조직화 The Organization of the Revolution><sup>9</sup>라는 제목의 논평되었다.

사회주의 정당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을 잡아야 새로운 권력을 조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도움으로 국가의 모든 경제도 또한 국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나키스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표명되고 있다.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장악하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수단에 의해 권력과 국가 (사회주의자들 스스로 ‘불가피한’ 일시적 악으로 인식하는) 가제거될 것이다.”

경제를 장악한다는 것 (아나키스트의 방법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은 농업, 공업, 교환의 소유를 의미했다. 또한 그것은 생산, 노동, 운송, 토지 및 탄생, 광산, 공장, 작업장, 제작소, 창고와 저장소, 상점과 은행, 철도, 역, 해상 및 하천 운송, 그리고 모든 통신 수단 — 우편과 전신 및 전화 등 모든 수단과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당의지도자라는 자격으로,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잡는 것이 기때문이다. 그것은 어째서 사회주의자가 권력 장악 투쟁의 순간에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의 하나의 당으로 조직하려고 선동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정당 외부에 남아 있는 독립된 대중의 조직이다. 혁명의 순간에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체제를 구축하는 일 이이러한 조직들의 과제로 달려 있다.

이것이 아나키스트가 왜 정당을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다. 그들은 대중 조직 가운데서 또는 — 선전 활동가로서 — 그룹이나 사상적 연합 가운데서 선전 선동 한다.

결론적으로 아나키즘 적조합주의자인 문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출했다. “권력 없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야 하는가? 어떤 규칙으로 시작해야 만하는가? 어떻게 진행해야 만하는가?”

「골로스트루다」는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한 방식으로 해답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1918년 봄 신문 탄압이 전에 간행된 몇 가지 기사<sup>10</sup>에서 그에 대답했다.

<sup>9</sup> 1917년 11월 7/20 일자, 「골로스트루다」 제 16 호

<sup>10</sup> 「골로스트루다」 제 19 호, 1917년 11월 18일/12월 1일자. 이 출판물이 외의 다른 주제로 해야 할 기사나 사설은 1917년 11월 8/21 일자 제 17 호의 <전쟁, 기아, 그리고 마지막 단계 The War, The Famine, and The Last Stage>, 제 20 호의 <경고 Warning>, 제 21 호의 <시급한 과제 The Immediate Tasks>이다.

1917년 후반부는 러시아인민에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나라를 계속 피폐하게 하고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국내 정세는 점점 더 비극적으로 변해갔다.

「골로스트루다」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What Must Be Done?>라는 제목으로 국가의 광대하고 암울한 장면을 다루었다.

노동 대중의 생활 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끊임 없이 굶주림 닥쳐오고 있다. 추위가 있으나 주택과 난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주 많은 공장이 설비, 연료, 원자재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도망치고 있다. 러시아의 철도는 한탄할 만한 상황에 있으며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산했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노동자와 농민”的 정부가 있고, 중앙은 모든 권력과 그것을 행사할 힘을 가지고 있다. 대중은 그 권력으로부터 의해 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은 법령을 발의하고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다)를 교묘히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이렇게 대답한다. “제헌의회가 답이다!”

가장 낮은 곳에는 모든 것이 이전처럼 남아 있다. 대중은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다 — 그럼에도 투기, 돈벌이, 가증스러운 “암흑” 거래가 순조로이 계속된다. 대중은 빈곤해졌다 — 그런데도 상점 (쇼윈도까지도) 에는 옷, 고기, 야채, 과일, 잼이 넘쳐난다… 하지만 도시에는 생필품이 산더미처럼 넘쳐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중은 가난하다 — 그러나 은행은 부유하다. 대중은 거리로 내던져지고 공장은 폐쇄되고 자본, 연료, 자재도 없기 때문에 내버려진 기업을 “손에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골은 도시의 생産품을 필요로 한다. 도시는 시골의 생産품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상황은 교환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볼 세비 키정부의 유약한 태도를 비판하며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자기 관리는 국가의 절박한 첫 번째 문제를 충족시키는 가장 빠르고, 단순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골로스트루다」의 기자는 여러 기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경고> 기타)에서 러시아 노동자의 검토를 구하고 긴급한 방법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제안했다 (이인상적인 계획은 여기에 항목별 목록을 작성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조직과 창고, 배급소의 조직에 의한 필수 품의 수용 — 굶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2. 인민 식당의 건설

## 제 7 부. 최종 합의

국가 사회주의의 본질과 필연적인 진화에 대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통해 독자는 이 “사회주의”가 자유의지주의 사상과의 차 없는 충돌로 이어지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물론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권력이 아나키즘과 아나키스트를 탄압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나 예상밖의 일도 아니다. 이는 러시아 혁명이 국가주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러시아 혁명 훨씬 이전에 아나키스트 자신 [그리고 미하일 바쿠닌 (Mikhail Aleksandrovich Bakunin)]에 의해 예견된 것이었다.

자유의지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 대중의 자주적 인 운동에 대한 억압 —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승리이며, 전진을 거부하는 것이고, 진정한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전진하는 진정한 혁명과 국가주의 원칙 사이의 필연적인 결과들이다.

새 정부 (만일 어떤 혁명이 불행하게도 정부를 가지고 있다면)는 그것이 “혁명적”, “민주적”,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농민”,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혹은 그밖의 무엇이라 불리든 간에 진정한 혁명의 살아 있는 힘에 거스를 수밖에 없다. 이 대립은 권력을 이끌어내고, 같은 필연으로 점점 잔인한 투쟁을 이끌어내고, 정부는 혁명 세력에 대한 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위선적으로 되어가며 바로그 사실에 의해 아나키스트와 충실했던 대변인, 지지자 및 진정한 혁명과 그 열망을 지키려는 이들에 대해 현실적인 행위로 맞섰다.

이 투쟁에서 권력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사회 혁명의 패배를 의미하며, 따라서 “자동적으로” 아나키스트의 억압을 의미한다. 혁명과 아나키스트가 저항하는 한, 사회주의 권위는 뻔뻔스럽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억압한다. 거대한 기관과 무제한의 테러, 이것이 그 최후 변론이며 필사적인 방어의 신격화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혁명적인 이들은 모두 “혁명의 절대적이익” (얼마나 잔인한 역설인가!)에 반하는 이들로서, “범죄자”로서, 그리고 “배반자”로서, 소위 “혁명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치단되었다.

그것이 러시아에서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이며 — 국가주의 사상이 승리했을 경우 — 몇몇 사람들이 예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의 실패, 파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오, 아닙니다, 동지. 당신은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스크바 행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몇 시간만 여기 있을 겁니다.”

“모스크바라고?” 나는 소리쳤다. “나는 모스크바에 전혀 볼일이 없소. 그리고 나는 이미 하리코프 행차표를 가지고 있소.<sup>1</sup> 이곳에서 일을 마치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오. 하리코프에 친구가 있어서 거기서 일하기로 했소.”

이 점에 대해 잠깐 말을 주고 반다가 볼세비키는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하리코프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리코프 행기차는 새벽 1 시가 되어서야 출발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호텔로 돌아가 계산하고 가방을 가져올 수 있겠소?”

“아니오, 동지. 우리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호텔로 곧바로 가겠다고 약속하겠소. … 게다가 누구든 나와 동행해도 좋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지. 아시다시피 일이 시끄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식 명령입니다. 우리 동지 중 한 명에게 시키십시오. 그 사람이 호텔로 가서 당신의 가방을 가져올 겁니다.”

무장한 체카경비원이 이미 내 방문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한 “동지” 가방을 가져왔다. 한밤중이 되자 다른 사람이 택시로 기차 역에 데려가 정말 내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예기치 않은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나는 도중에 병에 걸렸다. 동승객이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수미 Soumy 에서 나를 숙박 시켜 준 덕분에 간신히 폐렴을 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유능한 의사가 나를 잘 돌보아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하리코프에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우리 지역 주간지 「나밧」에 — 그것은 점점 성공적으로 되어갔기 때문에 얼마 뒤 볼세비키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의 강연회 이야기 Story of a Lecture Under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거기서 나는 그 불쾌한 모험을 자세히다루었다.

3. 주택의 부족에 대처하고 동시에 거주자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 집주인을 대체하기 위해 (거주자의) 주거위원회, 지역위원회, 그리고 지구위원회를 질서정연하게 조직할 것 — 즉 주거지의 즉각적이고 진보적인 사회화

4. 노동자 조직이 경영자가 포기한 기업을 즉각 진보적으로 수용할 것

5. 공공사업을 즉시 조직하고 도시, 철도 및 기타에서 긴급히 필요한 복구 작업에 착수할 것

6. 새로운 집단적 생산의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은행의 자금 일부를 즉시 수용할 것

7. 도시와 지방 간 규칙적 관계 회복

8. 노동자 조직과 농민 간 생산 품교환

9. 철도와 모든 통신 수단의 사회화

10. 공장, 철도, 주택 등에 연료를 (노동자 조직을 통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즉시 광산을 수용해 사회화 할 것

볼세비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을 기획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 역할을 축소해 그것을 이차적인 중요성의 위치로 떨어뜨리고, 그 무의 미함을 보여주고 마침내 잊고자 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들을 용인할 수 없었다.

볼세비키 정부는 대중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행동을 통해 결정적인 어떤 것을 시도할 만큼 스스로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기에 사태를 질질 끌면서 소심하고 비효율적인 경제적 개량 정도에 그쳤다. 정부는 특히 가장 긴급한 필수 품을 정치 경찰과 군사적 절차를 동원해 입수하려고 했다. 즉 무질서한 징발,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파견대의 도움을 얻은 마구잡이에 애만스런 징발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방이 도시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고 혁명에 대한 모든 관심을 파괴한 원인이 된 방식), 억압, 폭력을 사용했다.

아나키스트는 볼세비키가 혁명을 그렇게 이끌어 간 그 잘못된 방법에 격렬히 항의하고 볼세비키 체제를 비판하며 참된 인민의, 참된 사회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을 호소하는 유일한 이들이었다. 그 방법은 혁명을 곧바로 진정한 사회 혁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아나키스트들은 단언했다.

볼세비키는 당연히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볼세비키에 의해 조종되고 지배당한 대중은 아나키스트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입장 취할 수도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볼세비키 정부 법령을 다룬 「골로스트루다」 (1918년 2월 13일자 제 18호) 의 기사 전문을 인용할 것이다. 이 기사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상반되는 두 이데올로기의 태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릇된 길〉

<sup>1</sup> 하리코프는 쿠르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150 마일 떨어져 있고, 모스크바는 쿠르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300 마일 떨어져 있다.

만일 진정한 사회혁명을 “위로부터”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나 사건들에 매일 같이 주목하고 싶다면 수십 개의 신문칼럼을 그것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른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혁명의 참을 성 있는 미래의 역사가들에게 맡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문서보관소에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응변적으로 보여주는 풍부한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세계 노동자들의 해방도, 진정한 사회도, 새로운 문화도 — 요약하자면 정당의 정치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기구”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말 매일 같이 충분히 반복해 왔다. 내일이면 이 삶 전체가 이 진실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을 완전히 명확히, 맹인들에게 알려줄 것을 바라며 이주제를 다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이 맹인들은 너무나도 많다.

불과 며칠 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나키스트 사상은 가장 좋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순수한 사상이지만 그 실현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취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 필수적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승리 이후 아나키즘이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결의안은 끝맺었다.

이것이 현재 아나키즘의 진부한 개념이다!

선량한 “시민”에게 있어 아나키즘은 폭탄과 암살, 공포와 혼란, 혹은 가장 좋은 경우 아름다운 꿈, “사회주의 이후의” 낙원이다. 선량한 “시민”은 아나키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문을 기반으로 그것을 판단한다. 그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속기 쉽고, 빈약하다.

그리고 결의안의 저자들은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나키즘을 코카인의 땅에서 살게 될 시대를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면, 그렇다, 그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결의안의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방을 향한 길,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과정 그 자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길을 나아갈 때 다른 길을 따른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그렇다면 한 가지 혹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아나키즘은 단지 사상, 목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해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법이자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방식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은 사회 혁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리를 사회주의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오직 아나키즘적 방식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향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아나키즘의 본질적인 테제는 바로 이것이이다. “사회주의를 통해서”나 “사회

15 분이 지났다.

그때, 갑자기 홀문이 열리고 손에 소총을쥔 강력한 체카파견 분대 요원들 (레닌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일종의 국가 경찰인 특수부대)이 들이 닦쳤다. 청중들은 모두 어안이벙벙해서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조용해 질대로 조용해진 가운데요원들이 홀로 밀려들어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좌석을 둘러쌌다. 일부는 입구 근처에 남아 있었고, 소총이 청중들에게 향해졌다.

(볼셰비키 위원회가 처음부터 시의 부대로 가서 정규연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후에 알려졌다. 그러나 병사들은 해명을 요구했고 —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직 가능했다 — 자신들도 강연을 듣고 싶다고 선언하며 오는 것을 거절했다. 그 뒤 위원회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던 체카파견 분대 요원들을 불렀다.)

위원회 위원들이 곧 홀에 다시 나타났다. 린디치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그들의 결정을 발표했다.

“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댄스파티는 취소합니다. 강연회도 취소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차분하고 완벽하게 질서를 지켜서 홀과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카가 개입할 겁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무력하게 일어나 홀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몇몇이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당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엉망이 되어버렸어.”

밖에서는 새로 운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구에서 두 명의 무장한 체카 요원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수색하며 그들의 신분증을 검사했다. 몇몇은 체포되었다. 몇몇은 다음 날 풀려났다. 하지만 나머지는 감옥에 감금되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린디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볼린동지, 위원회사무실로 와주시오. 당신의 강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소.”

“날짜는 1월 5일로 정해졌소.” 내가 말했다. “통지가 이미 주문되었습니다. 무슨 이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어쨌든 와주시오. 당신과 해야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곳에도착했을 때 린디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다른 볼셰비키가 나를 맞았다. “이보시오, 동지. 위원회는 당신의 강연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당신의 태도는 오만하고 적대적이었으니 결정은 당신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당신이 쿠르스크에 머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은 여기, 우리 숙소에 머물게 될 겁니다.”

“아, 그럼 나를 체포하는 겁니까?”

우리의 말다툼을 알아챈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린디치는 무언가 소리지르려 했다. 헛수고였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과 같은 고함 소리에 파묻혔다. 군중은 자신들의 힘을 느꼈다. 틈이나는 대로 좌석 쪽으로 몰려들어 될 수 있는 한계단과 입구에 빽빽이 밀고 들어왔다.

“이제 린디치는 자포자기 한 몸짓으로 다시 한 번 내게 호소했다. “그들에 게 말해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 일이나 겠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우리를安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곧바로 조용해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에 간격을 두어 가며 말했다.

“동지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 훈련에 대한 책임은 쿠르스크 볼셰비키 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2 주전에 먼저 홀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전, 볼셰비키 위원회는 우리와 아무 상의도 없이 오늘 밤 댄스파티를 열기 위해 홀을 독점했습니다. (여기서 군중은 “댄스파티가 뭐냐! 강연회를 하게 해라!” 하고 외쳤다.) 그때문에 우리는 강연회를 나중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연자이고, 바로 강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셰비키는 오늘 저녁 그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쿠르스크의 시민이고 대중입니다.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여러분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동지 여러분. 강연회를 연기하고 평화롭게 떠났다가 1 월 5 일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강연회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결정했다면, 움직이십시오. 홀을 확보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군중은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외쳤다. “당장 강연회를 합시다! 강연회! 강연회!”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홀을 향해 밀고 들어왔다. 린디치는 압도당해 문을 열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강제로 문을 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 불이 커졌다.

몇 분 뒤, 홀이 가득찼다. 앉아 있는 이나 서 있는 이나 조용해졌다. 내가 강연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린디치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청중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볼셰비키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아마 댄스파티는 취소될 겁니다.”

“만세!” 군중은 소리치며 그들의 분명한 승리에 대단히 기뻐했다. “강연회다! 강연회 만세!”

그들은 기뻐하며 다시 박수를 쳤다.

이제 볼셰비키 위원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 옆 방으로 물러갔다. 기다리 는 동안 홀의 문은 닫혀 있었고, 청중들은 끈기 있게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작은 코미디가 볼셰비키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연출되고 있다고 추측했다.

주의 이후”로는 아나키즘이나 자유 전반에도 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나키즘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나키스트의 직접적인 길을 통해 목표로 진행하는 것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사회주의를 통해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의 정복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우리의 의견으로는 길을 잊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와 올바른 길 — 즉 아나키스트의 — 을 되찾거나, 혹은 개입하기 시작해 혁명 전체를 막다른 골목에 빠뜨릴 것이다.

그것이 아나키즘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날 아나키즘이 “사회주의”와 맞서싸우는 이유다. 그리고 그것이 곧 맹인들에게 삶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확신을 강화한 모든 다양한 사실들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방금 막 “페트로그라드의 정기 간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인쇄물의 편집 방법에 관한 잠정 규칙” 의사본을 받았다.

우리는 늘 부르주아 언론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을 사회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의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독자 여러분, 이 혁명이 처음부터 아나키스트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이 성장해 하나의 계급 조직에 연합해 국가의 경제를 그들의 손에 넣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적대 세력과 싸웠다면. 그렇다면 부르주아지의 도구였던 언론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정부가 싸운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들 노동자 조직이 싸웠을 것임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임시적인 규칙”이 관여하는 것은 부르주아 언론일 것인가?

이 “규칙”의 제 2 조에서 제 8 조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 특히 “발매금지와 몰수”라는 항목을 잘 읽어보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이 부르주아 언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모든 흔적을 억제하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성격의 것인든 정부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가장 엄격한 검열을 확립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행위가 전혀 쓸모 없는 수많은 형식과 장애물을 설정한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혁명이다른 방법으로 부르주아 언론과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진정한 사회 혁명의 참된 투사와 활동가라면 결코 검열법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법은 전부하고 전형적으로 관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법이며,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비판이나 반론에 대해 현 정부를 보호하려는 법이고,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이 쓸모 없고 야만적인 브레이크, 방해, 장애물이라는 결론까지 끌어냈다.

우리는 모든 길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신들에 영광을! 문제의 “특성”은 지금까지는 페트로그라드에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나라의 남아 있는 혁명적 대중들이 우리 퇴폐적인 수도보다 더 깨어있기를 바라며, 그들이 지방에서 이러한 “임시 규칙”의 적용을 헛되게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이 잠정적 “규칙”이 확정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나키스트들은 인쇄소와 그에 관련된 모든 수단을 즉시 노동자 조직의 손에 넘기고, 노동자 조직 — 순수하고 건전한 — 은반 혁명적 문서를 인쇄하고 출판하는 것을 거절하기를 제안했다. 그렇게 하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적 (정부나 경찰 등) 행동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고, 어떤 한계도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규칙”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후에 **비非정부적 (비불세비키적)** 출판물 전부를 완전히 억압하는 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급한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나키즘 적조합주의자인 문은 다양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상세한 제안을 제시했다. 그 핵심 단락은 배급의 조직, 어떻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지, 공장과 노동자, 은행, 도시와 지방, 원자재와 연료, 운송, 공공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골로스트루다」의 많은 사설이 노동자 문제<sup>11</sup>를 다루고 있듯이, 농민 문제<sup>12</sup>에 관해서도 다수의 사설이 재되었다.

개재된 사설들의 인용을 끝마치며, 호기심을 끄는 〈레닌과 아나키즘 Lenin and Anarchism〉<sup>13</sup>이라는 동기 관지 기사를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질서와 현명함, 신중함으로 부풀어 오른 “사회주의자들”은 시민市民 레닌이 아나키즘에 편향되어 있다고 끊임없이 비난한다.

시민 레닌의 대답은 매번 같은 공식으로 그것들을 감소시킨다. “조금 참아주시오. 나는 아직 완전히 아나키스트적이지 않소.”

아나키스트는 시민 레닌을 마르크스주의 적교조주의 dogma에 대한 약점 때문에 공격한다. 시민 레닌의 대답은 매번 같은 공식으로 그것들을 감소시킨다. “조금 참아주시오. 나는 더 이상 완전히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할 수 없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로써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동요하지 말라.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라. 시민 레닌은 전혀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sup>11</sup> 「일간 골로스트루다」 제 7 호 〈노동자 수업 The Workers' Course〉, 제 11 호 〈노동자의 임무 The Workers' Task〉, 〈노동자 회의 The Workers' Congress〉(날짜 및 일련 번호 부여 없음) 그외.

<sup>12</sup> 〈농민의 일 The Peasant Job〉, 제 22 호 및 그외.

<sup>13</sup> 「골로스트루다」 제 5 호, 1917년 12월 19일, 1918년 1월 1일자.

새포스터를 주문했다. 그 와더불어 우리는 우선 볼세비키 당국이 대중을 납득시키기 위해 정하고, 둘째로 내가 그 날 저녁 호텔 방에 머물고 있기도 정했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연회를 열라고 요구할 것이고, 결국 볼세비키가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룹의 서기가 나를 데려올 수 있어야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큰 스캔들, 어쩌면 큰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강연회는 저녁 8 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8 시 30 분쯤,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서기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동지, 홀은 문자 그대로 어떤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는 대중으로 포위되어 있고, 강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볼세비키는 그들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강연회가 진행될 겁니다. 택시를 타고 빨리 와주세요.”

나는 곧 택시를 잡아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그거리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 현장에도착한 나는 홀 주변에서 서욕설을 펴놓고 있는 군중을 보았다. “댄스파티는 악마나 쥐버려라! 댄스파티는 그만해라! 이제 짓지 마! 우리는 강연회를 원한다! 우리는 강연을 들으러 왔다! …강연회! …강연회! …강연회!”

서기는 나를 보고 서둘러왔다. 우리는 간신히 대중을 헤쳐나갔다. 홀은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단상에서 나는 린디치 “동지”가 “강연회! 강연회!”하고 계속 외쳐대는 군중을 향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잘 오셨네요, 그래.” 볼세비키 위원장이 화를 내며 내게 덤벼들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시겠죠. 이건 이제 당신들 일입니다.”

나는 격분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말했잖소.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소. 당신이 일을 정리하기로 했잖소. 어서 하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시오. 가장 좋고 간단한 방법은 강연회를 허락하는 일일 거요.”

“아니, 안 돼, 안 되고 말고!” 그가 맹렬히 소리쳤다. “장담하는데 당신들 강연회는 절대 열리지 않을 거요.”

나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갑자기 린디치가 내게 말했다. “이보시오, 동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요. 하지만 나는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소. 당신이라면 일을 정리할 수 있을 거요. 그들은 당신 말이라면 듣겠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평화적으로 떠나도록 설득하시오. 그래야 할 이유를 말해주라는 말이오. 강연회는 연기되었다고 말하시오. 내가 부탁한 대로 하는 것이 당신의 무요.”

만일 그때 강연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코 강연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다. 강연회는 금지되어 있고, 내가 체포될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나는 계단에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머리를 저으며 위원장에게 말했다. “아니, 나는 말하지 않을 거요. 당신들이 이걸 원했잖소. 스스로 처리하시오.”

나는곧장그위원회의사무실로쫓아가의장과격렬한언쟁을했다 — 내기억이옳다면그의이름은린디치(Rynditch)[혹은린딘(Ryndin)이었는지도모른다]였다.

“이게무슨경우입니까?”나는물었다.“당신들공산주의자들은선약이라는것을모릅니까?우리는쿠르스크소비에트의허가를얻어2주전부터분명히홀을예약했습니다.위원회는순번을기다려주시오.”

“미안합니다,동지.”그가대답했다.“하지만당위원회는쿠르스크의최고권력으로서,당신이모르는이유나혹은그외에도모든것을변경할이유가있을수도있다는것을잊지말아주십시오.때문에당위원회의결정은취소할수없습니다.소비에트의장도홀관리인도위원회가그날짜에홀이필요할것이라고미리알수없었을겁니다.그문제를논의하거나고집하는것은전혀의미가없습니다.다시말하지만취소할수없습니다.강연회는그곳에서진행할수없습니다.혹은다른홀에서진행하거나다른날짜에진행하십시오.”

“당신도잘알겠지만”내가말했다.“모든것을이틀만에다시정리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그리고충분히큰다른홀도없습니다.게다가모든홀은이미휴일파티를위해쓰일겁니다.강연회를중단할수밖에는없습니다.”

“미안합니다.다른날로연기해주십시오.당신은손해볼것이없습니다.잘정리될겁니다.”

“그건전혀같은일이아닙니다.”나는강하게주장했다.“이런변경은늘목적을크게손상시킵니다.게다가포스터값도많이들었고요.더구나나는곧쿠르스크를떠나야만합니다.사정이이런데내가예정된날밤에어떻게강연을한단말입니까.강연을들으러반드시많은사람이올텐데,당신은그대중의반항에마주칠겁니다.벌써2주째포스터가붙어있습니다.쿠르스크와인근노동자들이강연회를학수고대하고있소.변경사항을인쇄해제시하기에는이미너무늦었습니다.강연회를들으려모인군중에게댄스파티를하라고하기는어렵지않겠습니까?”

“그건우리문제입니다.참견하지마시오.우리가모든책임을질거요.”

“그러니까,본질적으로말해서”나는지적했다.“소비에트가허가했는데도불구하고당신들위원회에의해서강연회가금지된다는말이군요.”

“오,아닙니다,동지.우리는그것을전혀금지하지않습니다.휴일이지난날짜로변경해달라는겁니다.우리가강연을들으러온사람들에게알리겠습니다.그러면되지요.”

여기서우리는헤어졌다.나는지역그룹과상의해서1919년1월5일로강연을연기하기로결정했다.그리고그것을볼셰비키위원회와홀관리인에게통지했다.이변경때문에나는예정된하리코프행을며칠연기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레닌의혁명과관련한입장을간략히분석한후이기사는다음과같이말하는것은옳다고말한다.“혁명이소비에트를탄생시켰기에우리는의회주의,제헌의회등을거부한다.”그렇다,「골로스트루다」는혁명이소비에트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당의바깥에서비정치적·비국가적,계급적조직에대한올바르고건전한경향을만들어냈다 — 그리고혁명의번영은전적으로이러한경향과결부되어있다는데에동의한다.

시민레닌은옳았을것이다(아나키즘적조합주의기관자는계속해말한다).만약그가오래전,젊었을때진정한혁명은정확히이과정을취해야만한다는것을알았더라면말이다.그러나슬프게도당시그는“순수한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리고지금?오,물론대중의경향은날이갈수록아나키스트적인자각이깊어져그를괴롭힌다.대중의태도는이미시민레닌을옛길로되돌리게만들었다.그는굽히고굴복하는과정에있는것이다.그는“국가”,“권위”,“독재”를아주한동안만,잠시동안만“이행기”에한해유지하고자했을뿐이었다.그런다음에는?그다음에는아나키즘,거의아나키즘인것,“소비에트아나키즘”,“레닌주의적아나키즘”이있을것이다.

그리고술책,간지奸智,불신의정신으로가득찬마르크스주의자들은공포에질려소리질렀다.“보이나?들리나?끔찍하군!이게마르크스주의인가?이게사회주의인가?”

하지만여림도없다!시민사회주의자들이여,시민레닌이권력을공고히하고대중의목소리에귀를기울일필요가없어졌을때,그가무어라말할지예상하지못하겠는가?

그때,그는원래의패배로향하는길로돌아왔다.그는가장본격적인종류의“마르크스주의국가”를만들었다.그리고완벽한승리의엄숙한때에그는당신에게이렇게말하려하고있다.“여러분이보듯,나는다시금완전한마르크스주의자요.”

중요한문제가하나남아있다.대중은그행복한순간이오기전에“완전한아나키스트”가되어시민레닌이완전한마르크스주의로되돌아서는것을방해하지는않을까?

나는여기서「골로스트루다」나(모스크바의)「아나키」,(우크라이나의)「나밧」의몇가지다른텍스트들을인용할수없음을유감으로생각한다.나는필요한사본들을수중에지니고있지않고,이책을집필하고있는현재그것들을입수할수가없기때문이다.그러나몇가지세부사항과미묘한점을빼놓고는그당시러시아의모든본격적인자유의지주의적정기간행물의내용은(실질적으로)거의동일하다는것을단언할수있다.그리고지금까지의장에서인용한것들만으로도혁명기간동안(러시아)아나키스트의주장,입장,활동에대한명확한생각들을독자들에게주기에충분했을것이다.

후에 볼셰비키 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 총연맹 (나벳)》이 1918년 11월에 쿠르스크 Kursk 와엘리자베스그라드 Elizabethgrad에서 조직되어, 각각 1919년 4월에 매우 건설적인 일을 이룬 두 개의 회의를 뒷 붙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들은 전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유의 지주의 적 행동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의 결의안은 당시의 다양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열의에 찬 해결책을 제공했다.

1917년 10월에서 1918년 말 사이에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간이었다. 혁명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그 몇 달 동안이었다. 잠시 동안 두 사상, 두 노선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몇 달 뒤 주사위가 던져졌다 — 그리고 볼셰비키 체제는 확실히 군사, 경찰, 관료, 자본주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그에 점점 더 역행하는 자유의 지주의 사상은 억압당했다.

그리고 광대한 노동 대중, 그들은 결정적인 발언을 할 만큼의 힘도, 의식 도지니고 있지 않았다.

## 제 6 부. 개인적인 경험

나는 여기서 비극적이지는 않으나 국가 공산주의의 눈부신 활동 중에서 도소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볼셰비키의 행위에 조명을 비추어 내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겠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는 이러한 사건은 러시아에서 결코드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새 주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은 다시 되풀이 될 수 없었다.

1918년 11월, 나는 우크라이나 자유의 지주의 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시에도 착했다. 그 무렵 그와 같은 집회는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가능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반동과 독일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볼셰비키는 그곳의 아나키스트를 이용하고 감시하면서 그곳의 아나키스트를 용인했다.

혁명 초기부터 쿠르스크의 노동 대중은 아나키즘에 대한 강좌를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으며, 그곳의 작은 지역 그룹은 그에 필요한 힘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에 몇 사람의 자유의 지주의 강연자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었다. 내가 온 것을 기회로 그곳의 그룹은 큰 홀에서 아나키즘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를 제안했다. 나는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지역 소비에트의 장의 허가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본래 착실한 노동자였던 그는 그것을 쉽게 허락했다. 귀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홀은 2주 전에 예약하고, 며칠후에는 인상적인 포스터를 주문해 벽에 붙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 강연회는 우리의 사상에 대해 큰 성공을 약속하고 있었다. 몇 가지 징조들 — 거리의 화제나 포스터를 읽고 있는 군중, 지역 그룹에의 정보 요청 —로 보아 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반응에 익숙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대러시아에서는 그 무렵 까지 아나키즘에 대한 공개 강연회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정된 날이 틀전에 후원 그룹의 서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홀을 내며나를 찾아왔다. 그는 방금 쿠르스크의 볼셰비키 위원회 (지역에서 실권을 지닌) 의장으로부터 쪽지를 받은 것이었다. 그 내용은 “휴일에는” 아나키스트 강연회를 열 수 없으며 공산당 위원회가 인민 댄스 파티를 위해 홀 예약을 그 곳 관리인에게 이미 전달해 두었다는 것이다.

말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가며 지독한 감기를 앓고, 따뜻한 옷도 음식도 없었기에 그들을 호송하고 있는 체카요원에게 다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다. 그들은 대표자로서의 입장은 말하기 도 했으나 아무 효력도 없이 “우리는 이 기차에 대표자가 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들이 얼마간 음식을 받은 것은 르페브르의 거듭된 주장에 의해서였다.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하며 그들은 무르만스크에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친절한 어부의 집에 대피해 모스크바에서 약속 받은 것의 이행, 스웨덴으로 자신들을 데려다줄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불안함과 놀라움 가운데 약속한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린지 3주 가지났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 할 수 있도록 프랑스에 제때 도착하는 것이 가능할지의 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르페브르는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답신이 없었기에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보냈으나 모두 답장이 없었다. 후에 세통의 편지는 가로채어 져 트로츠키에게 보내져 압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 번째 편지에서 르페브르는 자신들의 곤경에 대해 가슴 아프게 설명하고 소비에트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선을 타고 북극 해를 건너겠다는 필사적인 결의를 표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죽으러 나가려 하고 있네”라고 그는 적었다.

그들은 작은 배를 한 척 살만한 돈을 모았다. 그리고 몇몇 동료들과 어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에 올라레이 몽 르페브르가 말한 것처럼 분명한 그들의 죽음으로 나아갔다. 그뒤로 그들은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

모스크바가 냉정하게 짜놓은 이 암살에 명백한 증거는 없다 — 혹은 증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이유로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 당연히 볼세비키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제아와 르프티의 러시아 체재 중의 타협 없는 단호한 태도와 볼세비키 정부의 상투적인 수단과 그들의 출발에 있어서의 차별을 생각해본다면, 그것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인가? 카친등의 프랑스 공산당 대표가 어려움 없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고, 그들이 모스크바에서 학습한 교훈을 투르 Tours 의 대회에서 보고하는데 늦지 않게 돌아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결국 러시아에서 알려지게 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사실들을 충실히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충분히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 제 5 부.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

그와 같은 수천 가지 중 선택된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은 이 시기 러시아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삽화 역할을 할 것이다.

1917년 말 어느 저녁,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옛 노벨 Nobel 정유 공장(약 4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출신의 두 세명의 노동자가 우리 연합의회 의장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정유 공장은 소유주들에 의해 버려졌고, 그곳 노동자들은 수많은 회의와 토론 끝에 그것을 집단적으로 경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 목적을 향해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 가운데서 특히 “그들의 정부”(볼세비키 정권)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원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노동인민위원회는 유감스럽게도 현상황에서는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연료도, 원자재도, 주문도, 고객도, 운송 수단도, 자금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생산을 계속하고, 적당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력으로 공장을 다시 운영할 준비를 했다.

정유 공장의 노동위원회는 노동인민위원회로부터 지금은 정유 공장의 주장이고립되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부터 모든 기업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2, 3 개월 분량의 임금을 지급하고 더나은 시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노벨 정유 공장의 노동자들은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작업과 생산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정부에 그렇게 말했다. 볼세비키 정권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국가 전체의 책임자로서 각 공장이 변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벗어날 수 없는 혼란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일반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노벨 정유 공장의 운영에 관한 한 그들을 해고하는 것 일수밖에 없다.

공장 위원회에 의해 총회에 소집된 노동자들은 이 결정에 반대했다. 그 뒤 정부는 새로운 총회를 제안하고 그곳에 정부의 대표자를 보내 그 결정의 진의와 그것을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했다.

노동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연합과 관계가 있는 몇 사람의 노동자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러 왔고, 우리가 회의에 연설자

를보내아나키스트들의관점을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 — 그당시에는 아직이것이가능했다. 그들은공장사람들이두가지이론을비교하고더나은 이론을택해서그에따라행동하기위해우리의의견을꽤나듣고자하고있다고말했다.

나는그모임에갈대표로뽑혔고, 외부에서온사람중처음으로도착했다. 큰방하나에공장노동자들대다수가모여있었다. 중앙의임시연단에 그들의위원회가정부측구성원들이나타나기를기다리며테이블주위에 앉아있었다. 노동대중의태도는심각하고신중했다. 나는연단에자리를 잡았다.

잠시후정부의대표들이매우“관료적으로”그리고아주엄숙하게, 품에빛나는서류가방을끼고도착했다. 그들서너명의리더로서노동인민위원회하일실랴프니코프 (Mikhail Shlyapnikov) 자신이입석했다.

그가먼저말했다. 그는메마른관료적인어조로정부의결정조항을되풀이하고그결정에이르게된동기를장황하게설명했다. 그는그결정은절대적이고돌이킬수없으며항소할수없고, 만약반대한다면노동자들은규율위반을저지르는것이고그결과로스스로와나라전체에대해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라고선언하며끝맺었다. 연설이끝나자분명한볼셰비키주의의박수를제외하고는얼음장같은침묵이흘렀다.

그때의장이노벨공장의몇몇노동자는이문제에대해아나키스트의관점을알고싶어하며,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연맹』의대변인이참석했으니그에게발언권을주겠다고발표했다.

나는일어섰다. 정부측구성원들은(분명그들은이런일을예상하지못했다) 호기심을숨기지않고빈정거림과불안, 악의로뒤섞인표정으로나를바라보았다. 그때일어난일은지금도뇌리에선명히각인되어있는데, 너무나전형적이고유익하며내신념을고무시켜주었기때문이다.

많은노동자청중들에게연설하면서나는그들에게다음과같이확고하게말했다.

“동지들, 여러분은이공장에서몇년동안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은여기서자유롭게작업을계속하기를바라고있습니다. 여러분은그렇게할완전한권리가있습니다. 그것은아마여러분의의무이기도할겁니다. 어띠한경우든정부가해야할명백한일은 — 정부는여러분의것이라고자칭하고있습니다 — 이일을활성화하고여러분의결정을지지하는데있습니다. 그런데정부는그럴만한힘이없고, 여러분의결정이나이익에도불구하고공장을폐쇄하고여러분을해고하겠다고방금도되풀이했습니다. 우리의관점으로말하자면 — 나는『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연맹』의이름으로말하고있습니다 — 정부(여러분의것이라고자칭하고있는)의무능력이정직하게일해서번빵을여러분의입에서빼앗으려하는이유가될수없다는것입니다.”

박수갈채가나를맞이했다.

## 제 5 부. 르페브르, 베르게아그리 고르프티의사례

또다른미해결사건에서세명의프랑스투사들이흔적도없이사라졌다. 그들은 1920 년여름모스크바에서열린코민테른국제대회 the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의대표자인레이몽 르페브르 (Raymond-Louis Lefebvre) 와베르게아 (Jean Marcel Vergeat), 그리고르프티 (François Jules Lepetit Louis Bertho) 였다.

레이몽르페브르는공산당원이었지만당시비관적인감정을반복해서 표명했으며, 그의사상적동지들이취한그릇된길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인베르게아와르프티는분노를공연히 표명하고러시아의정세에대한비판을숨기지않았다. 르프티는머리를싸매고프랑스조합주의자동지들에게보고해야할보고서를작성하면서“하지만나는그들에게무엇을말하고싶어하는가?”라고몇번이나말했다.

대회가끝나고세사람은며칠밤낮으로노트와문서를함께작성했다. 그들이프랑스로돌아가기전날밤, 소비에트기관은그들의목적지로의문서운반을담당하고있다고주장했으나그들은작성한 서류를넘겨주기를 거부했고, 바로그때부터그들에대한탄압조치가취해지기시작했다. 심지어르페브르조차그가속해있는공산당의러시아인당원에게그의노트나서류를신뢰하고맡기기를거절했다.

그래서모스크바의정치가들은세사람의출국을방해하기로결정했다. 거짓구실을내세워그들은카친 (Marcel Cachin) 등의공산당대표가취한루트를통과하지못하게하고, 소비에트정부는이상한이유로“그들을북쪽루트로떨어뜨려놓도록”손을썼다.

베르게아와르프티는그들의사명을지키기로굳게다짐하고, 공산당원르페브르가그들과함께여행하기로되어있으니충분히안전할것이라고믿고, 보고를하도록되어있는연합회의에참가하기위해제때프랑스로 돌아갈계획이었다.

그들의골고타는모스크바에서무르만스크 Murmansk(북극해에있는러시아최북단의항구) 에의멸고어려운여행으로시작되었는데, 이는잔혹한조건에서이루어졌다. “그들은우리를방해하고있다”고르프티가

비밀리에 어떠한 사법 절차도 없이, 밤중에 체카의 지하실에서). 총살된 아나키스트는 젊은 파냐바론 (Fanya Anisimovna Baron) 과 (그녀의 남편도 감옥에 있었다) 유명한 투사레프초르니 (Lev Tcherny) [본명은 투르차니노프 (Tourtchaninov) 였다]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총살된 자유의지주의자들이 지적된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 이후에 증명되었다. 그리고 그 위조는 체카 자신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그 요원들 중 두 사람, 한 사람은 슈타이너 (Steiner) [카메니 (Kamenny) 라고 불렸다]이고 또 한 사람은 체카의 자동차 운전수였는데, 그들은 자유의지주의 단체와 범죄의 “관계”를 제시하고, 선택된 희생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유의지주의 단체에 가입하고 그와 동시에 특정 범죄 단체에도 출입했다. 피할 수 없는 증거가 확립되어 그 “사건”은 정식으로 문제로 되어 공표되었다.

이리하여 볼셰비키 정부는 새로운 범죄의 도움으로 다른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를 몇 명 더 희생시켜 그들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했다.

“반대로,” 나는 계속 했다. “그들은 정부 구성원 혹은 다른 무엇이라 칭하는 여러분의 주도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당국은 무능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단한 가지의 지할 만수단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관리하고 여러분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정부는, 따라서 여러분을 돋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정부의 일원도 아니며, 또 그 중 하나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 왜냐하면 어떠한 정부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없고,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업을 계속할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의 대오가 운데 활동적이고 기동력 있는 노동에 필요한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그 중 어떤 그룹은 연료를 구하고, 어떤 그룹은 원자재를 구하고, 다른 그룹은 철도 운송의 문제를, 다른 그룹은 수주와 발주를 맡게끔 할 수 있습니까?

동지들, 모든 것은 그러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것을 시작하면 그만이고 정부 ('여러분의 정부')는 이 모든 것에서 불편한 것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

우리 아나키스트는 노동자가 제각각 적어도 두 세 사람은 전국 모든 지방에 친척이 있고, 노동자의 일에 있어 본질적 요소를 잘 알고 있으므로 — 특히 여기에는 4 천명이나 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 정부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기동적인 노동자 그룹을 구성해 지식과 적성, 접촉에 의해 활기차고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 이 작업 그룹은 해산하고 그 구성원은 공장의 노동 대중에 다시 합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의 긴 박수갈채가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외쳤다. “옳소! 바로그 거요! … 우리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소! … 우리는 계속해 나갈 수 있고 말고. 우리는 몇 주나 그 문제를 고민해 왔소.”

“주목해 주십시오, 동지들.” 내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에게는 연료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에게 무언 가지 급하기를 단념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노벨 공장은 가동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단으로 그것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공장에는 시골로 갈 준비가 된 열다섯 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각기 접촉을 통해 공장에 알맞은 연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연료를 여기까지 가져오는 일은요?”

“우리는 이미 철도鐵道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량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수할 겁니다. 우리 그룹 중 한 명이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동지. 우리는 공장의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간단히 제 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랴프니코프와 그 일행을 흘끗 보았다. 그들은 눈을 회번덕거리며 초조하게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어나갔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아나키스트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행동하고, 생산하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자본가 사장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 그렇지요? 여러분이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주식회사를 세워주식을 팔지 않겠지요?”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곧 몇몇 노동자가 일어나서 물론 모든 노동은 완벽한 동지애 속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위원회는 기업의 경영을 감독하고, 들어온 돈은 공평하게 분배하고, 만일 매출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공통의 합의에 따라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끝맺었다. “만일 우리가 노동자의 상호 부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처벌할 자유 재량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우리를 내버려두고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하면 그만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례로 말을 마쳤다. “여러분은 그저 전진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천둥 같은 박수 가이어졌다. 조금 전의 마비된 듯한 정적 대신 지금은 엄청난 활기가 넓은 장내를 압도했다. 어느 쪽을 들려보아도 청중은 우리의 공통된 결론에 환호했고, 의자에 붙어 앉아 꼼짝 않고 얼굴을 살룩거리는 정부 대표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랴프니코프는 야단스레 벨을 훔들고 있는 의장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마침내 정적이다시 자리 잡았다. 실랴프니코프는 다시 입을 열었다.

분명 눈에 띄게 화가 나 있지만, 냉정하게, 장군과 같은 몸짓을 불여서, 그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변경 할 것도, 자신이 말한 것에 덧붙일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 정유 공장을 폐쇄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되풀이 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를 권좌에 앉게 했소.” 실랴프니코프가 말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우리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단 말이오. 여러분은 우리와 우리의 행동을 신뢰했소. 당신들, 이 나라의 노동 계급인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의 이익을 관리하기를 바랐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의임무는 노동 계급의 진정한 전체적이익을 지키는데 있지, 여기 저기 작은

## 제 4 부. 레프초르니와파냐바론의 사례

모스크바의 탄스카야 Taganka 감옥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수감된 13인의 아나키스트들은 1921년 7월 심문 또는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 행동은 마침 수도에서 개최된 《적색 노동 조합 인터내셔널 Red Trade Union International(프로핀테른 Profintern)》의 대회와 때를 같이 했다. 한 외국 조합주의 대표단 (주로 프랑스인)은 수인의 친척들로부터 투쟁에 대해 상세히 전해듣고 “소비에트” 정부에 그 투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질의는 다른 종류의 사건, 더욱이 아나키스트와 조합주의자를 억압한다는 볼셰비키의 정책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정부의 이름으로, 레프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진정한 아나키스트들을 투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투옥한 사람들은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아나키스트를 사칭하고 있는 범죄자들과도 적듭니다.”

대표단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회 의의장단에게 질의를 계속해 적어도 탄스카야 감옥에 수감된 아나키스트 만이라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질의는 대회에서 큰 스캔들이 되어 정부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보다 심각한 폭로들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13인의 탄스카야 수인들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식투쟁은 11일이 되던 날에 끝났다.

대표단이 떠난 후, 정부는 두 달이나 그 실행을 지연하면서 그동안 탄스카야 감옥에 있는 수인들을 중죄에 처할 적절한 구실을 찾고 그로 인해 그 약속을 파기하고자 했으나 결국 9월이 되어서야 13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세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곧 소련에서 추방했다.

복수 (복수는 볼셰비키의 탄압에 있어 끊임없는 요소였다)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른 바자유의 지주 의자들”에 대한 테러 절차를 외국 노동자나 그 대표단 앞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레닌 정부는 그 직후 같은 그룹의 어떤 사람에 대해 뻔뻔스러운 날조를 자행했다.

요원들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아나키스트 몇 사람을 “범죄” 행위, 특히 소비에트 은행권 위조 혐의를 뒤집어씌워 총살했다 (당연히

Aleksandrovich Semashko) 의 이름을 따 세마시코라는 이름으로 — 통렬하지만 암시적인 역설을 섞어 — 애정을 담아 불리고 있었다].

“왜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내던지고 있는가?” 놀란 페테르스가 물었다.

“나는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 페테르스는 아주 재미 있다는 듯 말했다. “아주 재미 있군. 너는 이나 벼룩, 빈대에게 제 살을 먹인단 말이지. 확실히 미쳤군. 나는 수백 명의 도적을 죽여 왔지만 아무렇지도 않네.”

그는 놀라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화로운 톨스토이 주의자를 한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확실히 무해한 백치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순교자 명단을 아주 오래나 열 할 수 있다.

나는 “심문”과 고문을 당한 뒤, 혹은 현장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숲 언저리에서, 버려진 역의 기차 안에서 총살의 함정에 빠진 희생자의 수백 가지 사례를 인용할 수 있다.

나는 폭력이나 온갖 종류의 고통을 수반하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수사 혹은 체포의 수백 가지 사례를 인용할 수 있다.<sup>1</sup>

나는 자유의지 주의자들의 긴 명단을 들 수 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매우 어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비위 생적인 곳으로 추방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

나는 파렴치한 일고, 냉소적인 배반, 또는 혐오스러운 도발에 기인한 개인의 억압, 그에 대한 반항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볼셰비키는 정부나 그 특권적 일파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상을 품지 않은 경우, 사상을 지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탄압했다. 그들은 다른 사상 자체를 억압하고 모든 자주적인 사상을 없애고자 했다. 또한 그들은 종종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폭로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나는 몇몇 개별 사례, 특히 증오스러운 몇 가지 예시로 그치도록 하겠다.

분파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있지 않소. 우리는 —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를 이해 할 수 있듯이 — 개별 기업들이 제각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끔 할 수는 없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또 당연한 일 이오.

이러한 계획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오. 반대로, 즉 특정 집단을 이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터무니 없고, 인민의 일반적인 이익에 반하며 노동 계급 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일 것이오. 우리가 당장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오. 그것은 우리가 겪어온 악, 간신히 빠져나온 혼란 상태 뒤의 끔찍한 현재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오. 노동 계급은 이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소.

현재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오. 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오. 우리는 온갖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결과에 시달리고 있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얼마간은 계속될 것이오. 그래서 노동자는 특정 집단으로서의 특권을 바라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참아나가야 하는 것 이오. 특권적인 태도는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이고 이기적이고 비 조직적 이오. 만일 그 누구보다 푸티부르주아적이고 파괴적인 아나키스트의 꿈에 빠진 몇몇 노동자 가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더 육 노동자에게 나쁜 짓 일 것이오. 우리는 낙후된 분자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허비할 시간이 없소.”

그리고 실랴프니코프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이 공장의 노동자들과 파괴의 전문가들인 아나키스트 신사들에게,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한 결정에서 아무 것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 두어야만 하겠소. 그리고 무슨 짓을 해서든 그 결정을 존중하게 해보이겠소. 만약 노동자가 저항한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죄악이 될 것이오! 그들은 그저 강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배상 없이 해고될 것이오. 그리고 아나키스트 신사들에게 일러 두는데, 노동자들을 내버려두시오! 정부는 그들이 상관할 일이 아닌 일에 그들이 섞여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정직한 노동자들에게 불복종을 선동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소… 정부는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주저하지 않을 것이오. 방금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이연설은 사람들에게 매우 서먹한 태도로 받아들여졌다.

회의가 끝난 뒤 공장 노동자들은 분개하고 격분하며 나를 에워쌌다. 그들은 실랴프니코프의 기만적인 어조를 포착했다.

“그의 연설은 그럴싸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특권적 입장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우리의 진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신속히 처리되

<sup>1</sup> 이 작품의 저자는 볼셰비키에 의해 폭력을 당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 영역자주

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합의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걱정과 변명거리가 줄어들 겁니다.”

이러한 경우 항상 동일한 두 가지 사상이나 타고반 목했는데 — 정부의 국가주의적 사상과 사회적 자유의 지주의 사상이었다. 그것들은 각자 이유와 논지를 지니고 있었다.

노동자들을 분개하게 만든 것은 그들과 우리에 대한 협박이었다. “사회주의 정부는 진리에도 달하기 위해 다른 수단에 의지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충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몇 주 후 노벨 정유 공장은 폐쇄되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는데, “노동자” 정부가 노동자에게 취한 조치에 저항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

여기에는 다른 장면 하나가 기억난다.

1918년 여름, 독일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혁명 전선에 머무른 뒤나는 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보로네시 Voronezh 지방의 작은 마을 보보로프 Bobrov를 다시 방문했다.

지역 볼셰비키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젊은 이들이었는데,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성인 成人 교육의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그 지역의 교육 활동을 조직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무렵 그러한 사업은 프롤레컬트 Proletcult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나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받아들였다. 1. 일하는 방법과 활동에 있어서의 완전한 독립을 지닐 수 있기 위해 내가 어떠한 종류의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2. 내 교육 활동의 완전한 독립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고 지역 소비에트는 당연히 이 활동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새 기관의 첫 회의를 소집해 보보로프의 노동 조합, 인근 마을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그 지역의 지식인들에게 안내서와 초대장을 보냈다.

회의가 있던 날 저녁, 나는 불신감을 품고 차분히 가라앉은, 적대적이라 고해도 좋을 만한 3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선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 권총을 차고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볼셰비키 “인민 위원”이 엄격하게 복종하도록 명령하거나 지휘하는 여느 집회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 선량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전혀 사정이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로서 이야기를 건네며, 그것이 우리의 일에서 그들 자신의 주도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의지와 에너지의 문제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내게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

한 어디에나 퍼뜨린 거짓말과는 반대로, 크론슈타트 봉기와 그에 수반되는 운동에는 자유의 지주의 정신이 자유의 지주의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대중 운동 — 노동자들의 파업, 농민들의 저항, 혹은 군대나 수병 사이의 불만은 늘 아나키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뒤 볼셰비키는 자유의 지주의 사상에 동조하는이나 친척, 어쩌다 알게 된 이들을 제외하고는 자유의 지주의 자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들까지 투옥했다. 아나키스트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기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한번 그 곳에 투옥되면 나오기는 어려웠으며, 대개의 경우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아나키스트 청년 그룹은 1919년과 1921년에 잔혹하게 탄압받았다. 이 그룹들은 반향을 얻고 있는 아나키스트 원칙을 가르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무엇보다도 종사하고 있었다. 볼셰비키의 행위는 단순히 자유의 지주의 대안 청년들의 관심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 교의 만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921년 여름 소비에트 기관지는 주메린카 Zhmerinka(우크라이나 포딜랴 Podolia 지방의 작은 도시) 근처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며 남부 지역의 다른 도시와 관계를 지니고 있는 30~40명의 아나키스트가 “발견되어 숙청되었다” — 즉 총살되었다 — 고 보도했다. 볼셰비키에 의해 이처럼 솔직히 보도되는 일은 드문 현상인데, 이 경우는 그와 같은 청년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은 이들 모두의 이름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유의 지주의 투사가 몇몇 포함되어 있었음은 확실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다시 소비에트 기관지에 의하면, 레닌 정부는 오데사 Odessa에서, 특히 소비에트 기관과 그 서클 내에 (오데사 소비에트와 볼셰비키 당지방 위원회 내부 까지) 프로파간다를 확대하고 있는 상당히 크고 중요한 아나키스트 그룹 구성원을 투옥했다 (그리고 그들 중 몇은 총살했다). 그 혐의는 “대 반역죄”였다고 당 기관지는 이야기했다.

관영 언론의 급보는 1922년 까지 92명의 톨스토이의 주의적 아나키스트 Tolstoyan(절대 평화 주의자) 가주로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총살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많은 톨스토이의 주의자들이 감옥에서 고통 받고 있었다.

이 선량한 평화 주의자들 중 한 명은 어느 날 군대의 사무국에서 체카(공산당 비밀 경찰) 의 악명 높은 사형 집행인 야코프 페테르스 Jēkabs Peterss) 와 마주하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그는 석방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덥수룩한 수염 속에서 이를 골라내 평화롭게 마룻바닥에 던지고 있었다 [당시 이는 러시아에서 인간의 가장 친밀한 친구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건 인민 위원회 니콜라이 세마시코 (Nikolai

한전보국 — 하나는하리코프, 다른하나는크림반도 Crimea— 만이수신해야만했다.

그지역의전보국에근무하는한자유의지주의자의동조자는이명령에따르지않았다. 그리고그는다음과같은전문을청취했다.

우크라이나, 특히 《마흐노우슈치나》 지역의아나키스트세력을분쇄하라.

레닌.

며칠후같은방식으로또다른전보가송신되었다.

모든아나키스트에대해엄중한감시를시행하라. 그들이고발될수있는범죄와관련된서류를가능한한많이준비하라. 명령과문서는비밀로하라. 명령이필요한모든곳에송신하라.

레닌.

그리고며칠이더지난뒤마지막세번째간결한메시지도착했는데, 다음과같다.

모든아나키스트를체포하고죄를뒤집어씌워라.

레닌.

이전보는모두우크라이나인민위원회의장이었던흐리스티안라콥스키 (Christian Georgievich Rakovsky) 와다른군사및민사民事당국에보내졌다.

세번째전보를받고자유의지주의에동조하는전보국근무자는한아나키스트동지에게경고했다. 경고를받은아나키스트는준비중인탄압을자유의지주의자들에게알리기위해서둘러하리코프로향했다. 하지만그가도착했을때는너무늦어이미조치들이취해진상태였다. 하리코프의거의모든아나키스트, 그리고회의에참석하기위해온사람들까지투옥되었다. 그들의본부는폐쇄되었다.

소비에트권력에대항하는우크라이나아나키스트들의“음모”란그러한것이었다.

“소비에트”정부와네스토르마흐노간의합의당시, 그것을교섭했던 《마흐노우슈치나》 대표단은공식적으로투옥되거나추방된사람들의수를확인하고 20 만명이상의석방을요구했다. 이들은대부분 《마흐노우슈치나》 운동에동조한혐의로인해집단으로체포된농민들이었다. 우리는그들가운데얼마만큼의 의식적인아나키스트가있었는지모른다. 그리고우리는이시기에얼마나많은사람이여러지방의비공개적인비밀감옥에서흔적도남기지않고총살되거나실종되었는지결코알수없을것이다.

1921년 3월크론슈타트봉기때볼셰비키정부는아나키스트와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을새로이집단으로체포했다. 그들은감히목소리를높여대항하는남은모든투사를쓸어내고체포하기위해다시금전국에걸쳐인간사냥을조직했다. 왜냐하면“소비에트”권력이러시아국내를비롯

면서나는그들을보보로프를중심으로한이지역에서그들자신의의지로그들의능력, 건전한교육및문화활동을최대한만들어낼것을권고했다.

그리고나는그들의선의와타고난재능을향해서나자신의역할을명확히했다. 그것은계획과프로그램을작성하는일, 교사를돕거나내지식과경험을살려의견과조언을말하며친근하고효과적인조력자가되는것이다. 또한나는우리가온마음으로함께일한다면성취할수있는것들에대한대략적인계획을그렸다. 내연설에이어서전적으로자유로운의견교환이뒤따랐다. 그리고청중들사이에서어느정도관심이일어났다.

적어도백명이보보로프에서열린두번째모임에참석했는데, 그분위기는훨씬더우호적이고자신감에차있었다. 하지만얼음을완전히깨뜨리고상호신뢰가확립되기위해서는서너번의회의가더필요했다. 내진정성의깊이에의심의여지가없었고관계자모두가그일에흥미가깊고그것이달성될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우리모두의사이에깊은공감이자라나몇몇사람들에게는큰열정이생겨났다.

그러고난뒤열띤활동이시작되었는데, 그범위와효과는내모든기대를빠르게뛰어넘었다. 수십명의사람이, 대개교육은받지못했으나그계획에열심히참여했고, 강한열정과능숙함으로일에착수해풍부한아이디어와효과를거두었으므로나는곧그들의노력을결합하고조정하거나, 더중요하고큰업적을준비하기만하면됐다.

우리의모임은언제나공개되어있었으며청중전체가자유롭게아이디어와노력을제공할수있었으며, 보보로프에서어느정도떨어진마을들의농민남성들, 심지어농민여성들까지끌어들이기시작했다. 우리의사업은지역전체에서화제가되었고, 시장이서는날이면이들의교육모임이늘매우활기찬군중들을매혹시켰다.

곧훌륭한대중극단이조직되어방법과프로그램을선택하고순회공연을준비했다.

우리를위한숙소가곧마련되었고, 우리의모든필요에맞게정비되었다. 가구는새것처럼수리되었고, 부서진창문을교체하고, 이전에는학용품(노트, 연필, 펜, 잉크등) 도없어서불편을초래했으나즉시그럭저럭마련되었다. 이것이새교육계획의첫발걸음이었다. 도서관이설립되었고, 기증받은첫책들이들어오고, 성인을위한야학이시작되었다.

그러나지방당국은그때부터모스크바의중앙당국에보고서를보냈다. 이러한상충부는내가상부의“지시”나“규정”에신경쓰지않고내자유의지에따라활동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리고우리모두가모스크바로부터의지령에따르지않고자유로이행동해서우리지역에서는대부분그것을전혀따르고있지않거나혹은처음부터무시해버리기조차하고있다는것을알았다.

어느화창한날, 나는보보로프소비에트의중재자를통해“아래쪽으로부터”법령과규정, 규칙과정식명령, 프로그램과설계와계획으로가득찬

커다란꾸러미를받았는데, 그것은모두완전히이상하고터무니없는것들뿐이었다. 나는이모든멍청한종이낭비들, 이실현불가능한명령들을지키라는지시를받았다.

나는그모든“문헌”들을훑어보고는그에대해더생각하지않고활동을이어나갔다.

그뒤에복종혹은추방이라는최후통첩이이어졌다. 나는당연히모스크바로부터의지시에복종하고그것을적용하는것이필연적으로우리가수행한일들을죽일것이라는것을알았기에후자를선택했다(나는독자들이내가그일자체에흥미를느끼고있었다는것을믿어주기를바란다. 나는아나키스트사상에대한언급없이내직업적의무에충실히전념했고, 어떠한“파괴적”선전도문제시되지않았으며, 이혐의는내게전달된명령에서전혀제기되지않았다. 중앙당국은맹목적으로그규율에복종하려하지않는이는누구라도용납하지않겠다는것뿐이었다).

활동은끝났다. 모두가활동이간신히만들어지자마자위태로워졌다  
고느끼는송별회뒤에나는보보로프를떠났다.

내후계자는모스크바의충실한추종자로, 중앙당국의지시에문자그대로복종하고있었다. 얼마못가성인학생들과교육사업의참가자들은모두떠나고말았으며, 얼마전까지생기가득했던학교는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그리고몇달후, 이프롤레타리아문화프로젝트가전국에서비참하게폐배했다.

페트로그라드의노벨정유공장노동자들처럼몇몇도시와공업지대의여러기업은폐쇄될위기에처한일을계속하거나, 시골과의교류를확보하고조직하거나, 혹은온갖어려움을극복하고불완전한서비스를개선하고, 불안정한상황을해결하고, 잘못된점을고치고, 공백을메우기위해스스로어떠한조치들을취하기를원했다. 그러나볼세비키당국은스스로야말로전혀효과적이고기민하게행동하지못하면서대중이자주적인활동을하려는것을조직적으로도처에서금지했다.

이와같이, 예를들어엘리자베스그라드 Elizabethgrad(리시아남부에위치한)의소비에트는긴급을요하는지방경제문제를해결하기에무력하다고고백하고있었고, 그관료들도성공할가능성이없다는것을표명하고있었기에몇몇공장의노동자들은그소비에트당국의국장에게그러한문제들을스스로처리할조직을만들고, 유효한결과를확실히하기위해시의모든노동자를그주변에집결시켜주도록요구했다.<sup>1</sup> 요컨대소비에트의관리아래행동하겠다는것이었다.

그러나그밖의어디서나이러한제안을한사람들은호되게질책받고“무질서”라는죄목으로처벌의위협을받았다.

트로츠키에의한또하나의결정적인행동은1919년여름, 이른바《마흐노우슈치나》운동을위법이라고선언한, 지금까지도유명한명령제1824호를공포한것이었다. 그후아나키스트들은네스토르마흐노의파르티잔들과함께러시아의거의모든곳에서체포되었다. 그리고대개적군장교의명령만으로즉결총살되었다.

대부분의경우, 자유의지주의적조직의탄압에는체카(공산당비밀경찰)나, 기만당하고있거나기력을상실하거나혹은지나치게흥분한적군병사들의야만적인폭력, 무의미한파괴가수반되었다. 투사들은남녀구분없이“범죄자”로난폭하게다루어졌다. 그들의건물은파괴되고서적은불태워졌다. 그것은무시무시한탄압이었다.

그해여름이끝날무렵우크라이나에서널리아나키스트조직에의습격이행해졌다. 그리고같은해끝무렵에는러시아아나키스트운동은잔재만남아있었다.

여기볼세비키사사에서의기묘한태세전환을보이겠다.

1920년10월초순, “소비에트”권력은포트르브란겔남작의“백군”과의싸움에서혁명적《마흐노우슈치나》파르티잔의도움이필요했기때문에마흐노와동맹을맺었다. 그동맹이기반을둔협정에따르면, 투옥되거나추방된모든아나키스트는자유를회복하고, 우크라이나와러시아어디서나공공연하게활동할권리가주어졌다.

당연히볼세비기는그규정의이행을꺼렸으나기소를중단하고몇몇투사들을석방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브란겔이패배하자마자“소비에트”정부는마흐노를배신해공격하고, 우크라이나의자유의지주의운동을재차격렬하게공격했다.

11월말브란겔이막패배한가운데, 당국은합법적회의를위해각지에서모여온많은아나키스트를하리코프 Kharkov에서체포했다. 동시에그들은우크라이나전역에서자유의지주의자들을추적해몰이꾼과복병으로규칙적인사냥을조직하고, 그들의부모와아내, 아이들을“인질”로잡았다—그것은마치얼마전부득이하게취한양보에대한복수를하고잃어버린시간을만회해“아나키스트라는사악한종”을어린아이까지멸종시키려드는듯했다.

이파렴치한행동을정당화하기위해볼세비키정부는마흐노에의한소위반역을이유로마흐노와의결별을변명하고, “소비에트권력에대한아나키스트의대음모”를기묘하게날조했다.

이음모에관한진상은유별난것으로, 이야기할만한가치가있다.

브란겔에대한결정적인승리며칠전, 브란겔의패배가의심의여지가없게됐을때, 모스크바의중앙정보국은모든지방의정보국에그들의수신장치를차단하라고명령했는데, 그것은레닌으로부터의긴급하고극비인메시지를청취하지 못하게하기위해서였다. 이것은오직두군데의주요

<sup>1</sup> 1918~1919년에도여전히가능했다.

## 제 3 부. 무제한의분노

1919년부터 1920년에 걸쳐서 러시아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에트” 권력의 독점적이고 테러적인 방식에 반대하는 항의와 운동들이 눈에 띄게 격화되었다. 정부는 독재에서 점점 더 냉소적이고 무자비해지며, 점점 더 강화되는 보복으로 답했다.

자연히 아나키스트는 다시금 그 공공연한 투쟁 속에서, 기만당하고 억압받는 대중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노동자를 지원하며 정치인의 개입 없이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에게 상품의 생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를 요구했다. 그들은 또 농민을 지원하며 농민에게 독립과 자치, 그리고 노동자들과 자유롭게 직접 거래할 권리 를 요구했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양자의 이름으로, 혁명에 있어 그들이 성취했으나 “공산주의” 권력에 의해 “좌절”된 것의 반환, 특히 “참된 자유 소비에트 체제”의 회복, 모든 혁명적 경향 등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재건 등을 요구했다. 요컨대 그들은 1917년 10월에 획득한 것을 인민 자신에게 — 자유로운 노동자와 농민 조직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당연히 아나키스트도 이 원칙들의 이름으로 문서와 구두 口頭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폭로하며 싸웠다.

그들이 예견한 대로 볼세비키 정권은 아나키스트에게도 전쟁을 벌였다. 1918년 봄에 행한 첫 번째 주요 작전 이후 박해는 거의 끊이지 않고 이어져 점차 잔인하고 단호한 성격을 띠어갔다. 그리고 같은 해 말까지 지방의 몇몇 자유의지주의 적 조직들이 다시 한 번 습격 당했다. 우연히 이를 모면한 이들은 당국에 의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1919년, 대대 러시아에서의 탄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도박해가 시작되었다 (몇 가지 이유로 그곳에는 볼세비키 독재 체제가 다른 지방보다 상당히 늦게 설치되었다). 볼세비키가 발을 들여놓은 모든 지역에서 자유의지주의 적 단체들은 추방되고 투사들은 체포되었으며, 그들의 출판은 중단되었고 서점은 파괴되었으며, 강연회는 금지되었다.

이 모든 조치가 경찰, 군대, 또는 행정 명령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고소나 해명,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없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자행되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행동의 표본은 1918년 봄에 트로츠키 자신에 의해 세워진 “선례先例”로 인해 결정적으로 확립되었다.

겨울이다가 오자 몇 군데 그밖의 도시에서는 산업을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용 난방을 위한 연료 조차 부족했다.

러시아에서는 늘 가정에서 장작을 뺐다. 러시아의 숱한 삼림지대에서는 적기에 — 보통 여름이 끝날 무렵 — 연료를 공급하기란 쉬운 일이었다. 혁명 이전에는 큰 장작 창고의 소유주가 종종 이웃 마을의 농민들을 고용해 나무를 벌채하고 가까운 철도 또는 저장소로 운반했다. 시베리아와 북부지방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보편적이었다. 한 해의 수확이 끝나면 농민들은 들판의 일에서 해방되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기꺼이 이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정부의 의지에 의해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한 도시의 소비에트가 필요한 준비를 하는 일을 정식으로 부담했다. 따라서 농민들과 거래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는 삼림이나 저장소의 소유주가 발견되지 않고 철도가 잘 기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관료적인 태만으로 인해 — 모든 관료 조직이다 그렇지만 — 소비에트에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알맞은 때에 맞게 임무를 거의 달성할 수 없었다.

마침 적절한 시기가 되어 도시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자진해 시골로 가서 농민들과 거래해 장작의 운송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말할 것도 없이 소비에트는 이러한 행동을 “독단적”이며 “무질서”한 것이라고 헐난하며 거부하고, 연료의 공급은 중앙 정부가 수립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관료 단위인 소비에트가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도시에는 연료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구매되었고, 작업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9월이 지나고 나서는 비와 진흙탕 때문에 도로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계절이 되자 많은 경우 농민들은 아무리 높은 임금을 줘도 볼세비키가 발행한 종이 루블에는 유혹되지 않았고, 그 일을 맡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난 뒤 농민들은 군의 명령에 의해 그 작업을 하도록 강요 받았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예시들을 무작위로 꼬집어 내수십 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 독자는 내가 언급한 것들을 스스로 조금씩 변화시켜 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진실들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도처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 생산, 운송, 교환, 상업은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대중은 그들 자신의 주도로 행동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행정 조직 (소비에트 등)”은 끊임없이 파산 상태에 있었다.

도시에는 빵, 고기, 우유, 야채가 부족했다. 시골에는 소금, 설탕, 공업 제품이 부족했다. 도시의 창고에서는 옷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지방에서는 아무도 입을 것이 없었다.

어느 곳, 어느 것에서든 무질서, 태만, 무기력함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모든 문제를 활기차게 해결하고자 개입

하고자해도 그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통치”하기를 의도하고 있었다. 어떠한 “경쟁”도 용납하지 않았다. 자주적인 주도권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규율 위반”으로 몰리며 엄한 처벌의 위협을 받았다.

혁명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가장 아름다운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러시아인민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부의 능력과 미래를 믿고 “일을 처리하는 대로 말기고 있었다.” 정부는 엄중하고 강압적인, 그러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이용했다. 그리고 인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은 사실상 우리 본질적인 이상을 확인 시켜주었다. 즉, 참된 혁명은 관심을 지닌 수백만 노동자인민의 자유로운 활동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 인민을 대신하면 혁명의 생명은 숨을 거두고, 모든 것이 정지하고 모든 것이 후퇴하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러시아인민이 “행동하려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 “군사력에 의해 강제되어야만 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들은 모두 순전히 지어내진 말이다. 대혁명 기간 동안 인민은 행동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험 많은 혁명가와 교육받은 이들, 전문가, 기술자들의 사심 없는 도움이다. 사실 그릇된 교리와 사람들을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계층, 집단, 그리고 권력과 특권을 갈망하며 인민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인민의 행동을 가로막고, 인민을 돋는 대신 인민을 통치하고, 인민을 이끌고, 착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권력이 없는”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낸다. 모든 인민, 즉 노동 대중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온갖 분자들의 반동적인 열망을 부정하지 않기에 모든 혁명은 실패로 끝날 것이고 노동자의 참된 해방은 공허한 꿈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방금 러시아인민들이 혁명에 직면한 치명적인 위험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볼셰비키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조건 아래서는 노동 대중에 의한 주도권과 행동의 자유를 호소하는 아나키스트의 비판과 사상이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넓은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유의 지주의 운동이 러시아에서 급속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그리고 그 성공에 의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볼셰비키 정권은 모든 정부에 의해 승인된 수단 — 계략과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무자비한 탄압을 위협적인 아나키즘에 대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공격은 소심한 시작이자 “밑그림”이며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

아나키즘 사상은 아직 위법이라고 선언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실은 신앙의 자유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허용되고 있었다. 그런 기조 아래 자유의 지주의 적조직들 — 과거의 창백한 그림자 —은 “재앙”에서 살아남아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볼셰비키당은 《사회주의 혁명당》을 (“최대주의자” 등 기타 좌파 기관과 마찬가지로) 분쇄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 이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아나키스트에 대해 돌려진 것들과는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와 볼셰비키 간의 결투는 권력 장악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대립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의 몇몇 구성원을 내각에서 추방한 것은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 《공산당》은 사정 없이 《사회주의 혁명당》에 대해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1918년 여름이 끝날 무렵, 《사회주의 혁명당》 좌파는 위법이라고 선포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의 당으로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개개의 투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추적되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얹압당했다.

불행한 마리아스피리도노바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 비인간적인 탄압의 가장 끔찍한 폐이자 중하나를 이룬다. 체포되어 감옥에서 감옥으로 끌려다니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비록 지하실은 아니었으나 어느 더러운 독방에서 체카에 의해 총알에 의해 생을 마쳤다 (나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혁명의 과정과 임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이 유일한 범죄였던 얼마나 많은 이당의 투사들이 이 같은 운명을 겪어야 했던가!

## 제 2 부. 실행

1918년봄, 러시아 “공산주의” 정부에 의한アナ키스트 박해가 전반적이고 조직적이며 철저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Treaty of Brest-Litovsk 조약이 체결되고 레닌 정권은 “좌파” 반대자들 — 사회혁명당 좌파당원들과アナ키스트 들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을 벌일 만큼 충분히 견고해졌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공산주의 언론이アナ키스트에 대한 중상 모략과 거짓비방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동시에 집회와 강연을 통해 공장, 군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반을 마련했다. 얼마 가지 않아 정권은 군대에 의존할 수 있으며, 좌파들의 반대에 대한 철저한 군사 행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중은 무관심하거나 무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후 4월 12일밤, 거짓되고 터무니 없는 구실로 모스크바의 모든アナ키스트 조직 본부 — 《모스크바アナ키스트 그룹 연맹》이 있는 곳을 주축으로 — 가 군대와 경찰에게 공격당하고 탈취당했다. 몇 시간 동안 수도는 포위 상태에 있는 도시의 꽃이 되었다. 심지어 대포까지 “군사 행동”에 동원되었다.

이작전은 러시아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자유의지주의적 조직 약탈의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지방 당국은 수도의 광기를 뛰어 넘었다.

2주에 걸쳐 총공격을 준비하고 연대 안에서 스스로 “アナ키즘 적도적” 들 anarchobandits에 대한 억제되지 않는 동요를 느낀 레프트로츠키는 “소비에트 정부는 마침내 강철 벗자루로 러시아에서アナ키즘을 쓸어 냈다”는 그의 유명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데에 만족감을 느꼈다.

15년 뒤에 오시프스탈린 (Joseph Vissarionovich Stalin) 가트로츠키를 모욕하는데 같은 방식을 사용해 트로츠키주의에 대해 동일하게 “강철 벗자루”를 적용한 것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잔인한 모순이다.

나는 이 시적 詩의 인정의 正義의 행위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음을 고백한다.<sup>1</sup>

## 제 4 장. 탄압

<sup>1</sup> 이 문장은 트로츠키 암살이 전에 쓰였다. - 영역 자주

## 제 1 부. 준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임무가 “소비에트 권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1918년 봄에 소비에트 권력은 정치적·국가주의적 조직 — 경찰 조직, 군대, “소비에트” 관료 기구 — 을 모두 상당한 정도까지 추진했다. 따라서 독재 제도의 기반은 충분히 강화되어 그 기구는 그것을 창설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것은 믿음직한 것이다.

볼셰비키 정부는 이 훈련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군대를 통해 여기저기 서일어나고 있는 몇몇 자주적인 행동의 시도를 짓밟았다.

또한 러시아 대중을 그 무서운 독재에 종속시킨 것도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세력의 도움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볼셰비키 정부가 인구 대부분의 무조건적 복종과 수동성을 확인하자 아나키스트를 적대한 것도 이와 같은 군대로 써한 것이었다.

1917년 10월 혁명 때 아나키스트에 관한 볼셰비키의 정책은 다음과 같아요약된다. 전투와 “파괴”의 요소로 어디까지나 아나키스트를 이용하고, 필요한 때는 (무기 등으로) 원조하기도 했으나 엄격히 감시했다.

그러나 승리가 이루어지고 권력이 세워지자 볼셰비키 정권은 그 방식을 바꾸었다.

인상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1917년 10월, 모스크바에서의 격전 동안 드빈치 (앞서 언급한 드빈스크 연대)는 모스크바 소비에트 본부에 주둔하고 있었다. 볼셰비키 “혁명 위원회” 역시 모스크바에 설치되어 “최고 권력”이라고 선언했다. 때문에 아나키스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드빈치의 병사들은 곧바로그 위원회에 의해 감시와 불신,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주위에는 스파이들이 그 물처럼 퍼져 있었다. 일종의 봉쇄가 그들의 운동을 방해했다.

그라초프 (연대의 지휘관이었던 아나키스트)는 볼셰비키가 참된 혁명에도 새로운 러시아 국가의 긴급한 문제에도 관심이 없으며 오직 경쟁과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간파했다. 그는 그들이 혁명을 향 폐화하고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느꼈다. 깊은 고뇌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권력의 죄악에 찬마수를 포착해 제때 멈추고 혁명을 약진 시킬 수 있을지 자문해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는 몇몇 동지들 과 상의해 봤지만 슬프게도 모두 그와 같이 무력했다.

보다 나은 상황을 원했기에 그는 가능한 한 노동자들을 무장 시킬 생각을 했다. 그는 소총과 기관총, 탄약을 여러 공장에 보냈다. 이리하여 그는 새로 운 사기 詐欺에 대해다가 올 반란을 위해 대중을 무장 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라초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살해당했다. 볼셰비키 당국에 의해 “군사상의 일로” 니즈니노브고로드 Nishni-Novgorod로 소환된 그는 그곳에서 아직 소총을 다룰 줄도 모르는 한 병사에 의해 극히 불가사의한 상황 아래 총에 맞았다. 몇몇 칭호들은 그가 “소비에트” 권력에 의해 고용된 용병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추측하게 한다.<sup>1</sup>

후에 10월 전투에 참여한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모든 혁명적 연대는 정부에 의해 무장해제되었다. 모스크바에서 강제로 무장해제된 첫 번째 연대는 드빈스키 연대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에 걸쳐서 예외 없이,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무장하고 볼셰비키 군당국에 대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선포 아래 무기를 내놓도록 명령 받았다.

<sup>1</sup> 1936년 스페인 아나키스트 두루티 (José Buenaventura Durruti)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은 그라초프 의사건을 명확히 상기시킨다.

감히 혁명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을 가졌다는데 이유만으로 맹렬히 박해받은 조합주의자와 아나키스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독자들이 보다시피 이제는 진정으로 **인민에 대한 완전한 절대 노예제** — 육체적, 정신적 노예제다. 말하자면 새롭고 끔찍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종교재판**이다. 이것이 바로 볼셰비키당이 이룬 작품이다.

그런데 볼셰비키는 이러한 결과를 추구했을까? 그들은 고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 것일까?

결코 아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당의 최고 대표들은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완전한 공산주의로의 길을 여는 제도를 희망했다. 그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예견했던 방법들이 틀림없이 그리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이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이 선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처럼 성실한 이들은 속았던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택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깨닫고 사라진 희망 가운데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던 그들 중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연히 순응주의자들과 출세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거기에 적응 시켰다.

나는 몇 년 전 열띤토론 중에 훌륭하고 성실한 한 볼셰비키에 의해 인정된 것을 여기에 언급해 두어야겠다. “확실히” 그는 말했다. “우리는 과오를 범했고, 우리가 바라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길로 들어서 버렸소. 하지만 우리는 오류를 바로 잡고 난국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오. 우리는 성공할 것이오.”

이와는 반대로 사건의 논리적인 힘,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나 물질적인 인의 연결, 그리고 결정적인 인과 관계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소수 개인의 의지보다 더욱 강력하다기에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실히다.

아, 만약 수백만이나 되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속았다면, 만약 그것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동의 하에 행동하고 있는 강력한 집단의 문제라면, 의지의 공통된 노력으로 실수를 바로 잡고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과제는 그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에 가로막혀 있는 복종적이고 수동적인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독자적 집단에게는 불가능하다.

볼셰비키당은 국가, 정부, 그리고 정치적 행동,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화되고”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대중을 혐오스럽게 착취하는데 바탕을 둔 거대하고 살인적인 국가 자본주의로 이어질 뿐이다.

## 제 8 부. 진화작업

이 무시무시한 “역사”가 어째서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가?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볼셰비키 정부는 처음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 거짓말, 중상모략 같은 상투적인 방법을 사용해 체계적이고 뻔뻔스럽게 그들을 속임으로써 외국의 노동자나 혁명가들로부터 그 무서운 행위들을 은폐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기본적인 절차는 사상과 운동을 소멸시킨 뒤 그들의 역사도 지워버리는, 모든 사기꾼이 모든 시대에 사용하는 순서였다. “소비에트” 언론은 볼셰비키가 러시아 인민의 자유에 대항해야만 했던 싸움이나 기기 위해의 존해야만 했던 수단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소비에트” 문헌의 어디에서도 독자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문헌의 저자가 그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그들은 그것이 반혁명 운동이나 도적들의 음모를 억제한 사건이라는 몇 줄로 언급을 국한한다. **이러니 누가 진실을 검증할 수 있겠는가?**

역사왜곡에 있어 모스크바의 “공산주의” 정부에 큰 도움이 된 또 한 가지 요소는 국경의 효과적인 폐쇄였다. 러시아 혁명에서 벌어진,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은 밀폐된 선박에서 펼쳐졌다. 실제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내내 어려웠다. 완전히 정부의 것인 그 나라의 언론은 억압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침묵했다.

유럽의 진보적 집단들에서 러시아 아나키스트의 박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모든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몇 가지 편린이 새어나왔을 때, 볼셰비키 정부는 번번이 대표자들의 입을 통해 시치미를 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아나키스트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그들의 사상을 공정하고 선전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클럽이나 언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와 그들의 사상에 별로 흥미를 지닌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답만으로 충분했다. 반증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할 생각을 했겠는가?

볼셰비키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은 몇몇 아나키즘의 변절자들은 정부에 귀중한 공헌을 했다. 증거로써 정부는 이들 전前 아나키스트의 거짓 진술을

인용했다. 과거를 부정하고 순결을 되찾으려는 그들은 정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증언했다.

볼셰비키는 또한 “소비에트아나키스트”라고 불리는 “길들여진” 변절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이들은 신중하고 비밀리에 “차근차근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걸으로는 “충성”하면서 정세와 볼셰비즘에 영합하는 것이 현명하고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보호색 전술”은 반정부 투쟁의 온갖 기교에 익숙한 볼셰비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장한” 아나키스트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끊임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들을 위협하고, 교묘하게 “길들이는” 것으로 당국은 볼셰비즘의 모든 절차를 — “일시적으로” — 정당화하고 심지어 인정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저항하는 자들은 투옥되거나 추방되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복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가짜” 아나키스트로 묘사된다. 다른 모든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볼셰비즘을 이해하는” “진짜” 아나키스트라며 스스로를 떨었다.

혹은, 볼셰비키는 거의 활동이 없고 “민감한” 점에 대해 결코 손을 대지 않는 어떤 아나키스트들에게도 걸보기에 우호적으로 말을 걸었다.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은 엄중히 감독되는 몇몇 보잘 것 없는 조직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역사적 혹은 이론적인, 오래되고 거슬리지 않는 아나키즘 저작을 재판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아나키즘 출판사”는 “진짜 아나키스트”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후에 이러한 “조직”도 모두 “청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나키즘을 희화화하는데까지 왜곡한 “아나키스트” 광대 몇몇이 용인되었다. 볼셰비키 작가들은 자유의지주의 사상을 비웃기 위해 그들을 인용하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었다.

이와 같이 레닌 정부는 러시아 대중과 정보가 부족한 외국의 사람들로부터 진실을 숨길 수 있는 허울을 만들어 냈다. 그 뒤 볼셰비키는 외국 “진보적” 집단의 무관심, 순진함, 태만함을 확인하고는 진실을 숨기려고 조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인사들”과 러시아 대중들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기만적인 허울은 또한 볼셰비키가 언제나 효과적인 무기인 비방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고의로 아나키스트를 “반혁명가”나 “범죄자”, “도적”으로 혼동했다. 다른 한편 그들은 혁명의 와중에 아나키스트는 그저 쓸데 없는 말이나 하고, 빙정대고, “방귀나 뀌어대고”, 혁명의 수레바퀴에 뚫이나 뿐이라고, 파괴하고, 무질서를 유발하고,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이나 추구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을 하는 이들은 아나키스트가 혁명을 위해 봉사하고자 할 때도 그들은 아무 것도 올바르게 달성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해댔는데, 그들에게는 “적극적인 계획”이 없다거나, 결코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거나, 무책임한 몽상가이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모든 이유에서 “소비에트” 정권은

## 제 6 부. 전체적 상황

내가 밑그림을 그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몇 가지 마지막 봇놀림이 여기 있다.

볼셰비키제도는 국가라는 고용주가 모든 시민에 대해 부양자, 정신적 지도자, 보상과 징벌의 분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직업을 할당한다. 국가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급여를 준다! 국가는 그들을 감독한다. 국가는 그들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조종한다. 국가는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국가는 그들을 심판한다. 국가가 그들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 따라서 고용주도, 부양자도, 보호자도, 감독관도, 교육자도, 지도관도, 심판관도, 간수도, 사형집행인도 하나의 상징 속에 있다 — 이 모든 것은 공무원의 협력을 빌려 편재遍在하는 전지전능한 신이고자 하는 국가 속에서 상징이 된다. 그로부터도 망치려는 이는 조심하라!

우리는 볼셰비키 국가(정부)가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재화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 역사, 경제, 정치, 사회, 과학, 철학, 기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진리의 영원한 저장소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분야에서 볼셰비키 정부는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고 자부한다. 볼셰비키 정부만이 진리를 점유하고 있다. 볼셰비키 정부만이 어디서 어떻게 지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볼셰비키 정부만이 혁명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그렇기에 논리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볼셰비키 정부는 1 억 7 천 5 백 만의 러시아 주민에게 자신을 절대로 잘못이 없는, 이론의 여지 없는, 신성한 진리의 유일한 보유자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이 정부에도 전하지는 않는 다 할지라도 그 무류성 無謬性을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박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비난하거나 하는 개인 내지 집단은 볼셰비키 정부의 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진리의 적, 혁명의 적 — “반혁명가”로 간주된다.

이는 의견과 사고의 완전한 독점할 수 반한다. 국가(또는 정부)의 의견이 외의 어떠한 의견도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범죄적이 단으로 여겨진다. 그런 까닭에 불가피하게 이 단자들은 투옥, 추방, 사형에 처해진다.

선거의 “자유”와 “비밀”이 최근 스탈린의 유명한 “민주적 헌법”에 의해 사람들에게 “용인”되었음을 악명이 높다. 이제 스쳐의 진의는 소련 내 불만이 커지는 것을 달래고, 나아가 외국 노동자를 혐혹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과 그 정부는 선거의 “자유”와 “비밀”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국가의 “기구”는 충분히 견고했기에 — 대중은 완전히 정복되었고 — 정부는 “자유”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무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의 조문 자체도 세밀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었다.

오늘날 모든 곁 보기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전능한 정부의 무수한 대리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강제되고, 주도되고, 조직되고,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 위원회, “세포”, 다른 지역 당 기관이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들의 후보들을 강요한다.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 제시된 후보 리스트는 단한 명뿐이다. 상대 후보는 없다. 누가 감히 이 리스트에 항의하거나 다른 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봄부림이 아무런 상황도 바꿀 수 없고, 완고한 이들은 기껏 해야 두 옥 될 것이 명약관화한 데 유권자 가무순 목적으로 “연기를 거부” 하겠는가?

투표는 투표자가 그 누구도 어깨너머로 엿보지 않고 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자유”이자 “비밀”이다. 하지만 그 펜이 종이에 무엇을 써 넣을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의 행동은 “예정”된 것이기에 그저 기계적인 동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에트의 구성 및 정부에 의한 종속은 사전에 보증되어 있다. 때문에 “투표”는 오직 또 다른 사기 일뿐이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스탈린 헌법”은 10 월 혁명 이후 세 번째 것임을 상기시켜야겠다. 1918년 7월 레닌 주재 하에 제 5 차 소비에트 총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헌법은 볼셰비키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두 번째는 1924년에, 여전히 레닌 밑에서 채택되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특정 수정과 사양을 만들어 소비에트, 공장 위원회 등의 독립성에 대한 마지막 혼란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법이 스탈린에 의해 공포되어 1936년에 채택되었다. 스탈린은 아무 것도 변경하지 않았다. 몇 가지 인가 중요하지 않은 세부 항목의 변경, 몇 가지 인가의 모호한 약속, “민주주의적” 공식을 되풀이하는 몇 가지 조항이 몇 가지 있었지만 이 것은 당장 다음에 오는 항목과 모순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매년 1회씩 열리는 《 범러시 아소비에트 총회》가 4년마다 선거가 열리는 영속적인 최고 소비에트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을 억압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난 한 혁명의 과정에서 중차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 사이외에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전술은 성공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볼셰비키 정부에 훌륭하게 봉사했고, 볼셰비키가 구사한 기만적 체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무자비함에 대해 자유의지 주의 언론이나 외국의 다른 장소에서 점점 더 많이, 정확하게 폭로되었으나 그것에 대해 틀에 박힌 반박이 조직적으로, 냉소적으로 행해졌다.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거짓 명성에 현혹된 모든 나라의 노동 대중, 전위지식인들은 그들의 “온화한지도자”의 모든 허튼 소리를 받아들였고, 따라서 스스로를 충성스럽게 “변화” 시켜 서 아나키스트의 폭로에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허영심, 유행, 속물 근성, 그리고 다른 이차적 요인들이 이 일반적인 무관심 속에 활약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개인적이익까지도 그 광범위한 기만에 기여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실에 일부러 눈을 감았는가. “소비에트” 정부는 선전 목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필요했다. 그 대가로, 정부는 그들의 일을 위해 유리한 시장, 아마도 단 하나의 시장을 보장해주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은 새 후원자들로부터 불어 넣어진 변명과 정당화로 양심을 달래며 이 암묵적인 거래를 수행했다.

## 제 9 부. 대표단의기만

여기에서는“소비에트”가 대규모로 이용한 “주입식 교육”이라는 특수 한방식 — 외국 노동자 대표단을 조직적으로 기만한 것에 몇 단락을 바쳐야겠다.

이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그 위성국들의 관리에 불리한 폭로를 반증하기 위한 볼셰비키의 “결정적 논거” 중 하나는 다른 여러 나라의 조직, 공장 또는 단체에 의해 소련에 파견된 대표단의 증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들 대표단은 “사회주의의 땅”에 몇 주간 머문 뒤 거의 예외 없이 “소비에트” 정권의 신뢰를 손상하기 위해 외국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전부 “거짓 말이자 중상모략”이라고 불렀다.

처음에 “대표단의 기만”的 효과는 굉장히 있으나 중에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한동안 그것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여러 사건이 급하게 진행되어 이작은 게임은 옆길로 빛나가 버렸다. 다른 한편, 그들의 방문을 둘러싼 조건 아래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방문한 대표단이 진실하고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이마침내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전에 공식화되고 잘 조정된, 엄격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부과되었다. 언어도, 관습도, 사람들의 실생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정부의 안내인과 통역사들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조작된 것들이었다. 그들은 “공산주의” 정부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하고 싶은 것을 들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객관적이고 철저히 그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다 소나마 민주주의 국가의 노동자 조직과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소련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을 여기 기록해두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러시아의 투옥 및 추방 아나키스트 지원 위원회》, 몇몇 조합주의 조직, 그리고 몇몇 유명한 개별 투사들, 특히 고인이 된 독일의 에리히 뮤하스 (Erich Mühsam) 과 프랑스의 세バス티앙 포르 (Sébastien Faure) 는 거듭해서 볼셰비키 정부에 진정한 대표단 — “공산주의자” 도 포함한 각각

그뿐만이 아니다. 현실의 정부는 한 낱장 식품에 불과한 인민위원회 조차도 아니고 공산당 중앙 위원회 최고위 총회로 구성된 정치국 Politbureau이다. 실제로는 당의, 그리고 중앙 위원회의 잔학하고 교활한 간부인 “위대한” “온화한” 스탈린 (또는 그를 대신할 누군가) 이 진짜 최고 권력자다. 즉 독재자, 보이드 Vojd (두체 Duce 또는 뷔리 Führer) 다. 이사내 야말로 루이 14 세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L'Etat (the U.S.S.R.) c'est moi!” (“집이 곤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레오파고스 Areopagus”<sup>1</sup> (정치국), 인민위원회, 전 총당원, 당원 “후보자” (지원자), 특권층, 공무원, “첩보부 apparatus”, 군대, 경찰이 한결같이 받들고 있는 것은 스탈린 (또는 그의 후계자) 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모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오직 그 덕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모두 정권을 안전하게 유지해나 가는데 대한 그의 힘과 기술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데, 이 정권은 기만당하고 강제로 복종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중의 무형의 불만과 분노 — 당장은 무력하지만 —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지를 소비에트에 강요하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인 그가, 정치국이, 당 중앙 위원회가, 인민위원회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혹자는 스탈린과 그 모든 기관이 인민의 의지에 따라 통치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부, 지도 기관, 소비에트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비밀리에 선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구와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비밀” 투표가 단순히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모든 곳이 동일하다).

만약 애초부터 소비에트의 선거가 비교적 비밀이었더라면<sup>2</sup> — 대중은 소비에트 편이었을 것이고, 정부는 득표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도 당장 불가능했을 것이다 — 이상 대적인 자유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해에 걸쳐 “소비에트” 연방의 선거는 자유도 비밀도 아니었고, 이는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외국의 무지한 “추종자”들은 그 사실을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부정해오고 있다. 사실, 외관만의

<sup>1</sup> ‘아레스 (Ares)’의 언덕’이란뜻. 아덴의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높이 115m의 석회암 언덕. 그리스의 개혁자 솔론이 세운 대법원이 있었다. ‘아레스의 언덕’이란 그리스의 전쟁 신 아레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 (Poseidon)의 아들 하리로 티오스를 살해하여 처음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고사에 근거하여 명명되었다. 재판이 진행된 언덕 정상에는 두 개의 둘단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악행의 둘’, 다른 하나는 ‘비정의 둘’이라고 붙여 진원과 와피고석이 있었다.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아덴에서 가장 역사 깊고 또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회의로서 초기에는 소송을 다루는 ‘법원’ 역할을 했었다. -역자주

<sup>2</sup> “받아쓰기”, 감시, 위협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또한 인민 위원회나 정치국, 기타 최고 기관의 구성원은 결코 선출되지 않았으나 “온화한 보이드 Vojd”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었고, 중앙 위원회의 유순한 도구인 소비에트 총회에 의해 검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있으며 언젠가 자신이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기 행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소비에트에 관한 이 문제를 명확히 하자.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첫째,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 창설은 다양한 공장의 정보, 조정, 일상 활동을 조직화할 긴급한 필요성에서, 다른 노동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만약 러시아에 노동 조합이나 1905년 조합주의 운동 같은 것 이 있었다면 소비에트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우발적이며 그 저대의 제에 불과한, 이처럼 모호한 조직체에 의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둘째, 본질적으로 소비에트는 계급투쟁이나 혁명적 행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 혁명의, 혹은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려 할 때의 생생하고 활발한 세포에 불과하다. 그것은 구조 자체가 약하고 소극적인, 다소 관료적이기도 한, 좋게 말하자면 행정적인 성격을 띤 무언인이다. 소비에트는 어떤 작은 지방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노동자 자치 평의회다. 그런데 — 이 점이 중요한데 — 그 구조, 특히 그 권위 때문에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와 같이 정당이나 정부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에트는 “정치병”에 걸렸고, 그 결과로 혁명에 대해 모종의 위험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에서의 노동 운동이 발견해낸 특정 조건의 산물인 “소비에트”라는 이유로 한 제도는 조합주의 자기 관이나 조합주의 운동, 조합주의 투쟁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효용도 없다. 노동자가 오랫동안 전투와 사회 재건의 계급 조직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서도 그려하고, 노동 대중이 국가나 정당이나 어떠한 정부와도 상관 없이 결정적 직접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에 러시아는 소비에트 (외국에 퍼져 있는 신화에 의하면 “노동 계급의 자유의 발산”) 의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는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오늘날 — 즉 이전 “소비에트”의 서면 규약에 따르면 소련의 최고 권력은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범러시아 소비에트 총회 Pan-Russian Congress of Soviets》에 속하며 원칙 상 정부를 임명하거나 해산하거나 교체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에트는 입법권을 가지며, 그 “집행위원회”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라의 입법권과 행정권과 모든 권력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쥐고 있는 것은 정부 자체 — 인민 위원회, 즉 공산당의 직접적 의사 표시 — 다.

주인은 정부이지 소비에트는 아니다.

정부는 원하기만 하면 반대하거나 불복종하는 경우 소비에트 총회든 개별 소비에트든 소비에트 구성원이든 소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지휘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향의 투사들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적인 대표단이 러시아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안에 따라 대표단의 후원자는 “소비에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출했다. 1. 대표단 스스로 가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체류할 수 있을 것. 2. 대표단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불가결하다고 여기는 가능성 있는 곳은 감옥, 유형지 등을 포함해 갈 수 있는 자유 및 편의. 3. 대표단이 사실, 인상, 결론을 외국의 전위 언론에 공표할 권리. 4. 대표단이 스스로 선택한 통역.

분명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볼셰비키 정부에게 완전히 이익이 될 것이었다 — 만약 정부가 성실하고, 아무 것도 숨길 것이 없고, 용인할 수 없는 진실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면 말이다. 그와 같은 대표단에 의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상에 대한 호의적인 보고서는 모든 모호함을 종식했을 것이다. 어떠한 진정한 사회주의 정부나 어떠한 “노동자 농민의 정부”(그런 것 이 존재할 수도 있는 순간을 가정하고)라도 두 팔을 벌려 대표단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한 대표단을 고대하고, 오히려 제안과 같은 것들을 역으로 정부에서 먼저 제안할 법도 한 일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찰한 대표단의 증언이나 승인은 결정적이고 거부할 수 없으며 반박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에트” 정부는 매번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독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칠해봐야 한다. 이러한 대표단을 반대하는 것 또한 거부할 수 없고 결정적인 일인 기 때문이다. 제안된 조사의 결과는 “소비에트” 정부의 훌륭한 이름에, 그 체제 전체에, 모든 명분에 대해 재앙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다. 혁명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그들이 취한 방법의 결과, 혁명이 패배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인정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무시할 수 있었다. 전 세계의 맹인과 매수된 이들이 무덤을 파는 이들과 함께 행진해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들을 — 거의 모든 비非遗아나 키스트 독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 폭로하는데에 긴급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광채와 함께 나타날 것일 뿐만 아니라 — 특히 — 정보를 얻고자 하고 끊임 없이 사악한 사기꾼들에게 계속 아넘어가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하여 그 사람들이 진실에 의해 힘을 받아 올바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소비에트 연방 내 억압에 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그 저암시적이고 시사적 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근본, 은폐된 “이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본질을 알리는 뛰어난 수단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단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 — 그것은 이 이야기를 불완전한 방법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볼셰비키와 그 추종자들이 모두를 속이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또한 가지 최근의 예시를 더 들어보자.

이것은 악명 높은 볼셰비키인 예밀리 얀야로슬랍스키 (Yemelyan Mikhailovich Yaroslavsky) 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스페인 등지에서 자유의 지주의 사상의 궁극적인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 1937년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출판된 『러시아의 아나키즘 역사 History of Anarchism in Russia』라는 책이다.

우리는 아나키즘의 기원, 바쿠닌,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아나키즘, 1914년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태도와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제쳐두기로 하겠다. 이러한 신화들에 대한 답변은 아마 언젠가 아나키스트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 적힌 1917년 혁명 과정에 있어서 자유의 지주의 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야로슬랍스키는 진정한 아나키즘 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그는 아나키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변의 운동에 관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다. 그는 이 차적 중요성 밖에 가지지 않는 아나키스트 그룹과 언론 및 활동에 깊이 관심을 보인다. 그는 주의 깊게 약점과 지적하고 악의적으로 그의 불신에 기름을붓듯이 결점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지주의 단체들이 괴멸한 뒤 활동 다운 무언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필사적이고 헛된 “잔해”, 그 운동들의 불행한 “연명”을 특히 길게 다루고 있다.

이 잔해들은 소멸된 전前 아나키즘 운동의 한 탄스럽고 무능한 사족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요하거나 적극적인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감시되고 방해받는 그들의 반쯤은 밀한 “활동”은 러시아 자유의 지주의 운동의 특징을 전혀 지니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대에 국가의 힘에 의해 파괴된 뒤 겨우 살아남은 조직의 파편들은 그 뒤 그들이 완전히 피폐해질 때 까지 의미 없고 무력한 존재를 계속한 것이다. 일탈, 비논리, 분열 등이 필연적으로 그들의 껍데기 만남은 삶 전체를 차지했는데, 물론 건강한 활동의 모든 가능성이 빼앗겨 있었기에 그것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야로슬랍스키는 이 파편들이 진정한 아나키즘 운동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는 페트로그라드의 『아나키즘 적조합주의 자연맹』과 그 기관지인 「골로스트루다」를 단 한번, 심지어 사실을 위조할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의도로 언급한다. 그는 『모스크바 아나키스트 그룹 연맹』 도그기판지 「아나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밧」에 대해 몇 줄 적는데, 그것 역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만일 이 저자가 정직했다면, 그는 주로 이 세 조직을 거론하고 그 기관지들을 인용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공정성이 그의 주장에 망칠 것이며, 따라서 이 책의 전체 목적이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1917년 혁명 당시 러시아의 아나키스트와 아나키즘 적조합주

## 제 5 부. 정치구조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소련의 정치구조에 접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그 것은 고급 국가 관료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프랑스가 관례에 따라 지사 知事에 의해 다스려지듯이) 그들의 지휘 아래 있는 무수한 부하들로 조직된 군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이진술이 지지 받기 위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언급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먼저 두 가지 전혀 다른 요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외관, 장식, 무대 설정 (영광스러운 10월 혁명의 유일한 유산) 을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현실이다.

외관상 소련은 소비에트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소비에트다!”라고 “소비에트”에 대해 무언가를 믿어야만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진짜 역사와 그들의 진짜 역할에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프랑스 공산당원은 부르짖었다).

이보다 더 틀린 것은 없다. 이 신화를 지금도 성실하게 믿고 있는 외국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충성스럽게 “속여 넘기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인 사실을 확립하도록 하자.

오랫동안 소비에트 (노동자 평의회) 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련에서 아무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의 역할은 완전히 부차적인 것이며 심지어 보잘것 없다.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지방의 일을 담당하며 중앙당국, 즉 정부 및 “공산당”지도부의 지령에 완전히 종속된, 순전히 행정적인 집행 기관이다…… 소비에트는 권력의 편린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에트에 관한 커다란 오해가 러시아 밖에서 퍼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많은 노동자에게 소비에트라는 말은 신비적인 어떤 것을 느끼게 한다. 성실하고 소박한 인민 대중은 — 속담에서 말하는 “마약 중독자”처럼 — 부대 浮袋와 등불을 분간하지 못하고 신종 사기꾼들의 이른바 “사회주의”와 “혁명” 장식을 믿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폭력이나 다른 통제 방법에 의해 (마치 히틀러의 독일이나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처럼) 대중은 그 사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 받는다. 그러나 외국의 수백만 노동자는 그 저기만 당하고

다. 상사의연설이나장광설, 정기적인훈장의배분, 대회에서의대표의 선언과성명, “소비에트”신문에게재되거나반영되는지역뉴스와일상의 “사소한말썽”— 이러한모든자료가읽기에따라, 해석하기에따라시국과 의접촉을얻을수있게한다.

유리에프스키에따르면소련의약 1,000 만명의공무원가운데 2 백만 명, 즉 20 퍼센트가특권층이라고한다. 나머지는다소괴로운생활을계속하고, “입신”과“출세”의희망만이이를버틸수있게해주고있다.

모든정보를갈무리하면다음과같은표를얻을수있는데, 수치는대략적인것이다.

#### 단위만

특권노동자 150

특권공무원 200

부유농민 400

기타특권계층, 볼셰비키당원 (업무와는관계없음), 전문가, 군인, 경찰등

250

모든노동자 1,800

모든공무원 1,000

모든농민 14,000

#### 합계

특권계층 1,000

16,000

이 1 천만명이“소비에트”연방의새로운특권계급과스탈린정권의현 실적지주가되고있다.

나머지인구 —1 억 6 천만명 — 는복종당하고착취당하고빈곤한무명無名의군중일뿐이다.

의운동의중대한기초와적극적인의미, 그리고영향력을명백하게증명하는모든것을생략했다.

야로슬랍스키는그운동에대한박해, 억압, 폭력적인탄압에대해서는 한마디도하지않는다. 만약그가그맹습에대한진실을이야기한다면그것은그의거짓이론을망칠것이기때문이다. 그에따르면 1917 년아나키스트는“사회주의와프롤레타리아혁명에반대했다.”그의주장은자유의지주의운동은인기가없었고무기력했기때문에자멸했다는것이다.

독자들은이서술이진실과정반대라는것을알고있다. 볼셰비키가상투적인폭력을사용해군대와경찰의야만적인개입으로그것을뿌리뽑으려고서두른것은바로그운동이러시아에서빠르게진화하고성장해지지를얻고영향력을넓혔기때문이다.

그러니만약야로슬랍스키가진실을인정했더라면그는자기책의구성 전체를뒤집어엎었어야할것이다. 그래서그는독자의무지를기회로삼아 자신감을가지고거짓말을늘어놓는것이다.

내가이와같은예시를장황하게이야기하는것은이것이“소비에트”프로파간다의전형이기때문이다. 러시아아나키즘에관해이야기하는볼셰비키저자들은모두약속이나한듯똑같은방식으로똑같은소리를낸다. 명령이상부에서내려진다. 볼셰비키“역사가”와“작가”는그것에따르기만 하면그만이다. 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자유의지주의사상을파괴해야만 한다. 그것은명령에따라행해지며, 충분한보수가약속된일이다. 그것은 우리가지금드러내고자하는역사적진실과는아무관련이없다.

## 제 10 부. 볼셰비키식“정의”

이 시기 볼셰비키 정부의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잠시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 절차들은 본질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러한 처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것은 그 피해자들이 이미 모두 절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꽤 최근까지도 동일한 원칙과 수단이 “트로츠키주의자”나 반反感 틀린 주의인 고참 볼셰비키<sup>1</sup>나 명예가 더럽혀진 공무원, 경찰 관등에도 취해지고 있다.

우리가 말했듯이, 러시아에는 공식적인 체포 영장 없이 사람들을 비밀리에 체포할 권리가 있고, 증인이나 변호사 없이 비밀리에 그들을 재판할 권리가 있고, 사형을 포함한 각종 처벌을 비밀리에 유죄 판결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그들의 구금이나 추방을 연장할 권리가 있는 비밀 정치 경찰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수인·囚人이나 유형인에게 적용된 가증스러운 요법은 — 우리는 속아 넘어갔거나 매수된 외국 “대표단”들의 모든 부정에 불구하고 이 진술을 주장할 것이다 — 상황의 악화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감옥 생활이 설령 교도관이나 조수들에 의해 약간의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직한 노동자가 가정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로 연행되어 투옥되고 어떠한 기관의 간단한 결정에만 따른 구속의 이유에 대항해 싸울 권리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시기에 그 전능한 경찰력은 체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온전한 러시아식 명칭인 치례즈비차이나야코미시야 Chrezvychainaya Kommissia, 즉 특수 위원회의 약칭이었다.

<sup>1</sup> 올드 볼셰비키 Old Bolshevik 혹은 스타리 볼셰비키 stary bolshevik 라고도 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전부터 볼셰비키 정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공식적 명칭이다. 이들 고참 볼셰비키들 중 대다수는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 대숙청 때 수상스러운 정황 하에 NKVD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으며, 1922년의 고참 볼셰비키는 44,148명이었다. 러시아 공산당 제 13 차 대회 당시 발간된 통계에 따르면 1924년 당시 공산당원 60만여 명 중 1905년 이전에 입당한 이는 0.6%였고 1906년에서 1916년 사이에 입당한 이는 2%, 1917년에 입당한 이는 9% 이하였다. 최초로 사망한 거물급 고참 볼셰비키는 야코프스 베르들로프 (-1919년)이고, 최후의 생존자는 라자리카 가노비치 (~1991년)였다. -역자 주

관심의 대상이다.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훌륭한 보수와 승진이 보장된다. 순종하고 근면한 공무원은 모두 좋은 급여를 받고, 귀여움을 받고, 축복받고, 훈장을 받는다.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이는 관청에서 당장 승진해 국가요직에 앉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훈장에는 이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도구, 상관 손아귀의 꼭두각시다. 아주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태만으로도 도그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은 상사에 대해서만 책임을지고 있는 그들은 어떤 형식의 재판도 없이 상사의 판단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벌받는다. 그것은 완전한 빙곤을, 종종 감옥을, 때로는 죽음을 의미한다. 상사의 개인적인 변덕이나 전제는 아무런 비난도 없이 지배한다.

그 상황에서 가장 끔찍한 국면은, 처벌된 공무원의 “과오” 또는 실패가 상사의 잘못된 명령이나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데도 종종 희생양이 된다는 데 있다. “스탈린은 항상 옳다” — 마치 독일의 히틀러처럼. 실패가 있으면 재빨리 죄를 뒤집어쓸 사람을 찾아낸다. 이러한 일은 종종 일어나며, “소비에트” 관료제의 전통에 깊이 뿐리 박고 있다. 죄인은 생존 경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적개심, 질투, 음모 — 이들 요소는 무제한의 출세 주의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며, 생활의 모든 순간에 그 공무원을 노리고 있다.

반면, 고위 공무원의 사생활 면의 잘못된 행위는, 때로는 방탕도 일종의 필요 한 위로라며 정부의 묵인을 받는다. G.P.U. 도눈을 감는데, 그간부가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겐리흐 야고다는 변태적인 방탕자였다. 그리고 모스크바에는 지금도 주지 육림이 있다.

“출세하는 것” —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체포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강한 자극제다.

1 억 5천만 명의 산업 노동자, 농민, 하급 종업원의 거대한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떠올라, 풋내기 공무원이라도 열의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첨하고, 어떻게 “무릎을 끓어야 하는지” 알면 “우아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날 소련의 모든 젊은 이를 교육 과학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이희망이다. 젊은 이들은 스타리 노프주의자처럼 “출세하기 위해” 갈망하고 염원한다 — 그는 빙곤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높은 지위, 자동차, 가죽 서류 가방, 훌륭한 부츠 한켤레, 높은 급여, 훈장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길에서는 옆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그는 아첨하는 방법도, 경의를 표하는 방법도, 몸을 낮춰 비굴하게 구는 법도 완전히 터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크렘린이 지배하는 광대한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몸소 당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생활과 사고 방식, 일 반적인 관습을 알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언론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

## 제 4 부. 공무원들의상황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소련의 제 3 계급은 관료, 즉 **공무원**이다.

노동자의 주도권 및 자유와 함께 노동자의 각종 직접적인 관계가 억제된 때부터 국가 기구의 필요한 기능은 중앙의 지령에 기초한 중개 기관에 의해 확실하게 되어야만 했다. 이들 중개자에게 주어지는 이름 — 공무원 **functionary** — 은 기능 **function** 을 다한다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유주의 liberal” 국가에서 공무원은 국가와 관련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전부인 국가에서는 모든 일을 하기를 요구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조직, 조정, 감독을 의미하는데, 요컨대 경제 등이나라의 모든 생활을 처리하는 책임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처럼 광대한 나라에서는 국가라는 고용주의 “민병대”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소련의 관료 계급**은 수백만 명을 헤아린다. 앞서 인용한 E. 유리에프스키에 의하면 그 총원은 900 만 명을 넘는다. 그 광대한 영토에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 단체도, 다른 서비스나 조직도, 어떠한 종류의 민간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급 종업원을 제외하고, 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은 가장 특권적인 사회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군상위 계급만이 그들에 필적 할 수 있었다. 그들이 고용주 (국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헤아릴 수 없다. 군대, 경찰과 더불어 거대하고 정연한 “소비에트” 관료 기구는 가장 중요한 세력을 이룬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그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에봉사하고,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스탈린 정권**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지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표하는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원 간부는 명령하고, 요구하고, 규정하고, 감독하고, 처벌한다. 그리고 중급, 심지어 하급 공무원까지 명령하고 관리하는데, 각 공무원은 그에게 할당된 구역 내에서는 주인이 된다. 모든 이가 계단식으로 상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최고위 공무원들은 위대하고 상냥하며 절대적으로 옳은 독재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부에 바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할 방법을 알고 있다. 공업 및 농업 노동자와 별 차이가 없는 하급 공무원의 무리를 제외하고, 소련의 “책임 있는” 지위의 공무원은 끊임 없는

체카는 1917년 말레닌의 주도로 차리즘에 대한 투쟁의 공헌이 인정되어 러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핵심 공산당 투사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당시 공산당원들은 혁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음모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이 기관의 존재와 그 기능의 특수성을 정당화했다. 그 뒤에 구실은 의미가 없어졌다. 체카는 더 이상 그 변명을 써먹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 다시 말해 혁명으로부터 권력을 수호한다는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23년 비밀 경찰은 이름을 G.P.U.라는 약칭으로 변경했는데, 아주 일부의 임무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상총부 인사를 제외하고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이름이 외국에도 꽤 잘 알려져 있다 — 체카의 창설자임과 동시에 활동가였던 제르진스키 (Felix Edmundovich Dzerzhinsky) 는 급사했다. 혹은 무언가의 이유로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근무 중 처형되었다. 야고다 (Genrikh Grigoryevich Yagoda) 는 유명한 “재판” 결과 처형되었고, 그의 후계자 예조프 (Nikolai Ivanovich Yezhov) 는 죄도 새도 모르게 모습이 사라졌다.

체카는 노동 대중에게도, 그들의 “대표”에게도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 활동은 늘 극비리에 행해졌다. 청보원의 방대한 스파이망 網에 의해 정보가 체카에 제공되었는데, 그 청보원의 상당수는 전前 차리스트 경찰로부터 채용되었다. 그리고 체카는 또한 모든 공산당원에게 정보 제공이나 고발 등을의무로 부과해 “혁명적인” 경찰을 돋도록 했다.

지하 감옥에서 자행된 압제, 학대, 범죄는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을 열거하는데 시간을 들일 수 없다. 이 특정 주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책 한 권 분량이 될 것이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기록 보관소가 공개되어 그끔찍한 인간성의 기록이 발표되면 모골이 송연해질 것이다. 독자들은 입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책으로 교훈이 될 만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기간 동안 정치 사건에 대한 법정이나 공개 재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날 조차 그와 같은 재판은 예외적이다. 그리고 체카는 당시 그것들을 전담해서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체포된 이들에게 항소권은 없었다. 처음에는 선고도 공표되지 않았다. 그 뒤가 끔경찰 앞에서 행해지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재판의 판결에 한 해 몇 줄 신문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참조들도 소송 사건 표에 사건이 기록되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적어 두었을 뿐이었다. 재판의 이유는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

체카 자신이 처형을 직접 집행했다. 판결이 사형으로 결정되면 수인은 감옥에서 끌어내져서,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 마지막 단을 내려가는 순간 뒤 따라온 체카 친형인 리볼버로 후두부가 쏘아져 처형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체는 비밀리에 묻혔다. 시체는 수인의 가족들에게 돌려 보내지지 않았다.

다. 가족들은 종종 가족이 처형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었다 — 교도소 관리가 그들이 반입하려고 가져온 것을 거부함으로써. 전통적인 어휘는 매우 간단 명료했다. “그는 더 이상 교도소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은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었거나 추방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죽었을 때 역시 공식 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른 설명은 허락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

추방은 언제나 행정적인 것으로 광대한 국토의 가장 먼 불모의 땅, 즉 무덥고 습기가 많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중앙 아시아 Turkistan 나, 끔찍한 나림 Narym이나 투루한스크 Turukhansk 지방의 최북단에의 유형을 의미했다. 종종 정부는 추방자들을 맨 처음에는 중앙 아시아로 보냈다가 갑자기 먼 북쪽으로 옮기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이송시키며 “즐거워했다.” 그것은 그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간접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지원 위원회』 와 북단으로 추방된 자유의지 주의자들 사이의 서신은 이희생자들의 “삶”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공포를 드러냈다. 목적지에도착한 때부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그러한 목적지는 대개 사냥이나 낚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잊힌 마을이었다. 우편물은 일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다. 이들 수백 명의 주민은 얼음과 눈의 황무지에 있는 네댓 개의 오두막에 박혀 살았다.

그 추방자들은 영양실조, 혹한, 운동 부족으로 말미암은 온갖 질병 — 괴혈병, 결핵, 심장병, 위장병 등을 앓았다. 삶은 느린 고문이었고, 죽음이 구원으로 다가왔다.

자유의지 주의자, 조합주의자, “반대파”, 모반했거나 혹은 단지 그 혐의를 받았을 뿐인 노동자나 농민 및 기타 시민이 갇혀 있던 감옥들은 외국의 대표단의 방문을 받지 못했다. 그러한 방문 단체들은 보통 소콜 니키 Sokolniki, 레포르토보 Lefortovo, 부티르키 Butyrki 의 특정 부서의 인도를 받았다 — 즉 반혁명자나 투기꾼, 일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모스크바 교도소로 안내되었다. 때로 이들 수인은 스스로를 “정치범”이라 자칭하는 것으로 감형을 약속해 준 교도소 기관을 찬양하도록 설득되기도 했다.

일부 대표단은 코카서스 Caucasus 의 티플리스 Tiflis 에 있는 사회 민주주의자를 위한 감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그러나 기타 일정한 감옥들은 결코 외국 대표단이나 개별 여행자의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다 — 특히 솔롭키 Solovki 수용소는 외신에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여전히 미지인 채였다. 그밖에 수즈달 Suzdal 감옥 (원래는 수도원이었으나 변형되었다), 베르흐네우랄스크 Verkhneuralsk, 토볼스크 Tobolsk, 야로슬라블 Yaroslavl 의 “정치범 격리소”가 있었다. 이밖에도 술한 감옥과 수용소가 전국에 산재했다. 그 어느 것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에의 “연구” 여행에서 돌아와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무소 제도”에 대해 호

해, 콜호스 내부에 굉장히 제한된 작은 토지, 가축 몇 마리, 몇 가지 도구 등 일정량의 사유 재산을 허가했다. 그리고 콜호스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조금씩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 조치의 필연적 결과를 느끼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농민과 국가 사이의 투쟁이 곧이 “사적 구역” (러시아 사람들은 “젖소 주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을 둘러싸고 결정화되었다.

그 이후로 농민은 그들의 “재산”, 권리, 그리고 개인적 노동을 증대시키고자 콜호스를 해칠 만큼 고집스럽게 노력을 계속해왔다. 당연히 국가는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적 구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산량은 콜호스의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어 국가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투쟁과 이러한 머뭇거림이 결합되어 “소비에트” 연방 농업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나라가 농업 개혁에 있어 새로운 다섯 번째 시기의 전야인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도 우리 가방금 그린 일반적 상황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만 한다.

소련의 거의 모든 농민이 오늘날 농노 상태에 있다. 이 농업 조직은 차르 알렉산드르 1 세 시대의 아락체예프 (Count Alexey Andreyevich Arakcheyev) 의 유명한 “둔전 병제도”를 상기시킨다. 사실 “소비에트” 농업은 “조직화” 되고, “관료화” 되고, “군사화” 되어 있다.

그 목표에도 달하기 위해 스탈린은 농민에 대해끔찍한 폭력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지방은 공포된 개혁 법을 암전히 인정하지 않고 반항했다. 스탈린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수백만의 농민이 아주 약간 저항한 것만으로 투옥되거나 추방되거나 총살되었다. “특별한” 분대 — 일종의 헌병대 — 가주로그 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원정”에서 다수의 저항하거나 반항한 마을들은 대포나 기관총으로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그리고 그격변과 병행하여 수차례에 걸친 기근이 전국을 황폐화 시켰고, 수백만의 희생자를 냈다.

마침내 “힘은 곤정의였다.” 우리 의 고백에 놀라거나 회의적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파시즘이나 히틀러주의 같은 다른 예시로부터 모든 현대적인 방법으로 무장한 권위주의 정권이 어느 정도로 대중을 예속시키며 경찰과 군대가 증속해 있는 한어떠한 저항이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볼셰비키 정부에게는 정권을 수호하고, 끊임 없는 기아나 기타 치유하기 어려운 재해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고, “농업을 진보시키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보장하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동의한다 — 그 목표를 제외하고.

확실히 국가주의 적정부정책에는 이것들 외의 다른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그 교리가 잘못되었고, 만들어진 상황이 용납될 수 없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러한 수단으로 사회주의는 결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적 자본주의보다도 가증스러운 국가자본주의에의 전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체제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기를 종종 바라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저 지배와 착취의 다른 형태다. 이 체제는 지배와 착취에 기반을 둔 다른 체제가 지금까지 공격을 받아왔듯, 역시 공격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농업의 진보”에 관해서는, 이 분야의 진정한 진보적 집산화는 — 모든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 국가주의적·정치적 독재 세력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지니지 않는 세력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농업 문제는 소련에서 심각하게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농민 대중은 국가라는 고용주에 대해 맹목적인, 그러나 효과적인 투쟁을 계속해 콜호스 작업을 사보타주했다. 농업 생산량은 파국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콜호스 노동자들을 자극해 어떻게든 체제에 순종시키기 위

의적인 보고를 하도록 이끌어진 소박한 사람들, 혹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로맹 롤랑 (Romain Rolland) 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있어 행정적 정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제한적인 탄압, 인민에 대한 폭력, 테러 — 이러한 것들이 볼셰비키 작품으로, 그들의 “소비에트” 체제의 왕관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혁명의 이익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 정당화의 시도 만큼 거짓이며 위선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나키스트는 단지 그들이 사회 혁명의 원칙 그 자체를 옹호했기 때문에, 인민의 진정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자유를 위해 투쟁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박멸당했고,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 혁명가들과 수십만 노동자는 세계 모든 곳의 권리와 특권 계급과 마찬가지로 혁명 정신을 전혀 지니지 않고, 그 대신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권위에 의해, 새로운 특권 계급에 의해 러시아에서 절멸되었다. 그들의 제도는 다른 권위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인 제도와 같이 계략과 폭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배자, 착취자, 억압자가 된다.

“공산주의” 국가주의 체제는 파시스트 체제의 변형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이해하고 숙고하여, 이끔찍하고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유익한 교훈을 배우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건들은 그 성과에 강하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사건들은 그들에게 한층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1939년 12월, 볼셰비키는 마침내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우리”를 벗어나려고 있다. 곧 그것이 가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최후의 심판의 성질에 조금도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

이 사건들이 현재의 작업과 그 계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똑같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한 나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여러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이러한 계시들에 비추어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두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스탈린은 “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스탈린과 “스탈린주의”는 단순히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개혁의 논리적 귀결이자 끔찍한 오류의 결과이며 혁명의 사악한 일탈의 결과 그 자체에다름 아니다.

레닌과 트로츠키 — 즉 그들의 체제 — 가스탈린을 위해 기반을 다지고 스탈린을 탄생시킨 것이다.

레닌과 트로츠키 및 그 일파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날 스탈린에 대항해 격앙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이 말해야만 한다. “그들은 스스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 있는 것이다!”

논리가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목적을 바로 잡도록 해야겠다.

15년전에 그 사실에 닿은 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은 어떠한 글을 썼다 — 훌륭하고 힘차고 올바른 문장을.

한결 같은 권위주의의 괴물성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여기 있다. 거대하고 숭고한 이상의 이름 아래, 또는 사회과학의 가장 논리적인 공식의 이름 아래, 독재에의 길을 맹목적으로 대담하게 전진하는 이들이 공포에 떨고 후퇴하기를 빈다. 러시아 아나키스트가 빠져 들어가 학살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서뿐만 아니라, 혁명 시기에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이론에 생산과 분배의 현실적이론을 대치시킬 수 있도록 혁명적 정세로 발전하는 전야에 모든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빈다.

나중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이것을 쓴 이의 아나키즘에 대한 신념은 무너졌다. 열광의 순간에 그는 볼세비즘에 찬동했다.

다행히 일반적으로 약하고 비논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굴복하고 변형되고 전향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들이 선포했던 진실은 남아 있다.

화, 즉 “집산화 collectivization”라 불리는 국유화를 실시하고 농민 문제 개혁의 네 번째 시기를 드러냈다.

무력에 의해, 곧전 대미문의 형태와 면적으로 테러를 사용해 국가는 그 토지가 중간 규모 혹은 소규모 일지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는 일에 착수했다. 이리하여 국가는 토지의 효과적 및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이 실시 이전의 소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1. 솔호스 sovkhоз 는 러시아어로 “소비에트의 소유물”이라는 단어의 약어인데, 국가에 의해 직접 개발되었다.

2. 콜호스 kolkhoz 는 “집단적 소유물”이라는 뜻인데 국가의 통제와 지시 아래 농민들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3. 일종의 국가의 농민인 개별 경작자들은 콜호스와 같이 그들의 생산 물 일부가 국가의 것이었다.

이 차이는 “집산화”와 함께 소멸했다. 이 때부터 모든 농업이 국가 직영이 되었으며, 국가는 토지의 효과적인 지주가 되었다. 각각의 “농업 작업장”은 콜호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모든 농민은 콜호스에 들어가도록 강요 받았다. 그들의 토지와 다른 소유물은 몰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부유한 농민 뿐 아니라 자신의 농사에 필요한 것 밖에 가지지 않았으며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몇 백 만이나 되는 빈농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어야만 한다.

그 이후로 소련의 모든 농민은 산업 노동자가 공장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콜호스에 강제로 속박되었다. 국가는 그들을 국가의 농민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농노로 바꾸어 그들에게 그들의 새 주인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모든 진짜 주인들이 그렇듯이 노예의 노동에 의한 수확물 중에서 노예가 목숨을 유지하는데 불가 결한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는다.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 임의 대로 처분된다. 또 모든 진짜 주인이 그러하듯 정부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민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결정한다. 확실히 이 잉여 생산물은 자본가를 풍족하게 하지는 않지만 소비에트 연방에는 그것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별개의 계층이 있다.

이론적으로 국가는 콜호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다. 국가가 농민에게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이런 식이다. 하지만 유일한 주인 자구매자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에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지불한다. 그 보수는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농민 대중 착취의 새로운 모습에 불과하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언론이 국가는 1936년 콜호스에서 구입한 생산물의 재판매로 거의 2,500 만 루블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한 것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다시 1937년에 콜호스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의 산물의 실제 가치 중 50 페센트 밖에 얻지 못했다. 나머지는 세금, 관리비, 각종 수입, 기타로 보류되었다.

여주었다 (이러한때, 1921년 3월 크론슈타트에서 커다란 봉기가 일어났다). 상황은 심각해졌다.

국가, 즉 지원과 강제의 총력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국토에 그 의지를 강제하기에는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기에 레닌은 후퇴했다. 트로츠키가 크론슈타트에서 “승리”한 직후, 레닌은 그 유명한 NEP, 즉 “신경제정책”을 공표했다.

NEP는 농업 문제의 개혁에 있어 세번째 시기를 나타낸다. “신新”이라 고했으나 그것은 이전 시기의 잔인한 엄격성과 군사적 수단에 관해서만 그려졌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완화책에 불과했다. 압력은 농민의 배를 만족시키고 회유 할 정도로 조금 누그러졌다. “신정책”은 그들에게 생산물을 처분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다. 특히 공개시장에서 그 일부를 자유롭게 팔아도 좋다는 것이었다. 바리케이드들은 제거되었다. 소상인들은 일부 “자유”의 혜택을 받았다. 사적 소유권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NEP는 아무 기본적인 것도 변경하지 않았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호하고 미심쩍은 반쪽짜리 조치였다. 확실히, 그것은 분위기를 조금 밝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유부단함과 무질서의 측면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경제 분야와 일반 적 국가의 생활에 중대한 혼란과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군다나 NEP가 초래한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황은 정부의 안전에 결정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양보한 볼셰비키 정부는 어떤 약점을 인정했다. 이렇듯 암암리에 약점을 자인한 것은 부르주아 단체들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 활동과 정신이 빠르게 선동적으로, 심지어 정부에 위험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과 요소들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1917년以來 대중의 볼셰비키에 대한 공감이 매우 약화되었기에 그려 한 경향은 더욱 명백했다.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농민 계급의 어떤 일부에는 부르주아적 욕망의 재생각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볼셰비키 당원들과 새 국가가 운데이 미 편성되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특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NEP라는 일시정지”를 끝내고 국가라는 고용주와 강철 주먹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 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모든 이유로, 1924년 사망한 레닌의 후계자이 오시프 스탈린은 두 가지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컨트롤파스”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NEP를 확대하여 사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후퇴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 — 또는 완전한 국가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역행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공세를 재개하는 것이었다.

획득한 권력과 국가의 지배적인 지위를 확신하고,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군대의 상당 부분 및 그 “장치”의 강압적 세력의 지지와 함께 특권 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저울질한 스탈린은 마침내 두 번째 해결책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1928년 말, 그는 러시아 농업의 완전한 국유

## 제 5 장. 볼셰비키 국가

# 제 1 부. 볼셰비키 국가의 본질

1921년 말까지, 공산주의 권력은 상황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느꼈다. 적어도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었다. 나라 안팎의 좌파 및 우파 인적이나 반대자는 이제 더 이상 그 것에 맞설 수 없었다.

1922년부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국가를 공고히 굳혀나갈 수 있었다.

한편으로 현재 러시아 국가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1918년에서 1921년에 설립되고 확립된 것의 논리적 발전이다. 그 뒤 변경된 것은 단순한 수정이거나 세부의 완성일 뿐이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그것들을 적어보겠다.

볼셰비키 국가는 이제 건립 20년이 된다.

그 국가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의 기초, 구조,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불리며 약칭은 소련이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또는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인 척하고 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노동자의 조국” 이자 사회주의와 혁명의 성벽이라고 우쭐대고 있다.

이 중 얼마만큼이 진실인가? 이 국가의 사실과 행동은 이러한 선언과 자부를 증명하고 있는가?

볼셰비키의 구상을 대강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가능하다.

내가 대강 살펴보면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국가에 대한 상세하고 더 많은, 혹은 완전한 연구는 그 자체로 한권의 책 분량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 작업의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전에 있었던 사항들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이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 삼은 사항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

이 점에 관해서 현재 프랑스에는 이 “소비에트” 국가의 구조, 기능, 정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나 팜플릿, 잡지, 신문 기사와 같은 풍부한 문헌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 두고자 한다.<sup>1</sup> 수년간 그 국가의 성격, 그 정부의 참모습, 그곳에서의 노동 대중의 상황, 소

정부의 손아귀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부만이 독단으로 행동하고, 모험하고, 해결 할 수 있었다.

이런 조건 아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동자의 직접적인 조언과 제안으로 농민이 자발적이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도시에 대해 필요한 것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움직여 주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 — 그 목적으로 농민에게 왔지만 — 는 그 의도를 알리지 않았다.

그 존재와 그 기능에 의해 정부는 노동자의 두 계급 간에 개입해 그들을 분리하고 있다. 정부는 양자 간에 중개자로서, 독재자로서 개입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협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 예레닌이 개입했다. 당연히 마르크스주의 독재자인 그는 실상에 대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농민의 냉담한 태도를 그릇된 정부의 원칙 적용,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가 아니라 농민의 “이기주의”, 농민의 “프티부르주아 정신”, 농민의 “도시에 대한 적개심”的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잔혹하게 행동했다. 일련의 법령과 조례를 통해 그는 농민에게 수확물 대부분을 국가에 넘기도록 요구했다. 이 법령은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지지 받았다. 이는 “무장 원정대”의 징발과 강제의 시대, 요컨대 “전시 戰時 공산주의”的 시대였다. 군사적 폭력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농민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농민에게 자행되었다.

농민들은 생산물의 판매 가금지 되었다. 철도 주변에도, 거리에도, 도시 주변에도 국가가 “투기”라 부르고 있는 그러한 판매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수천 명의 농민과 다른 “시민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러한 판매 규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살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불쌍한 사람들은 단지 일상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밀가루 한 포대를 걸쳐들고 시내로 나왔거나 또는 굶주린 친척이나 친구를 돋기 위해 나왔다 가불잡힌 농민들이었다. 진짜 대규모 투기꾼은 뇌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간단히 바리케이드를 “돌파”했다. 다시 한 번 국가주의 체제에서 현실이 “이론”을 조롱한 것이다.

이 정책은 곤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농민들은 격렬한 저항으로 폭력에 맞섰다. 그들은 곡식을 숨기고 자신들이 꼭 필요한 만큼의 비율로 작물을 줄였다. 그들은 가축을 잡고, 일을 방해했으며, 여기저기에서의 임시 징발이나 정기 징발에 맞서고, 이러한 작전들을 담당하는 “인민 위원”을 암살하는 일도 점차 빈번해졌다.

이제야 도시들은 기아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쓰라린 곤궁을 경험하고 이 실패의 진정한 이유를 차츰 이해하고 혁명을 구해내고 자한 노동자들은 몹시 불안해졌다. 그리고 군대 일부도 상당히 이 대중 운동을 지지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

<sup>1</sup> 이 글은 1939년에 쓰였다. - 영역자주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볼셰비키는 그들의 정치적 행동에 의해 이 진정한 혁명을 중단시키고 일탈을 일으켰다.

볼셰비키는 만일 그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반혁명이 통제권을 되찾고 혁명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볼셰비키는 **광대한 대중이 혁명의 편에 섰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중”은 주로 산업 노동자, 농민, 병사였다. 노동자가 공장을 탈취하고, 농민이 토지를 점령하고, 혁명가가 이들을 돋고, 병사가 혁명의 파르티잔이 되었으니 어떤 세력 — 산업도, 자금도, 원조도, 군대도 없는 — 이그 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외국의 개입? 만약 러시아 혁명이 아나키스트가 제시한 과정을 취했다라면 다른 나라들의 정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때야 말로 두 개의 테제는 공공연하게 의논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것을 선택했고, 세계는 사반세기 동안 그 결과를 묵인해왔다.

여러 주장이 있는 가운데 밀류코프가 말하는 것은 아나키스트의 근본이론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아나키스트는 바람직한 조건이 생겨났을 때, 대중은 혁명가의 원조와 지지를 얻어 혁명 자체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이 점이 그들 견해의 본질적인 점이다) 승리 후에도 혁명은 동일한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당시 외의 것을 배제하거나 권좌에 앉거나 독재를 강요하거나 혁명을 독점하거나 하는 어떠한 정당도 없이 모든 정파의 혁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지지받은 대중의 자유로운 활동을.

따라서 처음에는 — **첫번째 시기** — 레닌도 농민을 괴롭히지 않았다. 농민이 레닌을 지지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레닌은 그의 권력과 그의 국가의 기틀을 닦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단계에서는 — 특히 외국에서 —, 농민은 러시아 혁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기에 볼셰비키는 마르크스주의의 교의에도 불구하고 노동 계급보다 오히려 농민 계급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까지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뒤 — **두번째 시기** — 국가가 견고해지고, 도시는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에 시골로 눈을 돌리게 되고, 레닌은 점차 농민 주위의 올무를 조이기 시작했다.

만일 도시와 공업 지대의 노동자가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조직을 통해 주도권과 행동의 자유를 누렸다면, 그들은 반드시 생산과 교환을 위해 농민들과 직접적이고 유익한 경제 교류를 구축해냈을 것이다. 도시와 지방의 자유로운 생산자 간에 그러한 교류가 있었다면 사회 혁명이 이 근본 문제 — 두 노동 계급 간의 관계, 국내 경제의 기본적 두 분야 간 관계의 문제 — 를 조화시켜 실용적이고 만족할 만한 해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보라! 노동자와 그 조직에는 행동의 자유도 주도권의 자유도 없었다. 그리고 농민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지니지 못했다. 모든 것은 국가,

련경제의 정확한 상태, 그 문화 및 기타 측면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많은 작품이 등장했다. 이 작품들은 볼셰비키 정권의 무대 뒤 측면과 숨겨진다면, 그들의 오류, 그들의 “비밀스러운 병증”을 밝히고 있다.

확실히, 이 문헌의 저자들은 “소비에트” 국가의 쇠퇴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해 문제의 저변에도 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 “또다른 불꽃”, 자유의 지주의 사상, 그 역할,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 그 밖의 많은 나라에 관해서는 모두 미답未踏의 영역이다. 그들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히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혁명 이후 “공산주의” 정부가 취한 그릇된 경로를 알려주고, 그 파산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풍부하고 정확한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전체상”에 국한하도록 하겠다. 이는 우리가 당면한 목적에는 충분할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 중 및 혁명 후의 사건들에 빛을 비춘다는 점에서 우리가 특히 흥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이 국가의 전반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당의 주된 관심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활동과 러시아의 모든 생활, 실제로는 국유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국유화하는데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 용어로 **전체주의 totalitarian**라고 불리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였다.

일단 적당한 강압적 군대를 가지게 되자 당과 정부는 이 임무 수행을 위해 군대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권력이 거대한 관료 기구를 만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였다. 그것은 마침내 “책임 있는” 직책의 관료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계급을 형성하고 오늘 날 약 2백만 명의 특권층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 군대, 경찰의 유능한 여주인인이 특권층은 그 우상이자 황제이며 소련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특권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사람인 스탈린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숭배하고 아첨한다.

볼셰비키는 모든 러시아의 행정, 산업 노동자 및 농민 등의 조직, 재정, 운송 수단, 지하자원, 수출입과 중요한 국내 상업, 대공업, 토지와 농업, 교육, 일반 문화, 출판과 문학, 예술, 과학, 스포츠, 오락, 그리고 심지어 사상과 적어도 그 모든 표현을 점점 손쉽게, 신속하게 국유화하고 독점하고 “전체주의화” 했다.

러시아 노동자 조직 — 소비에트, 노동 조합, 공장 위원회 및 기타 그룹들 — 의 국유화는 가장 간단하고 신속했다. 그것들의 독립은 폐지되었다. 그들은 그 저당과 정부의 사무와 행정상의 텁니바퀴가 되었다.

볼셰비키당은 교묘하게 이끌어나갔다. 노동자는 자신이 반신 불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조차 깨닫지 못했다. 국가와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것”이었으니 그들이 거기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

겨졌다. 그들은 그들의 조직이 “노동자”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동지 인민위원”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머지 않아 그 조직들에 의한 자율적인 행동이나 자유로운 행동이 금지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 몇몇 노동자 조직이 그들의 활동에 방해를 받고, 불안하게 되고, “소비에트 국가의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약간의 독립성을 다시 손에 쥐려 했을 때 정부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계략으로 그들을 반대했다. 우선 그들은 즉시 처벌을 내렸다. 다음으로 불만이 있는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제서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태연스러운 태도로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노동자가 노동자 스스로의 독재를 집행하고 모든 것이 노동자의 소유인 노동자 국가를 가지게 되었고, 이 국가와 그 기관은 여러분의 것 이오. 그렇다면 어떤 ‘독립’에 대해의 문이 생기는 거요? 그런 요구는 터무니없는 소리요. 무엇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요? 누구로부터?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국가는 그대들 자신이오!

이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성취한 혁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오. 이정세에 반대한다는 것은 혁명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요. 혁명, 노동계급, 노동자 국가, 노동자 독재, 노동자 권력의 적들로부터만 그려 한 생각이 생기는 것이니 그런 사상과 운동은 용납될 수 없소. 이들 적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대들의 짧은 국가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악한 제안에 솔깃한 무지한 사람들은 분명 반혁명적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거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항의하고 어느 정도의 독립을 고집한 사람들은 모두 무자비하게 분쇄되었다.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토지의 완전한 독점과 개별 경작자의 억압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년 전이면 혁을 초래한 것은 스탈린이었다. 주기적으로 정세는 다시 심각해지고 복잡해진다. 국가와 농민 대중 사이의 투쟁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노동과 활동에 불가결한 모든 것 — 다시 말해 넓은 의미로 자본인 모든 것 — 이러시아의 국가에 속해 있는 한, 이나라는 완벽한 국가 자본주의의 표본이다. 생활의 모든 영역 —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 — 에 걸친 논리적 귀결과 그 발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경제, 재정, 사회, 정치제도는 바로 국가 자본주의다.

이 국가의 정확한 명칭은 U.S.S.R.,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아니라 U.S.C.R., 국가 자본주의 공화국 연방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국가의 모든 부, “국가의 유산” 전체, 수백 만의 남녀가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 불가결한 모든 것들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내외의 모든 돈, 모든 금융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어야겠다.

## 제 3 부. 농민들의 상황

네 개의 연속적인 시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맨처음 불세비키 정부는 러시아의 방대한 노동 대중과 군대의 공명을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 농민에 대해 “자유방임”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농민은 — 독자들이 알고 있듯 — 토지를 손에 넣었고, 지주는 도망치거나 혹은 10 월 혁명이 전에 벌써 추방당하고 있었다. 레닌 정권은 이 상태를 승인하기만 하면 되었다.<sup>1</sup>

“스스로 의 힘으로, 병사들은 전쟁을 끝내고, 농민은 토지를 손에 넣고, 노동자는 공장을 손에 넣었다”고 러시아의 유명한 역사학자 이자작가 이자제 1 차 임시 정부의 전前 외무 장관인 파벨 밀류코프 (Pavel Nikolayevich Milyukov) 는 말했다. “레닌은 병사와 농민, 노동자의 공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었다.”<sup>2</sup>

혁명가들의 활동과 프로파간다의 영향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잘못이지만, 일부 주아지도자의 진술은 대체로 진실에 가깝다. 이 점을 참작하면 그의 증언은 특히 흥미롭다. 밀류코프는 언제나 러시아 생활의 예리한 관찰자이자 통역사였다. 그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그가 불세비키의 역할을 과소 평가 할 이유가 없었다 (이 증언은 전쟁 중의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풍부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중이 아니라 불세비키가 혁명을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한다. 밑줄을 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0 월 혁명은 2 월 혁명과 마찬가지로 온갖 분파에 속한 혁명가들의 원조와 지지에 의한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대중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 대중은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어디서나 매 순간 그것을 성취했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다. 그것이 바로 “혁명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불세비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순전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취했을 뿐이다. 필연적으로 그 행동은 진행 중인 대중 혁명

<sup>1</sup> 1917년 10월 25일의 법령. (그러나 제 15 장의 네 번째 문단에서 불린은 분명히 동일한 법령을 10월 26일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 영역자주)

<sup>2</sup> 파벨 밀류코프 (Pavel Nikolayevich Milyukov), 『러시아의 역사 History of Russia』 제 3 권, p.1274.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런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가 사회주의와 양립하는가? 혹은 적어도 이것은 사회주의의 여명인가? 그러한 조직이나 그러한 사회적 배경은 우리를 사회주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독자는 이 책의 마지막에도 달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 그밖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 스스로 해답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 제 2 부. 노동자들의 상황

사회적으로, 스탈린이 지배하는 영역의 기초적인 체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성립하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처럼, 소련의 노동자는 피고용인이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피고용인이다. 국가가 그들의 유일한 고용주다. 사적 자본주의가 만연한 국가들에서처럼 수천의 “선택지”를 가지는 대신 소련 (국가 자본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노동자는 하나의 선택지 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곳에 서고 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나라는 “노동자의 국가” 인척을 하니, 통상적인 의미의 고용주는 아니다. 상품 생산에서 나오는 이익은 자본가의 주머니에 들어 가지 않고 (스탈린 정권은 그렇게 주장한다), 돈과는 다른 형태로 노동자에게 돌아와 결국에는 노동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교묘하게 들리겠지만, 이후론은 순전히 이론상의 그것이다.<sup>1</sup> “노동자의 국가”는 노동자 스스로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노동자는 완전히다른 사회 체제에서만 스스로 생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근대의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부에 고용된 거대한 관료층의 손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부 자체가 노동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견고한 집단의 중심을 이루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추상抽象이다. 현실은 그 공식과 아무런 공통점도 지니고 있지 않다.

소련내의 모든 노동자 — 만일 그가 정말 단순히 노동자라면 — 에게 국가가 얻은 이익 중에서 임금이 외에 어떤 형태로든 그가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물어보라. 그는 당신의 말을 이해 조차 못 할 것이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늘 불충분한 약간의 임금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 그 임금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는 또한 “소비에트” 연방에는 “유쾌하게” (스탈린이 말한 것처럼), 풍요롭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sup>1</sup> 당연하지만 나는 “직접 direct”이라는 용어를 통치 governing(정치적 용어)이나 조직화 organizing 및 관리 administration(사회적 용어)의 의미로 사용한다. 정부는 설혹 그것이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소련은 그렇지 않다), 필연적으로 국가주의 정치체제로 발전하는 특권계급의 이익에 밖에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경우, 일단 공장에 새로운 생산 기록이 확립되면 스탈린주의자가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노동자들이 그를 살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충실한 하인을 돌보아 준다. 보통 그는 휴양지로 보내져 몇 달 동안 “편안하게” 머무른다 — 그 후 모스크바나 다른 대도시의 행정직으로 소환되고 거기서 멋진 저택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쾌적한” 삶을 보내며 급여를 받고, 공연한 바에 비례해 특혜를 누린다. 그는 출세했다. 그는 이제 공무원이다. 그는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영달”을 얻은 것이다.

모든 절차에 의해 — 스탈린 운동, 초스타하노프 운동, 각종 임금 별계급 분화 등을 통해 “공산주의” 정부는 노동 대중을 효과적으로 분열시키고 통제한다. 동시에 정부는 정부에 아첨하고, “군중”을 부단히 감시하고, 주인과 노예 사이의 완충지 대로 쓸모 있는 특권층을 만들어놓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들 — “공산주의자” —에 의해 노동 계급에 취해진 정책은 그들이 언제나 하던 것인데, 바로 분열과 통치다. 그리고 주인이 “군중”에게 하는 위로의 말 역시 영원하다. “노동자들이 여, 앞서 나가고 싶은가? 글쎄, 그것은 순전히 당신들 스스로에게 달렸다. 부지런하고 임무에 충실히 유능한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 즉 실패자는 스스로를 책망해야만 한다.”

소비에트 연방 정부의 통계에서 언어 진경제학자 E. 유리에프스키 (E. Yurievsky) 의 상세하고 객관적인 계산에 따르면 1938년 약 1천 8백만 명의 노동자가 운데 약 1백 5십만 명 (8퍼센트)의 전前 노동자와 특권 노동자, 즉 스탈린주의자와 초스타하노프주의자 등이 있다.

물론 정부가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출세주의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부르지 않는 이 출세주의를 장려해 묵직한 보수를 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능률 증진 경쟁은 출세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고귀한 경합”이라거나 “프롤레타리아트에의 봉사의 명예로운 열정”이라거나 그 외 비슷한 이름으로 칭송받는다. 그리고 “수상受賞 노동자”라는 계층 — 오르데노노스치 ordenonostsi라는 계급까지도 있다. 이러한 분자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이들로 정부는 일종의 새로운 “소비에트” 귀족과 크렘린 체제의 결정적이고 견고한 지지자인 새로운 국가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 등반가 전체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스탈린은 그의 연설에서 “우리의 생활은 계속해서 쾌적하고 쾌활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소련의 군중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군중인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들을 시키는 대로 얌전하게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 방법들은 “진정한 공산주의”的 토대를 마련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소련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적 자본주의 가지속되는 나라들의 노동자들보다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지를 자문해보았다. 하지만

주와 복수로 표시하고, 마침내는 지나치게 열광적인 스타하노프주의자들을 암살할 정도였다. 정부는 반항 스타하노프 운동 억압을 위해 엄중한 조치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이 기획은 곧 무의미하게 되었다. 일단 그 허구성이 간파되자 남은 것은 이제는 생산에 있어 현실적으로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노동자 낙관주의뿐이었다.

소련의 “국유화된” 노동자는 적어도 본질적으로 근대적 노예였다.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그는 꽤 좋은 대우를 받는데, “주군”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유급 휴가로 보상 받는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 것은 노동 계급의 극히 한정된 일부 일 뿐이다. 그 계급은 여러 부류로 나뉜다. 그들의 생활 조건의 차이는 모든 중간 계급을 통해 양호함에서 빈곤에 이르기 까지 서열이 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노동자에게만 주어진다. 충분한 급여를 받거나 휴가 등의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일반 대중을 떠나 뜨리고 “올라설” 필요가 있다.

#### 소비에트 연방의 압도적인 대수 노동자는 비참한 생활을 견디고 있다

— 특히 미숙련자, 일용직, 보조공, 중소기업 종업원 및 일반 평균적인 노동 대중들이 말이다. 그밖에 숙련되고 전문화된, 특권을 가진 다른 노예들은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고 있으며, 일종의 “노동 귀족”을 형성하고 있다.

노동 귀족은 매우 자주 불행한 계급의 동료들을 불신하고 반발한다. 소련 내 생존 경쟁은 격렬하다. 희생자들에게는 몹시 불리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 만일 어떤 이가 희생자를 돌본다면, 그도 곧 희생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숙련되고 특권 노동자인 참된 **스타하노프주의자** — 최초의 노동자 출세주의자인 스타하노프의 헐륭한 제자들 — 는 높은 지위에서 보다 높은 지위로 오르는데의 욕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언젠가 노예들의 대열에서 벗어나 공무원이나 어려한 종류의 장장, 어쩌면 감독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출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는 비굴하게 굴고, 네 사람 분량의 일을 하고, 작업장에서 그의 후계자가 될 젊은 이들을 훈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저기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고, 항상 당국에 동의하며 당의 후보자임을 강조하고, 여기서는 간사하게 아첨을 하고 저기서는 자신을 숨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 보다 낮은 레벨이나 비등한 레벨 의사人们과 결코 얹히지 않을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경쟁은 치열하다.

**스타하노프주의자**인 노동자들은 대개 “주도자”들인데, 그 역할은 노동 대중에게 생산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높은 급여를 받고 승진을 하는데, 특히 **스타하노프 운동**의 “에이스” 인슈퍼스타하노프주의자들 일 수록 그러하다. 그들의 역할은 일을 잘하면 “쾌적한” 삶을 “달성”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스타하노프 운동의 말이다) 는 것을 프롤레타리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을 추방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라. 그는 여전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그들의 수장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 그들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그에게 가장 큰 희생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뿐이다. 이들 수장은 정부에 의해 그에게 강제로 강요된 이들이고, 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 관해서는, 그것은 오류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 신빙성은 신화에 가깝다.

소련 노동자의 실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 사적 자본주의가 만연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다른 모든 곳처럼 스타하노프 운동에 있는 노동자도 월급 날이면 급여를 받기 위해 그들이고 용돈 곳의 급여 담당자 창구로 가야만 한다. 이 임금은 그들의 유일한 사장인 국가의 급여 담당인 직원으로부터 지급된다.

이 직원은 정부가 정한 임금 틀에 맞추어 그들의 급여 명세서를 작성한다. 고용주인 국가가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량 만큼 직원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적군赤軍을 위해, 채권 (“자유로운”, 그러나 강제적인, 소비에트의 궤변이다)을 위해, 외국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복권 (이 것도 “자유로운”, 그러나 강제적인 제도이다)을 위해. 직원은 다른 나라의 다른 사무실에 고용된 급여 담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돈을 지불한다. 당연히 소련의 노동자는 국가가 그의 임금에서 이익을 얻어서 그이익으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며, 노동자는 그 러한 문제에 상관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적 자본주의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노동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그 고용주를 떠나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직업을 바꾸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공장의 소유자인 고용주가 한 명 밖에 없는 소련에서는, 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최근의 법률에 따르면 노동자는 “그의 형기刑期를 물을” 권리도, 자기의 지로 공장을 사적 할 권리도 없다. 사적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간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간부진은 오랫동안 공장 위원회를 대체해온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노동자는 농노나 노예와 마찬가지로 작업장에 못 박혀 있다.<sup>2</sup>

러시아 노동자가 그의 의무적인 분증에 기록된 특별 허가 없이 공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될 경우, 재허가 없이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 같은 국가

<sup>2</sup> 독자들은 내가 사적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실을 말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유일한 착취자에 의해 영원히 협박받으며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다. 이 협박은 소련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 끊임 없이 매달려 있으며,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그것이 내가 말하려던 전부다.

에고용된 관리인 다른 곳의 공장장은 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엄한 처벌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국가라는 고용주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국가는 노동자를 노예처럼 다룬다. 노동자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그에게는 고용주를 선택할 권리도, 방어할 수단 (그의 노동 조합은 정부라는 고용주의 손아귀에 있고, 조합원은 “자신의 정부에 반대하여”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등의 사태를 승복하지 않았다) 도 없어서 단념하고 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매듭을 풀어나가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언론도 “노동자의 정부”의 수중에 있고, 연설도 정부에 속해 있고, 집회도 공식 명령 없이는 허가되지 않으니 노동자는 불평을 표할 수도 없고 자기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 러시아와 같은 광대한 국가에서는 “매듭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방랑하는 길이었다. 이 관행은 변함이 없었다. 수천의 전前 노동자는 “불규칙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당국과 의사이가 틀어지면 옛 전통을 되살려 길을 나섰다. 그들은 큰 실업자 무리를 이루었지만 소비에트 언론은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일반 노동자와 특수한 공장 노동에 관한 소련의 법률은 매우 엄하다. 수만의 노동자가 단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옥과 유형지에 서고 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더구나 노동도 고되다. 큰 중앙 관청을 제외하고 작업장의 위생 상태는 비참하며, 일반적인 환경도 빙약하다. 거의 모든 곳에서 분업에서 오는 중노동이 있고, 테일러 시스템<sup>3</sup>이 채용되었다.

소련 전역에서 “스타하노프 운동”<sup>4</sup>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독자는 여러 다른 저작에서 소련의 노동 조건에 대해 내가 말한 바에 대한 증거와 반박할 수 없는 증언을 발견할 것이다).<sup>5</sup>

<sup>3</sup> 작업의 동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거 시켜 표준 동작을 책정하고 그것을 조합하여 작업 시간을 산출하였으며 표준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급 제도 등으로 인한 시스템. 이 테일러 시스템은 경영 관리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역자주

<sup>4</sup> 사회주의 적경쟁의 한 형태이다. 1935년 소련의 탄광부 A.G. 스타하노프가 새 기술을 최대한으로 이용, 공정을 변혁함으로써 경쟁이 적인 생산 증가를 초래한데서 유래하였다. 스타하노프는 1935년 8월 31일 교대 시간 내로 르마 (norma, 기준량)의 14 배에 달하는 102t을 채탄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국 노동자에게 ‘그에게 배우라’는 운동이 전개되고, 높은 기록을 올린 노동자는 ‘스타하노프 노동자’라고 하여 높은 임금을 받았다. 스타하노프 운동은 노동자의 동지적 협력과 상호 원조에 의하여 창조력을 발휘시킴으로써 노동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여 두뇌 노동과 육체 노동과의 대립을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노동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노동 강화에 저항하는 일반 노동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 성향상에 대한 조건 부적 책임을 져야 할 현장 경영자의 반발을 초래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었다.-역자주

<sup>5</sup> 예를 들어 『레닌 전후의 노동자들 Workers Before and After Lenin』, 마나고든 (Manya Gordon), 뉴욕, Dutton, 1941. 을 보라.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한 진상은 러시아 영토 바깥에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용어는 노동자의 생산 강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목적으로 볼셰비키 당국에 의해 선발된 광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 (Alexey Grigoryevich Stakhanov)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것은 “소비에트” 신자본주의 간부들에게 있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정부에 의해 부추겨진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으며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테일러 시스템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였다.

어느 날 스타하노프는 자발적으로 그의 상사에게 x 배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채광 작업을 조직하는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고가정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이 발견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 요란 법석을 떨고, 모든 러시아에 새로운 운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볼셰비키당에 의해 격려되고 추켜 올려진 스타하노프는 미국을 “발견” 했을 뿐이었다. 그의 “새로운” 방법은 대서양을 건너처음으로 선보인 낡은 고안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의 환경에 맞게 개조된 조립라인 (포드 자동차 및 기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능률 촉진)이었다. 그러나 스타하노프의 막대한 일일 채광 작업량에 주어진 “무대장치”와 그것이 유발한 큰 평판으로, 그것은 마치 엄청나게 운이 좋은 대발견이 되어버렸다. 외국의 명청이들과 얼간이들은 그것을 매우 정색하고 받아들였다.

그 “발견”은 국가라는 고용주의 특별한 사업이 되었다. 국가는 노동자의 생산량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것은 정부에게 노동자 사이에 특권층을 형성하도록 촉발하고, 그 조직은 생산 증가를 위한 정부의 요구에 크게 공헌하고 — 특권층은 대개 일반 노동자들보다 유능한지도자였다 — 그렇게 하여 노동 대중을 교묘하게 조종했다. 그리고 마침내 특권층은 정부라는 고용주의 위신을 드높이게 되었다.

새로운 능률 시스템은 언론, 포스터 및 공개 집회의 연설에서의 집중적 인 홍보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스타하노프는 “노동 영웅”으로 선포되어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 받았다. 그의 시스템은 산업의 기타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어디서나 시기 심많은 “경쟁 상대”들이 그를 모방하고, 그의 성과를 넘어서기까지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특별하게 하는 것, “출세하는 것”, “영달”에의 목적이다 — 그 결과 “영웅”들의 감독 하에 노동자 전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새로운 능률 증진, 즉 착취의 증대를 강요하게 되었다. 영웅들은 다른 이들의 등을 밟고 서 있다. 그들은 이익과 특권을 획득하고 마침내 그 제도를 채용해 대중을 끌고 갔다. 그에 따라 스타하노프 주의자간의 “경쟁”은 초초 스타하노프 운동을 탄생시켰다.

얼마 후 노동 대중은 그 혁신의 참뜻을 이해했다. 이 전체적인 운동에의 한 “초초 착취”에 반대할 힘이 없어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무수한 사보타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당지도부가 성실하고, 활기차고, 유능하여 막대한 대중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 할 수록 그들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 결론은 더욱 잘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부, 정치적 행동의 도움으로 사회 혁명을 달성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 설혹 그 시도가 성실하고, 활기차고, 정세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대중의 지지를 받더라도 —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인류의 전진 과정을 혐오하는, 자본주의의 최악의 형태인 국가 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가 볼 세비키의 거대하고 단호한 실험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훈이며, 자유의지주의 이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교훈, 그리고 여러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노동하고, 고통받고, 생각하고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머지 않아 이해될 교훈이다.

볼린  
알려지지 않은 혁명 1917~1921  
제 2 권: 볼세비즘과 아나키즘  
1947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 제 7 부. 성과들

“소비에트의 성과”가 허위라는데 대한 풍부한 문서와 반박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저작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 신화를 완고하게 믿고 있다. 그러한 많은 사람은 사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그들 앞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읽으려 애쓰지도 않고서는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는 척 한다.

소박한 많은 사람은 소련의 파르티잔이 표명한 성명에 대해 완전히 자신감을 지니고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의 놀라운 “성과”가 진정하고 완전한 공산주의의 도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나라를 알고 있는 우리,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곳에 서드러난 일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우리는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볼셰비키의 “정복”과 “용기 있는 위업 偉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가치에 대한 심오하고 상세한 분석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지만, 우리 는 최소한 다섯 가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1. 성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볼셰비즘은 러시아에서 주도해 온 국가 자본주의는 순수하게 산업적, 농업적, 혹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중요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2. 이분야들은 진보하고 있는가?

3. 그것은 산업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 자극을 주는데 성공하였는가?

4. 언젠가는 그 진보덕분에 사회변혁과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인가?

5. 이 국가가 자본주의가 혁명이 전의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단계인 사회주의를 향한 과도 기적 단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옹호자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가능한 한 최대 한의 것들을 했다고 주장한다. 산업, 기술, 그리고 대중의 일반적 교육의 초보적인 상태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는 엘리트 지식인이 권력을 지니고 강제로 국민을 이끌어 나가 뒤떨어진 상황을 만회하고, 강력한 산업, 근대적 기술, 선진적 농업, 그리고 모범적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옹호자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이 임무는 시도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볼

셰비키는 이 점을 이해하고 어떤 이유나 어떤 장애물에도 멈추지 않고 결연히 그에 헌신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준비 작업을 방해하려 한 모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 역시 진정으로 정당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절박한 장래, 또한 사회주의 전반의 미래는 이를 긴급히 성취하는데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이 전장들에서 말한 것들에 의해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몇 가지 사실과 정확한 서술을 통해 개략적인 설명을 완성하고자 한다.

볼셰비키 국가의 **실제 성과와 실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역사, 언어, 관습, 그리고 특히 소비에트 신문을 읽을 줄 아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이러한 필수 조건을 제외한 채 러시아 바깥에서는 그러한 조사가 거의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방법은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신문들, 특히 「이즈베스티야 Izvestia」와 「프라브다 Pravda」를 정기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볼셰비키 정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신문들이 외국에서 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련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무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하고 강력한 프로파간다의 성과를 계산에 넣고 스탈린 정권은 예기치 않은 사실의 폭으로에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부득이하게 자국민들에게 약점을 인정하고 설명해야 할 경우에도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물론 내용이나 외양에 대해서는 통제하면서도 몇 가지 약점을 인정하는 기사를 용인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소비에트의 신문에서 약점을 인정하는 기사를 하나씩 얻어가면 독자는 필연적으로 분명한 결론에도 달한다.

러시아 신문을 조사하는데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에 조사자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1. 논설.
2. 회의, 특히 대표자들의 연설에 관한 보고.
3. 지방의 르포와 서신.
4. 요약들.

명령하기 위해, 그리고 항상 같은 표본대로 쓰인 논설과 주요 기사는 여러 해에 걸쳐 변함 없이 동일한 성격을 취해왔다.

어느 기사나 “성과들”에 대한 찬가로 시작된다. 이러저러한 분야에서, 그것은 한결같이 우리가 막대한 약진을 이루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모든 것 이 경이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과 정부”(어느 기사에서 나반복되는 신성한 공식)는 이러저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저러한 조치를 적용하거나, 이러저러한 법령을 공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 인가 미래의

시제로 슬쩍 옮겨놓고) 이후로 이러저러한 것이 수행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직접적인 결과가 달성될 것이다 등을 확신한다는 따위의 논조다.

이러한 기사가 전체의 3 분의 2 를 차지한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라는 말들이나온다.

기사는 계속해서 “그러나 당과정부는, 최근 접수된 보고에 의하면, 현재 상황은, 필요한 결과를 얻기에는 아직 멀었다, 즉 현재는 이러저러한 것만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 예측과는 놀라울 정도로 불규칙한 수치와 데이터가 뒤따른다.

더 읽어가면 갈수록, 한편으로 미래는 화려할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개탄스럽다는 것, 언제나 태만, 심각한 오류, 약점, 무능력, 무질서, 혼란이 기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점점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사적인 호소를 계속한다. “전진하라! 서두르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생산이 증대할 때가 되었다! 낭비하지 말라! 책임자들을 불러 명령을 내리도록 하라! 당과정부는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라. 등등” 또한 종종 이러한 기사는 불운한 “책임을 진여러 정당”과 당과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위협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측면보다 더 소련언론의 전형적인 것은 없다. 이는 20 년간 매일 반복되어 왔다.

소련 정치제도의 각종 결의에 대한 회의 보고도, 대표자들의 발언을 멀하게 읽어보면 매우 쓸모가 있다.

물론 그 모든 대표자는 특권 노동 계급인 “귀족”에 속한다. 이 모든 발언은 어느 것이나 서로 닮아 있다.

모든 연설은 스탈린에 대한 지나친 찬양으로 시작한다. 위대하고, 온화하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초인,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中最장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런 다음 각 대표자는 자신의 지역 — 혹은 자신의 분야 —에서 당과정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존경받는 보이드 Vojd 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전례 없는 노력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언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의 모두가 비굴한 태도로 당과정부가 이미 “노동자를 위해서” 수행한 것들을 모두 열거한다. 예를 들어, 대표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사례를 인용한다.

연설의 이 대목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묘하다. 열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늘어놓은 대표자들은, 이러한 진보를 이룰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신은 지금 훌륭한 집, 멋진 가구, 축음기, 피아노 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욱 쾌적한 삶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정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발언한다.

“우리의 위대한 스탈린은 탁월하게 올바릅니다.” 대표자는 소리 높여 말한다. “소련에서의 삶은 매일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종종 그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순진한 어조로 연설을 끝맺는다. “당국은 나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저러한 물건 (예를 들면 좋은 자전거) 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정부를 신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회의장에서의 긴 박수 소리)

의도적으로 속셈을 포함한 이연설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열심히 일하고, 당국에 복종하고, 보이드를 존경하라. 그러면 너는 군중 가운데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고상한 부르주아적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프로파간다는 결실을 맺었다. “출세”하고자 하는 열망은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의 에너지를 자극했다. “출세”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가 그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있다. 지배 계급은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불쌍한 사기당한 이들이여, 인내심을 가질지 어다.

그리고 보고, 지방 통신이나 요약에서 우리는 일상적 제반 사의 사정과, 실제로 생활을 구성하고 성격 짓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대략적이고 암시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적 수준과 현실의 정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자료의 연구는 잡지의 기사나 통계를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독자 스스로가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련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소비에트” 권력이 모든 기록을 깨뜨린 분야 — 프로파간다의 분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짓말, 속임수, 엉터리 프로파간다의 분야가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 볼 세비키는 과거의 어떤 이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sup>1</sup> 모든 정보망, 출판 및 통신을 마음대로 하고,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상응하는 것만을 통과시키는 완벽한 방벽으로 나라를 에워싸고, 다른 한편으로 사기, 책략, 무대장치, 농간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온갖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이 기만적인 프로파간다는 비길 데 없이 대규모이자 강력한 것이다. 그 일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 있다. 볼 세비키 국가의 주요 한 과제 중 하나는 타국민의 눈에 먼지를 던지는 것이다. 신문, 잡지, 팸플릿, 서적, 사진, 영화, 라디오, 박람회, 시위, “증언”— 온갖 수단, 열거된 앞 부분이 특히 만만치 않다 — 등이 구사된다.

부정 할 수 없이, “소비에트” 정부는 외국의 직접, 간접적인 보조금을 크게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연방의 친구들 모임 The

<sup>1</sup> 그들에 비하면 나치는 겸손한 학생이자 모방자에 불과하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riends of the Soviet Union》중에는 그모임의 이름에 의해 자신의 저작을 그모임에서 팔수 있도록 허가를 얻거나 다른 이점 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친구”가 되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나 말뿐인 프로파간다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볼셰비키 정부는 사실에 의한 기만술을 숙달했다.

이 정권에 대해 확실한 공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매우 입수하기 어려운 특수한 허가증 없이는 아무도 러시아 영토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자유롭게 국내를 여행할 수 없고, 관심 있는 일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다. 반면, 정부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화려한 외관을 과장스럽게 설치해 두었다. 정부는 눈부신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크게 꾸며 냈다. 어떠한 명목으로나 건축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 몇 주간 러시아 체재를 허가 받은 “노동자 대표단”은 (성실한 구성원이라도) 끔찍하게 속아 넘어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주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스파이들의 경계심에 가득 찬 눈 아래 그나라를 여행하는 절대 다수의 “관광객”이나 고립된 방문객들 역시 마찬가지다.

공장, 집단농장, 박물관, 매점, 스포츠와 연극을 위한 공원 등이 모두 사전에 일정한 장소에 준비되어 가련한 여행자는 사기인 줄 모르고 어안이 병 병 할 정도로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어쩌다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본 경우, 그것은 1천만 명의 특권층과 만연관이 있고 1억 6천만 명의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다른 나라의 부르주아지도 “쇼윈도”에 의지하기는 하지만 볼셰비즘의 그것은 “슈퍼 쇼윈도”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여전히, 성실한 증인들 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각국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소련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다른 성과로 넘어가보자.

여기서 우리는 관료주의, 새로운 부르주아지, 군대 및 경찰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리는 볼셰비키 국가가 현기증이 날 정도의 속도로 비길 데 없이 거대한 관료주의, 오늘날에만 2백만 명이 넘는 특권적 “귀족적” 계급을 형성하는 관료주의로 발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을 적어도 임금 별로 20개의 임금 소득 자범주로 나누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에도 달했다. 가장 하위는 한 달에 100에서 150 루블을 받는다. 상위는 3천 루블 이상을 받는다.

“소비에트” 연방에는 국가 **부르주아지**, 호화롭게 살며, 사치스러운 별장, 마차와 하인 등을 지닌 부르주아지가 포함되어 있다.

볼셰비키 국가는 볼셰비키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일종의 국가 경찰인 “특별 육군 부대”를 편성함으로써지도 적당자체를 군사화했다. 그리고 레닌 정부가 1921년 크론슈타트의 혁명적 봉기를 진압한 것도 이러한 특수부

대의도움에의한것이었으며, 같은도움으로스탈린정권은이따금전국에서발생하는파업이나시위, 반란을무자비하게피로물들인다. 하지만볼세비키언론은물론한마디도입에올리지않는다.

우리가말한것처럼러시아혁명은사슬에묶이고, 거세되고, 관료화되고, 부르주아지스럽게되고, 규격화되고, 매수되고, 경화되었기에스스로세상을향해진출할힘이없었다. 볼셰비키도결국이것을깨달았다. 그들은또한이러한조건아래서머지않아아마도러시아에자행한것과같은수단 — 군대에의한폭력을사용하는것이불가피하다는것을이해했다.

그때부터그들은이방법에불가결한도구인강력한근대적군대형성을 끈질기게시도했다. 그들의광산생산과중공업이특히이계획을수행하기 위해활용되었다. 그사업은어느정도달성되었다. 그들은드디어세계의 모든군대를본떠서조직적으로훈련되고, 맹목적으로권력에헌신하며, 계급과훈장으로보장되고, 좋은음식을먹이고좋은옷을입혀서, “마지막 하나”까지완전장비된정규군을창설했다. 이군대는당당한세력이되었다.

마침내볼세비즘은일부는정규적이나대부분비밀의강력한경찰을형성하는방법을알게되었다. 그경찰은복종당하고, 속임당하고, 착취되고, 가난한인민을억누르는데성공했다는점에서아마도전세계에서가장 우수한경찰일것이다. **그경찰은특히스파이활동을시민적미덕으로끌어 올렸다.** 공산당의모든당원 — 심지어모든충성스러운시민들까지 — 도 G.P.U. 를도와의심스러운사건들을지적하고, 밀정하고, 고발할것으로 예상된다.

결국볼셰비키권력은언젠가그들을자유와번영과진정한공산주의로 이끌어갈 — 결코틀림없는방식이라고그들은주장한다 — 것을목적으로, 1 억 6 천만명을거느린노예제도를완성하는데성공했다. 그동안, 관료화된행정부와국유화된경제와직업적군대와전능한경찰에의해 **이권력은특히우수한관료와군대와경찰의국가, 전체주의국가의모범**, 즉비교할수없는지배와착취의메커니즘, 진정한자본주의국가를만들어낸것이다.

이모든“용감한위업”과“성과”는부인할수없다.

이외에무엇이라말할수있겠는가?

우리가다른것을하기전에, 볼셰비키당국스스로가마지못해넘지시 암시한고백이지만충분히정확한고백에따르면, 러시아자본주의국가의 가장큰세가지과제의실시가완전한실패였다는것을명확히해야겠다. 그 과제들은다음과같다.

1. 그나라의유명한“산업화”
2. 저명한“5 개년계획”
3. 대규모“농업집단화”

확실히 그들은 온갖 종류의 기계, 장치, 설비를 소련으로 수입했다. 그들은 특정 도시와 특정 장소에 노동자의 집을 만들고 근대식 주택을 세웠지만 그것은 매우 험편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외국 기술자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드네프로게스 Dnieprostroi 댐과 마그니토고르스크 Magnitogorsk 광업 소와 거대한 스베르들롭스카야 Sverdlovsk 기계 공장과 유명한 벨로오조르스크 Bieloozerski 운하와 같은 몇 가지 거대한 건설을 달성했다. 마침내 그들은 — 수년간의 긴 박으로 인한 조업 정지 뒤에 — 광산 개발, 석유 생산, 공장의 본격적인 작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어떠한 정권이나 국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볼셰비키 국가가 이룩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흥미를 끄는 진정한 성과를 찾을 수 있을까? 국가의 진정한 일반적 진보, 즉 노동 대중의 사회적·문화적 해방, 사회주의 혹은 참된 공산주의로의 길에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진보를 관찰할 수 있을까? 볼셰비키 정부의 활동이 국내에 그와 같은 개혁에 꼭 필요 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략적인 막그림을 달성했는가? 이 물음들은 모든 문제를 요약하고 있다.

한 나라의 산업화는 그 나라의 전반적이고 자연적인 발전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진정으로 생산적이고 진보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화는 나라의 전체 경제 생활과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소화될 때에만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반대일 경우, 그것은 주목을 끌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쓸모 없는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한 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국가라는 고용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고용주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 만큼 임금으로 받을 뿐인 노예 노동이라는 수단에 호소할 수 있다면 누구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해결은 기계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궁극적인 목적에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산업화에 의각 오가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강제 산업화는 필요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억압받고 기진맥진하고 비참한 무리인 노동 대중을 거느린 나라에서 산업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막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나라가 효과적으로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소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활기차고 강력하며 부유한 부르주아지, 혹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인 사람들 — 다시 말해 자유롭고 자기에게 필요 한 행동을 인식하고, 발전을 갈망하며,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결의 하는 사람들. 첫 번째 경우, 부르주아지는 산업화의 생산량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이 협동화와 산업화가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의 강력한 열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레닌, 트로츠키 및 그들의 동료들은 결코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난폭한 개혁가일 뿐이었고, 모든 개혁가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문제를 다룰 때나 군사 문제를 다룰 때나 늘 구舊 부르주아 적 방법에 의지했다.

그들은 대중에게도, 진정한 혁명에도 신뢰가 없었고,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혁명적 러시아 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르주아 국가주의 적개혁가들에게 혁명의 운명을 맡겼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저질렀다.

1917년 이래 러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적어도 일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

두 번째 전설은 붉은 군대의 중대한 역할에 관한 것이다. 볼셰비키 “역사가”들에 따르면 붉은 군대는 반혁명군을 격퇴하고, 백군의 공격을 격파하고, 모든 승리를 쟁취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 모든 대규모 반혁명의 습격에서 붉은 군대는 격파되고 패배해도 망쳤다. 백군을 격파한 것은 다름 아니라 빙약한 무장을 한, 러시아 대중의 봉기에 의한 것이었다. 붉은 군대는 백군이 일소된 뒤에 (전군 全軍으로) 돌아와 이미 승리한 파르티잔을 돋고, 이미 도망중인 백군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한 것만으로 승리를 차지했다.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지를 탄압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건은 그 당시 성립하지 않았다. 두 번째 조건이 남았다. 1 억 7 천만 명의 사람들의 집단적 변혁에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자발적으로 막대한 사회 실험을 하고자 자본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기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반 위에 사회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실험해나가는 것을 돋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막대한 기술적 진보는 세계에서 성취된 사실이며, 급속한 산업화와 풍부한 제품 또한 우리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가능하기에, 커다란 열정을 지니고 주변에 온갖 숙련된 원조자가 있어 서 힘이 되어 준다면 강력한 인간 집단이 소망하는 목적에도 달하지 못 할 만한 극복 할 수 없는 장애물은 없었다. 만약이 과정을 따랐다면 오늘날 세상이 어땠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볼셰비키당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빙왕좌를 차지한 그들은 추방된 부르주아지와 자유롭고 창조적인 대중을 대신하고 싶었다. 볼셰비키당은 두 가지 조건을 도살하고자 제 3의 조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혁명의 숨을 얹누르고 — 혁명의 목적을 위한 수백만의 사람들의 무한한 열정을 질식시키고 — 진정한 진보의 모든 살아 있는 원천을 말려죽이고, 사회의 현실적인 변혁으로의 길을 가로막는 독재 권력이다. 이러한 오류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메커니즘”, 생명이 없는 메커니즘이자 영혼이 없는 메커니즘, 창조성이 없는 메커니즘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정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볼셰비키의 “산업주의”가 군사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쓸모 없는 설비와 건설을 산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인민의 현실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진보에 관한 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 모든 거대한 건축물 중 75 퍼센트가 목적도 없이 세워졌고, 전혀 기능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된 수천 대의 기계들이 대부분 빠르게 고장나거나 버려지거나 분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현재 소련의 노동 인구, 즉 국가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마지못해 잔인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예의 무리에 불과한 노동 인구가 그러한 기계를 다루는 법도,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은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군대의 장비만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1 억 7 천만 중 1 억 6 천만 명의 인민이 빈곤과 도덕적 악만화의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련의 곁 치례에 불과한 “산업화”는 찬양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취”가 아니라 “전시 戰時 공산주의”와 그 뒤를 이은 신경제정책의 실패 이후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한 국가 자본주의 기업이다. 그것은 “보다 나은 시대”가 올 때 까지 스스로를 유

지하기위한희망으로, 자국의인민들과타국의인민들을허구적이고허황된웅장함으로기만하려는의도로구성되어있다.

소련의“산업화”는허세에불과하다. 마찬가지로“5개년계획”도“산업화”에이은어마어마한허세에불과하다. 정확한사실과수치를바탕으로우리는이러한계획들이완전히실패했음을주장한다. 이는거의모든곳에서인정되기시작하고있다.

“집산화”에대해서는이미충분히이야기했다. 독자는현실에서그것이무엇을나타내는지보아왔다. 우리는그러한“집산화”가결코농지문제의진정한해결책이될수없다는점을반복해둔다. 그것은사회주의적혹은심지어사회적성취와도거리가멀다. 그것은쓸모없고완전히메마른폭력적제도이다. 우리는봉건영주가국가라는군주로대체되는중세농노제로의복귀와는공통점이없는수단으로만농민이사회혁명의대의에끌어들일수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기반위에사회주의는고사하고단순히건강하고진보적인경제가건설될수있겠는가?

5개년계획에관한몇가지사실과수치를살펴보자.

1939년소련은제3차5개년계획의결과를발표했다.

첫두회의5개년계획기간동안소비에트의언론은계획의실행이상당히지연되고있다고끊임없이불평했다. 석탄이나기타광물의채굴, 유전의채굴, 야금冶金생산, 직물생산, 중공업및모든기타산업의발전, 철도의확장과차량의개선 — 요컨대모든부문의경제활동에서할당량과예측치를훨씬밑돌았다.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서제2차기간으로이행한때에는다양한산업이기대치보다훨씬뒤처지고있었다.

온화한독재자는격노하고, 체포하고, 처형했다.

그러나「이즈베스티야 Izvestia」는일련의기사들(1939년8월에서11월까지)에서제3차경제계획의실패를간접적으로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그간행물은1939년10월의철강제품생산량이1938년10월보다낮았고, 야금산업의모든부문의생산량이감소했으며, 몇몇용광로는석탄과금속의부족으로폐쇄될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

상황은9월말, 소비에트언론이월간통계를보도하는것을중단할정도로심각해졌다.

그언론에발표된자료에따르면첫2회의5개년계획기간동안운송작업은할당량의50퍼센트밖에실현되지못했다. 화물차수는공식예상을큰폭으로밑도는수로증가했다. 드네프로게스와마그니토고로스크같은훌륭한기업들은능률이좋지못했다. 그러한대기업중몇몇은오랜기간강제적으로활동중지를경험했다. 거대한발전發電계획은극히미미한정도로만달성되었다.

인민위원인코시긴(Alexei Nikolayevich Kosygin)은1939년5월, 우리나라의섬유기업들은설비가잘갖추어져있지않고필요한생산수준

혁명이직면한심각한위기를고려하여볼셰비키와화해하고백군과의전투에도움을주기로결정했다. 볼셰비기는불리한전황에있었기에마흐노와동맹을체결했다.

그아나키스트지도자는즉시브란겔군에대항해그의군대를동원했고오레호프 Orekhov 성벽아래서그들을물리쳤다. 전투가끝나고퇴각하는브란겔군을추격하기전, 마흐노는모스크바정부에전보를보내승리를알리고, 그의부관인추벤코(Alexei Vasilyevich Chubenko)와나를석방하지않는한더이상진군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했다. 아직마흐노가필요했던볼셰비기는이에동의해나를석방했다. 이때그들은마흐노의전보를내게보이고마흐노파르티잔의위대한전투력을찬양했다.

극우반동에대한나의논평을마치면서, 나는볼셰비키와그동조자들이날조하고유포한전설이거짓이라는점을강조해야겠다.

첫째는외국의개입이다. 그전설에따르면외국의개입은매우중요했다. 볼셰비기가일부백군운동의강한세력과성공을설명하는것은주로이러한방식이다.

그러나그주장은현실과모순된다. 그것은엄청난과장이다. 사실러시아혁명기간동안외국의개입은결코활발하거나지속되지않았다. 돈이나군수품, 장비등에서약간의원조가있을뿐이었고, 그것이전부였다. 백군스스로도후에원조의부족에대해몹시유감스럽게여기고있었다. 그리고러시아로파견된분견대에대해서도, 그들은항상사소한의미만을지닐뿐이었고거의뚜렷한역할을하지않았다.

그것은쉽게납득할수있는일이다. 애초에외국부르주아지는유럽전쟁이한참이던때와전후시기에국내사정만으로도골치가아팠다. 그뒤군수뇌부도혁명러시아인민과의접촉으로인해군대가“분열”될것을두려워했다. 그래서그러한접촉은가능한한기피되었다. 여러사건은이러한우려가충분한근거를지니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혁명적세력과한번도교전한적없는프랑스와영국의군대는별도로, 우크라이나의스코로파즈키(Pavlo Petrovych Skoropadskyi) 정부에의해보호되고있던꽤많은오스트리아-독일점령군(브레스트-리토프스크평화협정이후)은빠르게분해되어러시아의혁명세력에흡수되어버렸다.

나는또한이와관련하여독일의점령이라는결과는브레스트-리토프스크평화협정때의아나키즘이론을실증하는것이었다는점도강조해두고싶다. 당시볼셰비기정부가독일제국주의자와교섭하는대신카이저의군대를혁명적인러시아국내로침입시켜놓았더라면, 오늘날세계가어땠을지누가알수있겠는가? 그러한침입에서도출되는요인은후에데니킨, 브란겔, 오스트리아-독일, 기타온갖군대를파멸의운명으로이끈요인과똑같은것이라고말할수는없을까?

하지만, 보라! 어떤정부든항상혁명을위해정치적책략, 침체, 불신, 반동, 위험, 불행을준비하고있다!

이신사들은 완전한 승리를 기다릴 만큼의 인내심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안전해지기 전에 가면을 벗어던지고 돌연 그들의 진짜의 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대중에게는 전혀 좋은 징조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협과 체포를 수반한 백색 테러와 잔인한 보복, 재판도 없는 무자비한 대량 처형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혁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도망쳤거나 추방된 본래의 지주나 공장주가 백군과 함께 돌아와 재빨리 그들의 “재산”을 회수했다.

이리하여 과거의 절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정권이 갑자기 그 흥망 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백군지도자 측에 있는 이러한 태도는 노동대중 사이에 격렬한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볼세비즘보다 차리즘과 대지주인 포메시키 pomeshchiki 의 귀환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볼세비키 상대라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혁, 잘못된 것들의 시정, 그리고 마침내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것을 바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리즘의 귀환에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리즘 귀환의 길을 곧장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사용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이득을 보고 있던 농민은 이 토지를 이전 지주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겁을 먹었다 (대중의 이러한 정신 상태는 당시 볼세비키 정부가 일시적으로 나마 견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그들은 두 개의 악 악을 가운데 비교적 덜 해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잠시 동안의 승리 뒤에 이내 백군에 대한 봉기가 재개되었다. 위험을 깨닫자 마자 대중은 다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조된 파르티잔 부대는 화합을 회복한 붉은 군대와 노동대중의 지원을 받아 백군에게 참패를 안겨주었다.

특히, 데니킨과 브란겔의 지휘권을 파괴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군대는 아나키스트 파르티잔이며 그 군사령관인 네스토르 마흐노라는 이름을 따서 『마흐노 우슈치나』 군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반란 농민과 노동자들의 군대였다. 자유 사회를 표방하고 싸운 그 군대는 러시아에서의 모든 억압적 세력, 즉 백군과 적군 모두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백색 반혁명 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데니킨이 오를을 버리고 황급히 후퇴하도록 몰아넣은 것은 마흐노의 유명한 군대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데니킨의 후위 대와 특수 부대에 압도적 패배를 안겨 준 것도 바로 그 군대였다.

브란겔의 군대에 관해서는, 그들의 첫 번째 중대한 역전은 마흐노 군의 분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기묘한 사정으로, 볼세비키 스스로 나에게 고백한 것이었다.

브란겔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모스크바에 있는 볼세비키의 감옥에 있었다. 데니킨과 마찬가지로, 브란겔은 붉은 군대를 물리치고 북쪽으로 빠르게 몰아붙였다. 이 무렵 볼세비키와 전투 중이던 마흐노는

으로 운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한편으로 섬유 산업과 다른 한편으로 원자재 생산자 사이의 접촉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섬유 기업들은 린넨이나 아마亞麻, 양모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량의 아마가 들판에서 썩고 있다. 아마 수확자는 언제 제사製絲 될지 모르고 무기한으로 기다리고 있다. 양모에 관해서는 선별이나 세모洗毛 따위의 초보적 규정이 준비 단계에서 소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웃음을 제조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리고 누에 고치의 준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열거해 가면 5 개년 계획의 실패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볼세비키 언론에 나타난 모든 분야에 관한 정확한 사실과 수치로 몇 페이지라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소비에트 산업의 참담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즈베스티야 Izvestia』 의자백 (1940년 1월호의 몇몇 기사)에 따르면 석탄 채굴 업계는 새로운 기계의 사용 법을 모른다. 그것이 부족한 생산량의 이유 중 하나이다.

1939년 7월 30일 볼세비키 언론은 철도 운송의 날을 위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거기에 나타난 고백은 특히 명백하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레일은 공장에서 매우 부족한 수량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 품질은 나쁘다. 네곳의 대공장이 소련의 레일을 만들고 있다. 한동안 그들은 1등급 품질의 레일을 만드는 것을 중단했다. 때문에 레일은 2, 3등급의 레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중 20퍼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

1939년 7월, 선로가 수리되고 있는 동안 대쿠즈네츠키 Kuznetski 공장은 갑자기 모든 레일 운반을 중단했다. 그 이유는? 천공기 穿孔機가 모자랐던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리 작업에 필수적인 예비 부품마저 보내지지 않아 이러한 모든 작업이 지연되었다.

철도 선로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만드는 세곳의 대공장들은 아주 자주 강철이나 도구의 부족, 혹은 다른 이유로 운송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일례를 들면 어느 공장은 겨우 180 푸드 poods(3.25 톤)의 금속 속이 모자랐다. 그럼에도 모든 운반 작업이 지연되었고, 철도는 백만 개의 수리 부품이 부족했다.

또한 공장들은 종종 어띠한 부품은 전달하였으나 다른 부품,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부품을 전달하기를 소홀히 했다. 예를 들어 레일은 수중에 있지만 접목 판이 부족해 녹이 슬거나 열화된다.

당국이 화를 내어도 협수고 였다. 정부는 긴급 지령을 내려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지만 허사였다. 이 모든 조치는 효과가 없었고, 공식 보고서는 때때로 이러한 모든 결함 원인 중 하나는 “노동대중 사이의 모든 흥미와 정신

의결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유능한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의 무관심은 태업에 가깝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과도한 중앙집권화”, “관료주의”, “일반적 태만”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꼭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해 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는 필연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볼셰비키 언론의 다른 주장에 따르면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광물의 채굴은 조직화의 부족으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문의 생산량은 기계 (자주 심각하게 고장이나 있는) 의사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갖 공인된 수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하다. 「프라브다 Pravda」는 1939년 12월호의 어떤 기사에서 우랄 산맥의 석탄 채굴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언론들은 화학 산업이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탄식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야금 산업의 전위인 “적색 프롤레타리아트 Red Proletariat” 공장이 “기술 과 행정상의 무질서 때문에” 할당량의 40 퍼센트 밖에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무한대로 예시를 들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소련의 산업 상황은 늘 비관적이었고, 오늘날 역시 그러하다. 산업화는 신화에 불과하다. 기계는 있으나 산업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집산화”에 관해서는 소비에트 언론에서 명확한 자료를 술하게 인용할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 신문에서 무작위로 발췌한 몇 가지 사실만 인용할 것이다.

1939년 의수학에 관해 「사회주의 적농업 Socialist Agriculture」은 8월 8일 기사에서 모든 지역의 작업이 매우 지연되고 종종 수확물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곳곳에 수확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공산당 중앙 위원회 농업부에 따르면 이 주된 원인은 **태만, 무질서, 부주의 및 온갖 지연으로 인한 기술적 수단의 부족**에 있다. 이를테면 기계의 사용에 불가결한 부품이 제 때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 한 양 만큼 제공되지 않았거나 하는 식이다.

수리점의 설치는 어느 곳에서나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 예컨대 300개의 작업장을 지정 일 까지 건설하도록 계약한 센터는 아직 14개 소밖에 설치를 완성하지 못했다. 또 다른 센터는 353개 중 8개만을 완성했다. 쿠르스크에서는 91개 중 3개의 수리점만이 완성되었다.

게다가 같은 간행물에 따르면 올해 (1939년) 의수학 작업은 악천후로 말미암아 많은 양의 밀이 쓰러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쓰러진 밀을 탈곡하기 위해 탈곡기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항상 소홀하다.

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스크바에 대한 위협은 끝나고 위기는 모면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볼셰비키와 그 군대는 데니킨 군과의 전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브란겔 장군은 레닌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두 번째 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데니킨 반란에 계속된 운동을 일으켰다. 보다 술책에 능한 브란겔은 그의 선두 주자의 패배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기에 데니킨 보다 더 깊고 확고한 공감을 얻었다.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인민의 정신적 타락은 이전보다 더 심화해 있었다.

하지만 브란겔의 운동도 데니킨의 그것이나 기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패배했다.

데니킨의 운동은 갑작스러운 돌발 사고로 산산이 조각났다. 모스크바 문턱에 다다른 그의 군대는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남쪽으로 후퇴했다. 그러한 엄청난 실패로 데니킨 군은 괴멸했다. 그간 당은 전국을 떠돌다가 그들의 뒤를 쫓아 북부로부터 추격해 온붉은 군대 분견대와 파르티잔에 의해 차례로 절멸되었다.

공황 상태에서 벗어난 모스크바의 볼셰비키 정부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데니킨 군이 왜 후퇴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도 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그들은 백군을 추격하기 위해 붉은 군대의 몇몇 연대를 파견했다. 데니킨의 운동은 완전히 전멸했다.

얼마 후 시작된 브란겔의 노력은 처음에는 몇 가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데니킨의 원정 이상으로 레닌 정권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점점 볼셰비키를 혐오하게 된 러시아 대중은 이 새로운 반 볼셰비키 운동에 대해 심각하게 저항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중은 무관심한 채 있었다.

그런데이거의 일반적인 무관심 때문에 정부는 이제 까지 이상으로 자신의 군대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의 성공 이후에, 브란겔의 운동은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기적적”이라고 할 만한 역전, 즉 그렇게 성공리에 시작된 운동이 마지막에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성쇠의 실제 원인과 정확한 상황은 편견을 지닌 저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백색 운동의 몰락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의 서투르고, 냉소적이며, 교만한 태도. 그들은 러시아의 어떤 지역을 획득하면 정복한 지역에 볼셰비키 못지 않은 독재자로 군림했다. 그들은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고, 건전한 사회를 조직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노동자를 불신하고, 온갖 “미명”에도 불구하고 구 사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알게 했다. 단순히 사람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세 때낸 그들 선언의 매혹적인 약속은 금세 잊혀졌다.

외국부르주아지의지원을받은그운동도마찬가지로서구노동자계급의저항에부딪혔다는것이주목할만하다. 러시아에대한모든개입에반대하는파업과시위 — 특히영국항만에서의파업 — 가외국부르주아지를방해하고, 불안에빠뜨리고, 그들의원조를철회하게만들었다.

그러나더중요한것은 1918년여름, 동부에서콜차크제독이주도한반란이었다. 몇몇원조중에서도러시아에서편제된체코슬로바키아군의지원을받고있었다. 트로츠키의붉은군대가이를격파할만한힘이없었음은유명한이야기다. 이역시무장한산업노동자와농민들의맹렬한파르티잔저항운동및후방에서의봉기에의해괴멸되었다. 붉은군대는“의기양양하게”도착했다 — 일이완전히끝난후에.

이모든반혁명운동은다소온건한사회주의자 — 멘셰비키와사회혁명당우파에의해적극적으로지지되었다.

볼세비키가추가적인혼란을두려워해사후를미연에방지하고자 1918년7월16~17일밤중에시베리아예카테린부르크 Yekaterinburg로추방된전前차르니콜라이2세와그일족을처형한것은체코슬로바키아공세때였다. 그후볼세비기는예카테린부르크에서철수했다.

이처형의정확한사정은, 콜차크의의뢰로한변호사가꼼꼼하게조사했음에도불구하고상당히불가사의하다. 지하실에서일어난이공적살인이모스크바중앙당국의명령에의해집행된것인지, 아니면지역소비에트의명령에의한것인지조차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았다. 그리고볼세비키자신은침묵을지키고있다.

그무렵, 아직레닌정권에의해무장해제되지않았던러시아대중은볼세비키혁명에대한신뢰감을회복해정열적으로반혁명운동에항쟁했기에비교적용이하게반란들이종식되었다.

그러나 1919년말, 이상황은완전히바뀌었다. 볼세비즘에환멸을느끼고, 볼세비즘을혐오하며“소비에트”정부에의해무장해제당한대중은더이상반혁명음모에대해여태까지처럼저항을보이지않았다. 그래서이러한운동의지도자는이제그들의공감을얻어내고자노력했다. 전단과성명서에서그들은볼세비키의독재에대해서만싸우는것이라고발표했다. 그들은사람들에게“자유소비에트”와레닌정부에의해비웃음거리가된혁명의다른원칙들을보호하겠다고약속했다(물론그들은일단승리하자이러한약속을이행할생각은전혀없이모든반란을진압할것이었다).

따라서러시아의중앙에두개의“백색”대반란, 즉안톤이바노비치데니킨장군의반란과표트르브란겔남작의반란은볼세비키정권을전복시킬만한세력을펼수있었다.

데니킨장군이군사적으로지휘한운동은처음에는 1919년에전우크라이나및중앙러시아상당부분을빠르게침입했다. 적군赤軍을격파하고패퇴시킨백군은모스크바근처의오를 Oryol 시市에도달했다. 볼세비키정부는, 뜻밖에도데니킨군이돌연발판을잃고황급히후퇴하던때, 도

마지막으로, 농민언론은계속해서올해는숙련된수학노동자수가상당히감소했다고밝히는데, 그것은많은지역에서기계조작원과기계공들에게아직작년임금이지불되지않았기때문이다. 왜그런가? 정답은이들노동자는 콜호스가세금을납부한후에야급여가지불되기때문이다. 그리고많은곳에서아직그세금들은지불되지않았다.

「이즈베스티야 Izvestia」와「사회주의적농업 Socialist Agriculture」양언론은 1939년에는이러한불상사때문에 1938년보다적은 6천 4백만헥타르적은밀이 8월 1일까지수확될것이라고밝혔다.

1939년 11월소비에트언론은감자및기타야채의수확이상당히지연되고있다고불평했다. 이는사람과말의부족, 휘발유의불충분한운반, 특히콜호스니키 kolkhozniki(콜호스구성원)의태만에기인했다.

11월 4일 「이즈베스티야 Izvestia」는 10월 25일까지 솔호스가그들의의무곡물운반양중 67 퍼센트밖에인도하지못했으며, 콜호스는의무지불액의 59 퍼센트만을이행한것, 같은날감자할당량의 34 퍼센트, 기타야채할당량의 63 퍼센트만이 콜호스로부터공급되었을뿐이라고인정했다.

1939년 7월, 우크라이나의《국가낙농업자회의 Congress of State Cattle Breeders》는다음과같이보고했다. 1. 당시가축이없는콜호스가많았다는것 (키르기스 Khirguisie에서는 45 퍼센트, 타지크 Tadzhiki에서는 62 퍼센트, 랴잔 Ryazan 지방에서는 17 퍼센트, 키롭스크 Kirovsk에서는 11 퍼센트, 우크라이나에서는 34 퍼센트). 2. 다수의 콜호스가충분한가축을가지지못했다는것, 그리고우크라이나에서는거의집단농장의 50 퍼센트가까이가각각열마리미만의소밖에가지지않았다는것 (“소의냄새를조금맡는데충분한정도”라고보고자는농담을했다). 3. 집산화이후일반적으로소련에서가축의수가매우감소했다는것.

그리고가장흥미로운것은, 다른모든곳과마찬가지로, 정말로솔직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수단을고안할수없다는것이다. 더이상설명이필요한지?

이러한사실들, 이러한고백, 그리고이러한불평이 20년에걸쳐계속되고있다. 그리고“소비에트”연방의많은다른분야에서도무한대로이러한열거를계속할수있다.

소련에서는이러한상황들이눈에띄게주목받고있다. 사람들은당국의요구에필요한범위까지응하고있으며 — “최선을다해살아가고있다.”

외국에서는최근까지이런것들이전혀알려지지않았다. 이제야진실이밝혀지기시작하고있다….

볼세비키정부가 콜호스의활동을추진하기위해취한최근의조치는전형적인것이다.

1939년 여름, 예를 들어 「당의 건설적 작업 The Constructive Work of The Party」이라는 공식 문헌 제 10호는 소비에트 체제의 본질적 악폐는 “농민이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헐륭한 수확을 거둬들여도 거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부로부터 교사된 이 언론은 주제를 자주 다루었다.

그리고 1940년 1월, 「이즈베스티야 Izvestia」는 “당과 정부”가 집단 농민의 경제적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공표했다. 그 기사 말미에 “각 집단 농민은 그들에 의해 이룩된 수확량 증가는 모두 콜호스의 자체적 처분에 맡겨지고, 그것이 콜호스 경제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집단 농민 대중의 창조적 주도권을 발전시킬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940년 1월 18일 자 법령에서 당중앙 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콜호스에 일정한 경제적 독립을 승인했다. 각 콜호스는 자체 작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 그것은 당연히 항상 “공식 당국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했지만.”

분명 신경제정책과 같은 집단 농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지적 할 것 까지도 없다. 그것은 주로 핀란드 전쟁의 패배에서 기인하는 스탈린 정권의 공작에 불과하고, 사실상 모든 곳에서 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 대중은 이 책략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개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볼셰비즘의 “집산화”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기에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이는 농민을 국가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새로운 농노제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강제적 “집산화”였고, 모든 부분에서 산산조각났다. 그 점에 있어 우리가 내다보고 있던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언론은 소비에트 농업에 있어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사이의 투쟁의 심각성을 점점 더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후자는 소련 농민에 의해 여리 광경과 수많은 방법으로 공공연히 무시되고, 방치되고, 태업에 처해 있다. 결국 상황은 “극단적으로 심각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몇 가지 외양적 양보는 집단 농민에게 그들의 콜호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에 반하는 경향들과 싸우게 하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데는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농노제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련의 물질적 측면 — 경제, 산업, 기술적 측면 — 을 다루어 왔으니, 정신적이라 불릴 수 있는 특정한 다른 분야를 살펴보기로 하자.

세 가지 부분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1.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관한 문제
2. 여성 해방
3. 종교 문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심리적 결과는 이해하기 쉽다. 한편으로 대중은 볼셰비즘에서 점점 더 돌아섰고, 환멸을 느낀 결과 볼셰비즘을 포기하거나 적대적이 되었다. 이 불만과 반항 정신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중은 교착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어떤 유효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상 운동, 토론, 프로파간다, 자유로운 행동이 금지되었기에 결정적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조직은 국유화되고 군사화되었다. 사소한 반대라도 심하게 억압되었고, 무기 및 기타 모든 물질적 수단은 속이거나 변명하는데 능숙한 당국과 새로운 특권 층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대중은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해갔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던 반혁명 세력은 이상화 저항 정신을 이용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지런히 저항 정신과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해서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서 번져나가는 반혁명 운동의 기반이 되어 3년 동안이나 그들을 버티게 했다.

러시아 남부와 동부에서는 특권 계급에 의해 음모가 꾸며지고, 외국 부르주아지의 지원을 받아 구질서의 장군들이 지휘하는 대규모 군사 행동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정세 아래, 1919~1921년의 대규모 봉기는 남부에서의 칼레딘 장군의 반란이나 우랄 지역의 코사크 연대 **아타만 ataman** 두토프 (Alexander Ilyich Dutov) 및 기타 반란과 같은 1917~18년에 걸쳐 발생한 자발적인 비교적 덜 중요한 저항 운동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18~19년에 걸쳐 대규모 반란이 여기저기서 시도되었다. 이런 것들 가운데는 1919년 12월 유데니치 (Nikolai Nikolayevich Yudenich) 장군의 페트로그라드 공격과 “차이코프스키 (Tchaikovsky)” 정부의 후원에 의한 북부의 반혁명 운동이 있었다.

편제와 무장 과장비가 잘 갖추어진 유데니치의 군대는 수도 문턱에도 달했다. 여기서 그들은 크론슈타트 수병 분견대의 원조에 의한 페트로그라드 노동 대중의 열정과 헌신, 주목할 만한 조직력의 폭발적 행동, 즉적의 배후에서의 대봉기에 의해 강하게 지지받은 폭발적 행동에 의해 순식간에 분쇄되었다. 트로츠키가 지휘한 젊은 붉은 군대는 도시의 방어에 참가했다. 차이코프스키 반혁명 운동은 아르한겔스크 Arkhangelsk 지역과 볼로그다 Vologda 지역 일부를 침공하는데 성공했다. 다른 지역에서 와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차이코프스키의 패배는 붉은 군대의 공적은 아니었다. 전선과 그 배후에서의 노동 대중의 자발적 봉기가 그것을 종식시켰다.

1. 볼셰비즘의 유해한 방책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볼셰비키 이론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했다는 것.

## 2. 이런 어려움의 대부분은 해당 초정부가 대중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기 시작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

3. 정작 어려움은 볼셰비키에 의해 제거되기는커녕 그들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

4. 이러한 어려움은 대중의 자유로운 활동이 있었다면 간단히 극복되었으리라는 것.

주된 어려움은 확실히 식량의 배급 문제였다. 혁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는 되도록 빨리 식량 난과 (화폐에 기초한) “교환 경제”에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풍부한 “분배 경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하고 큰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정부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록 사람들의 자유로운 주도권에 더 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볼셰비키 정권은 사상, 주도권, 수단, 행동 등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다. 볼셰비키 정부는 “프롤레타리아트”的 절대적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중을 굴복시켰고, 그들의 열정을 억눌렀다. 그리고 어려움이 커질수록 “프롤레타리아트”的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명한 “5개년 계획”的 “산업화”라고 불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볼셰비즘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고, 삶의 위기에 대한 필사적인 투쟁 가운데서 가장 심한 폭력에 호소했으며, 그 결과 일의 중요성을 역설 할 뿐이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 아니었다. 노예에게 강요한 강제적 산업화라는 수단으로 한 나라가 풍요롭게 되고 새로운 경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러시아의 대중은 직감적으로 다른 형태의 생산으로 이행하고 생산 및 소비 사이의 관계를 변혁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들은 점점 더 화폐를 폐지하고 생산 기관과 소비 기관의 직접 교환제도를 개시해야 한다는 중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듭 도처에서 그리한 방향을 향해 노력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만일 그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면 경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인 분배 경제에 점진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참된 친구로서 그들을 이끌어 돋는 한편 그들 스스로 길을 찾고, 행동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레닌 정권은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볼셰비키는 모든 것을 자신들이 처리하고 그들의 의지와 방법대로 강요하려고 했다. 대중은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정부의 무능과 무력, 그리고 독재와 폭력이 나라를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주제들에 대해 상세히다를 수 없어 유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상당한 지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책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특정한 본질적 성격을 밝히는데에 그치도록 하겠다.

무지한 이들과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이들은 수년에 걸쳐 완전히, 거의 “미개”하고 무지한 상태로 러시아 국토를 바라보고, 볼셰비키는 일반적 문화, 육성, 교육의 길에 있어 “대약진”을 이루했다고 가장 해왔다. 러시아의 대도시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온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들이 극구 장담하며 볼셰비키가 개입하기 전에는 “러시아에는 공립 학교가 거의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곳에 훌륭한 공립 학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일이 없다고 할 것인가? 어느 강연자가 “혁명전에는 러시아에 두 세 곳의 대학밖에 없었으나 볼셰비키가 여러 대학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그들은 볼셰비키 이전에는 거의 모든 러시아 국민이 읽고 쓰는 법을 몰랐으나 지금은 그 같은 운전한 문맹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차르 치하에서는 산업 노동자와 농민은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이 수가 법률로 금지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던가? — 러시아에 관한 무지와 그릇된 주장의 예시로서 만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소련의 대도시에 있는 설비가 잘 갖추어지고 잘 조직된 몇몇 화려한 근대 학교를 견학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것은 첫째로, 그와 같은 모범이 되는 학교는 세계의 모든 대도시에서 으뜸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제국 시절의 러시아에서 도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그와 같은 학교의 설비는 볼셰비키 정부의 장식적이고 시범적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대도시의 상황은, 특히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광대한 토지에서는, 시골의 상황에 관해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진실에 기초한 결론에 다다르기를 바라는 여행자라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매일 벽지와 여러 종소도 시와 마을, 집단 농장, 그리고 위대한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공장 같은 곳의 사정을 보고, 그 발전의 실태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을 수 있는 여행자가 있었던가? 방금 묘사된 종류의 신화에 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그 진상을 보인 바 있다.

혁명이 전에 러시아인 민의 교육이 충분히 널리 보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충분하지 않았다. 단지 세부와 온도 차가 있었을 뿐이다.) 제정 러시아에서 문맹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거나 국민지도가 특정 서구 국가들에 비해 별로 뒤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과 내가 앞서 인용한 진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꽤나 간단하다.

혁명이전에러시아의초등, 중등, 고등학교들의네트워크는충분하지는않았으나이미상당히주목할만한것이었다. 그것은주로불완전한교육이었다. 즉프로그램, 방법, 수단이형편없는것이었다. 정부는당연히진정한국민교육에는무관심했다. 시립및사립학교는로마노프 Romanov 당국의감독아래공식교육과정을따르도록강요되어, 비록일부성과를거두기는했으나많은것을성취할수는없었다.

그러나교육분야에있어볼셰비키정권의“대약진”이라불리는것은사실어정쩡한것이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서는다른경우와마찬가지로소비에트의공식언론을면밀하게따라가는것으로충분하다. 기타부문과마찬가지로이주제에대한탄식과고백도여러해동안매우옹변적이었다.

최근의인용문을몇가지더살펴보자.

일반적인공식통계에의하면소련에서의교육은만족할만한것이상으로진행되고있다. 초등및중등학교의학생수는 1935~36년에는 2천 5백만이라는주목할만한수를달성했으며, 고등학교학생수는 52만명으로증가했다. 1936~37년에는각각의수가 2천 8백만과 56만이되었다. 1939년<sup>2</sup>에는마침내그수가 2천 9백 7십만과 60만에달했다. 거의 100만명의학생들이산업, 상업, 농업등의기술훈련을받고있다. 전국에성인을위한강좌가무수히많았다. 그리고교육에대한열의도강렬했다.

물론혁명으로부터태어나인민의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정부가좋은교육에대한인민의열망을만족시키고자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정권이국가의교육제도를근본적으로개혁에종사하는것은마땅한일이다. 혁명후의어떠한정권이라도그렇게했을것이다.

하지만볼셰비키정부의활동을현명하게판단하는데는공식적인양적수치로는불충분하다. 진짜문제는이새로운교육의질과가치를어떻게보느냐하는데있다. 정부가훌륭하고진지한, 가치있는견고한교육을보장하기위해교육을조직하는데성공했는지의문을제기할필요가있다. 그리고소련에서의교육과훈련이새로운생활을창조할수있는사회주의활동을위한투사를양성할수있는지를아는것이선결과제이다.

이러한근본문제에대해소비에트언론스스로여러해에걸친고백에의해부정적인답을해왔다.

첫째, 우리는러시아에서의교육이모든사람에게적합한것은아니라고말하지않을수없다. 사실, 고등교육은무상교육이아니다.<sup>3</sup> 고등학교학생대수가국가장학금을받고있다. 국가장학금을받지않고있는사람들은어떻게되는가? 상당수의청년이고등교육을받지못하고있으며, 그

가되었다. 그리고농민에대한테러와잔인한폭력행위는농민을이반시켰다.

우리는모든혁명에서인구의대다수, 즉단순한정치적무관심자들, 날마다일에쫓기는시민들, 프티부르주아지, 중산층부르주아지의일부, 그리고농민중다수는맨처음에는중립을지킨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혁명이되도록빠르게이런이들의눈에“자신을정당화”할수있는것이중요하다. 그렇지않으면그러한모든“미온적인”사람들은혁명적인작업을외면하고, 그에적대하고, 반혁명적책략에동조하기시작하고, 그것을지지하며그책략을훨씬더위험하게만들것이다.

이러한상황은수백만명의이익을휩쓸어넣어사회적관계를심오하게수정하고, 어마어마한고통을수반하는방식이기는하나미래의커다란만족을약속하고수행되는대변동기다. 이만족은신속하게초래되어야만한다. 혹은어떻게해서든대중이그것을강하게기대할수있어야만한다. 그렇지않으면혁명은약화되고반혁명이지속된다.

이러한중립적인이들의적극적인공명이혁명의효과적인발전에불가결한것이다. 왜냐하면그들은많은“전문가”와장인 — 숙련노동자, 기술자, 지식인을포함하기때문이다. 혁명이일단성취되면혁명에정면으로적대하고있는것이아닌사람들은, 혁명이확신을가지고그들을격려하고, 혁명의능력, 가능성, 전망, 이점, 힘, 진실, 정의를느끼게한다면혁명의편에서서혁명을열렬히원조할것이다.

그러나만일그러한조건이달성되지않으면그모든이들은혁명의공공연한적이되고말것인데, 이는혁명에대해심각한타격이될것이다.

혁명가들의원조를빌려자유로운활동을하는거대한노동대중이이들을납득시킬수있을만큼성과를거두어이들중립을지키는이들을확신시켜마침내끌어들일만한힘을지니고있음은의심의여지가없다.

독재정권 — 무능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잔혹하리만큼폭력적인 — 은그러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이들을다른쪽으로내몬다.

볼셰비즘은스스로를“정당화”하는법도, 혁명을“정당화”하는법도모른다. 우리가보아온것과같이볼셰비즘이겨우해결하는데성공한유일한큰문제는 — 별로내키지않았으나전투를거부한러시아군대의압력으로 — 전쟁이었다. 이성공 — 평화의달성 — 은대중의신뢰와공감을얻었다. 하지만그것뿐이었다. 곧그경제적, 사회적, 기타무능력이드러났다. 사실승리의거의이튿날에는벌써행동의방법, 정부의정책및국가주의적절대주의의무능함이드러났다.

볼셰비키와그동조자들은러시아같은나라에서정부가전쟁과혁명뒤에극복해야했던“끔찍한어려움”을호소하기를좋아한다. 그리고그들은이지난함을근거로볼셰비키의온갖행위를정당화하려고한다.

사실을전혀모르는외국인들은그런이야기를그럴싸하게받아들일지도모른다. 하지만혁명을겪어온이들은마침내현실에눈을뜨게되었다.

<sup>2</sup> 「프라브다 Pravda」 5월 31 일자.

<sup>3</sup> 스탈린헌법제 125 조를참조하라.

## 제 8 부. 반혁명

볼셰비키정부의 창조적인 무능, 러시아가 곤두박질친 경제적 혼란, 전제주의와 전례 없는 폭력, 혁명의 파산,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은 처음에는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이내 침체 상태가 만연해 마침내는 독재로 말미암아 야기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경우 항상 그렇듯이, 그러한 운동은 항상 상상 반된 양극단에서 시작되었다 — 반동측, 즉 권력을 되찾아 구질서를 재건하기를 바라는 “우파”, 그리고 혁명측, 상황을 만회하고 혁명적인 행동을 재개하기를 바라는 “좌파”에서의 운동이다.

우리는 반혁명 운동에 대해 장황하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 한편으로는 그에 관해서는 다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 자체가 그다지 흥미를 끄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반혁명 운동은 모든 대혁명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운동의 일부 측면은 충분히 교훈적이기 때문에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 혁명에 대한 최초의 저항 (1917년과 1918년)은 극히 제한적이며, 매우 국지적이고 비교적 해가 적었다.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일부 반동 분자들은 즉시 새 질서에 반대하여 혁명의 징을 잘라내려고 했다. 산업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다수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새로운 질서의 편이었기에 이들의 저항은 쉽고 빠르게 분쇄되었다.

그후, 만약 혁명이 정말로 풍부하고, 강력하며,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만약 혁명이 그 큰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러시아나 아마도 다른 나라들을 위해 새 지평을 여는 방법을 알았다면, 반혁명 운동은 사소한 전투로 끝났을 것이 분명하며, 혁명의 승리는 위협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등지에서 잇달아 일어난 여러 사건도 우리가 20년간 목격한 것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알다시피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즘은 혁명을 왜곡하고, 속박하고, 거세했다. 첫째로 그것은 혁명을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공허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 더욱이 우울하고, 비열하고, 폭압적이고, 무의미하고, 어리석게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볼셰비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환멸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결과

것은 정부의 의향에 따른 특권이 되고 있다. 또 다른 결함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여러 해에 걸쳐 교육에 관한 똑같은 성명과 불평이 소비에트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기를 되풀이 해왔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정부는 아직 충분한 양의 교과서를 출판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관료주의, 중앙 집권주의, 행정상의 지체와 같은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고등학교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카프타노프 (Sergy Kaftanov)는 연설<sup>4</sup>에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1939년에야 겨우 적은 부수가 인쇄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혁명이 전책의 재판에 불과했다].

2. 해마다 똑같은 학교 설비에 대한 불만. 설비의 부족, 혹은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나쁜 품질의 설비가 교육 사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3. 학교 건물의 심각한 부족.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실의 교육 증진에 대해서는 극심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건물들은 비참할 정도로 형편 없는 상태이고, 새로 건축된 — 언제나 황급히 날림으로 — 것은 결함투성이에 빠르게 못쓰게 된다.

그러나 언급된 결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훨씬 더 심각한 해악이 소련의 교육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 — 교사와 교수의 부족이 그것이다.

1935년 이래 「이즈베스티야 Izvestia」, 「프라브다 Pravda」 및 기타 소비에트 기관지는 이 주제에 관해 많은 고백과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이 자인하는 바에 따르면 교사진의 조직화는 국가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37년에는 교사 “계획”的 50 퍼센트만이 실현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때로는 수천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자격과는 거리가 멀다. 중등학교 교사의 약 3분의 2가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의 3분의 2가 중등 교육을 받지 않았다.

소비에트 언론은 교사들의 형편 없는 무지에 대해 몹시 불평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능과 부적합함에 대해 놀랄 만큼 수많은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 현실적으로 소련의 훈련과 교육은 한탄스러운 상태에 있다. 대도시나 인위적인 외관이 외에는 학교, 교사, 설비 또는 교과서가 충분하지 않다. 학교 건물에는 위생을 위한 기본 시설이 부족하고, 난방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 나라의 벽지에서는, 대중 교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등한시되고 있다. 그것은 절대적 혼란에 상응한다.

<sup>4</sup> 「프라브다 Pravda」 1939년 5월 31일자.

이런조건아래서, 다소간읽고쓸줄아는“90 페센트의인구”라는것은 단지또다른신화에지나지않겠는가?

소비에트언론은스스로이물음에답하고있다. 소비에트언론은일반 대중뿐만아니라학생과교사, 교수들사이에서조차가장기초적인교육마저부재함과최저한의교양수준에미달한이가많다는것을해마다말하고 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려는정부의모든노력은성공하지못했다. 볼셰비키체제의근간인일반적인상황이바로상황개선에대해극복할수없는 장애물이되는것이다. 러시아교육제도의전반적인경향이그성공을가로 막고있다. 왜냐하면그것은교육이나훈련을제공하기보다프로파간다를 펴뜨리는데에바쁘기때문이다. 그것은학생들의머리를볼셰비즘과마르크스주의의엄격한교리로채워넣는다. 어떤주도권도, 비판정신도, 의심하거나검토할자유도용납되지않는다.

소련의교육전반에는스콜라적정신, 즉생명을잃고지겹게화석화된 경향이깃들어있다. 언론의자유의결여, 자주적행동또는토론의결여, 따라서마르크스주의의도그마만이허락되는땅에서의자유로운사상교류의결여 — 이모든것은인민이참된교육을받는것을방해하고있다.

여행자들 — 이들은당연히피상적이고종종단순한관찰자들이다 — 은모스크바나레닌그라드및기타두세도시를공동으로주마간산격으로 돌아보고“자기스스로의눈”으로본문화및스포츠시설에경탄한다.

하지만우리가 「트루트 Trud」<sup>5</sup>지誌에서발견한것에주목하라.

도네츠크 Donetsk 분지의광부들은정부당국에다음과같은질문을제 기했다. “고를롭카 Gorlovka<sup>6</sup>의‘문화회관’을유지하기위한다는명목으로우리임금에서공제한부담금의용도는어떻게되었는가?”(이런항의가 공표된다는사실은매우드문일이었다.)

1939년에는이회관의관리비가수백만 루블에달했다고광부들은말 하고있다. “광부클럽”의예산만해도 117 만 3 천 루블에달했다. 그중 70 만 루블은필름대여료로영화제작소에지불되었지만, 영사映寫가제 대로되지않아아무도보러오지않았다. 나머지 40 만 루블은직원경비로소비되었다. 광부들은자신들이지불한금액에서아무이익도얻지못했다.

“문화회관”은 (광부들의불평은계속된다) “공원”이라불리는정원으로둘러싸여위용을뽐내고있다. 이정원을정리하기위해상당한액수의금 액이그들의임금에서공제되고있다. 그돈으로몇개의콘크리트탑이늘어 선커다란문이만들어졌다. 그러나설계담당자들은정원둘레에담을쌓는

트로츠키는맹목적인편견에서 (혹은상상도할수없는위선으로) 용 서할수없는 가장명백한혼란을범하고있다. 그는원인과결과를뒤바꿔 놓고있는것이다.

그는조잡하게자신을기만하여 (또는자신을속인것처럼꾸며놓고, 자 신의이론을방어할수단을발견하지못하고서) 원인에서결과(스탈린에 의한배반) 를도출하고있다. 무엇이“스탈린주의”를가능하게했는지에 대한근본적인문제를트로츠키가간과한것은오류라고하기보다오히려 교묘한수법인것이다.

“스탈린은혁명을배반했다.”간단하다. 하지만너무도간단해아무것 도설명할수없다.

그럼에도설명은간단하다. “스탈린주의”는진정한혁명에대한파산의당연한결과지그반대가아니다. 다시추론해보면, 혁명의파산은볼셰비즘이취한잘못된과정의자연스러운결과였다.

다시말해서, 좌절하고실패한혁명의타락이스탈린을이끌어간것이지, 스탈린이혁명을타락시킨것이아니다.

이병마病魔에공격받았을때, 혁명적유기체는대중의자유로운행동을통해의기양양하게저항할수있었을것이다. 하지만레닌과트로츠키자신이이끄는볼셰비키는대중으로부터악에대한모든자기방어수단을빼앗았기때문에, 필연적으로병마가유기체를침범하여죽이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노동대중이“배반”의준비에도, 그달성에도반항하지않았기에“배반”은가능했다. 그리고대중은그들의새주인에완전히복속되어진정한혁명의의미와모든주도정신, 자유로운행동과그반응의의미를빠르게상실했기에그에대하여저항하지않았다. 그들은속박되고, 복속되고, 지배당하고있었기에모든저항이헛되고 — 내가무슨말을하고있는가? — 쓸모가 없다고느꼈다. 트로츠키는대중사이에서맹목적인복종정신을깨우고, “상부”에서일어나는모든것에둔감한무관심을되살리는데직접참여했다. 대중이패배한채오랜시간이지나갔다. 그이래로어떠한“배반”도가능하게된것이다.

이모든것에비추어, 우리는독자들이볼셰비키의“성과”에대해스스로판단하기를권한다.

<sup>5</sup> 1939년 7월, 제 168 호.

<sup>6</sup> 고를롭카는그분지의산업지대이다.

고성공하지못했다는것이입증될수록, 정부는성공할수없는것이더욱 분명해진다.

“정부는그이상하지못했다.”

그렇다면왜다른이들이시도하는것을막았는가? 정부가할수없다는 것을알았다면다른이가행동하는것을금지할권리는없었을것이다. 그리고다른이들이무엇을성취할수있었을지누가알겠는가?

정부는왜성공하지못했을까?

“국가의낙후된상태가그것을방해했기때문이다. 낙후된대중은준비 가되어있지않았다.”

그러나볼세비키가대중의행동을의도적으로방해한이상이에대해실 제로알수있는것은없다. 마치다른사람의발을묶어놓고걷지못한다고놀 라는것과같다.

“다른정파의좌파들은볼세비키와협력하고자하지않았다.”

하지만이들은그들이악마라고여겼던볼세비키의명령과요구에맹목 적으로복종하고싶어하지않았다. 그렇기에그들은말하고행동하는것을 방해받게되었다.

“자본주의에의한고립화….”

정말그러하다 — 자본주의에의한포위는정부를방해할수있고퇴보 시킬수있다. 그러나우리가본것처럼그것은결코크나큰열정으로진정한 혁명을달성할준비가되어있는 수백만의사람들의자유로운활동을방해 하거나타락시킬수는없었다.

트로츠키처럼“혁명의배반”운운하는것은마르크스주의또는유물론 적개념뿐만이아니라보다평범한상식에서조차벗어난“설명”이다.

이“배반”은어떻게가능했으며그토록아름답고완벽한혁명의승리이 후의시대란어떻게발생했는가?

그것이진짜문제인것이다.

상황을면밀하게검토해보면이계획된“배반”이하늘에서떨어진것이 아니라혁명이취해온방식그자체에서파생된“물적物的”이자엄밀히논 리적인귀결이라는것을이해할것이다.

러시아혁명의부정적결과는단지특정한과정에서귀결된것에불과했다. 그리고스탈린주의정권은레닌및트로츠키에의하여수행된방책의불가피한귀결에불과했다. 트로츠키가“배반”이라고부르는것은실제로는 잘못된방법으로인해조금씩진행되어온타락의피치못할결과이다.

정확히말하자면, 정부와국가의절차가“배반”으로, 즉오늘날의“배반”을허용하는, 파산으로이어지는길을열어놓았다 — “배반”은이파산 의두드러진한측면일뿐이다. 다른절차들은다른가능성을초래했을수도 있다.

것을잊고있다. 정원에는호화로운문은있으나담장이없다. 그대로방치 되어있기때문에아무소용이없다.

또한“그들”은극장, 연단, 사격장과목욕탕까지만들었다. 하지만이 시설중어느것도광부들이사용할수없다. 그들은단지그곳에서노동자조 직의요직에있는책임자들이노동자들의돈을쉽게낭비하는지를바라볼 뿐이다. 이책임자들은“광부위원회정원”이라불리는사적인용도의작은 정원을자신들을위해마련했다. 그러나정작광부들, “회관”이니“클럽” 이니“공원”이니“광부위원회정원”이니하는것들을위해돈을낸노동자들, 그들은고를롭카의더러운거리만을마음대로방황할수있을뿐이다.

이호소는기적적으로「트루트 Trud」지誌에실렸다. 아마어떠한이 유로당국은광부에대한이호소의공표를거절할수없었고, 그리고그들의 불만의호소를바로잡고처벌을적용하기위해상부에서결정되었으리라는가정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렇게공표된하나의사례에비해수천의 다른사례들이알려지지않은채남아있는것이분명하다.

숨막히는교조주의, 모든개인생활과자유로운정신, 도덕적열정의부재, 열의로불타는장래에대한넓은비전의부족, 군대정신과숨막히는관료주의와노예근성과출세주의의횡행, 심지어사소한세부사항까지국가의명령에의해규제되는, 절망적일만큼천편일률로공허하고몰개성적인 생활 — 이것이소련에서의교육및“문화”的특성이다.

「콤소몰스카야프라브다 Komsomolskaya Pravda」(청년공산주의자의진리)<sup>7</sup>에의하면, 깊은환멸과“위험한”권태의정신이그나라의청년학생층에침투하고있다고했는데, 이사실에누가놀라겠는가? 그들을둘러싼환경전체가젊은이들에게우울한영향을끼치고있다.

그리고소비에트언론이인정하는바에따르면, 학생대다수가자신의 진짜흥미때문이아니라강제적으로수업을받고있다고한다. 그들중많은 학생이트럼프나하며밤을보내고있다.

한젊은학생의일기에서다음과같은구절이발견되었다.

“나는권태롭다. 나는끔찍할만큼권태롭다. 사람이든사건이든주의를끄는것이전혀없다. 나는무얼바라고있는가? 좋다, 나는학업을마칠 것이다. 그래, 나는엔지니어가될거야. 나는두칸방과멍청한아내, 영리한아이, 500루블의월급을받겠지. 한달두번의회의, 그리고그다음에는? … 이런삶을떠나는데후회가없느냐고스스로물어볼때, 나는답한다. 아니, 나는그다지후회하지않고그삶을떠날것이다.”

“볼세비키에의한여성해방”에대해서는많은소음이있어왔다. 진정한성평등, 법적결혼폐지, 여성의신체에대한자기결정권, 임신중단의권리 — 이러한모든“혜택”이모든나라의전위적언론에서구가되어왔다.

<sup>7</sup> 1936년 10월 20일.

이러한 “성과”도 역시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 독자들은 성평등과 자유에 대한 사상과 그 현실은 러시아의 급진적인 인사들에 의해 훨씬 이전 — 혁명보다도 훨씬 이전 — 부터 고려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혁명에서 탄생한 정부라면 어떤 정부라도 이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한 진전이란 꼭 볼 세비키에 국한된 특별한 것은 아니다. 볼 세비키 정부의 업적은 사실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볼 세비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자 했음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거듭되는 본질적 질문은 그것이 성공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이 한 단스텝 계실패했다는 것, 그제도와 그 실제적 결과들이 모든 것은 방종하게 하고, 후퇴시키고, 신화와 허구만을 간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된 사실들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결혼은 소련에서 폐지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것은 간소화되거나 민사民事가 되었는데, 혁명 전에는 종교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이 혼은 이전에는 민사였으나 현재는 금전적 조건과 별 치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적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sup>8</sup>

훈인 신고를 조사해 보면 매우 젊은 여성과 고령이지만 지위가 높은 남성 간에 결혼이 맺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소련 내에서도 역시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결혼은 볼 세비키가 믿었던 것처럼 사랑의 자유로운 결합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외형만을 바꾸어 그 나라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한 완전히 당연한 일이다. 오직 외형만 바뀌었을 뿐, 그 기반과 모든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에 실패하고자 본주의 국가 (별개의 국가라고 상상된) 의 건설에 성공한 볼 세비기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와 마찬가지로 가족, 어린이 등 남녀 관계에 관한 모든 것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치 못 할 일이었다. 이 분야의 상황은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바뀔 수 있었다. 사회 전체가 완전히 개조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뀌는 것만으로는 남녀 간의 관계, 가족 및 자녀를 포함한 모든 관습 역시 형식을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외양을 바꾸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예전 그대로 남는다.

그것이 소련에서 일어난 일이다. 1936년 5월부터 모든 “전위적 원칙”은 조금씩 폐기되었다. 일련의 새로운 법률이 결혼, 이혼, 배우자의 책임 등 을 규정했다.

이 법률은 비록 형태는 새로운 것이었으나 순수하고 단순하게 “부르주아 가족”的 기본형을 재확립한 것이다. 여성의 신체의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는 금지되었다. 임신 중단의 권리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오늘 날 그것

은 의사의 조언이 있거나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적인 허가 없을 경우 임신 중단 혹은 그것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sup>9</sup>

성매매는 소련에 널리 퍼져 있다. 이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에트”의 관습의 낮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심하게 러시아 언론의 일간 뉴스 요약과 지역 통신과 가족란 칸을 읽어보면 된다.

볼 세비기는 러시아 전위적 집단에 오랫동안 보급되어온 “성평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타 영광스러운 사회적, 도덕적 테제와 마찬가지로, 혁명의 전반적인 왜곡의 결과, 그 역시 변질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소련에서는 임금이 아니라 작업상의 “평등”에 대한 문제이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임금은 더 적다. 따라서 이 “평등”은 국가가 남성이 상으로 여성보다 더 많이 착취하도록 허용한다.

종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종교적 편견에 관해 볼 세비기의 태도가 옳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오류인데, 그 근원은 다시 말하지만 사실에 대한 무지에 있다.

볼 세비기 정부는 테러를 통해 대중의 예배를 억압하는데 한동안 성공했다. 그러나 볼 세비즘의 방책이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종교적 감정은 조금도 소멸되지 않고, 어떤 이는 점점 그것을 점점 강화하고, 어떤 이는 단순히 형태만을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혁명 이전, 특히 1905년 이후에는 종교적 감정이 대중 사이에서 쇠퇴한 상태에 있었고, 사제나 차르당국은 별로 심각하게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볼 세비즘은 다른 형태로 그들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한 셈이다.

종교는 테러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사회 혁명의 효과적인 성공과 그 행복한 결과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반종교의 씨앗이 사회 혁명의 성공이라는 비옥한 땅에 뿌려진다면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볼 세비기 정부가 그러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거나 그 노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그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따위의 반론이 때때로 내게 제기된다.

정말 그러하다. 그 정권의 훌륭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있을 수록 참된 사회 혁명과 참된 사회주의는 정부나 국가 적체제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더 명백해질 것이다.

“공산주의 정부는 성공을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어떤 이는 내게 말한다.

나는 그 말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그것을 원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성공했는가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다. 정부가 모든 선량한 의지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sup>8</sup> 1936년 6월 28일 「이즈베스티야 Izvestia」를 참조하라.

<sup>9</sup> 1936년 5월 법률을 참조하라. 그 법률 제정 이후 수많은 체포가 되어 따랐다.